THOMAS BULFINCH · THE AGE OF FABLE

그리스 로마 신화

토머스 불핀치

전41장 · 장마다 옛 명화 한 점

1855년 영어 원문을 옮긴 한국어 번역입니다.
신들의 이름은 그리스 이름으로 바꿔 옮겼습니다.
AI가 번역하고 검수했으며 전문 번역가의 교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41장 전체 본문 수록.

차례

1. 제1장 · 서론 5
2. 제2장 ·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24
3. 제3장 · 아폴론과 다프네 — 피라모스와 티스베 —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 37
4. 제4장 · 헤라와 그녀의 라이벌들: 이오와 칼리스토, 아르테미스와 악타이온, 레토와 촌사람들 54
5. 제5장 · 파에톤 73
6. 제6장 · 미다스 — 바우키스와 필레몬 87
7. 제7장 · 페르세포네 — 글라우코스와 스킬라 98
8. 제8장 · 피그말리온 — 드리오페 —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 아폴론과 히아킨토스 117
9. 제9장 · 케익스와 할키오네, 혹은 할키온 새 130
10. 제10장 · 베르툼누스와 포모나 143
11. 제11장 · 에로스와 프시케 151
12. 제12장 · 카드모스 — 미르미돈인 172
13. 제13장 · 니수스와 스킬라 — 에코와 나르키소스 — 클리티에 — 헤로와 레안드로스 185
14. 제14장 · 아테나 — 니오베 201

15. 제15장 · 그라이아이 또는 잿빛 처녀들 — 페르세우스 — 메두사 — 아틀라스 — 안드로메다 216

16. 제16장 · 괴물들..... 228

17. 제17장 · 황금 양털 — 메데이아..... 242

18. 제18장 · 멜레아그로스와 아탈란테 258

19. 제19장 · 헤라클레스 — 헤베와 가니메데스..... 269

20. 제20장 · 테세우스 — 다이달로스 —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282

21. 제21장 ·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298

22. 제22장 · 농촌의 신들 — 에리시크톤 — 로이코스 — 물의 신들 — 카메나이 — 바람 310

23. 제23장 · 아켈로오스와 헤라클레스 — 아드메토스와 알케스티스 — 안티고네 — 페넬로페 329

24. 제24장 ·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 아리스타이오스 — 암피온 — 리노스 — 타미리스 — 마르시아스 — 멜람포스 — 무사이오스..... 344

25. 제25장 · 아리온 · 이비코스 · 시모니데스 · 사포 361

26. 제26장 · 엔디미온 · 오리온 · 에오스와 티토노스 · 아키스와 갈라테이아..... 378

27. 제27장 · 트로이아 전쟁..... 392

28. 제28장 · 트로이아의 함락 — 그리스인의 귀향 —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421

29. 제29장 · 오디세우스의 모험 — 로토파고이족 — 키클롭스 — 키르케 — 세이렌 —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 칼립소..... 437

30. 제30장 · 파이아키아인 — 구혼자들의 최후..... 455

31. 제31장 · 아이네이아스의 모험 — 하르피이아이, 디도, 팔리누루스..... 474

32. 제32장 · 지옥 세계 — 시빌라 488

33. 제33장 · 카밀라 — 에반데르 — 니수스와 에우리알로스 — 메젠티우스 — 투르누스..... 505

34. 제34장 · 피타고라스 — 이집트 신들 — 신탁 527

35. 제35장 · 신화의 기원 — 신들의 조각상 — 신화의 시인들.... 548

36. 제36장 · 현대의 괴물들: 불사조, 바실리스크, 유니콘, 샐러맨더 564

37. 제37장 · 동양 신화 — 조로아스터 — 힌두 신화 — 카스트 — 부처 — 대라마 578

38. 제38장 · 북유럽 신화 — 발할라 — 발키리 595

39. 제39장 · 요툰헤임을 찾아간 토르..... 609

40. 제40장 · 발두르의 죽음 — 요정들 — 룬 문자 — 아이슬란드 — 게르만 신화 — 니벨룽의 노래..... 622

41. 제41장 · 드루이드 — 이오나..... 647

제1장

서론



라파엘로와 제자들, 「신들의 회의」(빌라 파르네시나 프시케의 로지아 천장화, 1517~1518)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는 사라졌다. 이른바 올림포스의 신들에게는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 숭배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은 이제 신학의 영역이 아니라 문학과 취향의

영역에 속한다. 그곳에서 신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이다.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시와 예술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과 너무나 깊이 얽혀 있어서, 망각 속으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대인에게서 전해 내려오고, 현대의 시인과 수필가와 연설가가 인용하는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상상력이 만들어 낸 가장 매력적인 허구를 즐기는 동시에, 당대의 우아한 문학을 제대로 읽어 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려면, 그리스인이 가졌던 우주 구조에 관한 생각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로마인은 그리스인에게서 과학과 종교를 받아들였고, 로마인을 통해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했다.

그리스인은 대지가 평평하고 둥글다고 믿었으며, 그들 자신의 나라가 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다. 중심점은 신들이 사는 곳인 올림포스 산이거나,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였다.

그리스인이 '바다'라고 부른 지중해와 그 연장인 흑해가 대지의 둥근 원반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며 똑같은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 두 바다는 그들이 알고 있던 바다의 전부였다.

대지를 둘러 오케아노스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물길은 대지의 서쪽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강물은 폭풍이나 태풍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고 고른 흐름으로 흘렀다. 바다와 대지 위의 모든 강은 이 오케아노스에서 물을 받았다.

대지의 북쪽 부분에는 히페르보레오스인이라 불리는 행복한 종족이 살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높은 산들 너머에서 영원한 축복과 봄 속에 살았는데, 그 산들의 동굴에서는 헬라스(그리스) 사람들을 얼어붙게 하는 북풍의 날카로운 바람이 뿜어져 나온다고 믿어졌다. 그들의 나라는 육로로도 해로로도 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질병과 노년, 노동과 전쟁에서 벗어난 채 살았다. 무어는 「히페르보레오스인의 노래」를 남겼는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햇살 밝은 깊은 바다 너머 땅에서 왔노라,
황금빛 정원이 빛나는 곳,
북풍이 잠들어 잔잔해져
그 고둥 나팔을 결코 불지 않는 곳."

대지의 남쪽, 대양 오케아노스의 물줄기 가까이에 히페르보레오스인처럼 행복하고 덕이 높은 백성이 살았다. 그들의 이름은 아이티오피아인이었다. 신들은 그들을 무척 아껴서, 때때로 올림포스의 거처를 떠나 그들의 제물과 잔치에 함께하곤 했다.

대지의 서쪽 가장자리, 대양 오케아노스의 물줄기 곁에는 엘리시온 들판이라 불리는 행복한 곳이 있었다. 신들의 총애를 받은 필멸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곳으로 옮겨져, 축복된 불멸의 삶을 누렸다. 이 행복한 땅은 "행운의 들판"이라고도 불렸고, "축복받은 자들의 섬"이라고도 불렸다.

이처럼 그리스의 초기 시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동쪽과 남쪽, 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민족 말고는 실제 민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동안 그들의 상상력은 이 바다의 서쪽 부분을 거인과 괴물과 마녀로 채웠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그다지 넓지 않다고 여겼을 땅의 원반 둘레에는 신들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 행복과 장수를 누리는 민족들을 놓았다.

새벽과 태양과 달은 동쪽 편의 오케아노스에서 떠올라 공중을 가로질러 달리며, 신들과 인간들에게 빛을 준다고 여겨졌다. 큰 수레 또는 곰자리를 이루는 별들과 그 근처의 다른 별들을 제외한 나머지 별들도 오케아노스의 흐름에서

떠올라 그 속으로 가라앉았다. 거기서 태양신은 날개 달린 배에 올라탔고, 그 배는 그를 대지의 북쪽 부분을 따라 실어 나르며 동쪽의 떠오르는 곳으로 되돌려 보냈다. 밀턴은 그의 『코머스』에서 이것을 암시한다.

> "지금 낮의 금빛 수레는
> 그 황금 축을 가파른 대서양 물결 속에서 식히고,
> 기우는 태양은 그 위로 솟는 빛살을
> 어두운 극을 향해 쏘아 올리며,
> 동쪽에 있는 자신의 침소를 향한
> 다른 목표를 향해 걸음을 옮긴다."

신들의 거처는 테살리아에 있는 올림포스 산꼭대기였다. 계절의 여신들이라고 불리는 여신들이 지키는 구름의 문이 열리면 천상의 존재들은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 돌아올 때도 그 문으로 맞아들여졌다. 신들은 각자 따로 거처를 가졌지만, 부름을 받으면 모두 제우스의 궁전으로 모였다. 평소 대지나 바다, 저승에 머무르는 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올림포스의 왕 궁전 큰 홀에서는 신들이 매일 음식과 음료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로 잔치를 벌였다. 넥타르는 아름다운 여신 헤베가 돌렸다. 신들은 그곳에서 하늘과 땅의 일을 이야기했다. 넥타르를 마실 때면 음악의 신 아폴론이 리라를

연주해 신들을 즐겁게 했고, 뮤사들은 그 가락에 맞추어 화답하듯 노래했다. 해가 지면 신들은 각자의 거처로 물러가 잠을 청했다.

『오디세이아』의 다음 구절은 호메로스가 올림포스를 어떻게 여겼는지 보여 준다.

> "그렇게 말하고 나서, 푸른 눈의 여신 아테나는
> 올림포스로 솟아올랐다. 신들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라
> 일컬어지는 곳, 폭풍이 흔들지 못하고
> 비가 적시지 못하며 눈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다. 오히려 고요한
> 드넓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가장 맑은 햇빛으로 빛난다.
> 그곳에서 신들은 기쁨을 누리며
> 영원히 살아간다."
> — 쿠퍼

여신들의 겉옷과 그 밖의 의복은 아테나와 은총의 여신들이 짰고, 더 단단한 것들은 여러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에서 건축가이자 대장장이, 무기 제작자, 전차 제작자였으며 온갖 솜씨 좋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신들의 집을 청동으로 지었고, 신들이 공중이나 물 위를 디딜 때 신는 황금 신발도 만들었다. 그 신을 신은 신들은 바람처럼, 아니 생각만큼 빠르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또한 그는 공중이나 바다 위로 신들의 전차를 끄는 하늘의 말들에게도 청동 편자를 박아 주었다.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이 만든 것에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주었다. 그래서 세 발 달린 의자와 탁자들은 제 힘으로 천상의 전당을 드나들 수 있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시중들라고 만든 황금 시녀들에게도 지능을 불어넣었다.

제우스(로마 이름 유피테르 또는 요베)는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라고 불렸지만, 그 자신에게도 시작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크로노스(로마 이름 사투르누스)였고, 어머니는 레아였다. 크로노스와 레아는 티탄족에 속했는데, 티탄족은 카오스에서 태어난 대지와 하늘의 자식들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또 다른 우주 생성론, 즉 세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설에 따르면 대지와 에레보스와 사랑이 가장 먼저 있던 존재들이었다. 사랑(에로스)은 밤의 여신의 알에서 나왔는데, 그 알은 카오스 위에 떠 있었다. 에로스는 화살과 횃불로 만물을 꿰뚫어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렇게 생명과 기쁨을 낳았다.

크로노스와 레아만 티탄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있었는데, 남신으로는 오케아노스, 히페리온, 이아페토스, 오피온이 있었고, 여신으로는 테미스, 므네모시네, 에우리노메가 있었다. 이들은 나이 많은 신들로 일컬어지며, 그 지배권은 나중에 다른 신들에게 넘어갔다. 크로노스는

제우스에게 물러났고, 오케아노스는 포세이돈에게,
히페리온은 아폴론에게 물러났다. 히페리온은 태양과 달과 새벽의 아버지였다. 그러므로 그는 최초의 태양신이며, 나중에 아폴론에게 주어진 빛과 아름다움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진다.

> “히페리온의 곱슬머리, 제우스 자신의 이마”
>
> — 셰익스피어.

오피온과 에우리노메는 올림포스를 다스렸으나 크로노스와 레아에게 왕좌에서 쫓겨났다. 밀턴은 『실낙원』에서 이들을 언급한다. 그는 이교도들이 인간의 유혹과 타락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듯하다고 말한다.

> “그들이 오피온이라 부른 뱀이 에우리노메와 함께 — 그 넓게 퍼져 나가는 이브였을지도 모른다 — 높은 올림포스를 처음 다스렸다고, 그러다 크로노스에게 쫓겨났다고 그들은 전설로 꾸며 말하였다.”

크로노스에 대한 묘사는 그리 일관되지 않다. 한편으로 그의 통치는 순진무구함과 순수함의 황금시대였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을 집어삼킨 괴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 운명을 피했고, 장성하자 메티스(지혜)를 아내로 맞았다. 메티스는 크로노스에게 약을 먹였고, 그 약으로 크로노스는 삼킨 자식들을 토해냈다. 제우스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버지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인 티탄들에게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을 물리친 제우스는 일부는 타르타로스에 가두고,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벌을 내렸다. 아틀라스는 하늘을 어깨에 떠받치는 형벌을 받았다.

크로노스가 폐위되자 제우스는 형제인 포세이돈(로마 이름 넵투누스)과 하데스(로마 이름 플루토)와 함께 아버지의 영토를 나누었다. 제우스의 몫은 하늘이었고, 포세이돈의 몫은 바다였으며, 하데스의 몫은 죽은 자들의 나라였다. 땅과 올림포스는 공동의 소유였다.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들의 왕이었다. 그의 무기는 천둥이었고, 그는 헤파이스토스가 그를 위해 만든 아이기스라는 방패를 지녔다. 독수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새였으며, 그의 번개를 날랐다.

헤라(로마 이름 유노)는 제우스의 아내이자 신들의 여왕이었다.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는 그녀를 시중드는 자이자 전령이었다. 공작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새였다.

헤파이스토스(로마 이름 불카누스)는 하늘의 장인이었으며,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었다. 그는 절뚝발이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불쾌하여 그를 하늘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다른 전승에서는 제우스가 그가 어머니 편을 들어 두 신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를 걷어차 쫓아냈다고 한다. 이 전승에 따르면

헤파이스토스의 절뚝거림은 그 추락의 결과였다. 그는 온종일 떨어져 내려가다가 마침내 렘노스 섬에 내려앉았고, 그 뒤로 그 섬은 그에게 바쳐진 성지가 되었다. 밀턴은 『실낙원』 제1권에서 이 이야기를 암시한다.

> "…아침부터
> 정오까지 그는 떨어졌고, 정오에서 이슬 맺힌 저녁까지,
> 한여름 하루 내내; 그리고 해가 질 무렵
> 천정(天頂)에서 떨어지는 별처럼 떨어져 내려
> 에게해의 섬, 렘노스에 닿았다."

아레스(로마 이름 마르스)는 전쟁의 신으로,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었다.

포이보스 아폴론은 궁술과 예언과 음악의 신으로,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이었으며 아르테미스(로마 이름 디아나)의 오빠였다. 그는 태양의 신이었고, 그의 누이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로마 이름 베누스)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었다. 다른 이들은 아프로디테가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그녀를 파도 위로 실어 키프로스 섬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계절의 여신들이 그녀를 맞아 옷을 입혀 주고 신들의 모임으로 이끌었다. 모든 신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고, 저마다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나섰다.
제우스는 번개를 벼려 준 헤파이스토스의 공로에 보답하여
그녀를 헤파이스토스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여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신들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신의
아내가 되었다. 아프로디테에게는 케스토스라 불리는 수놓은
허리띠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특히 아끼는 새는 백조와 비둘기였고,
그녀에게 바쳐진 신성한 식물은 장미와 도금양이었다.

에로스(로마 이름 쿠피도)는 사랑의 신으로,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었다. 그는 늘 어머니 곁에 있었고, 활과 화살을 들고
신들과 인간들의 가슴에 욕망의 화살을 쏘았다.
안테로스라는 신도 있었는데, 그는 때로 무시당한 사랑에
대한 복수자로, 때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상징으로
그려졌다. 그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가 언제까지나 아이로만 머문다고
테미스에게 불평했다. 테미스는 그것이 에로스가 외톨이이기
때문이며, 동생이 생기면 빠르게 자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테로스가 태어났고, 그러자 에로스는
곧바로 몸집과 힘이 눈에 띄게 빠르게 자라났다.

팔라스 아테나(로마 이름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어머니 없이 제우스에게서 태어났다.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히 무장한 채로 튀어나온 것이다. 그녀가 좋아한 새는 올빼미였고, 그녀에게 바쳐진 식물은 올리브였다.

바이런은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에서 아테나의 탄생을 이렇게 언급한다:

> "폭군들은 오직 폭군에게만 정복당할 수 있는가,
> 그리하여 자유는 투사도 아이도 찾지 못하는가,
> 콜럼비아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던 그런 이를, 그녀가
> 무장하고 흠 없는 팔라스로 솟아났던 그때에?
> 아니면 그런 정신은 야생에서 길러져야 하는가,
> 손질되지 않은 숲 깊숙이, 폭포들의
> 포효 한가운데서, 자연이 젖을 먹이며 미소 짓던
> 갓난 워싱턴 위에서? 땅의 품에는 더 이상 그런 씨앗이 없는가,
> 아니면 유럽에는 그런 해안이 없는가?"

헤르메스(로마 이름 메르쿠리우스)는 제우스와 마이아의 아들이었다. 그는 상업, 레슬링, 그 밖의 체육 경기를 주관했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관장했으며, 요컨대 솜씨와 재빠름을 요구하는 모든 일을 주관했다. 그는 제우스의

전령이었고,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었다. 그는 손에 두 마리의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것을 케리케이온이라 불렀다.

헤르메스가 리라를 발명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어느 날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등딱지를 떼어 내고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은 뒤 그 구멍들 사이로 아마실 줄을 걸었다. 그렇게 악기가 완성되었다. 줄은 아홉 가닥이었는데, 아홉 뮤사를 기리기 위해서였다. 헤르메스는 그 리라를 아폴론에게 주었고, 그 대가로 아폴론에게서 케리케이온을 받았다.

데메테르(로마 이름 케레스)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이었다. 그녀에게는 페르세포네(로마 이름 프로세르피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하데스의 아내가 되어 죽은 자들의 나라의 여왕이 되었다. 데메테르는 농업을 주관하였다.

디오니소스(로마 이름 바쿠스)는 술의 신이었으며, 제우스와 세멜레의 아들이었다. 그는 술이 가진 취하게 하는 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회에 가져오는 이로움과 좋은 영향도 함께 나타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문명을 널리 펴는 자, 법을 세우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로 여겼다.

뮤사들은 제우스와 므네모시네(기억)의 딸들이었다. 그들은 노래를 주관하였고, 기억을 일깨워 주었다. 뮤사는 모두 아홉이었으며, 각각 문학, 예술, 학문의 특정 분야를 맡았다. 칼리오페는 서사시의 뮤사였고, 클리오는 역사의 뮤사였다. 에우테르페는 서정시의, 멜포메네는 비극의, 테르프시코레는 합창 무용과 노래의, 에라토는 연애시의, 폴리힘니아는 신성한 시의, 우라니아는 천문학의, 탈리아는 희극의 뮤사였다.

은총의 여신들은 연회와 춤, 그리고 모든 사교의 즐거움과 우아한 예술을 주관하는 여신들이었다. 그들은 셋이었다. 이름은 에우프로시네, 아글라이아, 탈리아였다.

스펜서는 은총의 여신들이 맡은 일을 이렇게 묘사한다.

> “세 여신은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로운 선물을 베푸니,
> 몸을 꾸미고 마음을 장식하는 것이라,
> 사람을 사랑스럽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 단정한 몸가짐, 붙임성 있는 친절,
> 다정한 얼굴빛, 마음을 이어 주는 다정한 봉사,
> 그리고 예의의 모든 아름다운 꾸밈이 그러하다.
>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신분과 종류에 따라
> 우리 자신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 낮은 이에게나 높은 이에게나,
> 벗에게나 적에게나. 사람들은 이 기술을 ‘예절’이라 부른다..”

운명의 여신도 셋이었으니, 클로토와 라케시스와 아트로포스였다. 그들의 임무는 인간 운명의 실을 잣는 것이었고, 그들은 가위를 들고 있어서 마음이 내킬 때 그 실을 잘라 버렸다. 그들은 테미스(법)의 딸들이었는데, 테미스는 옥좌에 앉은 제우스 곁에 앉아 제우스에게 조언을 해 주었다.

에리니에스, 즉 복수의 여신들은 셋이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하거나 거역한 자들의 죄를 은밀한 쏘임으로 벌했다. 복수의 여신들의 머리에는 뱀이 감겨 있었고, 그들의 모습 전체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알렉토, 티시포네, 메가이라였다. 그들은 에우메니데스라고도 불렸다.

네메시스 역시 복수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신들의 정당한 분노, 특히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향한 분노를 나타냈다.

판은 양 떼와 목자의 신이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처는 아르카디아에 있었다.

사티로스들은 숲과 들의 신들이었다. 그들은 뻣뻣한 털로 덮여 있고, 머리에는 짧게 돋아난 뿔이 달려 있으며, 발은 염소의 발과 같다고 여겨졌다.

모모스는 웃음의 신이었고, 플루토스는 부의 신이었다.

로마의 신들

앞의 신들은 그리스 신이지만 로마인도 받아들였다. 다음에 나오는 신들은 로마 신화에만 있는 신들이다:

사투르누스는 고대 이탈리아의 신이었다. 그를 그리스 신 크로노스와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신화에서는 그가 유피테르에게 왕좌를 빼앗긴 뒤 이탈리아로 도망쳤다고 전한다. 그곳에서 그는 황금시대라 불린 시기를 다스렸다. 그의 자애로운 통치를 기려 해마다 겨울철에 사투르날리아 축제가 열렸다. 축제 기간에는 모든 공적인 업무가 중단되었고, 전쟁 선포와 사형 집행은 미뤄졌으며, 친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노예들은 큰 자유를 누렸다. 사람은 본래 평등하며 사투르누스의 치세에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속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노예들에게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노예들은 식탁에 앉고 주인들이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파우누스는 사투르누스의 손자로, 들판과 목자의 신으로 섬겨졌으며 예언의 신으로도 받들어졌다. 복수형인 파우누스들은 그리스의 사티로스들처럼 장난을 좋아하는 신들의 한 부류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퀴리누스는 전쟁의 신으로, 다름 아닌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라고 전해진다. 로물루스는 죽은 뒤 높이 받들어져 신들 가운데 자리를 얻었다.

벨로나는 전쟁의 여신이다.

테르미누스는 경계표의 신이다. 그의 상은 거칠게 다듬은 돌이나 기둥으로, 밭의 경계를 나타내려고 땅에 세워 두었다.

팔레스는 소와 목초지를 맡은 여신이다.

포모나는 과일나무를 맡은 여신이었다.

플로라, 꽃의 여신.

루키나, 출산의 여신.

베스타(그리스의 헤스티아)는 공공과 가정의 화덕을 주관하는 여신이었다. 그녀의 신전에서는 베스타의 무녀들이라 불리는 여섯 명의 처녀 사제가 지키는 신성한 불이 타올랐다. 도시의 안전이 그 불을 지키는 일과 맞물려 있다고 여겨졌기에, 무녀들이 불을 꺼뜨리면 엄하게 벌했고, 그럴 때면 불은 태양의 빛으로 다시 피워 올렸다.

리베르는 바쿠스의 라틴 이름이고, 물키베르는 불카누스의 라틴 이름이다.

야누스는 하늘의 문지기였다. 그는 한 해의 문을 열어 주었으며, 첫 달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불렸다. 그는 문을 지키는 신이어서, 흔히 머리가 둘 달린 모습으로 그려졌다. 문이란 어느 것이든 양쪽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로마에는 그를 모신 신전이 많았다. 전쟁 중에는 주요 신전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다. 평화로울 때는 문을 닫았는데, 누마의 치세부터 아우구스투스의 치세 사이에 문이 닫힌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페나테스는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돌보는 신들이라고 여겨졌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에게 바쳐진 식료품 저장실인 페누스에서 유래하였다. 집안의 가장은 저마다 자기 집의 페나테스를 모시는 사제였다.

라레스, 혹은 라르는 역시 가정의 신들이었으나, 페나테스와 달리 인간의 영혼이 신격화된 존재로 여겨졌다. 집안의 라르는 조상들의 영혼이라고 믿어졌으며, 그들은 후손들을 지켜보고 보호하였다. 레무르와 라르바라는 말은 우리말의 ‘유령’에 더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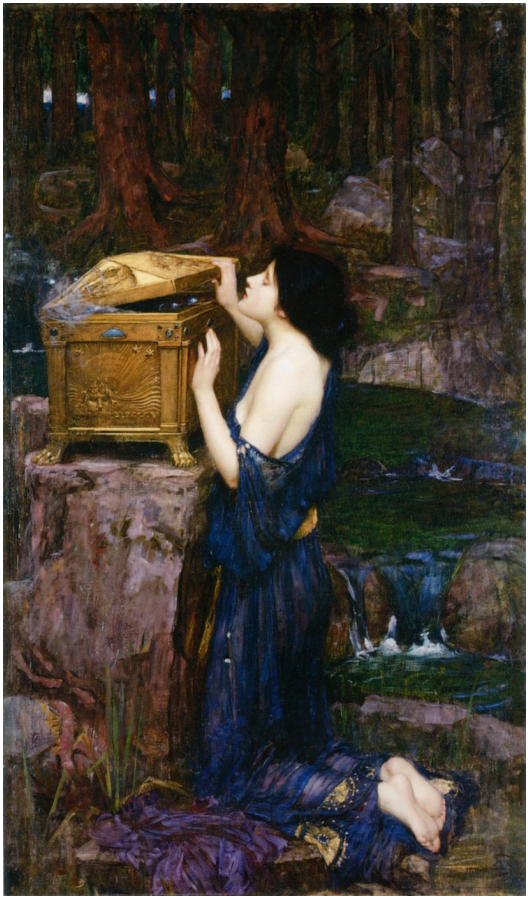
로마인들은 모든 남자에게 게니우스가 있고, 모든 여자에게는 유노가 있다고 믿었다. 즉 그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영혼이며, 평생 그들을 지켜 주는 수호자로 여겨지는 존재였다. 생일이 되면 남자들은 자신의 게니우스에게, 여자들은 자신의 유노에게 제물을 바쳤다.

한 현대 시인은 로마의 몇몇 신을 이렇게 언급했다:

> "포모나는 과수원을 사랑하고,
> 리베르는 포도나무를 사랑하며,
> 팔레스는 짚으로 지은 헛간을
> 소들의 숨결로 따뜻해진 헛간을 사랑한다.
> 그리고 베누스는 맹세한 젊은이와 처녀의
> 속삭임을 사랑하니,
> 사월의 상아빛 달빛 아래,
> 밤나무 그늘에서."
>
> — 매콜리, 「카피스의 예언」

제2장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판도라」(1896)

세계의 창조는 그 안에 사는 인간이 가장 생생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문제다. 옛 이교도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얻는 정보가 없었기에, 이 이야기를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전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생기기 전, 모든 것은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우리는 이를 카오스라 부른다. 그것은 뒤섞이고 형태 없는 덩어리였으며, 그저 생명 없는 무게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만물의 씨앗이 잠들어 있었다. 땅과 바다와 공기가 모두 뒤엉켜 있었으므로, 땅은 단단하지 않았고 바다는 흐르지 않았으며 공기는 투명하지 않았다. 마침내 신과 자연이 개입해 이 불화를 끝냈다. 그들은 땅을 바다에서, 하늘을 둘 다에서 갈라놓았다. 불의 성질을 띤 부분은 가장 가벼워서 위로 솟아올라 하늘을 이루었다. 공기는 무게로도 자리로도 그다음이었다. 더 무거운 땅은 아래로 가라앉았으며, 물은 가장 아래 자리를 차지해 땅을 떠받쳤다.

이때 어떤 신이, 어느 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지를 정리하고 배치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강과 만(灣)에 자리를 정해 주고, 산을 세우고, 골짜기를 파내고, 숲과 샘과 기름진 들판과 돌투성이 평원을 나누어 두었다. 공기가 맑아지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고기는 바다를 차지했고, 새는 하늘을, 네발짐승은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더 고귀한 동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창조주가 그를 신성한 재료로 빚었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막 떨어져 나온 땅 속에 아직 하늘의 씨앗이 남아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프로메테우스가 이 흙을 조금 떠서 물에 반죽하고, 신들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빚었다. 그는 인간을 꼿꼿이 서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이 얼굴을 아래로 숙여 땅만 바라보는 데 반해, 인간은 얼굴을 하늘로 들어 별들을 우러러보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땅에 살던 거대한 종족인 티탄족의 하나였다. 인간을 만드는 임무와,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이 살아남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는 임무는 그와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맡겨졌다. 에피메테우스가 이 일을 맡았고, 일이 끝나면 프로메테우스가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했다. 에피메테우스는 이에 따라 여러 동물에게 용기, 힘, 빠름, 영리함 같은 다양한 재능을 나누어 주었다.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다른 동물에게는 발톱을, 또 다른 동물에게는 단단한 껍질을 주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동물보다 뛰어나야 할 인간을 챙길 차례가 되자, 에피메테우스는 자기 자원을 너무 아낌없이 써 버려서 인간에게 줄 것이 남아 있지 않았다. 난감해진 그는 형 프로메테우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 태양의 전차에서 횃불을 붙여

불을 가지고 내려와 인간에게 주었다. 이 선물 덕분에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을 능가하게 되었다. 불로 동물을 제압할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땅을 일굴 연장을 만들 수 있었으며, 기후에 크게 얽매이지 않도록 집을 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 덕분에 인간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거래와 상업의 수단인 화폐를 주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여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전하는 바는 이렇다. 제우스가 하늘의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 형제의 오만을 벌하고, 그 선물을 받은 인간도 벌하기 위해 여자를 만들어 그들에게 보냈다. 최초의 여자는 판도라라고 불렸다. 그녀는 하늘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신이 그녀를 완전하게 하려고 무언가씩을 보탰다.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헤르메스는 설득력을, 아폴론은 음악을 주었다.
이렇게 갖추어진 그녀는 땅으로 보내져 에피메테우스에게 바쳐졌고, 그는 기쁘게 그녀를 받아들였다. 형이 제우스와 그의 선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항아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해로운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인간을 새 거처에 맞추어 준비하던 동안에는 그것들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판도라는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싶어 못 견딜 만큼 호기심이 들었고, 어느 날 뚜껑을 살며시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불행한 인간을 해치는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몸에는 통풍, 류머티즘, 복통 같은 병이, 마음에는 시기, 악의, 복수심 같은 것들이 찾아왔다. 판도라는 서둘러 뚜껑을 다시 덮었지만, 아아, 항아리 속 것들은 바닥에 남은 한 가지를 빼고 모두 빠져나가 버린 뒤였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희망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에 무슨 악이 돌아다니든 희망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는 한, 다른 어떤 재앙도 우리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판도라는 제우스가 인간을 축복하려고 선의로 보낸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혼인 선물이 든 상자가 주어졌는데, 그 상자 안에는 모든 신이 저마다 넣어 준 축복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조심성 없이 상자를 열자, 희망만 빼고 축복이 모두 빠져나가 버렸다. 이 이야기가 앞선 이야기보다 더 그럴듯해 보인다. 희망은 그토록 귀한 보석인데, 앞선 이야기처럼 온갖 재앙이 가득한 항아리 속에 어떻게 간직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세상에 주민이 채워지자, 첫 시대는 순진무구하고 행복한 시대로, 황금시대라 불렸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진실과 정의가 지배했고, 위협하거나 벌줄 관리도 없었다. 아직 숲은 배를 만들 목재를 빼앗기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기 도시 둘레에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칼이나 창이나 투구 같은

것도 없었다. 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내주었고, 사람은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봄이 늘 이어졌고, 씨도 없이 꽃이 피어났으며, 강에는 젖과 포도주가 흘렀고, 참나무에서는 노란 꿀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다음은 황금시대보다 못하지만 청동시대보다는 나은 은의 시대가 이어졌다. 제우스는 봄을 짧게 줄이고 한 해를 계절로 나누었다.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은 더위와 추위의 극심함을 견뎌야 했고, 집이 필요해졌다. 맨 처음 거처는 동굴이었고, 숲의 우거진 덤불이나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오두막이 그다음이었다. 이제 곡식은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았다. 농부는 씨를 뿌려야 했고, 힘겹게 일하는 소는 쟁기를 끌어야 했다.

다음으로 청동시대가 이어졌는데, 기질이 더 야만적이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데 더 익숙했지만, 완전히 사악하지는 않았다. 가장 혹독하고 가장 나쁜 시대는 철의 시대였다. 범죄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겸손과 진실과 명예는 달아났다. 그 자리를 사기와 교활함, 폭력, 그리고 이익에 대한 사악한 욕심이 차지했다. 그때 뱃사람들은 바람을 향해 돛을 펼쳤고, 배의 용골이 되도록 산에서 나무들이 뜯겨 나와 바다의 표면을 어지럽혔다. 지금까지 공동으로 경작되던 땅도 소유물로 나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땅 표면이 내주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 속을 파헤쳐, 거기서 금속 광석을 끄집어내야 했다. 해로운 쇠와 더 해로운 금이 나왔다. 두 가지를 무기로 삼은 전쟁이 일어났고, 손님은 친구의 집에서도 안전하지 못했다. 사위와 장인,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조차 서로를 믿을 수 없었다. 아들들은 상속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고, 가족 간의 사랑은 땅에 떨어졌다. 땅은 학살로 젖어 들었고, 신들은 하나씩 땅을 떠났다. 마침내 아스트라이아만 남았지만, 그녀마저 끝내 떠나고 말았다.

제우스는 이런 상태를 보고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신들을 회의에 불러 모았다. 신들은 부름에 응해 하늘의 궁전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맑은 밤이면 누구든 볼 수 있는 그 길은 하늘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데, 은하수라고 불린다. 길을 따라서는 이름 높은 신들의 궁전이 늘어서 있고, 하늘의 평범한 백성들은 양쪽으로 떨어져 산다. 제우스가 모인 신들에게 연설했다. 그는 땅 위의 끔찍한 상황을 펼쳐 보이고, 그곳의 모든 주민을 멸하고 첫 번째 인류와는 달리 살아갈 자격이 더 있고 신들을 훨씬 더 잘 섬기는 새로운 종족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말을 맺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번개를 집어 들고 세상을 향해 던져 불로 태워 없애려 했다. 그러나 그런 큰불이 하늘 자체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위험을 떠올리고는 계획을 바꾸어 세상을 물에 빠뜨리기로

했다. 구름을 흩어 놓는 북풍은 사슬에 묶였고, 남풍이 풀려나곤 온 하늘을 역청처럼 시커먼 어둠의 망토로 덮었다. 구름이 한데 몰려 쾅 소리를 내며 울렸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곡식은 쓰러졌고, 농부가 한 해 내내 흘린 노동은 한 시간 만에 사라졌다. 제우스는 자기 물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형제 포세이돈을 불러 그의 물로도 도와 달라고 했다.

포세이돈은 강들을 풀어놓아 땅 위로 쏟아 내게 했다. 동시에 그는 지진으로 땅을 뒤흔들고, 바다가 밀려들어 해안을 넘게 했다. 가축 떼와 사람들, 집들이 쓸려 갔고, 신성한 울타리를 두른 신전들도 더럽혀졌다. 어떤 건물이 남아 있더라도 물에 잠겼고, 그 탑들은 파도 밑에 숨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다였고, 해안 없는 바다였다. 여기저기 튀어나온 언덕 꼭대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둘 있었고, 몇몇은 조금 전까지 쟁기를 몰던 곳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었다.

물고기들은 나무 꼭대기 사이를 헤엄쳤고, 닻은 정원 속으로 내려갔다. 얌전한 어린 양들이 뛰놀던 곳에는 이제 육중한 바다표범들이 장난을 쳤다. 늑대는 양들 사이를 헤엄쳤고, 누런 사자와 호랑이들은 물속에서 버둥거렸다. 멧돼지의 힘도 그를 구하지 못했고, 사슴의 빠른 발도 소용없었다. 새들은 쉴 땅을 찾지 못해 지친 날개로 물에 떨어졌다. 물이 살려 준 생명들은 결국 굶주림의 먹이가 되었다.

파르나소스산만이 모든 산 가운데 파도 위로 솟아 있었고, 그곳에서 프로메테우스의 후손인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가 피난처를 찾았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녀는 신들을 성실히 섬기는 여인이었다. 제우스는 이 두 사람만이 살아남은 것을 보고, 그들의 해악 없는 삶과 경건한 품행을 떠올렸다. 그래서 북풍에게 명해 구름을 몰아내고, 하늘을 땅에 드러내고 땅을 하늘에 드러내게 했다. 포세이돈도 트리톤에게 명해 소라고둥을 불어 물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를 울리게 했다. 물은 순종했고, 바다는 해안으로 돌아갔으며, 강들은 제 물길로 돌아갔다. 그러자 데우칼리온이 피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아내여, 살아남은 유일한 여인이여. 먼저는 혈연과 혼인의 끈으로, 이제는 함께 겪은 위험으로 나와 묶인 사람이여. 우리 조상 프로메테우스가 가졌던 힘을 우리도 지녔더라면, 그가 처음 인류를 빚었듯이 종족을 새로 이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저기 저 신전으로 가서 신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그들은 진흙으로 더럽혀진 신전에 들어가 제단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불이 타고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땅에 엎드려 여신에게 비참해진 처지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빌었다. 신탁이 답했다. "머리를 가리고 옷띠를 풀고 신전을 떠나라.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두 사람은 그 말을 놀라며

들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피라였다. “우리는 따를 수 없어요. 우리 부모의 유골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그들은 숲의 가장 짙은 그늘을 찾아가 마음속으로 신탁을 되새겼다. 마침내 데우칼리온이 말했다. “내 판단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명령은 불경하지 않게 따를 수 있는 것이오. 땅은 만물의 위대한 어머니요. 돌들은 그분의 뼈요. 우리는 그 돌들을 등 뒤로 던질 수 있소. 신탁이 뜻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적어도 시도해 본다고 해서 해가 될 일은 없을 거요.”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옷띠를 풀고, 돌을 주워 등 뒤로 던졌다. 놀랍게도 돌들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여 모양을 갖추었다. 조각가의 손 안에서 반쯤 다듬어진 석재처럼, 차차 인간의 형상과 어설프게 닮아 갔다. 돌 주위의 습기와 진흙은 살이 되었고, 돌의 단단한 부분은 뼈가 되었다. 돌의 맥은 혈맥이 되어 이름은 그대로 두고 쓰임만 바뀌었다. 남자의 손에서 던져진 돌은 남자가 되었고, 여자의 손에서 던져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종족은 억세고 노동에 잘 맞았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그러하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드러내는 셈이다.

에바와 판도라를 견주는 비교는 너무도 명백해서 밀턴이 놓쳤을 리 없다. 그는 『실낙원』 제4권에서 이를 끌어들인다:

"신들이 온갖 선물을 내려 준 판도라보다 사랑스러운 그녀;
아, 슬프게도 그 끝이 너무도 닮았구나. 헤르메스가 야펫의 덜 현명한 아들에게
그녀를 데려갔을 때,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로
인류를 옭아맸다. 제우스의 참된 불을 훔쳐 간 자에게
복수하려고."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었는데, 밀턴은 이를 야펫으로 바꾸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시인들이 즐겨 다룬 소재였다. 그는 인류의 벗으로 그려지는데,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분노했을 때 그들을 위해 중재에 나섰고, 인간에게 문명과 기예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제우스의 뜻을 거슬렀고, 신들과 인간들의 통치자의 노여움을 자신에게 불러들였다. 제우스는 그를 코카서스산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 두었는데, 그곳에서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 먹었고, 간은 먹히는 족족 다시 자라났다. 이 고통은 프로메테우스가 억압자에게 굴복하기만 했다면 언제든 끝날 수 있었다. 그는 제우스의 왕좌의 안정과 관련된 비밀을 쥐고 있었고, 그것을 털어놓기만 했다면 곧바로 총애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비굴하다 여기며 단호히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부당한 고난을 의연하게 견디는 모습과, 억압에 맞서는 의지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바이런과 셸리도 이 주제를 다루었다. 다음은 바이런의 시구이다:

"티탄이여! 불멸의 눈으로
죽을 운명 인간들의 고통을
그 슬픈 실재 그대로 바라보았으나
신들이 경멸하는 것처럼 여기지는 않았던 그대여,
그 연민의 대가는 무엇이었던가?
말없이 견딘, 깊고 사무치는 고통이었으니.
바위, 독수리, 그리고 쇠사슬.
긍지 높은 자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드러내지 않는 번민,
숨 막히게 조여 오는 슬픔의 감각."

"신과 같은 그대의 죄는 자비로웠던 것이니,
그대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비참함의 총합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인간을 그 자신의 마음으로 굳세게 했던 것이다.
높은 곳에서 좌절당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대의 끈기 어린 힘 속에서,
견뎌 내고 물리치는,
대지와 하늘도 흔들지 못한
그대의 뚫리지 않는 정신 속에서,
우리는 크나큰 교훈을 물려받는다."

바이런 역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치는 송시」에서 같은 암시를 쓴다:

“아니면 하늘의 불을 훔친 자처럼
그대는 그 충격을 견딜 텐가?
용서받지 못한 그와 함께 나누겠는가,
그의 독수리와 그의 바위를?”

제3장

아폴론과 다프네 — 피라모스와 티스베 —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



피에로 델 폴라이올로, 「아폴론과 다프네」(1470~1480년경)

홍수의 물이 대지 위에 덮어 놓은 진흙은 지나친 비옥함을 낳았고, 그 비옥함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온갖 생명체를 불러냈다. 그중에 거대한 뱀 피톤이 기어 나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파르나소스 산의 동굴에 숨어 살았다. 아폴론은 화살로 그를 쓰러뜨렸다. 그 전까지 아폴론이 이 화살을 쓴 것은 토끼나 야생 염소 같은 힘없는 짐승들을 사냥할 때뿐이었다. 이 빛나는 승리를 기념하여 그는 피티아 경기를 세웠다. 힘이나 발의 빠르기, 전차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는 너도밤나무 잎으로 엮은 화관을 씌웠다. 월계수는 아직 아폴론이 자기 나무로 삼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아폴론 상은 '벨베데레'라고 불리는데, 이 조각상은 신이 뱀 피톤을 물리친 뒤의 모습을 나타낸다. 바이런은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4권 161연에서 이를 암시한다:

"……빗나가지 않는 활의 주인,
생명과 시와 빛의 신,
인간의 사지를 걸친 태양, 그 이마는
싸움에서 거둔 승리로 온통 빛난다.
화살은 방금 시위를 떠났다. 불멸자의 복수를 싣고
번쩍이며 날아간다. 그의 눈에서,
콧날에서, 아름다운 경멸과 힘이,
위엄이 번개처럼 한꺼번에 번쩍인다.
그 한순간의 눈빛 속에서 신성이 드러난다."

아폴론과 다프네

다프네는 아폴론의 첫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에로스의 악의에서 비롯되었다. 아폴론은 소년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다. 피톤을 물리친 최근의 승리로 우쭐해 있던 아폴론이 소년에게 말했다. "싸움에 쓰는 무기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건방진 소년아? 그런 무기는 그것에 걸맞은 손에 맡겨 두어라. 그 무기로 들판 위에 독이 든 몸을 수 에이커나 펼쳐 놓았던 거대한 뱀을 쓰러뜨린 나의 정복을 보아라! 아이야, 너는 횃불에 만족하고, 네가 말하는 불꽃을 원하는 곳에 피워 올리되, 내 무기에는 감히 손대지 마라."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되받아 말했다. "아폴론, 당신의 화살은 다른 모든 것을 맞힐 수 있겠지. 하지만 내 화살은 당신을 맞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파르나소스의 바위 위에 섰다. 그리고 화살통에서 만듦새가 다른 화살 두 개를 뽑았다. 하나는 사랑을 일으키는 화살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물리치는 화살이었다. 앞의 화살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끝이 날카로웠으며, 뒤의 화살은 끝이 무뎠고 납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납 화살로 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인 요정 다프네를 쏘았고, 금 화살로는 아폴론의 심장을 쏘았다. 그 즉시 신은 그 처녀에게 사랑에 빠졌고, 처녀는 사랑한다는 생각 자체를 혐오했다. 그녀의 기쁨은 숲속의 놀이와 사냥의 전리품에

있었다. 많은 구혼자가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숲을 누비며 그들을 모두 물리쳤고, 에로스도 히메나이오스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주 그녀에게 말했다. "딸아, 너는 내게 사위를 주어야 한다. 너는 내게 손자들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을 죄처럼 여기며 싫어했다. 아름다운 얼굴이 온통 붉게 물들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목을 두 팔로 감싸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아르테미스처럼 언제까지나 혼자 지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는 허락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다. "네 얼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폴론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얻고 싶어 했다. 온 세상에 신탁을 내리는 그였지만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볼 만큼 지혜롭지는 못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흐트러져 흩날리는 것을 보고 말했다. "흐트러져 있어도 이토록 아름다운데, 단정하게 매만지면 어떨까?" 그는 별처럼 빛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고, 그녀의 입술을 보았으며,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어깨까지 드러난 그녀의 손과 팔을 감탄하며 바라보았고, 가려진 부분은 그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는 바람보다 빠르게 달아났고, 그의 간청에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어라," 그가 말했다. "페네이오스의 딸이여, 나는 적이 아니다. 어린 양이 늑대를,

비둘기가 매를 피해 달아나듯 나를 피하지 마라. 나는 사랑 때문에 너를 쫓는 것이다. 네가 이 돌들 위에서 넘어져 다칠까 봐 걱정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면 그 원인이 나일 테니 나는 괴롭다. 제발 조금 천천히 달려라. 그러면 나도 천천히 따라가겠다. 나는 촌뜨기도 거친 농부도 아니다. 제우스가 내 아버지이며, 나는 델포이와 테네도스의 주인이다. 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안다. 나는 노래와 리라의 신이다. 내 화살은 과녁을 정확히 꿰뚫는다. 그러나 아아! 나의 화살보다 더 치명적인 화살이 내 심장을 꿰뚫어 버렸다! 나는 의술의 신이어서 모든 약초의 효능을 안다. 아아! 나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

요정은 달아나면서 반쯤만 나온 그의 간청을 뒤로한 채 계속 달렸다. 그리고 도망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녀는 그를 사로잡았다.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날렸고, 풀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등 뒤로 흘러내렸다. 신은 자신의 구애가 허사로 돌아가자 점점 조바심이 났고, 에로스의 재촉을 받아 경주에서 그녀와의 거리를 점점 좁혀 갔다. 그것은 토끼를 쫓는 사냥개와 같았다. 사냥개는 입을 벌린 채 덮칠 준비를 하고, 힘이 약한 짐승은 앞으로 튀어 나가며 막 물리려는 찰나에 빠져나간다. 신과 처녀가 그렇게 달렸다. 그는 사랑의 날개를 달고, 그녀는 두려움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그러나 쫓는 자가 더 빨랐고, 그녀와의 거리를 바짝 좁혀, 헐떡이는

숨결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녀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쓰러지기 직전 강의 신인 아버지를 불렀다. "도와주세요, 페네이오스! 저를 감추도록 땅을 열어 주시거나, 저를 이런 위험에 빠뜨린 이 모습을 바꿔 주세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가슴은 부드러운 나무껍질에 싸이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은 잎이 되었으며, 팔은 가지가 되었다. 발은 뿌리가 되어 땅에 박혔고, 얼굴은 나무의 우듬지가 되었다. 아름다움만은 그대로 남았을 뿐, 이전의 모습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폴론은 놀라서 멈추어 섰다. 그는 줄기를 만져 보았고, 새로 생긴 나무껍질 아래에서 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지를 끌어안고 나무에 입맞춤을 쏟아부었다. 가지는 그의 입술을 피해 움츠러들었다. "너는 나의 아내가 될 수 없으니," 그가 말했다. "반드시 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나의 관으로 쓰겠다. 너로 나의 리라와 화살통을 장식하겠다. 그리고 위대한 로마 정복자들이 카피톨로 개선 행렬을 이끌 때, 너는 그들의 이마에 씌울 화관으로 엮일 것이다. 나는 영원한 젊음을 지녔으니, 너 또한 언제나 푸르고 그 잎은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월계수로 변한 요정은 감사의 뜻을 담아 머리를 숙였다.

아폴론이 음악과 시의 신이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지만, 의술 역시 그의 소관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시인 암스트롱은 의사이기도 했는데, 그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 "음악은 기쁨을 드높이고, 슬픔을 달래며,
> 병을 몰아내고, 모든 고통을 누그러뜨린다.
> 그러므로 옛날의 현인들은
> 의술과 선율과 노래를 한 힘으로 받들었다."

시인들은 종종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를 암시한다. 월러는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경우에 빗대는데, 그 사람은 사랑의 시를 써서 애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지만 그 시로 널리 이름을 떨쳤다.

> "그가 불멸의 노래로 읊은 것은
> 비록 이루지 못했어도 헛되지 않았다.
> 그의 설움을 풀어 줄 요정만 빼고
> 모두가 그의 열정에 귀 기울이고 그의 노래를 칭찬한다.
> 이처럼 포이보스가 구하지 않은 칭찬을 얻었듯,
> 그는 사랑을 붙잡으려다 두 팔 가득 월계수 가지를 안았다."

셸리의 「아도나이스」에 나오는 다음 연은 바이런이 젊은 시절 비평가들과 벌인 다툼을 암시한다:

"무리 지은 늑대들, 쫓을 때만 대담하여라;
죽은 자 위에서 떠드는 불길한 까마귀들;
정복자의 깃발에 충실한 독수리들,
황폐가 먼저 먹고 간 자리에서 먹이를 쪼아 먹고,
그 날개는 전염병을 뿌리나니. 그들이 달아나던 모습이라니,
아폴론이 황금 활에서 화살을 쏘듯,
피톤을 무찌른 이 시대의 사수가 화살 하나를 날리고
미소 지었을 때! 약탈자들은 두 번째 일격을 자초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나가며 자신들을 걷어차는 오만한 발에 아첨한다."

피라모스와 티스베

피라모스는 바빌로니아 전역에서 가장 잘생긴 청년이었고, 티스베는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다. 바빌로니아는 세미라미스가 다스리던 나라였다. 두 사람의 부모는 담을 맞대고 사는 이웃이었다. 이웃이라는 사실이 두 젊은이를 가깝게 만들었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 우정은 사랑으로 무르익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싶었지만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두 사람의 가슴에서 같은 세기로 사랑이 타오르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몸짓과 눈길로 마음을 주고받았고, 감추어져 있었기에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두 집을 가르는 담에는 건축 과정의 어떤 결함 때문에 생긴 금이 있었다. 그전까지는 아무도 그 금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연인들은

그것을 찾아냈다. 사랑이 찾아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금은 목소리가 지나갈 통로가 되어 주었고, 다정한 전갈이 그 틈을 따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갔다. 피라모스는 이쪽에, 티스베는 저쪽에 서서 서로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이 있었다. "잔인한 담이여," 그들이 말했다. "왜 두 연인을 떼어 놓는가? 그래도 우리는 배은망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기꺼이 듣는 귀에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빚졌음을 인정한다." 두 사람은 담의 양쪽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밤이 되어 작별해야 할 때가 오면, 더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각자 자기 쪽에서 담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다음 날 아침, 에오스가 별들을 지우고 해가 풀잎의 서리를 녹였을 때, 두 사람은 늘 만나던 곳에서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달픈 운명을 한탄한 뒤, 다음 날 밤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 감시하는 눈을 피해 집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걸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확실히 만나기 위해 도시의 경계 밖에 서 있는 잘 알려진 건물, 니누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기로 했고, 먼저 도착한 쪽이 어떤 나무 밑에서 상대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것은 흰 뽕나무였고, 시원한 샘 곁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합의되자, 두 사람은 해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밤이 그 물에서 떠오르기를 조바심 내며 기다렸다. 그러자 티스베는 머리를 베일로 가린 채 식구들

몰래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무덤으로 향했고,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녀가 황혼의 어스름 속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방금 사냥을 마친 듯 턱에서 피 냄새를 풍기는 암사자 한 마리가 목을 축이려고 샘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티스베는 그 모습을 보고 달아나 바위의 움푹 팬 곳에 몸을 숨겼다. 달아나면서 그녀는 베일을 떨어뜨렸다. 샘에서 물을 마신 암사자는 숲으로 돌아가려다가, 땅에 떨어진 베일을 보고 피 묻은 입으로 그것을 이리저리 흔들어 찢어 놓았다.

그러는 사이 피라모스는 늦어져서 이제야 만남의 장소에 다가왔다. 그는 모래 위에 찍힌 사자의 발자국을 보았고, 그 광경에 뺨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윽고 그는 갈기갈기 찢기고 피에 젖은 베일을 발견했다. “오, 가련한 소녀여,” 그가 말했다. “내가 너의 죽음의 원인이로구나! 나보다 살 가치가 더 있는 네가 먼저 희생되었구나. 나도 뒤따르겠다. 이런 위험한 곳으로 너를 꾀어내고 그 자리에서 너를 지켜 주지 못한 것이 바로 내 죄다. 바위에서 나오너라, 사자들아, 이 죄 많은 몸을 이빨로 찢어라.” 그는 베일을 집어 들고 약속한 나무로 가져가, 입맞춤과 눈물로 뒤덮었다. “내 피도 그 천에 얼룩을 남기리라,”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 자신의 심장에 찔러 넣었다. 피가 상처에서 솟구쳐 나무의 하얀

오디들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피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뿌리에 닿았고, 그리하여 붉은빛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
열매까지 물들였다.

그 무렵 티스베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도, 연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조심스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연인을
애타게 찾았고, 자신이 피한 위험을 어서 그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 자리에 다다라 오디의 빛깔이 변한 것을 보자,
과연 같은 곳인지 의심스러웠다. 망설이고 있을 때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고요한 물 위에 이는
잔물결처럼, 그녀의 온몸에 떨림이 번졌다. 그러나 곧 그것이
연인임을 알아보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쳤다.
싸늘한 주검을 끌어안고, 그 상처에 눈물을 쏟고, 차가운
입술에 입맞춤을 새겼다. “오, 피라모스여,” 그녀가 외쳤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내게 대답해 다오, 피라모스.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티스베다. 내 말을 들어다오, 사랑하는 이여,
그 처진 머리를 들어다오!” 티스베라는 이름을 듣자
피라모스는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녀는 피에 젖은
자신의 베일과, 칼이 빠져나가 텅 빈 칼집을 보았다. “네 손이
너를 죽였구나,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녀가 말했다. “나도
이번만큼은 용기를 낼 수 있다. 내 사랑도 너의 사랑만큼
강하다. 내가 원인이었으니 죽음에서도 너를 따르겠다.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지만, 그 죽음조차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둘의 불행한 부모들이여, 우리가 함께 바라는 이 청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사랑과 죽음이 우리를 하나로 맺었으니, 한 무덤이 우리를 함께 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 나무여, 이 살육의 흔적을 간직하여라. 너의 열매가 우리 피를 기리는 기념물로 계속 남아 있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칼을 가슴에 찔러 넣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소원을 받아들였고, 신들도 받아들였다. 두 몸은 하나의 무덤에 묻혔고, 그때부터 그 나무는 오늘날까지 그러하듯 자줏빛 열매를 맺었다.

무어는 「실프의 무도회」에서 데이비의 안전등을 이야기하면서, 티스베와 그녀의 연인을 갈라놓았던 벽을 떠올린다:

"아, 저 등의 금속 그물망이여,
위험하고 금지된 불꽃을 둘러싸는
보호하는 철사의 장막이여,
데이비가 섬세하게 드리운 그것!

불꽃과 공기 사이에 그가 세운 벽은
(젊은 티스베의 기쁨을 가로막았던 그 벽처럼)
그 작은 구멍들을 통해 이 위험한 한 쌍은
서로를 볼 수는 있으나, 입 맞추지는 못하리라."

미클의 『루시아드』 번역에는 피라모스와 티스베 이야기, 그리고 오디의 변신을 가리키는 다음 구절이 나온다. 시인은 사랑의 섬을 이렇게 묘사한다.

> "…여기서는 포모나의 손이 가꾼 정원에 내리는 모든 선물이,
>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넘친다.
> 그 맛은 더 달고 그 빛깔은 더 곱다,
> 돌봄의 손이 일찍이 길러 낸 어떤 것보다도.
> 여기 버찌는 빛나는 진홍으로 타오르고,
> 연인들의 피로 물들어 주렁주렁 매달린
> 뽕나무 열매는 휘어진 가지를 짓누르듯 가득 열려 있다."

만일 우리의 어린 독자 가운데 가엾은 피라모스와 티스베를 희생 삼아 웃음을 즐길 만큼 모진 마음을 가진 이가 있다면,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을 펼쳐 보라.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가장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되어 있다.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

케팔로스는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사내다운 운동을 좋아했다. 그는 사냥을 하러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곤 했다.
에오스가 처음 밖을 내다보다가 그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반해 그를 훔쳐 갔다. 그러나 케팔로스는 막 매력적인 아내와 혼인한 참이었고,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다. 그녀의 이름은 프로크리스였다. 그녀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아끼는

사람이었다. 아르테미스는 그녀에게 어떤 경쟁자보다도 빨리 달리는 개 한 마리와, 결코 과녁을 빗나가지 않는 창을 주었다. 프로크리스는 이 선물들을 남편에게 주었다. 케팔로스는 아내와의 생활에 너무도 만족했기에 에오스의 간청을 모두 뿌리쳤다. 결국 에오스는 노하여 그를 돌려보내며 말했다. "가거라, 은혜를 모르는 필멸자여. 네 아내를 데리고 있어라. 내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너는 언젠가 그녀를 다시 보았던 것을 몹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케팔로스는 돌아왔고, 아내와 숲속의 사냥 생활에서 여전히 그지없이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화난 신이 나라를 괴롭히려고 굶주린 여우 한 마리를 보냈다. 사냥꾼들은 그것을 잡으려고 큰 무리를 이루어 나섰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헛되었다. 어떤 개도 그 여우를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케팔로스에게 가서 그의 이름난 개를 빌려 달라고 청했다. 개의 이름은 렐라프스였다. 개가 풀려나자마자 그는 사람의 눈이 미처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려 나갔다.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지 못했더라면, 사람들은 그가 날아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케팔로스와 다른 이들은 언덕 위에 서서 그 달리기를 지켜보았다. 여우는 온갖 재주를 다 부렸다. 원을 그리며 달리다가 제 발자국을 되돌아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개는 바짝 뒤쫓아 입을 벌리고 뒤꿈치를 물려 했지만, 허공만 물

뿐이었다. 케팔로스가 막 창을 던지려 할 때, 그는 갑자기 개와 사냥감이 둘 다 즉시 멈추는 것을 보았다. 두 짐승을 내려 준 하늘의 힘은 어느 쪽도 이기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바로 그 자세 그대로, 둘은 돌로 굳어 버렸다. 너무도 살아 있는 듯 자연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쪽이 곧 짖을 것이고 다른 쪽은 앞으로 뛰어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케팔로스는 개를 잃었지만 여전히 사냥에서 즐거움을 얻었다. 그는 이른 아침에 나가, 아무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숲과 언덕을 누볐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창은 어떤 경우에도 틀림없는 무기였기 때문이다. 사냥에 지치면 해가 높이 떠오를 때 그늘진 구석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풀밭에 몸을 뻗고 옷을 벗어 던진 채 산들바람을 즐겼다. 때로는 소리 내어 말했다. "오라, 달콤한 산들바람이여, 와서 내 가슴을 부채질해 다오. 와서 나를 태우는 이 열기를 식혀 다오." 하루는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가 공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어리석게도 케팔로스가 어떤 처녀에게 말하고 있다고 믿고는 그 비밀을 케팔로스의 아내 프로크리스에게 가서 일러바쳤다. 사랑은 쉽게 믿는다. 프로크리스는 그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곧 정신을 되찾은 그녀는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어.” 그래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케팔로스가 평소처럼 사냥을 나갈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몰래 그의 뒤를 따라가, 밀고자가 가리킨 곳에 몸을 숨겼다. 케팔로스는 사냥에 지쳤을 때 늘 하던 대로 왔다. 그는 푸른 둑에 몸을 뉘며 말했다. “오라, 달콤한 산들바람이여, 와서 나를 부채질해 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지! 너는 숲과 나의 외로운 산책을 즐겁게 만들어 주지.” 그는 이렇게 계속 말하다가, 덤불 속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아니,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어떤 들짐승이라고 여기고, 그 자리를 향해 창을 던졌다. 사랑하는 프로크리스의 비명이 들려왔을 때에야, 그 무기가 너무도 정확히 과녁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달려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점점 힘이 빠지는 가운데도 상처에서 창을 뽑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 창은 그녀 자신이 준 선물이었다. 케팔로스는 그녀를 땅에서 안아 일으키고 피를 멎게 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남겨 두지 말라고,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게 하지 말라고 애타게 외쳤다. 그녀는 힘없는 눈을 뜨고, 간신히 몇 마디를 입 밖으로 냈다. “간절히 부탁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서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나의 남편이여,

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저 역겨운 산들바람과는 결혼하지 마세요!" 이 말로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아, 이제 와서 그것을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케팔로스가 그녀에게 진실을 이해시켰을 때, 그녀는 남편을 측은하게, 그리고 용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어는 『전설 발라드』에서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를 다룬 시 한 편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어느 날 사냥꾼이 숲 속에 누워 쉬었다,
한낮의 밝은 눈을 피하려고.
그는 자주 떠도는 바람을 불러
그 한숨으로 이마를 식히려 했다.
들벌의 웅웅거림도 잠잠하고,
사시나무의 잎을 흔들 숨결도 없을 때,
그의 노래는 이어졌다. '달콤한 바람이여, 오소서!'
그러자 에코가 답했다. '오소서, 달콤한 바람이여!'"

제4장

헤라와 그녀의 라이벌들: 이오와 칼리스토, 아르테미스와 악타이온, 레토와 촌사람들



페테르 파울 루벤스, 「헤라와 아르고스」(1610년대)

헤라는 어느 날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을 알아차렸고, 곧바로 남편이 남에게 드러내지 못할 일을 감추려고 구름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녀는 구름을 걷어 내었고,

유리처럼 맑은 강가에 남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곁에는 아름다운 암소 한 마리가 서 있었다. 헤라는 그 암소의 모습 안에 사람의 몸을 한 어떤 아름다운 요정이 숨어 있다고 의심했는데, 실제로 그러했다. 그 암소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고, 제우스가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가 아내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자 그녀를 암소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헤라는 남편에게 다가가 암소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러고는 이 소가 누구의 것이며 어느 무리에서 왔는지 물었다. 제우스는 더 묻지 못하게 하려고, 이 소는 대지에서 새로 생겨난 것이라고 대답했다. 헤라는 그 소를 선물로 달라고 청했다. 제우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자기 연인을 아내에게 내주기는 싫었다. 그러나 평범한 암소 한 마리라는 그 하찮은 선물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거절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결국 허락했다. 그래도 여신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헤라는 그 암소를 아르고스에게 넘겨 엄중히 감시하게 했다.

그런데 아르고스의 머리에는 눈이 백 개나 있었고, 한 번에 두 눈 이상을 감고 잠드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늘 이오를 지켜볼 수 있었다. 낮에는 이오가 풀을 뜯게 두었고, 밤에는 그녀의 목에 끔찍한 밧줄을 묶어 매어 두었다. 이오는

아르고스에게 자유를 달라고 애원하려 두 팔을 뻗고 싶었지만, 뻗을 팔이 없었다. 목소리는 울음소리뿐이었고, 그 소리는 자기 자신조차 놀라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자매들을 보았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 등을 쓰다듬게 두었으며, 그들이 자기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이나코스는 풀 한 줌을 내밀었고, 그녀는 뻗어 온 손을 핥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싶었고, 그 바람을 말로 하려 했다. 그러나 아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글을 쓸 생각을 해 냈고, 모래 위에 발굽으로 자기 이름을 새겼다. 이름은 짧았다. 이나코스는 그 이름을 알아보았다. 오래도록 찾아 헤맸던 딸이 이 모습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슬퍼하며 그녀의 하얀 목을 끌어안고 외쳤다. “아아, 내 딸아, 너를 아주 잃어버렸더라면 이보다 슬픔이 덜했을 것을!” 그가 이렇게 탄식하는 동안 아르고스가 이를 지켜보다가 다가와 그녀를 쫓아내고, 높은 둔덕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그는 사방 어디든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제우스는 연인이 겪는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헤르메스를 불러 가서 아르고스를 처치하라고 명했다. 헤르메스는 서둘러 날개 달린 신발을 발에 신고,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을 불러오는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그러고는 하늘의 누각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땅에 내려서는 날개를

떼어 놓고 지팡이만 들었다. 그 지팡이로 그는 양 떼를 몰고 가는 목동의 모습을 꾸몄다. 걸으면서 그는 피리를 불었다. 그것은 이른바 시링크스, 곧 판의 피리였다. 아르고스는 그 소리에 기뻐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런 악기는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이," 아르고스가 말했다. "이리 와서 이 돌 위에 나와 함께 앉게. 자네 양들이 풀을 뜯기에 이 근방보다 좋은 곳은 없고, 여기에는 목동들이 좋아하는 그늘도 있다네." 헤르메스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깨어 있는 눈을 잠들게 하려고 가장 나른하고 부드러운 가락을 피리로 불었다. 그러나 모두 헛일이었다. 아르고스는 나머지 눈을 감더라도 몇 개의 눈은 용케 여전히 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헤르메스는 자기가 부는 악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들려주었다. "어떤 요정이 있었는데 이름은 시링크스였다. 숲의 사티로스들과 정령들이 그녀를 몹시 사랑했지만, 그녀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르테미스를 충실히 섬기며 사냥을 따라다녔다. 사냥복을 입은 그녀를 보았다면 아르테미스 자신인 줄 알았을 것이다. 다만 그녀의 활은 뿔로 만들어졌고 아르테미스의 활은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달랐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녀를 판이 만났다. 판은 바로 이런 말을 했고,

같은 종류의 말을 더 늘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찬사를 듣지도 않고 달아났으며, 판은 강기슭에 이를 때까지 쫓아갔다. 거기서 판이 그녀를 따라잡았고, 그녀는 물의 요정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 틈밖에 없었다. 요정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녀를 돕기로 했다. 판은 요정의 몸이라고 생각한 것을 두 팔로 끌어안았지만, 품에 안긴 것은 갈대 한 묶음뿐이었다! 그가 한숨을 내쉬자 그 숨결이 갈대 사이로 지나가며 구슬픈 가락을 냈다. 신은 그 새로움과 음악의 달콤함에 매료되어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라도 너는 내 것이 되리라.' 그러고는 갈대를 몇 대 꺾어 길이가 서로 다르게 나란히 묶어 악기를 만들었고, 그 요정을 기려 그것을 시링크스라고 불렀다." 헤르메스가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는 아르고스의 눈이 모두 잠든 것을 보았다. 머리가 가슴 쪽으로 기울자 헤르메스는 한 번의 칼질로 그 목을 베어 버렸고, 머리는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가엾은 아르고스여! 백 개의 눈빛이 한꺼번에 꺼져 버렸다. 헤라는 그 눈들을 거두어 자신의 공작 꼬리에 장식으로 달아 두었고, 그 눈들은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다.

그러나 헤라의 복수심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쇠파리를 보내 이오를 괴롭혔고, 이오는 그 추적을 피해 온 세상을 달아났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딴 이오니아 바다를 헤엄쳐 건넜고, 이어 일리리아의 들판을 떠돌다가 하이모스

산에 올랐다. 그리고 트라키아의 해협을 건넜는데, 그곳은 이후 보스포루스(소의 나루)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스키티아와 킴메리오이인의 땅을 헤매다가 마침내 나일강 기슭에 이르렀다. 결국 제우스가 그녀를 위해 중재에 나섰다. 제우스가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헤라는 이오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데 동의했다. 그녀가 점차 원래의 자신을 되찾아 가는 모습은 신기했다. 거친 털이 몸에서 빠져나갔고, 뿔은 오그라들었으며, 눈은 가늘어지고 입은 짧아졌다. 앞발굽은 손과 손가락으로 바뀌었다. 요컨대 암소에게서 남은 것은 아름다움뿐이었다. 처음에는 울음소리가 나올까 두려워 말하기를 꺼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버지와 자매들에게로 돌아갔다.

리 헌트에게 바친 키츠의 한 시에는 판과 시링크스 이야기를 암시하는 다음 구절이 나온다:

> “그러했으리라, 가지를 젖혀 열었던 그가,
> 우리가 넓은 숲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들려주며, 아름다운 시링크스가 떨면서
아르카디아의 판을 피해 그토록 겁에 질려 달아난 이야기를.
가엾은 요정, 가엾은 판이여. 그는 얼마나 울었던가, 찾고 보니 남은 것이라곤
갈대 우거진 시냇가를 따라 부는 바람의 사랑스러운 한숨뿐이었으니,
반쯤만 들리는 가락,
달콤한 쓸쓸함과 향긋한 아픔으로 가득한 가락이었다."

칼리스토

또 다른 처녀 칼리스토도 헤라의 질투를 샀고, 여신은 그녀를 곰으로 바꾸어 버렸다. "네가 내 남편을 홀린 그 아름다움을 내가 앗아 가겠다." 헤라가 말했다. 칼리스토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애원하려고 팔을 뻗어 보았지만, 팔은 이미 검은 털로 덮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손은 둥글어지며 굽은 발톱이 돋아나 발 구실을 하게 되었다. 제우스가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던 입은 끔찍한 턱이 되었다.
그대로였다면 듣는 이의 마음을 가엾이 여기게 했을 목소리는 으르렁거림으로 바뀌어, 오히려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알맞은 소리가 되었다. 그래도 그녀의 예전 성품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신음하며 자기 운명을 한탄했고, 할 수 있는 한 몸을 곧추세우고 앞발을 들어 자비를 구했다. 제우스가 무정하다고 느꼈지만, 그것을 그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아, 밤새 숲에 혼자 머무르기가 두려워, 그녀는 얼마나 자주 옛 거처 근처를 헤매었던가! 얼마나 자주 개들에게 놀라, 불과 얼마 전까지 사냥꾼이었던 그녀가 사냥꾼들에게서 겁에 질려 달아났던가! 그녀는 이제 자신도 들짐승이라는 것을 잊고 야수들에게서 도망쳤다. 곰이면서도, 곰들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냥을 하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보았고, 이제 청년이 된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녀가 막 다가가려 하자, 그는 놀라 사냥창을 치켜들었고, 그녀를 꿰뚫으려는 찰나였다. 그 광경을 본 제우스가 그 범행을 막고, 두 모자를 함께 낚아채 하늘에 올려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로 삼았다.

헤라는 라이벌이 그토록 높이 받들어지는 것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고, 서둘러 바다의 힘인 오랜 신 테티스와 오케아노스를 찾아갔다. 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헤라는 자기가 찾아온 까닭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신들의 여왕인 내가 하늘의 들판을 떠나 당신들의 깊은 곳을 찾아온 까닭을 묻는가? 들어 보라. 나는 하늘에서 밀려났다. 내 자리를 다른 여자가 차지했다.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밤이 세상을 어둡게 덮을 때 보라. 내가 그토록 원망할 이유가 있는 그 두

모자가 하늘로 높이 올려져 있을 것이다. 가장 작은 원을 그리는 곳, 극점 가까이에서 말이다. 헤라의 노여움이 이토록 큰 보상을 가져온다면, 앞으로 누가 나를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보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나는 그녀가 인간의 모습을 하는 것을 막았다. 그런데 그녀는 별들 사이에 놓였다. 내 벌은 이렇게 결과를 맺는다. 이것이 나의 힘의 크기다! 차라리 내가 이오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그녀가 옛 모습을 되찾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아마 그는 그녀와 혼인해 나를 내쳐 버리려는 것이겠지! 그러나 나의 양부모인 당신들이 나를 가엾게 여긴다면, 나에게 이토록 부당한 대접이 벌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간청하노니 그 죄 많은 두 모자가 당신들의 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시오." 바다의 힘들은 이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 두 별자리는 하늘에서 계속 돌기만 할 뿐, 다른 별들처럼 바다 아래로 가라앉지 못하게 되었다.

밀턴은 곰자리가 결코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이렇게 말한다:

> "한밤중에 내 등불이
> 외로운 높은 탑에서 보이게 하라,
> 거기서 나는 자주 곰자리보다 오래 깨어 있으리" 등등.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제임스 러셀 로웰의 시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씩 하나씩 별들이 떠올랐다 지고,
내 사슬의 서리 위에서 반짝였다.
밤새 북극성의 울타리 둘레를 어슬렁대던 곰은
쾌활한 새벽의 발걸음에 놀라
제 굴속으로 움츠러들었다."

작은곰자리의 꼬리 끝에 있는 마지막 별은 북극성인데, 키노수라라고도 불린다. 밀턴은 이렇게 말한다:

"곧바로 내 눈이 새로운 기쁨을 붙잡았도다,
그 둘레의 풍경을 재는 동안에.

높이 솟은 탑과 성벽이 내 눈에 보이나니,
무성한 나무들 높은 품에 안겨 있구나,
그 어딘가에 어쩌면 미인이 자리하여
이웃 눈길들의 키노수라가 되었으리라."

이 구절은 뱃사람들의 길잡이로서의 북극성과 북쪽 자기력을 함께 가리킨다. 시인은 이 별을 또한 '아르카디아의 별'이라고 부르는데, 칼리스토의 아들 이름이 아르카스였고 그들이 아르카디아에 살았기 때문이다. 『코머스』에서 밤이 되어 숲속에서 길을 잃은 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 어떤 다정한 촛불이라도!
비록 흙집의 버들가지 구멍에서
새어 나오는 골풀 심지 하나일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그 길게 곧게 뻗은 흐르는 빛의 자로 비춰 준다면,
너는 우리의 아르카디아의 별이 되리니,
또는 티로스인의 키노수라가 되리라."

아르테미스와 악타이온

이처럼 우리는 두 사례에서 헤라가 경쟁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보았다. 이제 처녀 여신이 자기 은밀한 곳을 침범한 자를 어떻게 벌했는지 알아보자.

그때는 정오였고, 해는 동쪽과 서쪽 어느 끝에서나 똑같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카드모스 왕의 아들 젊은 악타이온이 산에서 함께 사슴을 쫓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 우리의 그물과 무기는 사냥감의 피로 젖어 있다. 하루치 사냥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일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제 포이보스가 대지를 달구고 있으니, 연장을 내려놓고 쉬면서 몸을 편하게 두자."

사이프러스와 소나무가 빽빽이 둘러싼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사냥의 여신인 여왕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성지였다. 골짜기 맨 안쪽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람의 솜씨로 꾸민 동굴은 아니었지만, 자연이 그 짜임새에서 사람의 솜씨를 흉내 냈다. 천장의 아치를 이루는 돌들이 마치 사람의 손으로 맞춘 것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샘이 솟아 나왔는데, 열린 물웅덩이의 가장자리는 풀이 돋은 둔덕으로 둘러져 있었다. 숲의 여신은 사냥에 지치면 이곳으로 와서 반짝이는 물에 처녀의 몸을 씻곤 했다.

어느 날 여신은 요정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렀다. 한 요정에게는 창과 화살통과 활을 건네고, 다른 요정에게는 겉옷을 맡겼으며, 또 다른 요정은 여신의 발에서 샌들을 벗겼다. 그 가운데 가장 솜씨 좋은 크로칼레가 여신의 머리를 매만졌고, 네펠레와 히알레 등 나머지 요정들은 큼직한 항아리에 물을 길었다. 여신이 이렇게 몸단장에 바쁜 동안, 악타이온이 동료들과 헤어져 특별한 목적도 없이 떠돌다가 운명에 이끌려 그곳에 이르렀다. 그가 동굴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요정들은 사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여신을 몸으로 가리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여신은 다른 이들보다 키가 컸으므로 요정들 위로 머리 하나만큼 솟아 있었다. 뜻밖의 일을 당한 아르테미스의 얼굴에는 해 질 녘이나 새벽에 구름을 물들이는 것과 같은 붉은빛이 번졌다. 요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신은 몸을 반쯤 돌리며 갑작스럽게 화살을 찾았다. 화살이 손에 없자, 여신은

침입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가서 말해 보라. 할 수 있다면, 옷을 벗은 아르테미스를 보았다고.” 그러자 곧바로 그의 머리에서 가지 친 수사슴의 뿔이 돋아났고, 목은 길어졌으며, 귀는 끝이 뾰족해졌다. 손은 발굽이 되었고, 팔은 긴 다리가 되었으며, 몸은 털이 빽빽하고 얼룩진 가죽으로 뒤덮였다. 그전의 대담함 대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영웅은 달아났다. 그는 자신의 빠른 발놀림에 스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물에 비친 자신의 뿔을 보았을 때, 그는 “아아, 가엾은 나!”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신음했고, 자기 얼굴을 대신하게 된 그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그의 의식은 남아 있었다. 그는 어찌해야 하는가? 궁전으로 돌아가 집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숲속에 숨을 것인가? 후자는 두렵고, 전자는 부끄러워 할 수 없었다. 그가 망설이는 동안 사냥개들이 그를 발견했다. 먼저 스파르타 개 멜람포스가 짖어 신호를 보냈고, 그다음 팜파구스, 도르케우스, 렐라프스, 테론, 나페, 티그리스, 그리고 나머지 개들 모두가 바람보다 빠르게 그를 쫓았다. 그는 바위와 절벽을 넘고, 지나갈 수 없을 듯한 산골짜기를 가로질러 달아났고, 개들은 뒤를 쫓았다. 그가 수없이 사슴을 쫓고 자신의 사냥개 무리를 응원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그 무리가 사냥꾼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를 쫓았다. 그는 “나는

악타이온이다. 너희 주인을 알아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말은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 공기는 개들의 짖는 소리로 울렸다. 곧 한 마리가 그의 등에 달라붙었고, 다른 한 마리는 어깨를 물었다. 그들이 주인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나머지 무리가 몰려와 그의 살에 이빨을 박았다. 그는 신음했다.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확실히 사슴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을 들었으며, 팔이 있었다면 탄원하듯 팔을 들어 올렸을 것이다. 그의 벗들과 동료 사냥꾼들은 개들을 부추기며 사방에서 악타이온을 찾았고, 사냥에 합류하라고 그를 불렀다. 그 이름이 들리자 그는 고개를 돌렸고, 그가 자리에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정말 그 자리에 없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개들이 해내는 활약을 보는 것은 기쁜 일이었겠지만, 그것을 몸으로 겪는 것은 너무 가혹했다. 개들은 사방에서 그를 찢고 물어뜯었고, 그들이 그의 목숨을 앗아 간 뒤에야 아르테미스의 분노는 가라앉았다.

셸리의 시 「아도나이스」에는 악타이온 이야기를 암시하는 다음 구절이 나온다:

"덜 알려진 이들 사이로 한 연약한 형상이 왔으니,
사람들 가운데 떠도는 유령과 같았다: 동무도 없이
사라져 가는 폭풍의 마지막 구름처럼,
그 천둥이 곧 그 조종(弔鐘)인 듯했다. 짐작건대 그는
벌거벗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기에,
악타이온처럼 되어, 이제 길을 잃고 달아났다
세상의 황야를 가로질러 힘없는 걸음으로;
그리고 그의 생각들은 그 거친 길을 따라,
미친 듯 날뛰는 사냥개처럼 제 아비이자 사냥감인 그를 쫓았다."

제31연.

그 암시는 아마 셸리 자신을 가리킬 것이다.

레토와 시골 사람들

어떤 이들은 이번 일에서 여신이 공정함을 넘어 지나치게 가혹했다고 여겼고, 다른 이들은 그녀의 처신이 처녀 여신으로서의 위엄에 꼭 맞는다고 칭찬했다. 늘 그렇듯 최근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옛일을 떠올리게 했고,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젠가 리키아의 몇몇 시골 사람들이 여신 레토를 모욕했는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힘든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소를 몇 마리 몰고 오라며 저를 리키아로 보내셨지요. 그곳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연못과 늪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처에는 제물의 연기에 검게 그을고 갈대 속에 거의 파묻힌 오래된 제단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누구의 제단인지 물었습니다. 파우누스의 것인지, 나이아데스의 것인지, 아니면 이웃한 산의 어떤 신의 것인지 알고 싶었지요. 그러자 그곳 사람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제단은 어떤 산신이나 강의 신의 것이 아닙니다. 질투에 눈먼 왕비 헤라가 땅에서 땅으로 쫓아내며, 쌍둥이를 기를 땅 한 뼘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분의 것입니다. 레토는 팔에 어린 신들을 안고 이 땅에 이르렀는데, 짐에 지쳐 있었고 갈증으로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우연히 골짜기 아래 맑은 물이 고인 이 연못을 보았는데, 마침 시골 사람들이 그곳에서 버드나무 가지와 키버들을 베고 있었지요. 여신이 다가가 강둑에 무릎을 꿇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려 하자, 시골 사람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여신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거절하는가? 물은 모두의 것이다. 자연은 햇빛이나 공기나 물을 누구의 소유라고 주장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 공동의 축복에서 내 몫을 가지러 왔을 뿐이다. 그래도 나는 이것을 너희의 호의로 베풀어 달라고 청한다. 내 지친 몸을 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갈증을 풀려는 것이다. 입이 너무 말라서 말조차 거의 할 수 없다. 물 한 모금은 나에게 신들의 음료와 같을 것이고, 그것이 나를 되살릴 것이며, 나는

목숨을 너희에게 빚졌다고 여길 것이다. 팔을 뻗어 나를 위해 간청하는 듯한 이 어린아이들이 너희의 연민을 자아내게 하라.' 마침 아이들도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신의 이 부드러운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시골뜨기들은 무례함을 고집했다. 여신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조롱과 폭력의 위협까지 덧붙였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연못으로 첨벙 들어가 발로 진흙을 휘저어,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었다. 레토는 너무도 화가 나서 더 이상 목마름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뜨기들에게 애원하지 않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외쳤다. '그들이 결코 이 못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제 물속에서 산다. 때로는 완전히 잠수했다가, 때로는 머리를 수면 위로 내밀거나 물 위에서 헤엄친다. 때로는 강둑으로 기어 나오지만, 곧 다시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들은 여전히 욕설을 퍼붓는 천한 목소리를 내며, 물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한가운데서 개굴개굴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목구멍은 부풀어 올랐으며, 끊임없는 욕설로 입은 찢어질 듯 늘어났고, 목은 쪼그라들어 사라졌으며, 머리는 몸통에 붙어 버렸다. 등은 초록색이고, 균형 잃은 배는 하얗다. 요컨대 그들은 이제 개구리가 되었고, 미끈거리는 연못에 산다."

이 이야기는 밀턴의 소네트 중 한 편인 「그가 몇 편의 논문을 쓴 뒤 쏟아진 비방에 대하여」에 나오는 암시를 설명해 준다.

> "나는 다만 시대가 족쇄를 벗어 던지도록 부추겼을 뿐이었다,
> 고대 자유의 알려진 법칙에 기대어.
> 그 즉시 야만스러운 소리가 나를 둘러싸더라,
> 올빼미와 뻐꾸기, 당나귀와 원숭이와 개들의 소리가.
> 개구리로 바뀌어 버린 그 시골 사람들이
> 레토의 쌍둥이 자녀들을 욕하며 떠들어 댔듯이,
> 그 자녀들은 나중에 해와 달을 차지하였도다."

레토가 헤라에게서 받은 박해는 이 이야기에서 암시되고 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장래 어머니인 레토는 헤라의 분노를 피해 달아나면서, 에게해의 모든 섬에 쉬어 갈 곳을 내어 달라고 간청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모두가 하늘의 강력한 여왕이 두려워 경쟁자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델로스만이 장차 신이 될 아이들의 탄생지가 되기를 허락했다. 그 무렵 델로스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섬이었다. 하지만 레토가 그곳에 이르자, 제우스는 사랑하는 이가 안전하게 쉴 곳이 되도록 그 섬을 강철 사슬로 바다 밑바닥에 붙들어 맸다. 바이런은 『돈 주안』에서 델로스를 이렇게 암시한다.

“그리스의 섬들이여! 그리스의 섬들이여!
그곳에서 타오르듯 사랑하고 노래한 사포가 있었으니,
그곳에서 전쟁과 평화의 기예가 자라났고,
그곳에서 델로스가 솟아오르고 포이보스가 태어났도다!”

제5장

파에톤



페테르 파울 루벤스, 「파에톤의 추락」(1604~1605년경)

파에톤은 아폴론과 님프 클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학교 친구 하나가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비웃었다. 파에톤은 분노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어머니에게 가서 그 일을 이야기했다. "제가 정말 하늘에서 태어났다면, 어머니, 그 증거를 보여 주세요. 그 영예가 제 것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클리메네는 두 손을 하늘로 뻗으며 말했다. “우리를 내려다보는 태양을 증인으로 세운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만약 내가 거짓을 말했다면, 이것이 내가 그의 빛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되게 하라. 하지만 직접 알아보러 가는 데 큰 수고는 들지 않는다. 태양이 떠오르는 땅은 우리 땅 바로 옆에 있다. 가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너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는지.” 파에톤은 기뻐하며 들었다. 그는 해가 뜨는 곳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인도로 갔다. 그리고 희망과 자부심에 가득 차서, 그의 아버지가 여정을 시작하는 그 목표 지점으로 다가갔다.

태양의 궁전은 높다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금과 보석으로 번쩍였다. 천장은 윤기 나는 상아로, 문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세공 솜씨는 재료보다 뛰어났다. 벽에는 헤파이스토스가 대지와 바다와 하늘을 그려 놓았고, 그 안에 사는 존재들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바다에는 님프들이 있었다. 어떤 님프는 파도 속에서 장난치고, 어떤 님프는 물고기 등에 올라타고 있었으며, 또 어떤 님프는 바위에 앉아 바닷빛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같지 않았으나 아주 다르지도 않았다. 자매라면 응당 그래야 할 만큼 닮아 있었다. 대지에는 마을과 숲과 강, 그리고 시골의

신들이 있었다. 그 모든 것 위에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은빛 문에는 황도 십이궁이 새겨져 있었는데, 양쪽에 여섯 개씩이었다.

클리메네의 아들은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친아버지인지 의심받던 이의 궁전에 들어섰다. 그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지만, 빛이 너무 강해 견딜 수 없었으므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다. 포이보스는 자줏빛 옷을 입고 보석처럼 번쩍이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하루와 한 달과 한 해가 서 있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절의 여신들도 있었다. 봄은 꽃으로 엮은 화관을 머리에 쓰고 서 있었고, 여름은 옷을 벗어 던진 채 익은 밀 이삭으로 만든 화환을 두르고 있었다. 가을은 발이 포도즙에 물들어 있었고, 차가운 겨울은 머리카락이 서리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이 시종들에 둘러싸인 태양은 모든 것을 보는 눈으로, 새롭고 눈부신 광경에 어리둥절해하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그가 온 까닭을 물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끝없는 세상의 빛이시여, 포이보스, 제 아버지시여, 제가 그렇게 불러도 된다면, 제발 저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자, 아버지는 머리 둘레에서 빛나던 광선을 내려놓고 그를 가까이 불러 품에 안으며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임을 부인당할 까닭이 없다. 네 어머니가 네게 한 말이 옳다. 네 의심을 끝내기 위해,

무엇이든 청하여라. 그 선물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신들이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걸고 맹세하는 그 무시무시한 호수를 증인으로 세운다."
파에톤은 곧바로 하루 동안 태양의 전차를 몰게 해 달라고 청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한 약속을 후회했다. 그는 빛나는 머리를 세 번, 네 번 흔들어 경고했다. "내가 성급하게 말했구나.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주고 싶지 않다. 부탁이니 거두어라. 이것은 안전한 선물이 아니다. 내 파에톤, 네 젊음과 힘에 맞는 일도 아니다. 너는 죽을 운명을 타고났는데, 죽을 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청하는구나. 너는 모르는 채로, 신들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바란다. 불타는 낮의 수레는 나 말고는 아무도 몰 수 없다. 무서운 오른팔로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조차 몰 수 없다. 길의 첫 부분은 가파르다. 아침에 막 기운을 차린 말들도 간신히 오를까 말까 한 길이다. 가운데 부분은 하늘 높은 곳에 있어서, 나조차도 내 발밑으로 펼쳐진 땅과 바다를 내려다볼 때면 두려움 없이 바라보기 어렵다. 마지막 길은 빠르게 내리막이 되니, 아주 조심스럽게 몰아야 한다. 나를 맞으려고 기다리는 테티스는 내가 곤두박질칠까 봐 자주 떤다. 게다가 하늘은 그동안 내내 돌면서 별들까지 함께 끌고 간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그 회전이 나까지 쓸어 갈까 봐 늘 경계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전차를 빌려준다고 치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이 네 밑에서

돌아가는 동안 너는 진로를 지킬 수 있겠느냐? 어쩌면 너는 길 위에 신들이 사는 숲과 도시, 궁전과 신전이 있으리라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길은 끔찍한 괴물들이 있는 한가운데로 나 있다. 너는 황소의 뿔을 지나고, 궁수 앞을 지나고, 사자의 턱 가까이를 지나며, 전갈은 한쪽으로 팔을 뻗고 게는 다른 쪽으로 집게를 뻗고 있는 곳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 그 말들을 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가슴에는 불길이 가득해서, 입과 콧구멍으로 그 불을 내뿜는다. 말들이 사나워져 고삐에 맞설 때면 나조차도 간신히 다룬다.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치명적인 선물을 주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청을 거두어라. 너는 내 피를 이어받았다는 증거를 원하느냐? 너를 걱정하는 내 마음이 바로 그 증거다. 내 얼굴을 보아라. 네가 내 가슴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버지의 온갖 걱정을 그 안에서 보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속했다. "세상을 둘러보고, 땅과 바다가 품은 가장 값진 것 가운데 무엇이든 골라라. 청하기만 하여라.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이것만은 졸라 대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너는 명예가 아니라 파멸을 구하고 있다. 어째서 내 목에 매달려 계속 애원하느냐? 네가 고집한다면 너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맹세는 이미 했으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네가 더 현명하게 고르기를 간곡히 바란다."

그는 말을 마쳤지만, 젊은이는 모든 충고를 물리치고 자신의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포이보스는 버틸 만큼 버틴 끝에, 높이 솟은 전차가 서 있는 곳으로 앞장서 갔다.

그것은 금으로 만든 전차였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준 선물이었다. 차축도 금이었고, 채와 바퀴도 금이었으며, 바큇살은 은이었다. 좌석을 따라 귀감람석과 다이아몬드가 줄지어 박혀 있어서, 사방으로 태양의 빛을 되비추었다. 대담한 젊은이가 감탄하며 바라보는 동안, 이른 새벽이 동쪽의 자줏빛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장미가 흩뿌려진 길이 드러났다. 샛별이 앞장서서 이끌자 별들이 물러갔고, 샛별도 맨 마지막에 물러났다. 아버지는 대지가 빛나기 시작하고 달이 물러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고, 계절의 여신들에게 말에 멍에를 채우라고 명했다. 여신들은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높은 마구간에서 암브로시아를 실컷 먹은 말들을 끌어내 고삐를 매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 강한 향유를 발라, 불꽃의 광채를 견딜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는 아들의 머리에 광선의 관을 씌우고, 불길한 예감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들아, 이 말만은 내 충고를 듣겠다면, 채찍은 아끼고 고삐는 단단히 쥐어라. 말은 제 힘으로도 충분히 빨리 달린다. 어려운 일은 말을 붙잡아 두는 것이다. 다섯 개의 원 사이를 곧장 가로지르는 곧은길로 가서는 안 된다. 왼쪽으로 돌아가라. 가운데 띠의 한계 안에 머물고, 북쪽과 남쪽은

똑같이 피하라. 바퀴 자국이 보일 테니, 그것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각자 제 몫의 열기를 받도록,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하늘의 거처를 태워 버릴 것이다. 너무 낮게 내려가지도 마라. 그러면 땅에 불을 붙이게 된다. 가운데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다. 이제 나는 너를 운명에 맡긴다. 네가 스스로를 위해 계획한 것보다 운명이 너를 더 잘 이끌기를 바란다. 밤이 서쪽 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더 지체할 수 없다. 고삐를 잡아라. 그러나 끝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충고가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전한 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에게 대지를 비추고 덥히게 해 다오." 날렵한 젊은이는 전차에 뛰어올라 똑바로 섰고, 기쁜 마음으로 고삐를 움켜쥐며 마지못해 허락한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을 쏟아 냈다.

그러는 동안 말들은 콧김을 뿜고 불같은 숨을 내쉬며 공중을 가득 채우고, 참지 못하고 땅을 구른다. 이제 빗장이 풀리고, 우주의 끝없는 들판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 말들은 앞으로 내달아 맞서 오는 구름을 가르고, 같은 동쪽 출발점에서 떠난 아침 바람마저 앞질러 달린다. 말들은 곧 자기들이 끄는 짐이 평소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챈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가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듯, 익숙한 무게를 잃은 전차는 텅 빈 것처럼 이리저리 내던져진다. 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내달리며 다니던 길을 벗어난다. 파에톤은 놀라지만, 말들을

어떻게 몰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 설령 안다 해도 그럴 힘이 없다. 그때 처음으로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가 열기에 그을렸고, 가능하기만 했다면 물속에 뛰어들고 싶었을 것이다. 북극 둘레에 똬리를 틀고 누워 굼뜨고 해롭지 않던 뱀도 따뜻해지면서, 그 온기에 잠들었던 분노가 되살아났다. 보오테스는 쟁기를 짊어진 채 달아났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빠른 움직임이라고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몸이었다.

불운한 파에톤이 발아래 끝없이 펼쳐진 땅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무릎은 공포로 떨렸다. 주변이 온통 눈부셨지만, 그의 눈앞은 점점 흐려졌다. 그는 아버지의 말들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혈통을 알지 않았더라면, 부탁을 밀어붙여 얻어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랐다. 그는 조타수가 더는 손쓸 수 없게 되어 기도에 매달리는 배처럼 폭풍 앞에서 떠밀려 간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늘길의 많은 부분은 뒤에 남았지만,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는 이쪽저쪽으로 눈을 돌린다. 한편으로는 출발했던 곳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닿을 운명이 아닌 해 질 녘의 나라를 바라본다. 그는 침착함을 잃고,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할지 느슨하게 풀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말들의 이름마저 잊어버린다. 그는 하늘 곳곳에 흩어진 괴물 같은 형상들을 두려움에 떨며 본다. 여기에는 전갈자리가 두 개의 커다란 팔을 뻗고 있었는데, 그 꼬리와

굽은 집게발은 황도 십이궁 가운데 두 개의 궁에 걸쳐 뻗어 있었다. 소년이 독기를 뿜고 송곳니로 위협하는 그 괴물을 보았을 때, 그의 용기는 꺾이고 고삐는 손에서 떨어졌다. 말들은 등 위에서 고삐가 풀렸다고 느끼자, 곧장 앞으로 내달렸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말들은 하늘의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별들 사이로 달려 들어갔고, 전차를 길 없는 곳으로 내던졌다. 어떤 때는 높은 하늘 위로, 어떤 때는 땅에 거의 닿을 만큼 아래로 내려갔다. 달은 놀라움 속에서, 자기 아래를 달리는 오빠의 전차를 보았다. 구름이 김을 내뿜기 시작하고, 산꼭대기들에 불이 붙는다. 들판은 열기에 바싹 마르고, 풀은 시들며, 나무들은 잎이 달린 가지째 타오르고, 곡식은 온통 불길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것들은 작은 일일 뿐이다. 성벽과 탑을 갖춘 거대한 도시들이 멸망하고, 여러 민족이 그 백성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숲으로 뒤덮인 산들이 불탔다. 아토스, 타우로스, 트몰로스, 오이테 산이 탔고, 한때 샘으로 이름났으나 이제는 메마른 이다 산이 탔다. 뮤사들의 산인 헬리콘과 하이모스가 탔다. 안팎으로 불을 품은 아이트나 산이 탔고, 두 봉우리를 가진 파르나소스가 탔으며, 마침내 눈으로 된 왕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로도페 산이 탔다. 차가운 기후도 스키티아를

지켜주지 못했다. 카우카소스가 탔고, 오사와 핀도스가 탔으며, 그 둘보다 더 큰 올림포스가 탔다. 공중 높이 솟은 알프스 산맥과 구름으로 관을 쓴 아펜니노 산맥도 탔다.

그때 파에톤은 세상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고, 견딜 수 없는 열기를 느꼈다. 그가 숨 쉬는 공기는 용광로의 공기와 같아서 타오르는 재로 가득했고, 연기는 역청처럼 시커멓게 어두웠다. 그는 어디인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내달렸다.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피가 갑작스레 겉으로 몰리는 바람에 까맣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 리비아의 사막은 말라붙어, 오늘날까지 그 상태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샘의 님프들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자기 샘물을 애도했고, 강들조차 둑 아래에서 안전하지 못했다. 타나이스가 김을 내뿜었고, 카이코스, 크산토스, 마이안드로스도 그러했다. 바빌론의 유프라테스와 갠지스, 황금빛 모래를 가진 타구스, 백조들이 모여드는 카이스테르도 그러했다. 나일 강은 도망쳐 사막에 머리를 감추었고, 그 강은 지금도 그곳에 숨어 있다. 그 강이 예전에 일곱 개의 어귀를 통해 바다로 물을 쏟아내던 곳에는, 이제 말라붙은 일곱 개의 물길만이 남았다. 땅이 쩍 갈라졌고, 그 틈으로 빛이 타르타로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 그곳의 어둠의 왕과 그의 왕비를 놀라게 했다. 바다는 줄어들었다. 전에 물이 있던 자리는 마른 평야가 되었고, 파도 아래 잠겨 있던 산들이 머리를 들어 섬이 되었다. 물고기들은 가장 깊은

바닥을 찾았고, 돌고래들도 더 이상 평소처럼 수면에서 장난치려 들지 않았다. 네레우스와 그의 아내 도리스, 그리고 그들의 딸인 네레이데스들조차 몸을 숨기려고 가장 깊은 동굴을 찾았다. 포세이돈은 세 번이나 머리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리려 했으나, 세 번 모두 열기에 밀려 물러났다. 대지는 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머리와 어깨는 드러난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제우스를 불렀다.

"신들의 통치자시여,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리고 당신의 뜻이 제가 불에 타 죽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번개를 아끼십니까? 적어도 당신의 손에 쓰러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풍요와 순종하는 봉사에 대한 보답입니까? 소떼에게 풀을 대고,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당신의 제단에 유향을 바친 대가가 이것입니까? 그러나 제가 돌봄을 받을 가치가 없다 해도, 제 형제 오케아노스가 이런 운명을 받을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 둘 중 누구도 당신의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제발 당신 자신의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궁전을 떠받치는 두 극이 연기를 내뿜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무너지면 궁전도 무너질 것입니다. 아틀라스는 기진맥진해 간신히 짐을 들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이 멸망하면, 우리는 옛 카오스로

떨어질 것입니다. 삼켜 오는 불길에서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을 구하십시오. 오, 이 끔찍한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방도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지가 말하였고, 열기와 갈증에 지쳐 더 말하지 못했다. 그러자 전능한 제우스가, 전차를 빌려준 이를 포함한 모든 신들을 증인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 주고, 땅 위에 구름을 펼치고 갈라진 번개를 던지는 높은 탑에 올랐다. 그러나 그때는 땅을 가릴 구름 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았고, 아직 다 쏟아지지 않은 소나기도 없었다. 그는 천둥을 치고, 오른손에 번개를 쥐어 들고는 마부를 향해 던졌다. 그리고 같은 순간 그를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동시에 목숨까지 앗아 갔다! 머리에 불이 붙은 파에톤은 곤두박질쳐 떨어졌다. 떨어지며 빛으로 하늘에 흔적을 남기는 별똥별과 같았다. 큰 강 에리다노스가 그를 받아들여 불타는 몸을 식혀 주었다. 이탈리아의 나이아데스들이 그를 위해 무덤을 세우고, 돌에 다음의 말을 새겼다.

"포이보스의 전차를 몰던 파에톤이 여기 잠들었노라,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이 돌 아래 누웠노라.
아버지의 불의 수레를 다스리지 못했으나,
그토록 고결하게 뜻을 세운 것만으로도 크도다."

그의 누이들인 헬리아데스는 그의 운명을 슬퍼하다가
강기슭의 포플러 나무로 변했다. 그들이 계속 흘린 눈물은
강물에 떨어지며 호박이 되었다.

밀먼은 자신의 시 『사모르』에서 파에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암시한다:

> "마비된 우주가 놀라 굳어 침묵하던 때처럼,
> 시인들이 노래하듯 태양의 아들이 몰았던 그때,
> 하늘의 놀란 별자리들 사이로 제멋대로 달려간
> 아버지가 잘못 내어 준 전차. 그를 뇌신이 내던졌다
> 하늘 꼭대기에서 곤두박질쳐 떨어뜨렸다,
> 반쯤 타 버린 에리다노스의 깊은 물속으로,
> 그곳에서는 지금도 자매 나무들이 호박 같은 눈물을 흘린다,
> 때 이르게 죽은 파에톤을 위해서."

월터 새비지 랜더의 바다 고둥을 묘사한 아름다운 시행에는
태양의 궁전과 전차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 물의 님프는
이렇게 말한다:

“내게는 속이 진주빛인 나선 고둥들이 있다네.
또 빛을 머금은 것들도 있으니
태양의 궁전 현관에서 빛을 들이켰지,
그곳에서는 말이 풀린 그의 전차 바퀴가
물결 한가운데 걸려 있다네.
하나를 흔들면 그 고둥은 깨어나고,
그다음 윤나는 입술을 주의 깊은 그대의 귀에 대보게.
그러면 고둥은 자신의 장엄한 거처를 기억해 내고,
거기서 바다가 속삭이듯 웅얼거린다네.”

— 『게비르』, 제1권.

제6장

미다스 — 바우키스와 필레몬



렘브란트 판 레인, 「필레몬과 바우키스」(1658)

어느 날 디오니소스는 자신의 옛 스승이자 양아버지인 실레노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노인은 술을 마셨고, 그 상태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몇몇 농부에게 발견되었다. 농부들은 그를 왕 미다스에게 데려갔다.

미다스는 실레노스를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으며, 열흘 밤낮을 끊임없는 흥겨운 잔치로 머무르게 했다. 열하루째 되는 날 미다스는 실레노스를 데리고 가서 제자인 디오니소스에게 무사히 돌려주었다. 이에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보답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다. 미다스는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하게 해 달라고 청했다. 디오니소스는 그 청을 들어주었지만, 더 나은 것을 고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미다스는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며 길을 떠났고, 서둘러 그 힘을 시험해 보았다. 참나무 가지를 꺾었는데 그것이 손안에서 황금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돌을 집어 들자 그것도 황금이 되었다. 흙덩이를 만지자 역시 그렇게 되었다. 나무에서 사과를 따자, 마치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을 털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의 기쁨은 끝이 없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인들에게 식탁에 성대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깨달았다. 빵에 손을 대면 손안에서 딱딱하게 굳어 버렸고,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이에 부딪혀 씹히지 않았다. 그는 포도주 한 잔을 들었지만, 그것은 녹은 황금처럼 목구멍으로 흘러내렸다.

전례 없는 이 재앙에 당황한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벗어 버리려고 애썼다. 얼마 전까지 탐냈던 그 선물이 이제는 싫었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굶주림이 그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두 팔을 들고 디오니소스에게 기도하며, 이 눈부신 파멸에서 구해 달라고 빌었다. 자비로운 신 디오니소스는 그의 간청을 듣고 들어주었다. "가라." 그가 말했다. "팍톨로스 강으로 가서 물줄기를 따라 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라. 거기서 머리와 몸을 물에 담가 네 잘못과 그 벌을 씻어 내라." 미다스는 그대로 했다. 그가 물에 닿자마자 황금을 만드는 힘이 강물로 옮겨 갔고, 강바닥의 모래는 황금으로 변했다. 그 모래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뒤로 미다스는 부와 화려함을 싫어하며 시골에 살았고, 들판의 신 판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 어느 날 판이 감히 자신의 음악을 아폴론의 음악과 견주고, 리라의 신에게 기량을 겨루자고 도전했다. 도전은 받아들여졌고, 산의 신 트몰로스가 심판으로 뽑혔다. 연장자인 트몰로스는 자리에 앉아 귀 기울여 들으려고 귓가의 나무들을 치웠다. 신호가 울리자 판은 피리를 불었고, 그 소박한 가락에 그 자신과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충실한 추종자 미다스는 크게 흡족해했다. 그다음 트몰로스가 고개를 태양의 신 쪽으로 돌리자, 그의 나무들도 모두 그를 따라 돌아갔다. 아폴론이 일어섰다. 그의

이마에는 파르나소스의 월계수 화관이 얹혀 있었고, 티로스산 자줏빛 옷자락은 땅을 쓸며 끌렸다. 그는 왼손에 리라를 들고 오른손으로 줄을 퉁겼다. 그 화음에 홀린 트몰로스는 곧바로 승리를 리라의 신에게 돌렸고, 미다스를 빼고는 모두 그 판정에 동의했다. 미다스만은 반대하며 그 판정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폴론은 그렇게 타락한 한 쌍의 귀가 더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귀를 길게 늘이고, 안팎으로 털이 나게 하고, 귀뿌리째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한마디로 그 귀를 완전한 당나귀의 귀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다.

미다스 왕은 이 불운에 몹시 굴욕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행을 감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고, 넓은 터번이나 머리 장식으로 그것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이발사는 물론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발사는 입을 다물라는 명령을 받았고, 감히 명령을 어기면 끔찍한 벌을 받으리라는 위협도 들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분별력에 너무 벅찬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초원으로 나가 땅에 구멍을 파고, 몸을 굽혀 그 이야기를 속삭인 다음 흙으로 덮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원에는 빽빽한 갈대밭이 솟아났다. 갈대가 다 자라자마자 그 갈대들은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바람이 불어 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 의해 몇 가지 변형을 거쳐 전해져 왔다. 드라이든은 「바스의 여인 이야기」에서 미다스 왕비가 그 비밀을 누설하는 자로 그려 놓았다:

> "이 사실을 미다스는 알았으나, 왕의 그 귀를
> 아내 말고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미다스는 프리기아의 왕이었다. 그는 가난한 농부 고르디오스의 아들이었는데, 고르디오스는 백성들의 손에 왕으로 세워졌다. 신탁이 그들의 다음 왕은 수레를 타고 오리라고 일렀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의논하는 동안, 고르디오스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수레를 몰아 공공 광장으로 들어왔다.

고르디오스는 왕으로 세워지자 자기 수레를 신탁의 신에게 바치고, 그 수레를 제자리에 단단한 매듭으로 묶어 두었다. 이것이 저 유명한 고르디오스의 매듭이다. 훗날 전하기를,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 전체의 주인이 되리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매듭을 풀어 보려 했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 정복의 길을 가던 대왕 알렉산드로스가 프리기아에 이르렀다. 그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실패한 끝에 참을성을 잃고 칼을 뽑아 매듭을 베어 버렸다. 그 뒤 그가 아시아 전체를 자기 다스림 아래 두게 되자, 사람들은 그가 신탁의 말을 그 참뜻대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

프리기아의 어느 언덕 위에는 낮은 담장에 둘러싸인 보리수 한 그루와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늪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으나 지금은 웅덩이로 움푹 파여 있고, 물새와 가마우지가 찾아드는 곳이 되었다. 옛날 언젠가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왔다. 그와 함께 전령의 지팡이를 든 그의 아들 헤르메스도 날개를 떼어 놓은 채 따라왔다. 두 신은 지친 나그네인 척하며 여러 집의 문을 두드려 쉴 곳과 잠자리를 구했다. 그러나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늦은 시각이었고, 인정 없는 주민들은 문을 열어 그들을 맞으려고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마침내 작고 초라한 집 하나가 두 신을 받아들였다. 이엉을 얹은 작은 오두막이었는데, 그 집에는 경건한 노파 바우키스와 그 남편 필레몬이 살았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늙어 온 사이였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그 가난을 견딜 만하게 만들었다. 그 집에서는 주인이나 하인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식구의 전부였고, 주인이자 하인이었다. 두 천상의 손님이 초라한 문지방을 넘고, 낮은 문을 지나려고 머리를 숙였을 때, 노인은 의자 하나를 내놓았다. 바우키스는 분주하고 세심하게 그 위에 천을 펼치고, 손님들에게 앉기를 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잿더미에서 숯불을 긁어내 불을 지폈다. 나뭇잎과 마른 나무껍질을 넣고, 약한 숨을 불어 넣어 불꽃을 일으켰다. 그녀는 구석에서 쪼갠 막대기와 마른 나뭇가지를 꺼내 잘게 부러뜨린 뒤, 작은 솥 밑에 넣었다. 그녀의 남편은 정원에서 국거리로 쓸 채소를 몇 가지 거두었고, 그녀는 줄기에서 잎을 떼어 내어 솥에 넣을 준비를 했다. 그는 굴뚝에 걸린 베이컨 덩이를 갈래진 막대로 끌어내리고, 작은 조각을 잘라 채소와 함께 솥에 넣어 끓이게 했다. 나머지는 다음을 위해 치워 두었다. 손님들이 씻을 수 있도록 너도밤나무 그릇에 따뜻한 물을 채웠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긴 의자 위에는 해초를 채운 방석이 놓였고, 그 위에 천이 펼쳐졌다. 이 천은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것이었는데, 오래되고 투박했다. 노부인은 앞치마를 두른 채 떨리는 손으로 상을 차렸다. 상다리 하나가 다른 것보다 짧았지만, 그 밑에 얇은 석판 조각을 괴어 수평을 맞추었다. 상이 자리를 잡자 그녀는 향기로운 풀을 몇 가지 뜯어 상을 문질렀다. 그 위에 정숙한 아테나의 올리브를 몇 알 올리고, 식초에 절인 산딸나무 열매도 놓았다. 거기에 무와 치즈를 더하고, 재 속에서 살짝 익힌 달걀도 곁들였다. 모든 음식은 질그릇에 담겼고, 질그릇 주전자와 나무 잔이 그 곁에 놓였다. 준비가 다 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상에

올랐다. 그리 오래 묵은 것은 아니었지만 포도주도 곁들여 내놓았다. 후식으로는 사과와 야생 벌꿀이 나왔다. 그 무엇보다도, 정겨운 얼굴들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환대가 있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노부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포도주를 따라도 따라도 주전자 속의 술이 저절로 다시 차오르는 것이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공포에 질려 그들이 하늘에서 온 손님임을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맞잡은 채, 변변찮은 대접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들에게는 늙은 거위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작은 오두막을 지키는 식구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은 그 거위를 잡아 손님을 위한 제물로 바치려 했다. 그러나 거위는 날개와 발을 놀려 노인들의 손을 빠져나갔고, 마침내 신들의 품으로 숨어들었다. 신들은 거위를 죽이지 못하게 막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신이다. 이 불친절한 마을은 그 불경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 두 사람만은 벌을 면할 것이다. 집을 떠나 저기 저 언덕 꼭대기까지 우리와 함께 가자.” 두 노인은 서둘러 따랐고, 지팡이에 의지해 가파른 언덕을 힘겹게 올라갔다. 정상까지 화살 한 바탕 거리쯤 남았을 때, 그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온 마을이 호수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오직 그들의 집만이 홀로 서 있었다. 두 사람이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이웃들의 운명을 슬퍼하는 사이,

그들의 낡은 집은 신전으로 바뀌었다. 모서리 기둥 자리에는 돌기둥이 섰고, 초가지붕은 누렇게 빛나는 황금 지붕이 되었으며, 바닥은 대리석이 되었고, 문은 조각과 황금 장식으로 화려해졌다. 그때 제우스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훌륭한 노인이여, 그리고 이런 남편에게 어울리는 아내여, 말해 보라.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에게 무슨 은총을 청하겠는가?" 필레몬은 잠시 바우키스와 상의한 뒤, 두 사람의 뜻을 신들에게 아뢰었다. "저희는 이 신전의 사제가 되어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을 사랑과 화목 속에서 살아왔으니, 같은 순간에 함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녀의 무덤을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녀의 손에 제가 묻히는 일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신전을 지켰다. 아주 늙어 어느 날 그 성스러운 건물의 계단 앞에 서서 이곳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바우키스는 필레몬의 몸에서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고, 늙은 필레몬은 바우키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그들의 머리 위로 잎이 무성한 관이 자라났고, 두 사람은 말할 수 있는 동안 작별의 말을 주고받았다. "잘 있어요, 사랑하는 당신." 두 사람은 함께 그렇게 말했고, 바로 그 순간

나무껍질이 그들의 입을 덮었다. 티아나의 목동은 지금도 두 노인이 변한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곳을 보여 준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이야기는 스위프트가 익살스러운 문체로 모방한 적이 있다. 그 작품에서 변신을 일으키는 것은 떠돌이 성인 두 사람이고, 집은 교회로 바뀌며, 필레몬은 그 교회의 목사가 된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그들이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붕이 곱고 부드럽게 위로 들리기 시작했다. 들보와 서까래가 모두 높이 솟아올랐고, 무거운 벽도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굴뚝은 넓어지고 더 높아져서 꼭대기에 첨탑을 얹은 종탑이 되었다. 주전자는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져 장선에 매달렸는데, 거꾸로 뒤집혀 있어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헛일이었다. 아래쪽에서 더 큰 힘이 붙들어 그 움직임을 막기 때문이다. 영원히 매달린 채 있게 된 그것은 이제 주전자가 아니라 종이다.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 고기 굽는 재주를 거의 잃어버린 나무 꼬챙이 회전기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꼈고, 내부에 새 톱니바퀴들이 더해졌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수가 많아질수록 움직임은 오히려 느려졌다는 점이다. 납으로 된 발을 가졌는데도 날개 달린 바퀴는 눈으로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돌았으나, 어떤 은밀한 힘에 붙들려 느려지더니 이제는 한 시간에 겨우 1인치 움직일 뿐이다. 회전기와 굴뚝은 가까운 사이라 서로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굴뚝이 뾰족탑이 되자, 회전기는 혼자 남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탑에 가까이 치솟아 올라 시계가 되었고, 여전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집안일에 대한 애착은 정오가 되면 날카로운 목소리로 드러나, 돌릴 수 없는 고기가 타지 않도록 부엌일 하는 여자에게 경고한다. 신음하던 의자는 거대한 달팽이처럼 벽을 따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공연히 보이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서더니, 모양을 조금 바꾸어 설교단이 되었다. 옛 방식의 침대는 여러 짐의 목재로 단단히 짜여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교회 신도석으로 변신했고, 졸음에 겨운 사람들을 품어 재워 주는 일로 여전히 옛 본성을 지키고 있다.”

제7장

페르세포네 — 글라우코스와 스킬라



단테 게이브리얼 로세티, 「페르세포네」(1874)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이 티탄 신족을 무찌르고 그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둔 뒤, 신들에게 맞서 새로운 적이 일어섰다. 그들은 거인 티폰, 브리아레오스, 엔켈라도스 등이었다. 그중 어떤 거인은 팔이 백 개였고, 어떤 거인은 불을 내뿜었다. 결국 이들도 제압되어 아이트나 산 밑에 산 채로 묻혔다. 지금도 그들은 때때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며, 그때마다 지진을 일으켜 섬 전체를 뒤흔든다. 그들이 내쉬는 숨은 산을 뚫고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화산 분출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괴물들이 쓰러지자 땅이 뒤흔들렸고, 하데스는 자신의 왕국이 대낮의 빛에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는 이 걱정에 휩싸여 검은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 피해가 얼마나 큰지 직접 확인하려고 둘러보는 길에 나섰다. 그가 그렇게 돌아보고 있을 때, 아들 에로스와 놀며 에릭스 산에 앉아 있던 아프로디테가 그를 보았다. 그러고는 말하였다. “아들아, 네가 모든 것을, 심지어 제우스까지 정복하는 화살을 가져다가, 타르타로스의 나라를 다스리는 저 어두운 왕의 가슴에 한 발을 쏘아라. 왜 그만 홀로 벗어나야 하느냐? 너의 권세와 나의 권세를 넓힐 기회를 붙잡아라. 하늘에서조차 우리의 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지혜로운 아테나와 사냥꾼 아르테미스가 우리에게 맞서고, 또 데메테르의 딸도 그들을 본받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제

너 자신의 이익이나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버려라." 소년은 화살통을 풀고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화살을 골랐다. 그리고 활을 무릎에 대고 힘껏 당겨 시위를 걸고 준비를 마치자, 그 끝이 미늘진 화살을 하데스의 심장 한가운데로 쏘았다.

엔나의 골짜기에는 숲으로 둘러싸인 호수가 있었다. 숲은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었고, 촉촉한 땅은 꽃으로 뒤덮여 봄이 끝없이 이어졌다. 여기서 페르세포네가 동무들과 놀면서 백합과 제비꽃을 따 바구니와 앞치마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때 하데스가 그녀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붙잡아 데려갔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무들에게 도와 달라고 소리쳤다. 놀라서 앞치마의 귀퉁이를 놓치는 바람에 꽃이 떨어지자, 아이답게 그 꽃을 잃은 것을 슬픔에 더해진 또 하나의 상실로 여겼다. 납치자는 말들을 저마다 이름으로 부르며 몰아쳤고, 쇳빛 고삐를 말들의 머리와 목 위로 느슨하게 던졌다. 그가 키아네 강에 이르렀을 때 강이 길을 막자, 삼지창으로 강둑을 내리쳤다. 그러자 땅이 갈라지며 그에게 타르타로스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

데메테르는 온 세상을 다 뒤져 딸을 찾았다. 빛나는 머리의 에오스가 아침에 나올 때도, 헤스페로스가 저녁에 별들을 이끌고 나올 때도 데메테르는 여전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마침내 지치고 슬퍼진 데메테르는 돌 위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흐레 밤낮을 한데에서 햇빛과 달빛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곳은 지금 엘레우시스 시가 서 있는 자리였고, 그때는 켈레오스라는 늙은이의 집이 있던 곳이었다. 켈레오스는 들에 나가 도토리와 블랙베리를 따고, 불을 피울 땔감을 모으고 있었다. 그의 어린 딸은 염소 두 마리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신을 지나치며 아이가 말했다. "어머니," 그 이름은 데메테르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다. "왜 여기 바위 위에 혼자 앉아 계세요?" 늙은이도 짐이 무거웠지만 발을 멈추고, 자기 집이 변변찮아도 들어와 쉬라고 청했다. 여신은 사양했다. 그러자 노인이 거듭 권했다. "편히 가시오," 여신이 대답했다. "그대는 딸과 함께 행복하시오. 나는 내 딸을 잃었소." 말하는 동안 눈물이, 아니 눈물과 같은 것이 여신의 뺨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신은 울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린 노인과 그의 딸도 여신과 함께 울었다. 그리고 노인이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초라한 집을 얕보지 마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딸도 무사히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빌겠소." "앞장서시오," 여신이 말했다. "그 부탁은 거절할 수 없구려!" 여신은 돌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걸어가는 동안 노인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린 그 아이가 몹시 앓아

열이 나고 잠을 못 이룬다고 말했다. 여신은 몸을 굽혀 양귀비를 몇 송이 땄다. 그들이 집에 들어서니 모두 큰 근심에 잠겨 있었다. 아이는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였다. 아이의 어머니 메타네이라가 여신을 반갑게 맞이했다. 여신은 몸을 굽혀 병든 아이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러자 즉시 아이의 얼굴에서 창백함이 가시고, 몸에는 건강한 기운이 돌아왔다. 온 가족이 기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린 딸, 그것이 식구의 전부였다. 그들은 하인도 없었다. 그들이 상을 차려 엉긴 젖과 크림, 사과, 벌집째 꿀을 올렸다. 그들이 먹는 동안 데메테르는 아이에게 줄 우유에 양귀비 즙을 섞었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이 고요해지자, 여신은 일어나 잠든 아이를 안아 손으로 아이의 팔다리를 빚고, 그 위에 엄숙한 주문을 세 번 외웠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잿더미 위에 눕혔다. 여신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아이를 불에서 낚아채었다. 그러자 데메테르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신의 광채가 사방으로 빛났다. 그들이 놀라움에 압도되어 있을 때 여신이 말했다. “어머니, 그대는 아들을 너무 아끼다가 잔인해졌소. 나는 이 아이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려 했으나, 그대가 내 뜻을 가로막았소. 그래도 이 아이는 위대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오.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쟁기를 쓰는 법을 가르칠 것이며, 노동이 잘 가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알려 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구름으로 몸을 감싸고, 수레에 올라 떠나갔다.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바다와 강을 건너 계속 헤맸다. 마침내 처음 출발했던 시칠리아에 돌아와, 하데스가 자기 전리품을 데리고 제 왕국으로 내려가는 길을 낸 키아네 강가에 섰다. 강의 님프는 여신에게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싶었지만, 하데스가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페르세포네가 달아나며 떨어뜨린 허리띠를 조심스레 집어 올려, 어머니의 발치로 밀어 보내는 것으로 그쳤다. 데메테르는 이것을 보고 딸을 잃었다는 것을 더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 원인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죄 없는 땅을 탓했다. "배은망덕한 땅이여," 여신이 말했다. "내가 기름진 힘을 주고 풀과 영양가 있는 곡식으로 옷을 입혀 준 땅이여, 이제 너는 더는 내 은혜를 누리지 못하리라." 그러자 가축이 죽었고, 쟁기는 밭고랑에서 부러졌으며,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다. 햇볕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도 했다. 새들이 씨앗을 훔쳐 갔고, 자라는 것이라고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뿐이었다. 이를 본 샘 아레투사가 땅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 "여신이시여," 그가 말했다. "땅을 탓하지 마소서. 땅은 마지못해 당신의 딸이 지나갈 길을 열어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운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제 고향이 아닙니다. 저는 엘리스에서 왔습니다. 저는 숲의 님프였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아름다움을 칭찬했지만, 저는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제 사냥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운동으로 몸이 달아오른 채 숲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 없이 흐르는 시내에 이르렀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바닥의 조약돌을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버드나무가 그늘을 드리웠고, 풀이 덮인 둑이 물가까지 완만하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발끝으로 물을 건드렸습니다. 무릎까지 물에 들어갔지만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옷을 버드나무에 걸어 두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에서 노는 동안 시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장 가까운 둑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아레투사, 왜 달아나는가? 나는 이 시내의 신, 알페이오스다.' 저는 달렸고 그는 쫓아왔습니다. 그는 저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힘이 더 셌고, 제 힘이 떨어지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지친 저는 아르테미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주소서, 여신이시여! 당신의 신도를 도와주소서!' 여신은 들어주셨고, 갑자기 저를 짙은 구름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강의 신은 이쪽저쪽을 둘러보았고, 두 번이나 제 가까이까지 왔지만

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레투사! 아레투사!' 그가 외쳤습니다. 아, 저는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밖에서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은 어린 양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고, 머리카락은 물줄기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제 발이 서 있던 자리에는 웅덩이가 고였습니다. 요컨대, 그것을 말하는 시간보다 짧은 사이에 저는 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서도 알페이오스는 저를 알아보고, 자기 물줄기를 제 물과 섞으려 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땅을 갈라 주셨고, 저는 그를 피하려고 동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땅속 깊은 곳을 지나 이곳 시칠리아로 솟아 나왔습니다. 땅 밑을 지나는 동안 저는 여신의 딸 페르세포네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슬퍼 보였지만 얼굴에는 더 이상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왕비다운 것이었습니다. 에레보스의 왕비, 죽은 자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강력한 신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데메테르는 이 말을 듣자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러다 전차를 하늘 쪽으로 돌려 제우스의 옥좌 앞으로 서둘러 갔다. 그는 딸을 잃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제우스가 개입해 딸을 되찾아 주기를 간청했다. 제우스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허락했다. 페르세포네가 저승에 머무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의 여신들이 그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헤르메스가 봄의 여신과 함께 보내져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교활한 저승의 왕은 동의했다. 그러나 아아, 그 처녀는 하데스가 건넨 석류를 받아 들고, 씨앗 몇 개의 달콤한 과육을 빨아 먹고 말았다. 이것으로 완전한 석방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는 절반의 시간은 어머니와 함께, 나머지 절반은 남편 하데스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데메테르는 이 조정에 마음이 누그러졌고, 땅에 다시 은총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켈레오스와 그의 집안, 그리고 그 젖먹이 아들 트립톨레모스에게 한 약속을 떠올렸다. 소년이 자라자 데메테르는 쟁기 쓰는 법과 씨 뿌리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날개 달린 용들이 끄는 전차에 소년을 태우고 땅의 모든 나라를 두루 다녔다. 그러면서 인류에게 귀한 곡식과 농사에 관한 지식을 전해 주었다. 돌아온 트립톨레모스는 엘레우시스에 데메테르를 위한 웅장한 신전을 지었다. 그리고 엘레우시스 비의(秘儀)라는 이름으로 여신을 섬기는 의식을 창시했다. 그 의식은 화려하고 엄숙하게 치러지는 점에서 그리스인들의 다른 모든 종교 행사를 능가했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가 비유라는 데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페르세포네는 땅에 뿌려져 그 안에 감추어지는 씨앗을 뜻한다. 곧 그녀는 저승의 신에게 붙들려 간다. 그 씨앗은 다시 나타난다. 곧 페르세포네는 어머니에게 돌아온다. 봄이 그녀를 다시 햇빛 아래로 데려온다.

밀턴은 『실낙원』 제4권에서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를 암시한다.

> "엔나의 저 아름다운 들판이라도 아니리라. 그곳에서 페르세포네가 꽃을 따고 있었으니, 자신이 더 아름다운 꽃인 그녀는 음울한 하데스에게 꺾여 갔고, 그 일로 데메테르는 온 세상을 헤매며 딸을 찾는 온갖 고통을 겪었다. . . 그 어떤 곳도 이 에덴의 낙원과 견줄 수는 없으리라."

후드는 「우울에 바치는 송가」에서 같은 암시를 아주 아름답게 쓰고 있다.

> "용서하라, 잠시 내가 잊더라도
> 닥쳐올 슬픔 속에서 지금의 행복을;
> 놀란 페르세포네가 꽃을 떨어뜨렸듯
> 하데스를 보고서."

알페이오스 강은 실제로 흐름의 일부 구간에서 지하로 사라졌다가, 땅속 물길을 지나 다시 지표에 솟아오른다. 시칠리아의 샘 아레투사가 바로 이 같은 물줄기라고

전해졌다. 바다 밑을 지나 시칠리아에서 다시 솟아오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페이오스 강에 던진 잔이 아레투사에서 다시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콜리지가 시 「쿠블라 칸」에서 암시한 것이 바로 알페이오스가 땅속으로 흐른다는 이 신화다.

> "잔누두에서 쿠블라 칸이
> 거대한 쾌락의 궁전을 명했노라,
> 그곳에서 신성한 강 알프가 흘렀으니
> 사람으로서는 잴 수 없는 동굴들을 지나
> 햇빛 없는 바다로 흘러내렸도다."

무어의 어린 시절 시 가운데 한 편에서 그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암시한다. 강물에 화환이나 그 밖의 가벼운 물건을 띄워 흘려보내면, 그것이 아래로 떠내려갔다가 강물이 다시 솟아나는 곳에서 되나온다는 풍습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오, 나의 사랑이여, 얼마나 신처럼 달콤한가
같은 마음끼리 만나는 그 순수한 기쁨은!
강의 신도 그와 같아서, 그 물결은
사랑을 오직 빛으로 삼아 동굴 아래로 흐르며,
꽃 엮은 화환과
축제의 고리들을 의기양양하게 실어 나르니,
올림피아의 처녀들이 그의 물결을 장식하여
아레투사의 빛나는 발치에 바치기에 알맞은 제물이어라.
생각해 보라, 마침내 그가 샘의 신부를 만날 때
얼마나 완전한 사랑이 뒤섞인 물결을 떨게 하겠는가!
서로 상대 속에 잃어버려 마침내 하나가 되고,
그들의 운명은 그늘에서도 햇빛에서도 같으니,
참사랑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은 깊은 바다로 흘러간다."

다음 발췌문은 무어의 「길 위의 운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밀라노에 있는 알바노의 유명한 그림 「사랑의 신들의 춤」을 설명한다:

"엔나의 꽃을 땅에서 훔쳐 간 일 때문에
이 꼬마들은 기쁨의 춤을 추며 축하하는구나,
초록빛 나무 둘레를, 황야의 요정들처럼 맴돌며.
가장 가까이 이어 선 아이들은 빛나는 줄을 이루고,
뺨에 뺨을 맞대어, 화관 속 장미 봉오리처럼 서 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아이들은 작고 빛나는 눈동자를
다른 아이들의 날개 밑에서 내비친다.
그런데 보라! 구름 사이에서, 그들의 맏형이
막 날아올라 행복에 겨운 미소를 띠고 말해 준다,
하데스가 벌인 이 짓궂은 장난을 기뻐하는 어머니에게,
그녀는 돌아서서 그 소식을 입맞춤으로 맞이한다."

글라우코스와 스킬라

글라우코스는 어부였다. 어느 날 그는 그물을 끌어 뭍에 올렸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다. 그래서 그물을 비우고 풀밭 위에서 물고기를 가려내기 시작했다. 그가 서 있던 곳은 강 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외롭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으며 가축을 먹이는 목초지로 쓰이지도 않았고, 그 자신 말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다. 갑자기 풀밭에 놓여 있던 물고기들이 되살아나더니,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지느러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놀라서 지켜보는 사이에 물고기들은 하나같이 물가로 옮겨 가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떠나 버렸다. 그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신이 한 일인지, 아니면 풀밭 속에 숨은 어떤 비밀스러운 힘이 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떤 풀에 이런 힘이 있을까?” 그는 소리쳤다. 그리고 풀을 조금 뜯어 맛을 보았다. 풀즙이 혀에 닿자마자 그는 물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혔다. 더는 자신을 붙들어 둘 수 없었다. 그는 대지에 작별을 고하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의 신들은 그를 기쁘게 맞아들여 자기들의 모임에 끼는 영예를 주었다. 그들은 바다의 주인인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에게 청하여, 그에게 있던 죽을 운명의 모든 것을 씻어 내도록 허락을 받았다. 백 개의 강물이 그의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그는 이전의 본성에 대한 모든 감각과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되찾았을 때 그는 모습과 마음이 모두 바뀌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바다처럼 푸르렀고 물 위에서 그의 뒤로 길게 끌렸다. 어깨는 넓어졌고, 한때 넓적다리와 다리였던 부분은 물고기의 꼬리 모양이 되었다. 바다의 신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칭찬해 주었고, 그는 스스로를 꽤 잘생긴 인물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어느 날 글라우코스는 물님프들이 아끼는 아름다운 처녀 스킬라가 해변을 거닐다가 아늑한 후미를 찾아 맑은 물에 팔다리를 씻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반했고,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가 머물도록 붙잡아 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 말들을 골라서 했다.

그가 나타나자 그녀는 곧바로 몸을 돌려 달아났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벼랑에 이를 때까지 달렸다. 거기서 그녀는 멈춰 서서 뒤돌아보았다. 그것이 신인지 바다 짐승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놀라움 속에서 그의 모습과 빛깔을 살폈다. 글라우코스는 물에서 반쯤 몸을 드러낸 채 바위에 기대어 말했다. "처녀여, 나는 괴물도 바다 짐승도 아니고 신이오. 프로테우스나 트리톤도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소. 나는 한때 사람이었고, 바다에 기대어 생계를 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바다에 속해 있소."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려 했지만, 스킬라는 몸을 돌려 서둘러 달아났다.

글라우코스는 절망에 빠졌지만, 마법사 키르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키르케의 섬을 찾아갔다. 그 섬은 훗날 오디세우스가 상륙한 곳이며, 그 이야기는 뒤의 한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그가 말했다. "여신이여, 부디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제가 겪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저는 약초의 힘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제 모습이 바뀐 것도 바로 그 약초 덕분이니까요. 저는 스킬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어떻게 간청하고 약속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냉담하게 저를 물리쳤는지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제발 주문을, 아니면 약초가 더 효험이 있다면 약초를 써 주십시오. 제 사랑을 치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도 제 사랑을 함께 품어 저에게 똑같이 응답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키르케는 이 바다빛 신의 매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기꺼이 응하는 상대를 쫓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은 헛되이 구해야 할 처지가 아니라 구함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맹세코 말하지만, 여신이며 풀과 주문의 효능에 밝은 저조차도 당신을 거절할 줄은 모를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업신여긴다면 당신도 그녀를 업신여기십시오. 반쯤 마중 나올 준비가 된 상대를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합당한 보답이 한꺼번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글라우코스가 대답했다. "바다 밑바닥에서 나무가 자라고 산꼭대기에서 해초가 자라는 날이 온다 해도, 저는 스킬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녀 한 사람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신은 분노했지만, 그를 벌할 수도 없었고 벌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를 너무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노를 모두 연적인 불쌍한 스킬라에게 쏟았다. 키르케는 독성을 지닌

풀들을 가져다 주문과 주술을 외며 한데 섞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술수에 희생되어 장난치며 뛰노는 짐승들의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 스킬라가 사는 시칠리아 해안으로 갔다. 해변에는 작은 만이 하나 있었는데, 스킬라는 한낮의 더위를 피해 그곳에 자주 와서 바닷바람을 쐬고 물에 몸을 담그곤 했다. 여신은 이곳에 독을 품은 혼합액을 부으며, 강력한 힘을 지닌 주문을 중얼거렸다. 스킬라는 여느 때처럼 와서 허리까지 물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녀를 둘러싼 뱀들과 짖어대는 괴물들을 보았을 때의 공포란 어땠을까! 처음에 그녀는 그것들이 자기 몸의 일부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고 쫓아내려 했다. 그러나 달아나는 동안 그것들을 몸에 달고 가고 있었고, 자기 팔다리를 만지려 하자 손이 닿는 것은 입을 쩍 벌린 괴물들의 아가리뿐이었다. 스킬라는 그 자리에 붙박여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성질은 모습만큼이나 흉악해졌고, 손아귀에 걸려든 불운한 뱃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동료 여섯 명을 죽였고, 아이네이아스의 배들을 부수려 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녀는 바위로 변했고,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뱃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키츠는 『엔디미온』에서 「글라우코스와 스킬라」의 결말을 새롭게 그려 냈다. 글라우코스는 키르케의 유혹에 응하다가, 우연히 그녀가 자기 짐승들을 다루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녀의 배신과 잔인함에 역겨움을 느낀 그는 달아나려 하지만 붙잡혀 다시 끌려온다. 키르케는 그를 꾸짖으며 쫓아내고, 천 년 동안 노쇠함과 고통 속에서 지내라고 선고한다. 글라우코스는 바다로 돌아가고, 거기서 스킬라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녀는 여신에 의해 변신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것이었다. 글라우코스는 자신의 운명을 전해 듣는다. 천 년 동안 물에 빠져 죽은 연인들의 시신을 모두 거두어들이면, 신들의 사랑을 받는 한 젊은이가 나타나 그를 도울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엔디미온이 이 예언을 이루어, 글라우코스의 젊음을 되찾아 주고, 스킬라와 물에 빠져 죽은 연인들 모두를 다시 살려 낸다.

다음은 글라우코스가 그 “바다의 변신” 뒤에 느낀 심정을 스스로 들려주는 대목이다.

“나는 살든 죽든 뛰어들었다. 감각을
이토록 빽빽한 숨 쉬는 물질과 한데 엮는 일은
고통스러운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얼마나 수정처럼 매끄럽고,
내 팔다리 둘레에서 얼마나 부력을 주었는지 충분히 감탄할 수 없다. 처음에는
온종일, 며칠이고 그저 놀라움에 잠겨 머물렀다.
내 뜻은 까맣게 잊고,
오로지 거대한 밀물과 썰물에 몸을 맡겼다.
그러다 처음으로 펼친 날개를 아침의 찬 공기에 내보이는
갓 깃털이 난 새처럼,
나는 두려움 속에서 내 의지의 날개를 시험해 보았다.
그것은 자유였다! 그리고 곧바로 나는
이 바다 밑바닥의 끊임없는 경이들을 찾아갔다,” 등등.

— 키츠.

제8장

피그말리온 — 드리오페 —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 아폴론과 히아킨토스



에드워드 번존스, 「피그말리온과 조각상 — 마음이 바라다」(1878)

피그말리온은 여자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흠을 본 나머지,
마침내 그 성(性)을 혐오하게 되었고 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각가였는데, 상아로 놀라운 솜씨의
조각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살아 있는
어떤 여자도 그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참으로
그것은 살아 움직일 듯한 처녀의 완벽한 모습이었고, 다만 그
수줍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기예는
너무나 완벽해서 스스로를 감추었고, 그 작품은 자연의
솜씨처럼 보였다. 피그말리온은 자기 작품에 감탄했고,
마침내 그 모조된 창조물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종종 손을
그 조각상에 얹고는, 그것이 살아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만져 보았으며, 그럼에도 그것이 그저 상아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어루만지고, 어린
소녀들이 좋아하는 선물들을 주었다. 빛나는 조개껍데기와
매끄럽게 닦은 돌, 작은 새와 여러 빛깔의 꽃, 구슬과
호박(琥珀)이었다. 그는 조각상의 팔다리에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보석을 끼우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귀에는 귀고리를 달고, 가슴에는 진주 줄을 드리웠다. 옷은
그녀에게 잘 어울렸고, 그녀는 옷을 입지 않았을 때보다
못하지 않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는 그녀를 티로스인의
자줏빛 염료로 물들인 천을 깐 긴 의자에 눕히고, 그녀를

아내라 부르며, 부드러운 깃털 베개에 그녀의 머리를 누이고는, 마치 그녀가 그 부드러움을 즐길 수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아프로디테의 축제가 가까워 왔다. 키프로스에서는 이 축제를 대단한 의식으로 치렀다. 제물이 바쳐졌고, 제단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향 내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피그말리온은 의식에서 맡은 역할을 마치고 제단 앞에 섰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신들이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신 분들이여, 바라건대 제 아내로 삼을 여자를 주십시오." 그는 감히 "내 상아 처녀"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 상아 처녀와 같은 여자를." 축제에 와 있던 아프로디테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생각을 알아챘다. 그리고 자신의 호의를 알리는 징조로, 제단의 불길이 뾰족한 불꽃을 이루며 공중으로 세 번 솟아오르게 했다. 피그말리온은 집에 돌아오자 조각상을 보러 갔다. 긴 의자 위로 몸을 숙여 그는 조각상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입술은 따뜻한 듯했다. 그는 다시 입술을 누르고, 손을 팔다리 위에 얹었다. 상아는 그의 손길에 부드럽게 느껴졌고, 그의 손가락 아래에서 히메토스산의 밀랍처럼 눌려 들어갔다. 그는 놀라고 기뻐하면서도 의심했고, 자신이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연인의 열정으로 그는 자신이 바라던 대상을 거듭

어루만졌다. 조각상은 정말로 살아 있었다! 누르자 핏줄이 손가락에 눌렸다가, 다시 둥글게 되돌아왔다. 그제야 아프로디테의 숭배자는 여신에게 감사할 말을 찾았고, 자신의 입술처럼 진짜인 입술에 제 입술을 눌렀다. 처녀는 입맞춤을 느끼고 얼굴을 붉혔으며, 수줍은 눈을 빛을 향해 뜨더니 바로 그 순간 연인을 바라보았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이 맺어 준 혼인을 축복했고, 이 결합에서 파포스가 태어났다.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도시 파포스의 이름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실러는 그의 시 「이상(理想)」에서 피그말리온의 이 이야기를 젊은 마음이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에 적용한다. 다음 번역은 한 친구가 제공한 것이다:

> “옛날 피그말리온이 열정에 찬 기도와 함께
> 돌을 끌어안았듯이,
> 얼어붙은 대리석에 빛이 어려
> 그의 위로 감정의 빛이 비추었듯이,
> 나도 젊은 헌신으로 붙들었다
> 빛나는 자연을 시인의 가슴에;
> 그러자 숨결과 온기와 생명의 움직임이
> 조각상의 형상을 통해 번뜩이는 듯했다.”

"그러자 나의 온 열정을 나누듯이,
침묵하던 형상이 표현을 얻었다.
젊은 용기로 건넨 입맞춤을 되돌려 주고,
내 가슴의 빠른 울림을 알아들었다.
그러자 빛나는 창조물이 나를 위해 살아났으니,
은빛 시냇물은 노래로 넘쳐흘렀다.
나무와 장미들도 감각을 함께 나누었으니,
내 끝없는 생명의 메아리였다."

— S. G. B.

드리오페

드리오페와 이올레는 자매였다. 언니인 드리오페는 안드라이몬의 아내였고, 남편에게 사랑받았으며, 첫아이를 낳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자매는 물가까지 완만하게 비탈진 개울둑을 따라 거닐었다. 언덕 위에는 도금양 덤불이 무성했다. 그들은 님프들의 제단에 바칠 화관을 엮을 꽃을 따려던 참이었다. 드리오페는 귀한 짐인 아기를 가슴에 안고 걸으며 젖을 먹였다. 물가 가까이에는 자줏빛 꽃이 가득 핀 연꽃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드리오페가 꽃을 몇 송이 꺾어 아기에게 주었고, 이올레도 같은 일을 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이올레는 언니가 꽃을 꺾어 낸 줄기 자리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식물은 다름 아닌 님프 로티스였다. 그녀는 비열한 추격자에게서

달아나다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그 지방 사람들에게서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

드리오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른 달아나고 싶었지만 두 발이 땅에 뿌리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발을 빼내려 했으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상체뿐이었다. 나무질이 위로 기어올라 조금씩 그녀의 몸을 감쌌다. 괴로운 나머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려 했지만, 손에는 어느새 잎사귀가 가득 잡혔다.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이 굳어 가고 젖이 더는 나오지 않는 것을 느꼈다. 이올레는 언니의 슬픈 운명을 지켜보았지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라나는 줄기를 끌어안았다. 마치 다가오는 나무를 붙들어 막기라도 하려는 듯했고, 자신도 같은 나무껍질에 싸여 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 드리오페의 남편 안드라이몬이 장인과 함께 다가왔다. 그들이 드리오페를 찾자, 이올레는 새로 생긴 연꽃을 가리켜 보였다. 그들은 아직 따뜻한 나무 줄기를 끌어안고, 그 잎사귀에 입맞춤을 퍼부었다.

이제 드리오페에게는 얼굴만 남아 있었다. 눈물은 여전히 흘러 잎사귀 위로 떨어졌고, 말할 수 있는 동안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운명을 받을 까닭이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나의 잎은 가뭄에 말라 죽고 나의 줄기는 베여 불태워져도 좋다. 이 아기를 데려가 유모에게 맡겨라. 나무 아래로 자주 데려와 젖을 먹이고, 내 그늘에서 놀게 하라.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할 만큼 자라거든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가르치고, 슬픈 목소리로 '우리 어머니는 이 나무껍질 속에 숨어 계시다'라고 말하게 하라. 다만 강둑을 조심하고 꽃을 꺾을 때도 삼가게 하라. 그가 보는 모든 덤불이 변장한 여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랑하는 남편과 동생과 아버지, 안녕히.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거든, 도끼가 나를 상하게 하지 말고, 양떼가 내 가지를 물어뜯지 않게 해 주오. 나는 그대들에게 몸을 숙일 수 없으니, 이리로 올라와 나에게 입 맞춰 주오. 내 입술에 감각이 남아 있는 동안 아이를 들어 올려, 내가 그 아이에게 입 맞출 수 있게 해 주오. 나는 더는 말할 수 없다. 벌써 나무껍질이 내 목을 타고 올라와, 곧 나를 덮어 버릴 것이다. 내 눈을 감겨 줄 필요는 없다. 나무껍질이 그대들의 도움 없이도 감아 줄 것이다." 그리하여 입술은 움직임을 멈추고 생명은 꺼졌다. 그러나 가지들은 한동안 여전히 생명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키츠는 『엔디미온』에서 드리오페를 이렇게 언급한다:

"그녀는 류트를 집어 들었다, 그 줄에서 생기 넘치는
경쾌한 전주가 울려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갈 길을 짓는 소리였다. 그것은 노래였다,
드리오페가 홀로 아기를 재우던 자장가보다
더 섬세한 운율을 지녔고, 더 숲처럼 야생적이었다;" 등등.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아프로디테는 어느 날 아들 에로스와 놀다가, 그의 화살 하나에 자기 가슴을 찔렸다. 그녀는 아들을 밀쳐 냈지만 상처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녀는 아도니스를 보았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이제 좋아하던 곳들, 곧 파포스와 크니도스와 금속이 풍부한 아마토스에 더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도니스가 하늘보다 더 소중했으므로 그녀는 하늘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따라다니며 곁을 지켰다. 그늘에 누워 자신의 매력을 가꾸는 것 말고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던 그녀가 이제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처럼 차려입고 숲과 언덕을 헤맸다. 그녀는 개를 부르고, 토끼와 사슴, 또는 사냥해도 안전한 다른 짐승들을 쫓았지만, 가축 떼를 죽여 피 냄새를 풍기는 늑대와 곰은 피했다. 그녀는 아도니스에게도 그런 위험한 짐승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겁먹은 자에게는 용감하게 굴되, 용감한 자 앞에서 용기를 부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위험에 몸을 드러내고 내

행복을 걸지 마세요. 자연이 무기를 주어 무장시킨 짐승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의 영광을 그런 위험과 바꿀 만큼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신의 젊음과 아프로디테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움도 사자와 털 억센 멧돼지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들의 끔찍한 발톱과 엄청난 힘을 생각하세요! 나는 그 종족 전체가 싫어요. 왜냐고 묻나요?" 그리고 그녀는 아탈란테와 히포메네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아프로디테에게 감사하지 않은 죄로 사자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경고한 뒤, 그녀는 백조가 끄는 전차에 올라 하늘을 가르며 떠났다. 그러나 아도니스는 그런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너무 고귀한 사람이었다. 사냥개들이 굴에서 멧돼지 한 마리를 몰아내자, 청년은 창을 던져 옆으로 비껴 찔러 짐승에게 상처를 입혔다. 멧돼지는 입으로 창을 뽑아 들고 아도니스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가 돌아서서 도망쳤지만 멧돼지가 따라잡아, 엄니를 그의 옆구리에 깊이 박아 넣었다. 그는 들판에 쓰러져 죽어 갔다.

아프로디테는 백조가 끄는 전차를 타고 아직 키프로스에 닿기도 전에, 공중을 타고 올라오는 사랑하는 이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하얀 날개의 말들을 돌려 땅으로 내려왔다. 가까이 다가가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도니스의

시신이 피에 흠뻑 젖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전차에서 내려 몸을 굽히고 가슴을 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운명의 여신들을 원망하며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그들의 승리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내 슬픔의 기념은 남을 것이고, 나의 아도니스, 당신의 죽음과 내가 애도하는 모습은 해마다 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당신의 피는 꽃으로 바뀔 것이다. 그 위안만큼은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피 위에 넥타르를 뿌렸다. 피와 넥타르가 섞이자, 빗방울이 떨어지는 웅덩이에서처럼 거품이 일었고, 한 시간이 지나자 석류처럼 붉은빛을 띤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그러나 그 꽃은 오래가지 못한다. 바람이 불어 꽃송이를 활짝 열고, 이어서 꽃잎을 날려 버린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이 꽃은 ‘아네모네’, 곧 바람꽃이라고 불린다. 꽃을 피우는 것도, 지게 하는 것도 같은 바람이기 때문이다.

밀턴은 「코머스」에서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의 이야기를 암시한다:

> “히아신스와 장미꽃 침상에
> 젊은 아도니스 자주 쉬니,
> 깊은 상처 점차 아물어 가고
> 부드러운 잠 속에서, 그리고 땅 위에
> 아시리아의 여왕이 슬프게 앉아 있나니;” 등등

아폴론과 히아킨토스

아폴론은 히아킨토스라는 청년을 열렬히 사랑했다. 그는 청년의 운동에 함께했고, 청년이 낚시를 갈 때는 그물을 들어 주었으며, 사냥을 떠날 때는 사냥개를 이끌었다. 산으로 나들이를 갈 때도 뒤따랐고, 청년을 위해 자신의 수금과 화살을 제쳐 두었다. 어느 날 둘은 함께 원반던지기 놀이를 했다. 아폴론은 힘과 기술을 섞어 원반을 높이 들어 올려, 높고 멀리 날려 보냈다. 히아킨토스는 날아가는 원반을 눈으로 좇다가, 놀이에 들뜬 나머지 앞으로 달려 나가 그것을 잡아 자기도 던지려 했다. 그런데 원반이 땅에서 튀어 올라 그의 이마를 때렸다. 청년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신도 청년만큼이나 창백해진 채 청년을 일으켜 상처를 막고 스러져 가는 목숨을 붙들어 두려고 온갖 기술을 다 부렸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상처는 이미 의술로 어찌할 수 없었다. 정원에서 백합의 줄기가 꺾이면 그 꽃이 고개를 숙이고 꽃잎을 땅으로 향하듯, 죽어 가는 소년의 머리도 목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듯 어깨 위로 툭 떨어졌다.
"히아킨토스여, 너는 죽어 가는구나. 나 때문에 젊음을 빼앗겼구나." 포이보스가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너의 것이고, 죄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으니, 너는 나와 함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의 수금이

너를 기리고, 나의 노래가 너의 운명을 전할 것이다. 너는 나의 슬픔이 새겨진 꽃이 될 것이다." 아폴론이 말을 하는 동안, 땅에 흘러 풀을 적셨던 피가 더 이상 피가 아니었다. 티로스인의 자줏빛보다 더 아름다운 빛깔의 꽃이 피어올랐는데, 백합을 닮았다. 다만 이 꽃은 자줏빛이고, 백합은 은빛이 도는 흰빛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러나 포이보스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더 큰 영예를 주기 위해, 그는 꽃잎에 자신의 슬픔을 새기고 그 위에 "아! 아!"라고 써 넣었다. 그 글자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이 꽃은 히아킨토스의 이름을 가지며, 봄이 돌아올 때마다 그의 운명을 기억하게 한다.

전해 내려오기로는 제피로스(서풍)도 히아킨토스를 사랑했는데, 그가 아폴론을 더 좋아하는 것을 질투했다고 한다. 그래서 제피로스가 원반의 방향을 틀어 히아킨토스를 맞히도록 불었다는 것이다. 키츠는 『엔디미온』에서 원반던지기 놀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리킨다.

> "그들은 원반을 던지는 이들을 지켜보기도 했으니, 양편에서 마음을 다해 바라보며 히아킨토스의 슬픈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잔인한 숨결로 그를 쓰러뜨린 것은 제피로스였다. 이제 뉘우친 제피로스는 포이보스가 하늘에 오르기도 전에, 흐느끼듯 내리는 빗속에서 그 꽃을 어루만진다."

밀턴의 「리시더스」에서도 히아킨토스를 가리키는 암시를 알아볼 수 있다.

"그 슬픔이 새겨진 핏빛 꽃과 같이."

제9장

케익스와 할키오네, 혹은 할키온 새



리처드 윌슨, 「케익스와 할키오네」(1768)

케익스는 테살리아의 왕으로, 폭력이나 불의 없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샛별 헤스페로스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름다움이 내뿜는 광채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아이올로스의 딸 할키오네가 그의 아내였으며,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케익스는 동생을 잃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동생의 죽음 뒤에 이어진 끔찍한 징조들 때문에 그는 신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듯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아폴론의 신탁을 구하기 위해 이오니아의 클라로스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아내 할키오네에게 그 뜻을 밝히자마자 그녀의 몸에 전율이 흘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사랑하는 남편이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났단 말인가요? 언제나 당신 생각의 가장 앞자리에 있던 나에 대한 그 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할키오네가 곁에 없어도 편안해질 만큼 당신은 익숙해졌나요? 내가 떠나 있기를 바라나요?” 그녀는 또한 바람의 거셈을 들려주며 그를 말리려 했다. 그녀는 아버지 집에서 살던 시절 그 바람을 잘 알고 있었다. 아이올로스는 바람의 신이었고, 바람들을 붙들어 두는 일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다. “바람들은 서로 어찌나 사납게 달려드는지,” 그녀가 말했다, “그 충돌에서 불꽃이 번쩍인답니다. 그래도 가셔야 한다면,” 그녀는 덧붙였다, “사랑하는 남편이여, 나도 함께 가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마주칠 실제 위험뿐 아니라 내 두려움이 그려 내는 위험까지도 나 혼자 견뎌야 할 테니까요.”

이 말들은 케익스 왕의 마음에 무겁게 얹혔다. 그녀를 함께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그녀 못지않게 그의 바람이기도 했지만, 바다의 위험에 그녀를 내맡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최대한 달래며 대답했고, 이렇게 말을 맺었다. "나는 아버지인 샛별의 빛에 걸고 약속하오. 운명이 허락한다면 달이 두 번 둥근 몸을 채우기 전에 돌아오겠소." 이렇게 말한 뒤 그는 배를 배 창고에서 끌어내게 하고, 노와 돛을 배에 실으라고 명했다. 할키오네는 이 준비를 보자 무언가 나쁜 일이 닥칠 것을 예감한 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눈물과 흐느낌 속에 작별을 고했고, 그러고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케익스는 좀 더 머뭇거리고 싶었으나, 이제 젊은이들이 노를 잡고 길고 고른 노질로 힘차게 물결을 가르며 저어 나갔다. 할키오네는 눈물에 젖은 눈을 들어, 갑판에 서서 그녀에게 손을 흔드는 남편을 보았다. 그녀는 배가 멀어져 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 신호에 답했다. 배 자체가 더는 보이지 않게 되자, 그녀는 돛의 마지막 빛이라도 붙잡으려 눈을 부릅떴고, 그마저 사라지고 나서야 방으로 물러나 텅 빈 침상 위에 몸을 던졌다.

그사이 배는 항구를 빠져나가고, 바람이 돛줄 사이를 희롱한다. 선원들은 노를 거두고 돛을 올린다. 항로의 절반쯤, 혹은 그보다 조금 덜 갔을 때 밤이 내려오자, 바다는 부풀어 오른 물결로 하얗게 물들기 시작하고 동풍은 폭풍으로 몰아친다. 선장은 돛을 거두라고 명령하지만, 폭풍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바람과 물결의 포효가 워낙 커서 그의 명령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알아서 일에 매달린다. 노를 단단히 묶고, 배를 보강하고, 돛을 말아 줄인다. 이렇게 각자 최선이라 믿는 일을 하는 동안에도 폭풍은 점점 거세진다. 사내들의 고함, 삭구가 덜컹거리는 소리,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소리와 뒤섞인다. 부풀어 오른 바다는 하늘까지 솟구쳐 구름 사이로 물거품을 흩뿌리는 듯하고, 다시 바닥까지 가라앉아서는 얕은 모래톱의 빛깔, 스틱스의 검은빛을 띤다.

배는 이 모든 변화를 함께 겪는다. 사냥꾼들의 창을 향해 달려드는 사나운 짐승처럼 보인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데, 마치 하늘이 내려와 바다와 하나가 되려는 듯하다. 번개가 잠시 멎으면 밤이 제 어둠을 폭풍의 어둠에 보태는 것 같다. 그러다 번쩍이는 섬광이 어둠을 찢어 놓고 모든 것을 눈부신 빛으로 드러낸다. 기술은 소용이 없고, 용기는 꺾이며, 물결마다 죽음이 찾아오는 듯하다. 사내들은 공포에 질려 멍해진다. 집에 남겨 두고 온 부모와 친척,

그리고 자식들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에 떠오른다. 케익스는 할키오네를 생각한다. 그의 입에는 그녀의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녀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한편으로 기뻐한다. 이윽고 벼락에 돛대가 부러지고, 키가 망가진다. 그러자 승리에 취한 듯한 거대한 파도가 말리며 난파선을 내려다보다가 덮쳐서 산산조각 낸다. 그 충격에 정신을 잃은 몇몇 선원은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부서진 배 조각에 매달린다. 케익스는 한때 홀을 쥐던 손으로 널빤지 하나를 붙잡고 도움을 청한다. 아버지와 장인을 부르지만, 헛된 외침이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이름은 할키오네였다. 그의 생각은 오직 그녀에게 매달린다. 그는 파도가 자신의 몸을 그녀의 눈앞으로 실어다 주고, 그녀의 손으로 묻히게 해 달라고 빈다. 마침내 물이 그를 덮치고, 그는 가라앉는다. 그날 밤 샛별은 희미하게 보였다. 하늘을 떠날 수는 없었으므로, 구름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편 할키오네는 이 모든 참화를 모른 채, 남편이 약속한 귀환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제 그녀는 남편이 입을 옷을 준비하고, 남편이 도착하면 자신이 입을 옷을 마련한다. 모든 신에게 자주 향을 바치지만, 그중에서도 헤라에게 가장 많이 바친다. 이미 세상에 없는 남편을 위해 그녀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 남편이 무사하기를,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떠나 있는 동안 자신보다 더 사랑할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빌었다. 그러나 이 기도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운명이었던 것은 마지막 하나뿐이었다. 여신은 마침내 이미 죽은 자를 위해 간청받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장례 의식을 치러야 할 손이 자신의 제단을 향해 들려 있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여신은 이리스를 불러 말했다. "나의 충실한 전령 이리스여, 졸음이 가득한 힙노스의 거처로 가서 그에게 케익스의 모습을 한 환영을 할키오네에게 보내라고 전하여라. 그리하여 그녀에게 이 일을 알게 하여라."

이리스는 여러 빛깔의 옷을 입고, 활로 하늘을 물들이며 잠의 왕이 사는 궁전을 찾아간다. 킴메리아 땅 근처에는 둔한 신 힙노스가 사는 산속 동굴이 있다. 이곳에는 포이보스가 감히 다가가지 못한다. 떠오를 때도, 한낮에도, 질 때도 그러하다. 땅에서는 구름과 그늘이 피어오르고, 빛은 희미하게 깜빡인다. 볏 달린 머리의 새벽을 알리는 새도 이곳에서는 에오스를 향해 소리 높여 울지 않는다. 깨어 있는 개도, 더 영리한 거위도 침묵을 깨뜨리지 않는다. 들짐승도, 가축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사람의 대화 소리도 고요를 흔들지 못한다. 이곳에는 침묵만이 다스린다. 다만 바위 밑바닥에서 레테 강이 흘러나오며, 그 졸졸거리는 소리로 잠을 부른다. 동굴 입구 앞에는 양귀비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 밖의 다른 풀들도 함께 자란다. 밤의 여신은 그 풀즙에서 잠을

거두어 어두워진 대지 위에 뿌린다. 저택에는 삐걱거리며 열리는 문도 없고, 문지기도 없다. 그 가운데에는 검은 흑단으로 만든 침상이 있고, 검은 깃털과 검은 휘장으로 꾸며져 있다. 그 위에 신이 누워 있는데, 잠에 빠져 그의 사지는 늘어져 있다. 그 주위에는 온갖 모습을 닮은 꿈들이 누워 있다. 그 수는 밭에 자라는 낟알의 줄기만큼, 숲의 나뭇잎만큼,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많다.

여신이 들어가 주변을 맴도는 꿈들을 쓸어내자, 그녀의 빛이 온 동굴을 환하게 밝혔다. 신은 겨우 눈을 뜨고, 이따금 수염을 가슴 위로 떨어뜨리다가, 마침내 졸음에서 몸을 떼어 내며 팔에 기대어 일어났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힙노스여, 신들 가운데 가장 온화한 분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심에 지친 가슴을 달래 주는 분이여, 헤라께서 당신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트라키스 시에 사는 할키오네에게 꿈을 보내되, 잃어버린 남편의 모습과 난파의 모든 일을 그 꿈에 보여 주라는 명입니다."

이리스는 전언을 마치자 서둘러 떠났다. 고인 공기를 더는 견딜 수 없었고, 졸음이 몸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을 느끼자 그곳을 벗어났다. 그녀는 무지개 활을 타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힙노스는 자신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를 불렀다. 그는 모르페우스였다. 모르페우스는 여러 모습을 흉내 내는 데 가장 능숙했다. 걸음걸이와 얼굴 표정과 말하는 방식을 흉내 내었고, 저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옷과 자세까지 똑같이 만들어 냈다. 다만 그는 사람만 흉내 냈다. 새와 짐승과 뱀을 흉내 내는 일은 다른 아들에게 맡겨졌다. 그 아들은 이케로스라고 불린다. 셋째 아들은 판타소스인데, 바위와 물과 숲과 그 밖의 생명 없는 것들로 몸을 바꾼다. 이들은 밤에 잠든 왕과 높은 사람들을 시중들었고, 다른 아들들은 평범한 백성 사이를 돌아다녔다. 힙노스는 모든 형제 가운데 모르페우스를 골라 이리스의 명을 수행하게 했다. 그런 뒤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고마운 휴식에 몸을 맡겼다.

모르페우스는 날갯짓 소리도 내지 않고 날아서 곧 하이몬의 도시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날개를 벗고 케익스의 모습을 취했다. 그 모습으로, 다만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고 벌거벗은 채로, 불행한 아내의 침상 앞에 섰다. 그의 수염은 물에 젖은 듯했고, 물에 잠긴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침대 위로 몸을 숙이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는 말했다. "불행한 아내여, 그대는 그대의 케익스를 알아보겠소, 아니면 죽음이 내 얼굴을 너무 많이 바꾸어 놓았소? 나를 보시오, 나를 알아보시오. 남편 본인이 아니라 그 그림자요. 할키오네여, 그대의 기도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소. 나는

죽었소. 내가 돌아오리라는 헛된 희망에 더는 자신을 속이지 마시오. 사나운 바람이 에게해에서 내 배를 가라앉혔고, 내가 그대를 부르며 소리칠 때 파도가 내 입을 가득 채웠소. 이것을 불확실한 전령이 전하는 것도, 막연한 소문이 그대의 귀에 닿게 하는 것도 아니오. 나는 몸소, 난파당한 사람으로서 찾아와 내 운명을 그대에게 알리는 것이오. 일어나시오! 내게 눈물을 주시오, 애도를 주시오. 나를 울어 주는 이 없이 타르타로스로 내려가게 하지 마시오." 모르페우스는 이 말에 남편의 목소리 같은 음성을 더했다. 그는 진짜 눈물을 쏟는 듯했고, 그의 손짓은 케익스의 것이었다.

할키오네는 흐느끼며 신음했고, 잠 속에서 팔을 뻗어 그의 몸을 껴안으려 했으나 허공만 움켜쥐었다. "가지 마세요!" 그녀가 외쳤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요." 자기 목소리에 그녀는 잠에서 깼다. 벌떡 일어나 그가 아직 곁에 있는지 간절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외침에 놀란 하인들이 등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가 보이지 않자 그녀는 가슴을 치고 옷을 찢었다. 머리를 풀어 헤칠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거칠게 쥐어뜯었다. 유모가 무엇 때문에 그리 슬퍼하는지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할키오네는 이제 없어요. 그녀는 케익스와 함께 죽었어요. 위로의 말은 하지 마세요. 그는 난파되어 죽었어요. 나는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아보았어요. 그를 붙잡아 머물게 하려고 두 손을 뻗었지요.

그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건 분명 내 남편의 진짜 그림자였어요. 익숙한 얼굴도, 그의 것이던 아름다움도 없이, 창백하고 벌거벗은 채 머리카락은 바닷물에 젖은 모습으로 그가 불행한 나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그 슬픈 환영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발자국 흔적을 찾으려고 바닥을 살폈다. "이것이었어요. 내 예감하는 마음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그에게 나를 두고 떠나지 말라고, 파도에 몸을 맡기지 말라고 애원했을 때 말이에요. 아, 당신이 기어이 떠나려 했다면 나도 함께 데려가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그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 없이 써야 할 남은 삶도, 따로 맞을 죽음도 없었을 테니까요. 내가 살아남아 버티고 견딜 수 있다면, 나는 바다가 나에게 한 것보다 더 모질게 나 자신을 대하는 셈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버티지 않겠어요. 불행한 남편이여, 당신과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번만큼은 적어도 당신과 함께하겠어요. 죽어서도, 하나의 무덤에 우리가 함께 묻힐 수 없다면 하나의 비문에라도 함께 새겨질 거예요. 내 재를 당신의 재와 함께 눕힐 수 없다면, 적어도 내 이름만이라도 당신과 떨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슬픔이 그녀에게 더 많은 말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말들은 눈물과 흐느낌에 끊어졌다.

이제 아침이었다. 그녀는 바닷가로 가서 그가 떠나던 날 그를 마지막으로 본 자리를 찾았다. “그가 여기 머무르며 밧줄을 풀던 때, 그는 내게 마지막 입맞춤을 했지.” 그녀는 눈에 띄는 것마다 다시 살피고 그 순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려 애쓰며 바다를 내다보았다. 그러다 물 위에 떠 있는 희미한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파도가 차츰 그것을 가까이 실어 오자 그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난파된 누군가라는 생각에 그녀는 깊이 마음이 움직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 불행한 사람이여, 그리고 그대에게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도 불행하리라!” 그것은 파도에 실려 점점 가까이 왔다. 그녀가 점점 더 가까이 바라볼수록 그녀의 몸은 더 많이 떨렸다. 이제 그것은 해안에 가까워졌다. 이제 그녀가 알아볼 만한 표지들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을 그를 향해 뻗으며 외쳤다. “오,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여,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셨나요?”

방파제 하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뻗어 있었는데, 바다의 공격을 꺾고 거세게 밀려드는 물살을 막으려고 쌓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 둑 위로 뛰어올랐고, 놀랍게도 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돋아난 날개로 공기를 치며 물결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불행한 새가 되어 있었다. 날아가면서

그녀의 목에서는 슬픔이 가득한, 탄식하는 이의 목소리 같은 울음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말 없고 핏기 없는 몸에 닿자, 새로 돋아난 날개로 사랑하는 사지를 감싸 안고, 딱딱한 부리로 입맞춤을 하려 애썼다. 케익스가 그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저 물결의 움직임이었는지는 지켜보던 이들도 의심했지만, 그 몸이 고개를 드는 듯 보였다. 실은 그가 정말로 느꼈고, 두 사람을 가엾게 여긴 신들이 둘 다 새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짝을 지어 새끼를 낳았다. 겨울이 되면 고요한 이레 동안 할키오네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둥지에 앉아 알을 품었다. 그동안에는 뱃사람들에게 길이 안전했다. 아이올로스가 바람을 지켜 깊은 바다를 흔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바다는 그의 손자들에게 맡겨졌다.

다음 시행은 바이런의 「아비도스의 신부」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묘사의 마지막 부분을 빌려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작가가 떠다니는 시체의 움직임을 보고 그 착상을 얻었다고 밝혀져 있으니 그렇지 않다.

> “몸부림치는 베개 위에서 흔들리듯
> 그의 머리는 출렁이는 물결 따라 솟았다 가라앉고,
> 생명이 아닌 움직임을 지닌 그 손은
> 그래도 힘없이 싸움을 걸려는 듯하구나.
> 솟구치는 조류에 높이 내던져졌다가
> 다시 파도와 나란히 가라앉는다…”

밀턴은 「그리스도 탄생 찬가」에서 할키온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한다:

> “그러나 평화로운 밤이었다,
> 빛의 왕자가
> 대지에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던 그 밤은.
> 바람들은 경이에 잠겨 숨죽인 채
> 물결에 부드럽게 입 맞추며
> 온화한 바다에 새로운 기쁨을 속삭였다.
> 바다는 이제 격노하기를 완전히 잊고,
> 고요의 새들은 마법에 걸린 물결 위에 앉아 알을 품는다.”

키츠도 『엔디미온』에서 이렇게 말한다:

> “오, 마법의 잠이여! 오, 다정한 새여,
> 마음의 소란한 바다 위에 앉아 품고 있구나
> 그 바다 잔잔해지고 고요해질 때까지.”

제10장

베르툼누스와 포모나



프란체스코 멜치, 「베르툼누스와 포모나」(1518~1522년경)

하마드리아데스는 숲의 님프들이었다. 포모나도 이 부류에 속했으며, 정원을 사랑하고 과일을 가꾸는 일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능가하지 못했다. 그녀는 숲이나 강에는 관심이 없었고, 경작된 땅과 맛좋은 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사랑했다. 그녀의 오른손에 들린 무기는 창이 아니라 가지치기 칼이었다. 그 칼을 들고 그녀는 때로는 지나치게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솎아내고 제멋대로 뻗은 가지를 잘라 냈으며, 때로는 가지를 갈라 접순을 끼워 넣어 나무가 제 것이 아닌 새싹을 품게 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아끼는 나무들이 가뭄에 시달리지 않도록 살폈고, 목마른 뿌리가 마실 수 있도록 물길을 그 나무들 곁으로 끌어 왔다. 이 일이 그녀의 직업이자 열정이었으며, 그녀는 아프로디테가 불러일으키는 사랑에서 자유로웠다. 그녀는 시골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했기에 과수원의 문을 잠가 두고 남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파우누스들과 사티로스들은 그녀를 얻기 위해서라면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았을 것이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늙은 실바누스도, 머리에 솔잎 화관을 두른 판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베르툼누스가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이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아, 그는 얼마나 자주 수확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바구니에 곡식을 담아 그녀에게 가져갔던가! 그는 실제 수확하는 일꾼처럼 보였다. 허리에 건초 끈을 동여매고 있으면 방금 풀을 뒤집다

온 것처럼 보였다. 때로는 손에 소몰이 막대를 들고 있어, 지친 소들의 멍에를 방금 벗겨 주고 온 것처럼 보였다. 또 어떤 때는 전지용 낫을 들고 포도 재배자로 행세했고, 또 어떤 때는 어깨에 사다리를 메고 사과를 따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때로는 제대한 병사인 양 발걸음을 옮겼고, 또 어떤 때는 낚싯대를 들고 낚시하러 가는 사람처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거듭 그녀의 곁에 다가갈 수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의 열정을 키웠다.

어느 날 베르툼누스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손에 지팡이를 든, 백발의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노파는 정원에 들어가 과일을 칭찬했다. “참 훌륭하구나, 아가야.” 그녀는 말하며 포모나에게 입맞춤했는데, 그것은 영 노파다운 입맞춤이 아니었다. 노파는 둑에 앉아, 머리 위로 늘어진 열매 가득한 가지들을 올려다보았다. 맞은편에는 부풀어 오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덩굴이 감긴 느릅나무가 있었다. 노파는 나무와 그에 얽힌 덩굴을 똑같이 칭찬했다. “하지만,” 노파가 말했다. “이 나무가 홀로 서 있고 감겨 오르는 덩굴이 없다면, 쓸모없는 잎사귀 말고는 우리를 끌어당기거나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게다. 마찬가지로 덩굴도 느릅나무를 감고 있지 않다면 땅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 왜 너는 저 나무와 덩굴에게서 배우지 않느냐? 누군가와 맺어지기를 승낙하려무나. 나는 네가 그러기를

바란다. 헬레네에게도, 슬기로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에게도 이보다 많은 구혼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네가 그들을 물리치는 동안에도 그들은 너에게 구애하고 있다. 이 산에 드나드는 시골의 신들과 온갖 다른 존재들이 말이다. 그러나 네가 현명하여 좋은 짝을 맺고 싶다면, 네가 짐작도 못 할 만큼 너를 아끼는 이 늙은이의 충고를 듣겠다면, 나머지 모두를 물리치고 내 추천을 받아 베르툼누스를 받아들여라. 나는 그를 그 자신이 아는 것만큼 잘 안다. 그는 떠돌아다니는 신이 아니라 이 산들에 속한 신이다. 또한 요즘 흔히 보는 연인들처럼, 눈에 띄는 아무나 사랑하는 자도 아니다. 그는 너를,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게다가 그는 젊고 잘생겼으며,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신하는 재주가 있어서 네가 바라는 대로 스스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더구나 그는 너와 같은 것을 좋아하여 정원 가꾸기를 즐기고, 네 사과를 감탄하며 다룬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과일에도, 꽃에도, 그 밖의 무엇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너만을 생각한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지금 내 입을 빌려 그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신들은 잔인함을 벌한다는 것을, 아프로디테는 굳은 마음을 미워하여 그런 죄를 조만간 갚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를 증명하기 위해 키프로스에서는 사실로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그 이야기가 네 마음을 더 너그럽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피스는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이였는데,
테우크로스의 오랜 가문에 속한 고귀한 귀부인 아낙사레테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열정과 싸웠으나,
그것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의 저택으로
간청하러 갔다. 먼저 그는 자신의 열정을 그녀의 유모에게
털어놓고, 유모가 길러 온 아가씨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의
청을 들어 달라고 애원했다. 그다음에는 그녀의 하인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때로는 자신의 맹세를 서판에
적어 보냈고, 자주 눈물에 젖은 화환을 그녀의 문에 걸어
두었다. 그는 그녀의 문턱에 몸을 던지고, 잔인한 빗장과
문살을 향해 자신의 탄식을 쏟아 냈다. 그러나 그녀는 11월의
폭풍 속에서 일어서는 파도보다 귀가 어두웠고, 독일
대장간에서 나온 강철보다, 그리고 제가 나고 자란 절벽에
아직 매달려 있는 바위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그를 비웃고
조롱했으며, 상냥하지 않은 대접에 잔인한 말까지 보태면서,
희망의 빛은 조금도 비춰 주지 않았다.”

“이피스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사랑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다.
‘아낙사레테여, 그대가 이겼소. 이제 나의 간청을 더는 견디지
않아도 되리라. 승리를 누리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이마에는 월계관을 두르시오. 그대가 이겼소! 나는 죽소.
돌같이 굳은 마음이여, 기뻐하시오! 적어도 이것만은 그대를

기쁘게 하고, 그대가 나를 칭찬하도록 만들 수 있으니, 이것으로 그대를 향한 내 사랑이 목숨이 다할 때에야 나를 떠났음을 증명하겠소. 내 죽음을 소문에 맡겨 그대에게 전하게 하지도 않겠소. 내가 직접 와서 죽는 모습을 그대에게 보여 줄 것이니, 그대는 그 광경으로 눈을 채우시오. 그러나 오, 인간의 고통을 내려다보는 신들이여, 내 운명을 지켜보소서. 내가 청하는 것은 이것뿐이오. 내가 후세에도 기억되게 해 주시고, 신들께서 내 생명에서 거두어 가신 세월을 내 명성에 더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그는 창백한 얼굴과 눈물 젖은 눈을 그녀의 저택으로 돌렸다. 그리고 전에 자주 화환을 걸어 두던 문기둥에 밧줄을 매었다. 목을 올가미에 걸고 그는 중얼거렸다. '적어도 이 화환은 그대를 기쁘게 하겠지, 잔인한 아가씨여!' 그렇게 몸을 던지자 목뼈가 부러져 매달렸다. 떨어지면서 그의 몸은 문에 부딪혔고, 그 소리는 신음 소리와 같았다. 하인들이 문을 열고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가엾다고 외치며 그를 들어 올려 집으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몸을 받아 차가운 몸을 가슴에 안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내뱉는 슬픈 말들을 쏟아 냈다. 애도의 행렬이 도시를 지나갔고, 창백한 시신은 들것에 실려 화장터로 옮겨졌다. 마침 아낙사레테의 집은 그

행렬이 지나는 길가에 있었고, 이미 복수의 신이 벌을 내리기로 점찍어 둔 그녀의 귀에 애도하는 이들의 곡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말했다. '저 슬픈 행렬을 보자.' 그리고 망루에 올라 열린 창으로 장례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들것에 누운 이피스의 모습에 닿자마자, 그 눈이 굳기 시작했고 몸속의 따뜻한 피도 식어 갔다.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을 돌리려 애썼으나 허사였다. 점차 그녀의 온몸이 마음처럼 돌이 되었다. 이 일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 조각상은 지금도 살라미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에 남아 있으며, 그 여인의 모습 그대로 서 있다. 그러니 아가야, 이 일을 잘 생각해 보고 멸시와 망설임을 내려놓고 연인을 받아들이려무나. 그러면 봄 서리가 네 어린 열매를 시들게 하는 일도, 사나운 바람이 네 꽃을 흩뜨리는 일도 없기를!"

베르툼누스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늙은 노파의 변장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모습인 준수한 청년으로 그녀 앞에 섰다. 그 모습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태양과도 같았다. 그는 다시 간청하려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논변과 본래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 충분했다. 님프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서로 같은 불길에 타고 있음을 인정했다.

포모나는 사과 과수원의 특별한 수호 여신이었으며, 그런 까닭에 사과주에 관한 시를 쓴 필립스가 무운시로 그녀를 불러냈다. 톰슨도 『계절』에서 그를 이렇게 언급한다:

> "포모나의 시인 필립스, 그대는 둘째로
> 운율의 사슬을 풀고 무운시로 감히
> 영국인다운 자유로움으로 영국의 노래를 부른 이로다."

그러나 포모나는 다른 과실들도 다스리는 여신으로 여겨졌고, 톰슨도 그렇게 그녀를 부른다:

> "포모나여, 나를 그대의 시트론 숲으로 데려가라,
> 레몬과 날카로운 라임이 자라는 곳으로,
> 푸른 잎 사이로 짙은 오렌지가 빛을 내며
> 옅은 빛의 영광을 함께 섞는 그곳으로. 나를 눕혀 다오
> 넓게 드리운 타마린드 아래에, 미풍에 흔들리며
> 열을 식혀 주는 열매를 떨구는 그 나무 아래에."

제11장

에로스와 프시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황금 상자를 여는 프시케」(1903)

어떤 왕과 왕비에게는 딸이 셋 있었다. 두 언니의 아름다움도 보통이 아니었지만, 막내의 아름다움은 너무도 놀라워서 말로는 그 찬미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워낙 대단해서, 이웃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떼를 지어 그녀를 보러 왔고, 놀라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오직 아프로디테에게만 바쳐야 마땅한 경배를 그녀에게 바쳤다. 실제로 아프로디테의 제단은 버려져 찾는 이가 없었고, 사람들의 숭배는 이 젊은 처녀에게로 옮아갔다. 그녀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노래로 그녀를 찬양했고, 그녀가 걷는 길에는 화관과 꽃들을 뿌렸다.

이 불멸의 신들에게만 바쳐야 할 경배가 한낱 죽을 인간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은 진짜 아프로디테를 크게 노엽게 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암브로시아 같은 머리채를 흔들며 외쳤다. "그렇다면 내가 한낱 인간 처녀에게 명예를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그 왕족 목자가 제우스 자신에게 인정받은 판결로 나에게 아름다움의 상을 주었던 것도 헛된 일이었구나. 내 빛나는 경쟁자인 팔라스와 헤라를 제치고 말이다. 하지만 이 처녀가 내 명예를 그렇게 조용히 빼앗게 두지는 않겠다. 이토록 분수에 넘치는 아름다움을 가진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하여 그녀는 본성이 이미 짓궂은 날개 달린 아들
에로스를 불러, 자신의 푸념으로 그를 더욱 부추기고
자극했다. 그녀는 그에게 프시케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 고분고분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벌하거라. 네 어미가 당한 모욕이 큰 만큼 달콤한 복수를
어미에게 안겨다오. 저 오만한 처녀의 가슴에 천하고
비루하며 가치 없는 어떤 자를 향한 열정을 스며들게 해라.
지금 그녀가 누리는 기쁨과 승리만큼이나 큰 굴욕을 그녀가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에로스는 어머니의 명령을 따를 채비를 했다. 아프로디테의
정원에는 샘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단물이 솟는 샘이고
다른 하나는 쓴물이 솟는 샘이었다. 에로스는 호박으로 만든
두 개의 병을 각각의 샘에서 채운 뒤, 그것들을 화살통 위에
매달고 서둘러 프시케의 방으로 갔다. 그는 프시케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는 거의 연민을 느낄
뻔했지만, 쓴 샘의 물방울 몇 방울을 그녀의 입술에
떨어뜨렸다. 그다음 화살촉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건드렸다.
그 닿음에 프시케는 깨어나 눈을 떴고, 그 눈동자는
에로스(그 자신은 보이지 않았다)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그는 너무 놀라서,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화살에 스스로를
찔렸다. 제 상처에는 개의치 않고, 이제 그의 온 마음은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바로잡는 데 있었다. 그는 기쁨의 향긋한 물방울을 그녀의 비단 같은 곱슬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아프로디테에게 미움을 받게 된 프시케는 그 모든 매력으로도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 사실 모든 눈이 그녀를 열렬히 바라보았고, 모든 입이 그녀를 칭송했다. 그러나 왕도, 왕족의 젊은 청년도, 평민도 나서서 그녀에게 청혼하지 않았다. 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그녀의 두 언니는 이미 오래전에 두 왕자와 혼인했다. 하지만 프시케는 외로운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고독을 한탄했다. 그녀는 아첨은 넘치게 얻었으나 사랑은 일깨우지 못한 그 아름다움에 지쳐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자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들의 노여움을 샀을까 두려워 아폴론의 신탁을 구했고, 이런 대답을 들었다. "이 처녀는 어떤 필멸의 연인과도 혼인할 운명이 아니다. 그녀의 미래의 남편은 산꼭대기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신도 인간도 저항할 수 없는 괴물이다."

이 끔찍한 신탁의 선고에 모든 백성이 낙담했고, 그녀의 부모는 슬픔에 몸을 맡겼다. 그러나 프시케는 말했다. "사랑하는 부모님, 왜 이제 와서 저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과분한 영예를 안겨 주고 한목소리로 저를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을 때 오히려 슬퍼하셨어야 합니다. 이제 보니 저는 그 이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불행한 운명이 제게 정해 준 그 바위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 왕가의 처녀는 행렬에 자리를 잡았다. 그 행렬은 혼례의 장엄함보다 장례 행렬을 더 닮아 있었다. 그녀는 부모와 함께 백성의 통곡 속에서 산에 올랐고, 부모는 산꼭대기에 그녀를 홀로 남겨 둔 채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산마루에 서서 두려움에 숨을 몰아쉬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있던 프시케를, 부드러운 서풍 제피로스가 땅에서 들어 올려 가볍게 꽃 피는 골짜기로 옮겨 주었다. 차츰 그녀의 마음이 가라앉았고, 그녀는 풀이 우거진 둑에 몸을 누이고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 기운을 되찾은 그녀가 둘러보니 가까이에 키가 크고 위엄 있는 나무들이 들어선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그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 한가운데에 맑고 투명한 물을 뿜어내는 샘이 있었고, 그 곁에는 웅장한 궁전이 서 있었다. 그 당당한 정면을 보는 이는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행복하게 머무는 곳이라고 느꼈다. 감탄과 경이에 이끌려 그녀는 건물에 다가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마주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황금 기둥이 둥근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고, 벽에는 사냥하는 짐승과 전원 풍경을 새긴

조각과 그림이 가득하여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했다. 더 나아가 보니, 공식 접견실 말고도 온갖 보물과 자연과 예술이 빚어낸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가득 찬 방들이 또 있었다.

그녀의 눈이 이렇게 놀라움에 붙들려 있는 동안,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주인이시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들리는 이 목소리들은 모두 당신의 하인이니, 당신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침실로 들어가 깃털 침대에 몸을 누이십시오. 그리고 원하실 때 목욕실로 가시고, 옆 방의 식탁에 앉고 싶으실 때 저녁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프시케는 목소리들이 권하는 말을 따랐다. 쉬고 목욕으로 몸을 상쾌하게 한 뒤 옆방에 가서 앉았다. 그러자 아무 시종이나 하인의 손길도 보이지 않는데 식탁이 곧장 나타났고, 가장 진귀한 음식과 가장 달콤한 넥타르 같은 포도주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녀의 귀도 보이지 않는 연주자들의 음악으로 즐거웠다. 한 사람은 노래하고, 다른 사람은 류트를 타고, 그 모든 소리는 여럿이 함께 부르는 합창의 놀라운 화음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아직 운명의 남편을 보지 못했다. 그는 어둠이 깔린 시간에만 찾아왔고 아침이 밝기 전에 떠났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마음에도 같은 열정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주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자신이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는 승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그를 보려고 애쓰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에게는 더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 모습을 감추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왜 나를 보고 싶어 하오?” 그가 말했다. “내 사랑을 의심하오?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이라도 있소? 나를 본다면 당신은 어쩌면 나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오. 어쩌면 나를 숭배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것뿐이오. 나는 당신이 신처럼 나를 숭배하기보다 대등한 존재로서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소.”

이 말에 프시케는 한동안 얼마간 마음을 가라앉혔고, 새로움이 가시지 않은 동안 그녀는 꽤 행복했다. 그러나 결국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남겨진 부모에 대한 생각과, 그녀의 처지가 주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매들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궁전을 화려한 감옥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찾아오자 그녀는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고, 마침내 그에게서 내키지 않는 승낙을 얻어 냈다. 자매들을 궁전으로 불러 그녀를 만나게 해도 좋다는 승낙이었다.

그리하여 프시케는 제피로스를 불러 남편의 명령을 전했고, 제피로스는 곧바로 명에 따라 그녀의 자매들을 산 너머 동생이 사는 골짜기로 데려왔다. 자매들은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도 그들의 애정 어린 포옹에 답했다. "자, 들어와요." 프시케가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언니들의 동생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 기운을 차려요." 그러고는 그들의 손을 잡아 황금 궁전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목소리의 시종들에게 맡겨 목욕과 식탁으로 원기를 회복하게 하고 궁전의 모든 보물을 구경시키라고 일렀다. 이 하늘의 것 같은 즐거움을 보자 자매들의 가슴에 질투가 스며들었다. 어린 동생이 자신들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토록 위엄 있고 화려한 것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프시케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는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는 물음도 있었다. 프시케는 그가 아름다운 청년이며, 대개 낮 동안에는 산에서 사냥을 하며 보낸다고 대답했다. 자매들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고, 곧 그녀가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가슴에 어두운 의심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기억해 봐,” 그들이 말했다. “네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괴물과 혼인할 운명이라고 선언한 피티아의 신탁 말이야. 이 골짜기 사람들은 네 남편이 무섭고 기괴한 뱀이라고 말해. 그자는 나중에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동안 맛있는 음식으로 너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우리 충고를 들어. 등불과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서,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숨겨 둬. 남편이 깊이 잠들면 침대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등불을 꺼내 들고,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봐. 사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괴물의 머리를 잘라서 자유를 되찾아.”

프시케는 이 설득에 할 수 있는 한 저항했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니들이 떠나고 나자, 그들의 말과 그녀 자신의 호기심은 그녀가 버티기에 너무 강했다. 그래서 그녀는 등불과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고, 남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 두었다. 남편이 첫잠에 들자,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등불의 덮개를 열었고, 그곳에서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 신들 중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존재를 보았다. 황금빛 곱슬머리가 눈처럼 흰 목과 진홍빛 뺨 위로 흘러내리고, 어깨에는 눈보다 희고 이슬에 젖은 두 날개가 달려 있었으며, 그 깃털은 봄의 연한 꽃송이처럼 빛났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려고

등불을 기울이자, 타오르는 기름 한 방울이 신의 어깨에 떨어졌다. 놀라 깬 그는 눈을 뜨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흰 날개를 펼쳐 창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프시케는 그를 쫓아가려 헛되이 애썼지만, 창문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먼지 속에 누워 있는 그녀를 본 에로스는 잠시 날갯짓을 멈추고 말했다. "어리석은 프시케여, 내 사랑에 이렇게 보답하는구나. 나는 어머니의 명령을 어기고 너를 내 아내로 삼았는데, 너는 나를 괴물이라 여기고 내 머리를 자르려 하느냐? 그러나 가거라. 네가 내 충고보다 언니들의 충고를 더 낫게 여기는 듯하니, 그들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는 것 말고는 다른 벌을 내리지 않겠다. 사랑은 의심과 함께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달아나 버렸고, 불쌍한 프시케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그 자리를 슬픈 탄식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가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궁전과 정원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언니들이 사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벌판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곳으로 가서 언니들에게 자신이 겪은 불행의 전말을 모두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심술궂은 자매들은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뻐했다. "이제 그가 우리 중 하나를 고를지도 몰라."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두 언니는 자기 계획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각자 산에 올랐다. 산꼭대기에

이르자 그들은 제피로스를 불러 자신을 받아 그의 주인에게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뛰어내렸지만, 제피로스가 받쳐 주지 않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프시케는 그동안 밤낮으로 남편을 찾아 헤맸다. 먹지도 쉬지도 않았다. 꼭대기에 웅장한 신전이 서 있는 높은 산을 보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 "내 사랑, 내 주인께서 아마 저곳에 계시겠지." 그리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곡식 더미가 보였다. 묶지 않은 이삭 그대로인 것도 있었고 단으로 묶인 것도 있었으며, 보리 이삭이 섞여 있기도 했다. 낫과 갈퀴, 그 밖의 수확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듯 질서가 없었다. 한낮의 찌는 더위에 지친 일꾼들이 손에서 놓아 버린 것처럼 보였다.

경건한 프시케는 이 어수선한 상태를 바로잡았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알맞은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어느 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경건함으로 모든 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신전의 주인인 성스러운 데메테르는 프시케가 그렇게 신앙심 깊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 프시케여, 참으로 우리의 연민을 받을 만하구나. 내가 아프로디테의 진노에서 너를

지켜 줄 수는 없지만, 그녀의 노여움을 가장 잘 가라앉히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니 가서 스스로 네 여주인이자 주군에게 몸을 맡기고, 겸손과 순종으로 그녀의 용서를 얻도록 해라. 그러면 아마 그녀의 호의가 네가 잃은 남편을 돌려줄 것이다."

프시케는 데메테르의 명령에 따라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려 애쓰면서, 무슨 말을 할지, 화난 여신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릴지 곱씹었다. 그 결과가 불확실하고, 어쩌면 치명적일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는 성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가장 불충하고 믿음 없는 하인이로구나," 그녀가 말했다. "이제야 네가 정말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했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입힌 상처로 누워 있는 네 병든 남편을 보러 온 것이냐? 너는 생김새도 볼품없고 비위에도 거슬리니, 네 애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부지런함과 정성을 쏟는 수밖에 없다. 네 살림 솜씨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러고는 프시케를 신전의 창고로 데려가라고 명했다. 그곳에는 비둘기들의 먹이로 준비해 둔 밀, 보리, 기장, 살갈퀴, 콩, 렌즈콩이 많이 쌓여 있었다. 아프로디테가 말했다. "이 곡식들을 전부 골라 내어,

같은 종류끼리 따로따로 묶어 두어라. 저녁 전까지 끝내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아프로디테는 프시케를 과제 앞에 남겨 두고 떠났다.

하지만 프시케는 그 엄청난 일 앞에 완전히 얼이 빠져, 풀 수 없이 뒤엉킨 곡식 더미 앞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멍하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앉아 있는 동안, 에로스가 들판에 사는 작은 개미를 부추겨 그녀를 가엾게 여기도록 했다. 개미집의 우두머리가 여섯 다리를 가진 신하 떼를 거느리고 곡식 더미로 다가왔다. 그들은 가장 부지런하게 낟알을 하나하나 집어 올려 더미를 나누고, 종류별로 제각기 자리를 찾아 쌓았다. 일이 모두 끝나자, 개미들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황혼이 가까워지자 아프로디테는 신들의 연회에서 돌아왔다. 향기를 풍기고 장미 화관을 쓴 그녀는 일이 끝나 있는 것을 보고 외쳤다. "이건 네 일이 아니다, 못된 것아. 네가 꾀어내어 너도 그 애도 불행하게 만든, 바로 그 애의 일이지."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저녁으로 검은 빵 한 조각을 던져 주고 떠나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아프로디테는 프시케를 불러오게 하고 말했다. “저기 물가를 따라 뻗어 있는 숲을 보아라. 거기에는 양들이 목자 없이 풀을 뜯고 있을 것이고, 등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털가죽이 덮여 있다. 가서, 그 양들의 털가죽마다 한 가닥씩 모아서 이 귀한 양털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프시케는 명령을 해내려고 최선을 다할 각오로 순순히 강가로 갔다. 그러나 강의 신은 갈대들에 조화로운 속삭임을 불어넣었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오, 시련을 혹독하게 겪은 처녀여, 위험한 물결에 뛰어들지 말고, 건너편의 무서운 숫양들 사이로 들어가지도 마라. 떠오르는 해의 기운 아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날카로운 뿔이나 거친 이빨로 사람을 죽이려는 잔인한 분노에 불타고 있다. 하지만 한낮의 해가 가축들을 그늘로 몰아내고, 물결의 고요한 정령이 그들을 잠재우면, 그때 너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리라. 그러면 덤불과 나무 줄기에 엉겨 붙은 금빛 양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비로운 강의 신은 프시케에게 과업을 이루는 방법을 일러 주었고, 프시케는 그 지시를 따라 곧 두 팔 가득 황금 양털을 안고 아프로디테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냉혹한 여주인의 칭찬을 받지 못했다. 아프로디테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을 해낸 것이 네 힘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잘

안다. 너에게 쓸모 있을 능력이 있다는 것도 나는 아직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너에게 맡길 일이 하나 더 있다. 여기 이 상자를 받아 저승의 그늘로 가거라. 그리고 이 상자를 페르세포네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하라. '내 여주인 아프로디테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조금 나누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병든 아들을 돌보시느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조금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심부름을 오래 끌지 마라. 나는 오늘 저녁 신들의 모임에 나가려면 그 아름다움을 발라야 하니."

프시케는 이제 자신의 파멸이 가까이 왔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제 발로 곧장 에레보스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피할 수 없는 일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그녀는 높은 탑 꼭대기로 올라가 몸을 던져 거꾸로 떨어지려 했다. 그렇게 해서 아래 그늘의 세계로 가장 짧은 길을 택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탑에서 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불운한 소녀여, 어찌하여 그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생을 끝내려 하는가? 그대는 이전의 모든 위험에서 기적처럼 지탱되어 왔는데, 이 마지막 위험 앞에서 무슨 겁이 그대를 주저앉히는가?" 그러고는 목소리가 어떤 동굴을 통해 하데스의 왕국에 닿는 길과, 길에서 마주칠 모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일러 주었다. 머리가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지나고, 뱃사공 카론을 설득하여 검은 강을 건네주고 다시

데려다주게 하는 방법이었다. 목소리는 덧붙였다.
“페르세포네가 그대에게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상자를 주면,
무엇보다 그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 상자를 한
번도 열거나 들여다보지 말 것이며, 여신들의
아름다움이라는 보물을 엿보려는 호기심을 허락하지 말라.”

이 조언에 용기를 얻은 프시케는 모든 일에서 그 말을 따랐고,
자기 행동을 조심하며 무사히 하데스의 왕국에 이르렀다.
그녀는 페르세포네의 궁전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권해진
화려한 의자나 맛있는 잔치를 받지 않고, 거친 빵만을 먹으며
만족한 채 아프로디테의 전갈을 전했다. 이윽고 상자가 닫힌
채 그 귀한 것으로 가득 찬 상태로 그녀에게 돌려졌다. 그녀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고, 다시 한 번 낮의 빛 속으로 나오게
되어 기뻤다.

그러나 이토록 위험한 임무를 무사히 여기까지 해낸
그녀에게,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살펴보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일었다. “아니,” 그녀가 말했다. “이 신적인
아름다움을 나르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눈에 더
돋보이도록 뺨에 바를 만큼 조금도 덜어 쓰지 않는단
말이냐!”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고, 오직 지옥의 잠, 참으로

스틱스 강의 잠이 들어 있었다. 이 잠은 감옥에서 풀려나자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녀는 길 한가운데 쓰러졌다. 감각도 움직임도 없는, 잠든 시체가 되어.

그러나 에로스는 이제 상처가 나았고, 사랑하는 프시케가 곁에 없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방의 창문에 우연히 열려 있던 가장 작은 틈으로 빠져나와, 프시케가 누워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잠을 거두어 다시 상자 안에 가두었고, 화살 중 하나로 가볍게 건드려 프시케를 깨웠다. "또다시," 그가 말했다. "너는 같은 호기심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 어머니가 너에게 맡긴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라. 나머지는 내가 맡아 주겠다."

그러자 에로스는 번개처럼 빠르게 하늘의 높은 곳을 뚫고 올라가 제우스 앞에 나아가 간청했다. 제우스는 호의를 품고 귀를 기울였고, 연인들의 사정을 아프로디테에게 얼마나 간절히 호소했던지 마침내 그녀의 승낙을 얻어 냈다. 이에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프시케를 신들의 회의로 데려오게 했다. 프시케가 도착하자 제우스는 암브로시아가 담긴 잔을 건네며 말했다. "프시케여,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 너는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다. 에로스도 자신을 묶은 이 매듭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 혼인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프시케는 마침내 에로스와 맺어졌고, 때가 되자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 그 이름은 기쁨이었다.

에로스와 프시케 이야기는 보통 우의적인 이야기로 여겨진다. 그리스어로 나비는 프시케이며, 같은 낱말이 영혼을 뜻하기도 한다. 영혼의 불멸을 나비만큼 뚜렷하고 아름답게 보여 주는 것은 없다. 나비는 칙칙하고 땅을 기는 애벌레의 삶을 거친 뒤, 제가 누워 있던 무덤 같은 고치를 찢고 눈부신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며, 봄날의 가장 향기롭고 여린 꽃들을 맛보며 한낮의 빛 속을 팔랑인다. 그러니 프시케는 고난과 불행으로 정화되어 참되고 순수한 행복을 누릴 준비를 갖추는 인간의 영혼이다.

미술 작품에서 프시케는 이 우화에 묘사된 여러 장면 속에서 에로스와 함께, 나비의 날개를 단 처녀로 그려진다.

밀턴은 그의 「코머스」의 결말에서 에로스와 프시케의 이야기를 암시한다:

"천상의 에로스, 그 유명한 아들이 나아가,
달콤하게 황홀에 잠긴 그의 사랑 프시케를 품에 안네.
그녀의 긴 방랑과 수고가 끝난 뒤에,
신들 사이의 자유로운 동의로
그녀를 자신의 영원한 신부로 삼으리라.
그리고 그녀의 흠 없이 고운 옆구리에서
청춘과 기쁨, 두 축복받은 쌍둥이가 태어나리니,
제우스께서 그리 맹세하셨도다."

이 이야기의 우의(알레고리)는 토머스 키블 하비의 아름다운 시구에 잘 드러나 있다:

"옛날 사람들은 밝은 우화를 엮었나니,
이성이 상상의 채색된 날개를 빌려 입을 때;
진리의 맑은 강이 금빛 모래 위로 흐르고,
그 높고 신비로운 일들을 노래로 전했도다!
그리고 그녀의 달콤하고 엄숙한 이야기도 그러하니,
꿈을 얻은 순례자의 마음,
그 꿈에 이끌려 사랑을 섬기는 그녀는 세상을 떠돌며
하늘을 집으로 삼은 이를 땅에서 찾았도다!"

"붐비는 도시에서, 신령이 깃든 샘가에서,
어둑한 동굴의 종유석 무늬 사이로,
소나무 신전 사이, 달빛 비친 산마루에서,
침묵이 앉아 별들의 소리를 듣는 곳에서;
알을 품은 비둘기가 깃든 깊은 숲속에서,
채색된 골짜기와 향기로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사랑의 목소리가 먼 메아리로 울리는 것을 들었고,
그의 발자국 흔적을 어디에서나 찾아냈도다."

"하지만 그 뒤로 둘은 다시 만나지 못했으니, 의심과 두려움,
땅을 떠돌며 시들게 하는 그 유령 같은 형상들이
죄와 눈물의 자식인 그녀와
불멸의 태생인 그 빛나는 영혼 사이에 끼어들었기에;
그녀의 애타는 영혼과 눈물 젖은 눈은
마침내 그를 오직 하늘에서만 찾는 법을 배웠고,
지친 마음에 날개가 주어져
그녀는 천국에서 사랑의 천사 신부가 되었다!"

에로스와 프시케의 이야기는 서기 2세기의 작가 아풀레이우스의 작품에 처음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화 시대의 전설 대부분보다 훨씬 나중의 것이다. 키츠는 그의 「프시케에게 바치는 송가」에서 바로 이 점을 암시한다.

"오, 가장 늦게 태어났으나 단연 가장 사랑스러운 환영이여,
시든 올림포스의 위계 그 모두 가운데서!
푸른 궤도를 도는 포이베의 별보다 아름답고,
하늘의 사랑에 빠진 반딧불 금성보다 아름다우니;
이 모든 것보다 아름다우니, 그대에게는 신전도,
꽃으로 쌓은 제단도 없으며;
한밤의 시간마다 달콤한 탄식을 짓는
처녀들의 합창도 없건만;
노래도, 류트도, 피리도 없고, 달콤한 향도
사슬에 매달려 흔들리는 향로에서 피어오르지 않고;
사당도, 숲도, 신탁도, 꿈꾸는
창백한 입술의 예언자의 열기도 없건만."

무어의 「여름 축제」에서는 가장무도회가 묘사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분장한 인물이 프시케이다—

"… 오늘 밤 어두운 가장 속에
우리의 젊은 주인공은 그 빛을 감추지 않았도다.
보라, 그녀는 땅 위를 걷는다, 사랑 그 자신의
신부, 올림포스에서 맺어진
가장 거룩한 맹세로 약속되고,
지금 그녀의 눈처럼 흰 이마 위에
반짝이며 걸린 그 표지로 필멸자에게 드러난 신부.
저 나비, 신비로운 장식품은
영혼을 뜻하는 것이니(생각하는 이는 적겠지만),
이렇게 흰 이마 위에서 반짝이며
오늘 밤 우리에게 프시케가 여기 있음을 알려 준다."

제12장

카드모스 — 미르미돈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 공방, 「용의 이빨을 뿌리는 카드모스」(17세기)

제우스는 황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페니키아 왕 아게노르의 딸 에우로페를 납치해 갔다. 아게노르는 아들 카드모스에게 누이를 찾아오라고 명했고, 그녀를 데려오지 않고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카드모스는 누이를 찾아 오랫동안 멀리까지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 빈손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그는 아폴론의 신탁에 물어, 어느 땅에 정착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신탁은 그에게 들판에서 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소가 어디로 가든 따라가다가 멈추는 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테바이라 하라고 일러 주었다. 카드모스는 신탁이 전해진 카스탈리아 동굴을 막 떠났을 때, 어린 암소 한 마리가 천천히 앞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바싹 뒤따르며 동시에 포이보스에게 기도를 올렸다. 암소는 케피소스의 얕은 물길을 건너 파노페 평원으로 나아갔다. 거기서 소는 걸음을 멈추고, 넓은 이마를 하늘로 쳐들며 울음소리를 사방에 울렸다. 카드모스는 감사를 드렸다. 그는 몸을 굽혀 낯선 땅에 입을 맞춘 뒤, 눈을 들어 둘러선 산들에게 인사했다.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고자 한 그는 하인들을 보내 제주(祭酒)에 쓸 맑은 물을 구해 오게 했다. 가까운 곳에는 도끼가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오래된 숲이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덤불이 빽빽이 덮은 동굴이 있었고, 천장은 낮은 아치를 이루었으며, 그 아래에서 가장 맑은 물의 샘이 솟아 나오고 있었다. 동굴 속에는 머리에 볏이 돋은 무시무시한 뱀이 숨어 있었다. 그 비늘은 황금처럼 번쩍였다. 눈은 불처럼 빛났고, 몸은 독으로 부풀어 있었으며, 세 갈래로 갈라진 혀를 날름거렸고, 이빨은 세 줄로 나 있었다. 티로스인들이 항아리를 샘에 담그자 쏟아지는 물이 소리를 내었다. 그 순간 번쩍이는 뱀이 동굴 밖으로 머리를 쳐들고 끔찍한 쉿쉿 소리를 냈다. 사람들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으며, 모두의 사지가 떨렸다. 뱀은 비늘 덮인 몸을 거대한 똬리로 감아올려, 머리를 가장 키 큰 나무들보다 높이 치켜들었다. 티로스인들은 두려움에 싸워 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뱀은 어떤 이는 이빨로 물어 죽였고, 어떤 이는 몸으로 감아 죽였으며, 어떤 이는 독을 품은 숨결로 죽였다.

카드모스는 부하들이 돌아오기를 한낮까지 기다렸으나, 결국 그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사자 가죽을 걸쳤고, 투창 외에 손에는 창을 들었으며, 가슴에는 그 어느 무기보다 믿을 만한 용기를 품었다. 숲에 들어서 부하들의 싸늘한 주검과 피 묻은 턱을 가진 괴물을 보자 그는 외쳤다. “오, 충실한 벗들이여, 내가 그대들의 원수를 갚거나, 그대들과 같은 죽음을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거대한 바위를 집어 들어 있는 힘을 다해 뱀에게 던졌다. 이만한 돌이라면 성벽도 흔들었겠지만, 괴물에게는 아무 상처도 주지 못했다.
다음으로 카드모스는 투창을 던졌다. 이번에는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창이 뱀의 비늘을 뚫고 내장까지 깊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고통에 미친 괴물은 고개를 돌려 상처를 살펴보더니, 입으로 창을 뽑으려 했다. 그러나 창대는 부러졌고, 쇠로 된 날끝은 살 속에 박힌 채 남았다. 분노로 목이 부풀어 올랐고, 피거품이 턱을 뒤덮었으며, 콧구멍에서 뿜어 나오는 숨결은 주위의 공기를 독으로 물들였다. 이제

뱀은 몸을 둥글게 틀었다가, 쓰러진 나무 둥치처럼 땅 위로 길게 뻗었다. 뱀이 앞으로 기어 나오자 카드모스는 뒤로 물러서며, 괴물이 벌린 아가리를 마주 보도록 창을 겨누고 있었다. 뱀은 창을 향해 덤벼들며 그 쇠끝을 물어뜯으려 했다. 마침내 카드모스는 기회를 노렸다. 괴물이 머리를 뒤로 젖혀 나무 둥치에 부딪히는 순간, 그는 창을 찔러 넣어 뱀을 나무에 못 박듯 꿰뚫었다. 뱀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고, 그 무게에 나무 둥치가 휘었다.

카드모스는 정복한 적을 내려다보며 그 거대한 몸뚱이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했으나 분명히 들었다. 목소리는 그에게 용의 이빨을 취해 땅에 뿌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대로 따랐다. 땅에 고랑을 파고 이빨을 심었는데, 그 이빨에서는 사람들이 곡식처럼 돋아날 운명이었다. 그가 심기를 마치자마자 흙덩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끝들이 땅 위로 솟아 나왔다. 다음으로는 깃털 장식이 흔들리는 투구들이 올라왔고, 이어서 무기를 든 사람들의 어깨와 가슴과 팔다리가 드러났다. 마침내 무장한 전사들이 한 철의 수확처럼 자라났다. 카드모스는 놀라서 새로운 적과 맞설 채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우리의 내전에 끼어들지 마라.” 그렇게 말한 자는 대지에서 태어난 형제 하나를 칼로 쳤고, 그 자신도 다른 형제가 쏜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화살을 쏜 자는 다시 넷째 형제의 손에 쓰러졌고, 이렇게 모두가 서로를 상대하여 싸우다가 다섯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서로 주고받은 상처로 죽어 쓰러졌다. 그중 하나가 무기를 내던지고 말했다.
"형제들이여, 평화롭게 살자!" 이 다섯 명은 카드모스와 함께 도시를 세웠고, 그 도시에 테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카드모스는 아프로디테의 딸 하르모니아를 아내로 얻었다. 신들은 이 혼인을 기리기 위해 올림포스를 떠나 자리에 함께했고, 헤파이스토스는 신부에게 자기 손으로 만든 눈부신 목걸이를 선물했다. 그러나 카드모스가 아레스에게 바쳐진 뱀을 죽인 탓에 그의 집안에는 재앙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딸 세멜레와 이노, 손자 악타이온과 펜테우스가 모두 불행하게 죽었다. 그리하여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는 이제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땅이 된 테바이를 떠나, 엔켈레이족의 나라로 이주했다. 엔켈레이족은 그들을 극진히 맞아들였고, 카드모스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다. 하지만 자식들의 불행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 카드모스가 외쳤다. "뱀의 목숨이 신들에게 그토록 소중하다면, 차라리 나 자신이 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르모니아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남편의 운명을 함께하게

해 달라고 신들에게 빌었다. 두 사람 모두 뱀이 되었다. 그들은 숲에서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기원을 잊지 않아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카드모스는 페니키아인들이 발명한 알파벳을 그리스에 들여왔다. 바이런도 이를 암시하며, 현대 그리스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 "그대들이 가진 글자는 카드모스가 준 것,
> 그가 그것을 노예에게 주려 했다고 생각하는가?"

밀턴은 이브를 유혹한 뱀을 묘사하면서 고전 이야기의 뱀들을 떠올리고 이렇게 말한다:

> … "그 모습은 아름다웠고,
> 뱀의 족속 중에 그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 그 뒤로도 없었다. 일리리아에서 변신한
> 헤르미오네와 카드모스, 그리고 에피다우로스의
> 신도 그러하지 않았다"

마지막 암시에 대한 설명은 298쪽의 「아스클레피오스의 신탁」을 보라.

미르미돈인

트로이아 전쟁에서 미르미돈은 아킬레우스의 병사들이었다. 그 이름에서 유래해,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우두머리를 열성적으로 따르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추종자들을 미르미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미르미돈의 기원을 생각하면 이들이 사납고 피에 굶주린 종족이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부지런하고 평화로운 종족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아테나이의 왕 케팔로스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와 벌이는 전쟁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오랜 벗이자 동맹인 아이기나섬의 왕 아이아코스를 찾아갔다. 케팔로스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원하던 도움도 흔쾌히 약속받았다. "나 자신을 지키고도 자네에게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백성은 충분하네." 아이아코스가 말했다. "그거 참 반가운 일이군." 케팔로스가 답했다. "사실 고백하자면,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많은 젊은이들, 다들 거의 같은 나이로 보이는 그 무리에 나는 놀랐네. 그런데 전에 알던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군.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 아이아코스는 한숨을 쉬고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말하려던 참이었네. 이제 지체하지 않고 말하겠네. 가장 슬픈 시작에서 때로 행복한 결말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자네가 알게 되기를 바라네. 자네가 전에 알던 사람들은 이제 먼지와 재가 되었네! 노한 헤라가 보낸 역병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지. 그녀가 이 땅을 미워한 까닭은, 이 땅이 남편이 총애한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네. 병이 자연스러운 원인에서 생긴 것처럼 보이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러운 치료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맞서 싸웠네. 그러나 곧 그 역병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우리는 굴복했네. 처음에는 하늘이 땅 위로 내려앉는 것 같았고, 두꺼운 구름이 뜨겁게 달아오른 공기를 가두었네. 네 달 내내 치명적인 남풍이 불었지. 역병은 우물과 샘을 덮쳤고, 수천 마리의 뱀이 땅 위를 기어다니며 샘에 독을 흘려보냈네. 병의 힘은 처음에 하등 동물들에게 쏟아졌네. 개, 소, 양, 새들이었지. 불운한 농부는 일을 하는 도중에 소들이 쓰러지고, 끝내지 못한 밭고랑에 무력하게 눕는 것을 보고 놀랐네. 매애 우는 양들의 털은 빠지고, 몸은 여위어 갔네. 한때 경주에서 으뜸이던 말도 더 이상 우승을 다투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신음하다가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았네. 멧돼지는 분노를 잊었고, 사슴은 빠르기를 잃었으며, 곰은 더 이상 가축 떼를 공격하지 않았네. 모든 것이 쇠약해졌지. 길과 들판과 숲에는 시체가 널브러졌고, 그것들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었네. 내가 말하는 것은 거의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개도 새도, 굶주린 늑대조차도 그 시체에는 손을 대지 않았네. 그 부패가 감염을 퍼뜨렸지. 다음으로 역병은 시골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다음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덮쳤네.
처음에는 뺨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네. 혀는 거칠어지고 부풀어 올랐으며, 마른 입은 벌어진 채 정맥이 부풀어 올라 공기를 헐떡이며 찾았네. 사람들은 자기 옷과 잠자리의 열기를 견디지 못해 맨땅에 눕기를 택했네. 그러나 땅은 그들을 식혀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몸이 누운 자리를 달구었지. 의사들도 도울 수 없었네. 병이 그들마저 덮쳤고,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되었기 때문에 가장 헌신적인 이들이 맨 먼저 희생되었네. 마침내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죽음만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해방자라고 여기게 되었네. 그러자 그들은 모든 충동에 몸을 맡겼고, 무엇이 이로운지 묻지 않았네. 이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지. 모든 억제를 내던지고 그들은 우물과 샘 주위로 몰려들어 갈증을 달래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마셨네. 물가에서 벗어날 힘조차 없어 개울 한가운데서 죽는 이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그 물을 마시는 이들도 있었네.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기어 나가다가 일어설 힘이 없으면 땅 위에서 죽는 이들도 있었네. 그들은 친구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고,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사는 곳에 병의 책임을

돌리기라도 하듯 집에서 달아났네. 어떤 이들은 설 수 있는 동안 길 위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보였고, 다른 이들은 땅에 주저앉아 죽어 가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마지막 눈길을 던진 뒤 눈을 감고 죽었네."

"그 모든 일을 겪는 동안 내게 무슨 마음이 남아 있었겠는가. 삶을 미워하고 죽은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말고 무엇이 남아 있어야 했겠는가. 사방에는 나무 밑에 떨어진 지나치게 익은 사과처럼, 폭풍에 흔들린 참나무 아래 널린 도토리처럼 내 백성들이 흩어져 누워 있었다. 저기 언덕 위의 신전이 보이는가. 그곳은 제우스에게 바쳐진 성소라네. 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를 올렸는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빌었고,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었다. 사제가 제물을 바칠 준비를 할 때마다 얼마나 자주 제물이 쓰러졌던가. 칼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병에 쓰러진 것이다. 마침내 신성한 것에 대한 모든 경외마저 사라졌다. 시신들은 묻히지도 못한 채 밖으로 내던져졌고, 화장할 장작더미를 쌓을 나무마저 모자라서, 사람들은 장작더미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다. 끝내는 애도할 사람조차 남지 않았다. 아들과 남편, 노인과 젊은이가 똑같이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은 채 죽어 갔다."

“나는 그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 제우스여, 당신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이고 당신의 자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내 백성을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나마저 데려가 주소서!’ 이 말이 끝나자 천둥소리가 들렸다. ‘그 징조를 받아들이겠나이다.’ 나는 외쳤다. ‘오, 그것이 나에게 베푸시는 호의의 표지이기를!’ 우연히도 내가 서 있던 곳 가까이에는 가지를 넓게 뻗은 참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는 제우스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나는 일에 바쁜 개미 떼를 보았다. 그들은 입에 아주 작은 낟알을 물고 줄지어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감탄하며 그 수를 바라보고 말했다. ‘오, 아버지여, 이들만큼 많은 시민을 내게 주시어, 텅 빈 내 도시를 다시 채워 주소서.’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는데도 나무가 흔들렸고, 가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온몸을 떨었지만, 땅에 입 맞추고 나무에도 입 맞추었다. 나는 희망한다고 스스로에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실은 희망하고 있었다. 밤이 왔고, 근심에 짓눌린 내 몸에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나무가 내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수많은 가지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가득 매달려 있었다. 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땅 위로 수많은 그 부지런한 낟알 모으는 짐승들을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그 짐승들은 점점 커지는 듯하더니, 차츰 자라나 곧게 일어서고, 쓸데없이 많은 다리와 검은 빛을 버리고, 마침내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때 나는 깨어났고, 맨 처음 든 생각은 달콤한 환영을 빼앗고 그 대신 아무 실재도 주지 않은 신들을 꾸짖는 것이었다. 나는 아직 신전 안에 있었는데, 바깥에서 많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귀에는 오랜만에 듣는 낯선 소리였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던 차에, 내 아들 텔라몬이 신전 문을 활짝 열며 외쳤다. '아버지, 가까이 와서 보소서. 아버지의 희망마저 넘어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은 꿈에서와 똑같이 줄지어 걸어오고 있었다. 내가 놀라움과 기쁨에 차 바라보는 동안,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나를 왕이라 부르며 맞이했다. 나는 제우스에게 서원한 대로 제물을 바치고, 이 비어 있는 도시를 새로 태어난 종족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들 사이에 밭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생겨난 개미(미르멕스)에서 따와 나는 그들을 미르미돈인이라 불렀다. 자네도 이 사람들을 보았지. 그들의 성품은 전의 모습에서 지녔던 것과 닮았네. 그들은 부지런하고 근면한 종족이며, 얻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고 얻은 것을 놓지 않네. 자네는 그들 가운데서 군대를 모을 수 있을 걸세. 그들은 나이는 어리나 마음이 용감하니, 자네를 따라 전쟁에 나설 걸세." 이 역병의 묘사는 오비디우스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아테나이의 역병에서 옮겨 온 것이다.

그 역사가는 실제 목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썼고, 그 이후의 모든 시인과 소설가는 비슷한 장면을 묘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세부 묘사를 그에게서 빌려 왔다.

제13장

니수스와 스킬라 — 에코와 나르키소스 — 클리티에 — 헤로와 레안드로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에코와 나르키소스」(1903)

니수스와 스킬라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메가라를 공격했다. 메가라의 왕은 니수스였고, 스킬라는 그의 딸이었다. 포위는 이제 여섯 달째 이어지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운명이 정해 두기를, 니수스 왕의 머리칼 사이에서 빛나는 자주색 머리카락 한 가닥이 그의 머리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도시가

함락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도시의 성벽에는 탑이 하나 있었는데, 미노스와 그의 군대가 진을 친 평원을 내려다보았다. 스킬라는 이 탑에 자주 올라가 적군의 천막들을 바라보곤 했다. 포위가 너무 오래 이어진 탓에 그녀는 지휘관들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특히 미노스는 그녀의 감탄을 자아냈다.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든 그가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녀는 흠모했다. 그가 창을 던지면 기술과 힘이 함께 실려 나갔고, 활을 당기면 아폴론 자신이라도 그보다 더 우아하게 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투구를 벗고, 자주색 옷을 입은 채 화려한 치장을 한 흰 말에 올라 거품을 문 말의 입을 고삐로 당기면, 니수스의 딸은 거의 제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거의 미쳐 버릴 듯이 감탄했다. 그가 쥔 무기가 부러웠고, 그가 잡은 고삐가 부러웠다. 가능하다면 적의 대열을 뚫고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탑에서 뛰어내려 그의 진영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싶었고, 성문을 열어 그를 맞고 싶었고, 미노스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탑에 앉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슬픈 전쟁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노스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 슬프다. 하지만 그가 내 눈앞에 보이게 하는 어떤 이유든 나는 기쁘다. 어쩌면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고 나를 인질로 받아들이려 할지도 모른다. 할 수만 있다면 날아

내려가 그의 진영에 내려앉아, 우리가 그의 자비에 몸을 맡긴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를 배신한다고? 아니다! 차라리 미노스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래도 정복자가 관대하고 너그러울 때에는 도시가 정복당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미노스에게는 분명 정당함이 있다. 우리가 정복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전쟁으로 문을 열게 하기보다, 사랑이 그에게 문을 열어 주면 안 되는가? 할 수 있다면 지연과 살육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오, 누군가 미노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다면! 설마 그런 마음을 먹을 자는 없겠지. 그래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모르고 해칠 수도 있다. 나는, 그래, 나는 나라를 지참금으로 삼아 그에게 나 자신을 바치겠다. 그렇게 전쟁을 끝내겠다. 하지만 어떻게? 성문은 지켜지고 있고, 열쇠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오, 신들이 그를 데려가 주시면 좋으련만! 하지만 왜 신들에게 그것을 청하는가? 나처럼 사랑하는 다른 여인이라면 사랑의 길을 막는 것을 자기 손으로 치워 버릴 것이다. 내가 감히 하는 것보다 더 대담하게 나설 다른 여인이 있겠는가? 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과 칼이라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과 칼이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자주색 머리카락 한 가닥만 있으면 된다. 금보다 귀한 그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밤이 깊었고, 곧 궁전 전체가 잠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 그 치명적인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잘라 냈다. 그런 다음 도시를 빠져나가 적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니수스의 딸 스킬라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바친다. 당신을 얻는 것 외에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일을 한 것이다. 여기 자주색 머리카락이 있다! 이것으로 나는 당신에게 아버지와 그분의 왕국을 넘겨준다." 그녀는 그 치명적인 전리품을 든 손을 내밀었다. 미노스는 뒤로 물러서며 그것을 만지기를 거부했다. "신들이 너를 멸하시기를, 파렴치한 여인이여," 그가 외쳤다. "우리 시대의 수치로다! 땅도 바다도 너에게 쉴 곳을 내주지 않기를! 제우스께서 몸소 요람에서 자라신 나의 크레타가 이런 괴물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정복당한 도시에 공정한 조건을 허락하라고 명했으며, 함대가 즉시 섬을 떠나야 한다고 지시했다.

스킬라는 격분했다. "배은망덕한 사내여," 그녀가 외쳤다.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난단 말인가?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 준 나를, 당신을 위해 아버지와 조국을 희생한 나를! 나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인정하며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 죽는 것만은 아니다." 배들이 해안을 떠나자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미노스를 태운 배의 키를 붙잡았다.
그녀는 그들이 가는 길에 원치 않는 동행자가 되어 끌려갔다.
그때 하늘 높이 날던 바다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를 보고 내리
덮쳤다. 그 독수리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가 그 모습으로
바뀐 것이었다. 독수리는 부리와 발톱으로 그녀를 쪼고
할퀴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배를 놓쳤고, 물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러나 가엾이 여긴 어떤 신이 그녀를 새로 바꾸어
주었다. 바다독수리는 아직도 그 오래된 원한을 품고 있다.
그래서 높이 날다가 그녀를 발견하면, 옛 죄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부리와 발톱을 세우고 그녀를 향해 내리꽂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에코와 나르키소스

에코는 숲과 언덕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님프였고, 그곳에서
사냥 놀이에 빠져 지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아
사냥에 따라다녔다. 그러나 에코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수다를 떨 때든
말다툼을 할 때든, 그녀는 언제나 마지막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렸다. 어느 날 헤라는 남편을 찾고 있었는데, 남편이
님프들과 어울려 노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에코는 수다로 여신을 붙잡아 두었고, 그 사이 님프들은
무사히 달아날 수 있었다. 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에코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나를 속인 그 혀의 쓰임을 잃으리라. 다만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한 가지는 남겨 두겠다. 바로 대답하는 일이다. 너는 여전히 마지막 말을 하게 될 것이지만, 먼저 말을 꺼낼 힘은 없을 것이다.”

이 님프는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던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여 그의 발자국을 따라다녔다. 아, 그녀는 얼마나 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가!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초조하게 기다렸고, 대답은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청년은 동료들과 떨어져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거기 누구 있소?” 에코가 대답했다. “여기.” 나르키소스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자 소리쳤다. “이리 오시오.” 에코가 대답했다. “이리 오시오.” 아무도 오지 않자 나르키소스는 다시 불렀다. “왜 나를 피하시오?” 에코도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우리 함께 만나 봅시다.” 청년이 말했다. 처녀는 온 마음을 다해 같은 말로 대답하고, 그의 목을 껴안으려고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손 치워라! 네가 나를 갖느니 차라리 죽겠다!” “나를 가져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것은 모두 헛된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부끄러운 얼굴을 감추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동굴과

산 절벽 사이에서 살았다. 그녀의 모습은 슬픔에 시들어 갔고, 마침내 살이 모두 말라 버렸다. 뼈는 바위로 변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목소리뿐이었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누군가 부르면 기꺼이 대답하며, 마지막 말을 하고야 마는 옛 버릇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나르키소스의 잔인함은 이번 경우만이 아니었다. 그는 가엾은 에코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모든 님프들도 피했다. 어느 날 그에게 마음을 끌어 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로 끝난 한 처녀가, 그도 언젠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사랑하는 마음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맛보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복수의 여신이 그 기도를 듣고 들어주었다.

맑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 물빛이 은처럼 반짝였다. 양치기들은 한 번도 그곳으로 양떼를 몰지 않았고, 산양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숲의 짐승들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떨어진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로 더럽혀진 적도 없었다. 샘가에는 풀이 싱싱하게 자랐고, 바위들이 햇볕을 가려 주었다. 어느 날 사냥에 지치고 땀에 젖고 목이 마른 청년이 이곳으로 왔다. 그는 몸을 굽혀 물을 마시려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샘 속에 사는 아름다운 물의 정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빛나는 눈, 디오니소스나 아폴론의 머리카락처럼 곱게 말린 곱슬머리, 둥근 뺨,

상아처럼 흰 목,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운동으로 온몸에 돈 건강한 홍조를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반해 버렸다. 그는 입을 맞추려고 입술을 물가로 가져갔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안으려고 두 팔을 물속에 넣었다. 그것은 손이 닿자 달아났지만, 잠시 뒤 다시 돌아와 그를 다시 홀리게 했다. 그는 자신을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샘가에 엎드려 자기 모습을 바라보느라 음식도 휴식도 잊어버렸다. 그는 그 정령에게 말을 걸었다. "아름다운 존재여, 왜 나를 피하는가? 내 얼굴이 당신을 물리칠 만큼 흉하지는 않을 텐데. 님프들도 나를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무심하게 보지는 않잖은가. 내가 팔을 뻗으면 당신도 그렇게 하고, 내게 미소 지으며 내가 부르는 손짓에 똑같이 답하지 않는가." 그의 눈물이 물에 떨어져 모습을 흔들어 놓았다.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 그는 외쳤다. "가지 마시오, 간청하오! 만질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당신을 바라보게 해 주시오." 그는 이런 말과 그 밖의 비슷한 말을 수없이 하면서 자신을 태우는 불길을 키웠다. 그래서 그는 점점 안색과 기력을 잃었고, 전에 님프 에코를 그토록 사로잡았던 아름다움도 잃어 갔다. 그래도 에코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아아, 아아!" 하고 탄식하면 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했다. 그는 야위어 가다 죽었다. 그의 그림자가 스틱스 강을 건널 때에도 뱃전에 몸을 기대어 물에 비친 제 모습을 엿보았다. 님프들은 그를 위해 애도했고, 특히

물의 님프들이 그러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자 에코도 제 가슴을 쳤다. 그들은 장작더미를 쌓고 시신을 태우려 했지만, 시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안쪽이 자줏빛이고 흰 꽃잎으로 둘러싸인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 꽃은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을 지니고 그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밀턴은 『코머스』에 나오는 귀부인의 노래에서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암시한다. 그녀는 숲에서 오빠들을 찾고 있으며,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달콤한 에코여, 가장 달콤한 님프여, 그대는 그대의 공기 같은 껍질 속에 보이지 않게 살고 있구나, 초록빛 가장자리를 가진 느린 마이안드로스 강변에서, 그리고 제비꽃으로 수놓인 골짜기에서, 사랑에 여윈 나이팅게일이 밤마다 그대를 향해 슬픈 노래로 애도하는 곳에서. 그대는 나에게 그대의 나르키소스를 꼭 닮은 다정한 한 쌍에 대해 알려 줄 수 없는가? 오, 만약 그대가 그들을 어떤 꽃 핀 동굴 속에 숨겨 두었다면, 어디인지만이라도 말해 다오, 대화의 달콤한 여왕이여, 하늘의 딸이여. 그리하면 그대는 하늘로 옮겨져, 하늘의 모든 화음에 울리는 은총을 더하게 되리라."

밀턴은 이브가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목에서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본떴다.

"그날을 나는 자주 기억한다. 잠에서 처음 깨어나 꽃 위의 그늘 아래 누워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놀라움에 잠겨 어디인지, 내가 무엇인지, 어디서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동굴로부터 물의 속삭이는 소리가 흘러나와, 맑은 평원처럼 퍼져 나가더니 하늘의 넓이처럼 맑고 고요하게 멈춰 서 있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각을 품고 그쪽으로 걸어가, 푸른 둑 위에 몸을 눕혔다. 저 맑고 매끄러운 호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내게 또 하나의 하늘처럼 보였다.
내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을 때, 맞은편에 물빛 속으로 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도 나를 보려고 몸을 굽히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것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기뻐서 나는 곧 다시 돌아왔고, 그것도 곧 공감과 사랑이 담긴 응답하는 눈길로 기쁘게 다시 돌아왔다. 그때 한 목소리가 나를 이렇게 일깨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까지도 그곳에 눈을 고정한 채 헛된 욕망에 애태우고 있었을 것이다. '네가 보고 있는 것, 저기서 보고 있는 것, 아름다운 존재여,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등등."

— 『실낙원』 제4권

고대의 신화 가운데 시인들이 나르키소스 이야기만큼 자주 인용한 것은 없다. 여기 이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룬 두 편의 짧은 시가 있다. 첫 번째는 골드스미스의 작품이다.

「번개에 맞아 눈이 먼 아름다운 청년에 대하여」

"분명 섭리에 따라 정해진 일이었으리,
미움보다는 연민에서 나온 일이었으리,
에로스처럼 그가 눈이 멀게 된 것은,
나르키소스의 운명에서 그를 구하려는 뜻이었으리."

다른 한 편은 쿠퍼의 작품이다.

「못생긴 사내에 대하여」

"조심하게, 친구여, 수정 같은 시냇물이나
샘을 들여다보지 말게, 그 흉측한 갈고리 같은
자네 코를 혹여 보게 될까 두렵네.
그러면 자네도 나르키소스의 운명을 맞으리니,
스스로를 혐오하며 여위어 갈 것이네,
그가 스스로에게 홀딱 반했던 것처럼 말일세."

클리티에

클리티에는 물의 님프였는데 아폴론을 사랑했다. 그러나 아폴론은 그녀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차가운 땅 위에 하루 종일 앉아, 풀어헤친 머리채를 어깨 너머로 흘러내린 채 시름시름 야위어 갔다. 아흐레 동안 그녀는 앉아서 음식도 마실 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녀의 먹이라고는 자신의 눈물과 차가운 이슬뿐이었다. 그녀는

해가 떠오를 때부터 하늘을 가로질러 지는 때까지 해만 바라보았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얼굴은 언제나 해를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팔다리는 땅에 뿌리를 내렸고, 얼굴은 한 송이 꽃이 되었다고 한다. 그 꽃은 줄기 위에서 돌며 하루 내내 해를 마주 본다. 그 꽃은 그 님프에게서 나왔기에, 그만큼은 그 님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후드는 「꽃들」에서 클리티에를 이렇게 빗대어 노래한다:

> "나는 미친 클리티에를 원하지 않으리,
> 그 머리가 태양 때문에 돌아 버렸으니;
> 튤립은 궁정의 헤픈 여자,
> 그러니 나는 그녀를 피하리;
> 앵초는 시골 처녀,
> 제비꽃은 수녀;
> 그러나 나는 아리따운 장미에게 구애하리,
> 모든 이의 여왕에게."

해바라기는 한결같음의 가장 사랑받는 상징이다. 무어는 이렇게 그것을 쓴다:

> "진정으로 사랑한 마음은 결코 잊지 않으니,
> 그 사랑은 끝날 때까지 참되게 이어지네.
> 해바라기가 그 신이 지는 때에도 고개를 돌리는
> 그 눈길은 그가 떠오를 때 돌린 눈길과 같다네."

헤로와 레안드로스

레안드로스는 아시아 쪽 해협 기슭에 있는 도시 아비도스의 청년이었다. 이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을 가른다. 맞은편 기슭의 세스토스 마을에는 아프로디테의 여사제인 처녀 헤로가 살았다. 레안드로스는 헤로를 사랑했고, 매일 밤 해협을 헤엄쳐 건너가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헤로는 그 목적을 위해 탑 위에 횃불을 밝혀 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폭풍이 일어 바다가 거칠어졌다. 레안드로스의 힘이 다해 그는 물에 빠져 죽었다. 파도는 그의 시신을 유럽 쪽 기슭으로 밀어 보냈고, 헤로는 그가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절망한 헤로는 탑에서 바다로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

다음은 키츠의 소네트다:

「레안드로스의 그림에 붙여」

"오거라,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이여, 차분하게,
늘 아래를 보며, 가려진 빛으로,
하얀 눈꺼풀의 가장자리에 숨긴 채,
그리고 고분고분 고운 두 손을 맞잡으라,
너무도 부드러워 보지 못하는 듯이,
닿지 않은 채, 그대들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바쳐진 제물인 그 사내가
어린 영혼의 밤으로 가라앉는 것을,
황량한 바다 한가운데서 어리둥절한 채 가라앉는 것을.
저것은 죽음을 향해 애쓰는 젊은 레안드로스이니.
거의 정신을 잃은 채 그는 지친 입술을 오므린다,
헤로의 뺨을 향해, 그녀의 미소에 맞대어 웃으며.
끔찍한 꿈이여! 보라, 그의 몸이 가라앉는 모습을,
죽은 듯 무겁게; 팔과 어깨가 잠시 빛난다;
그는 가 버렸다; 그의 사랑의 숨결이 모두 물거품 되어 올라온다!"

레안드로스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헤엄쳐 건넌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로 여겨졌고,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바이런 경이 직접 그 일을 해 보임으로써 가능함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아비도스의 신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팔다리를 떠받쳐 준 것이 저 출렁이는 물결이었다."

가장 좁은 곳에서도 해협의 폭은 거의 1마일에 이르고, 마르마라 해에서 에게 해로 쉬지 않고 흐르는 물살이 있다. 바이런의 시대 이후로 다른 이들도 이 일을 해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수영 기술과 힘을 시험하는 일이며, 감히 도전해 성공하는 독자에게는 넓고 오래가는 명성을 안겨 줄 만한 일이다.

같은 시의 두 번째 노래 첫머리에서 바이런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암시한다.

> “헬레의 물결 위로 바람은 거세고,
> 저 폭풍 몰아치던 물결의 밤처럼,
> 사랑은 보내 놓고 구하기를 잊었구나,
> 젊고, 아름답고, 용감한 이를,
> 세스토스 처녀의 외로운 희망을.”

“오, 홀로 하늘을 따라
망루의 횃불이 높이 타오를 때,
거세지는 바람과 부서지는 물거품,
날카롭게 우는 갈매기들이 돌아가라 일렀지만;
위로는 구름, 아래로는 파도,
온갖 징표와 소리가 가지 말라고 막았으나,
그는 보지 못했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두려움을 예고하는 어떤 소리도, 어떤 광경도.
그의 눈에는 오직 사랑의 저 빛만 보였고,
그것이 그의 눈이 하늘에서 반긴 유일한 별이었다;
그의 귀에는 오직 헤로의 노랫소리만 울렸으니,
‘너희 물결이여, 연인들을 오래 갈라놓지 말라.’
그 이야기는 오래되었으나, 사랑은 새롭게
젊은 가슴을 북돋아 그처럼 진실함을 증명하게 할지니.”

제14장

아테나 — 니오베



디에고 벨라스케스, 「실 잣는 여인들(아라크네 이야기)」(1657년경)

아테나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자란 몸으로 완전한 갑옷을 입은 채 제우스의 머리에서 뛰어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실용적인 기예와 장식적인 기예를 주관했는데, 농업과 항해 같은 남자들의 기예도,

실잣기·베짜기·바느질 같은 여자들의 기예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또한 그녀는 전쟁의 여신이기도 했으나, 그녀가 후원한 것은 방어를 위한 전쟁뿐이었고, 아레스가 즐기는 야만적인 폭력과 피 흘림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아테나이는 그녀가 택한 자리이자 그녀의 도시였다.
포세이돈도 이 도시를 원했는데, 둘이 겨룬 끝에 그 상으로 아테나이가 그녀에게 주어졌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한다. 아테나이의 첫 왕 케크롭스의 치세에 두 신은 이 도시의 소유를 놓고 다투었다. 신들은 인간에게 가장 쓸모 있는 선물을 내놓는 쪽에게 도시를 주겠다고 정했다. 포세이돈은 말을 내놓았고, 아테나는 올리브나무를 내놓았다. 신들은 둘 가운데 올리브가 더 쓸모 있다고 판정하여 도시를 여신에게 주었고, 도시는 그녀의 이름을 따 아테나이라고 불렸다.
그리스어로 그녀의 이름은 아테네였다.

또 다른 경쟁이 있었는데, 한 필멸자가 감히 아테나와 겨루려 했다. 그 필멸자는 아라크네라는 처녀였다. 그녀는 베짜기와 자수에 너무나 뛰어나서, 님프들조차 숲과 샘을 떠나 와서 그녀의 작품을 바라보곤 했다. 완성된 작품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 자체도 아름다웠다. 거친 상태의 양털을 집어 실타래로 만들고, 손가락으로 털을 갈라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러워 보일 때까지 빗질하고, 능숙한 손길로 물렛가락을 돌리고, 천을 짜고, 다 짠 뒤에는 바늘로 수를

놓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는 아테나가 직접 그녀를
가르쳤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이를
부정했고, 여신의 제자로 여겨지는 것조차 참지 못했다.
"아테나가 나와 솜씨를 겨뤄 보라지." 그녀가 말했다. "내가
지면 벌을 받겠어." 아테나가 이 말을 듣고 불쾌해했다.
그녀는 늙은 여인의 모습을 하고 가서 아라크네에게 친절한
충고를 건넸다. "나는 경험이 많단다." 그녀가 말했다. "내
충고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동료 인간들에게는
얼마든지 도전해도 좋다. 하지만 여신과 겨루지는 마라.
오히려 네가 한 말을 여신에게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편이
좋겠다. 여신은 자비로우시니 아마 너를 용서하실 게다."
아라크네는 실잣기를 멈추고 얼굴에 노기를 띠고 노파를
바라보았다. "그 충고는 네 딸이나 시녀들에게나 해라."
그녀가 말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그 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여신이 두렵지 않다. 감히 나선다면
여신도 솜씨를 겨뤄 보라지." "여신이 여기 왔다." 아테나가
말했다. 그러고는 변장을 벗고 정체를 드러냈다. 님프들은
머리를 깊이 숙여 경의를 표했고, 곁에 있던 이들은 모두
존경을 바쳤다. 오직 아라크네만은 겁을 먹지 않았다. 물론
그녀의 뺨이 붉어졌고, 갑자기 붉은 빛이 얼굴을 물들였다가
곧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의
솜씨를 어리석게 과신하며 제 운명을 향해 돌진했다.

아테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고 더 이상 충고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시합에 나섰다. 각자 자리를 잡고 베틀의 날실을 가로대에 걸었다. 그러고는 날실 사이로 가늘고 긴 북을 앞뒤로 넣었다. 촘촘한 이를 가진 바디가 씨실을 제자리로 쳐서 천을 다졌다. 두 사람 모두 빠르게 일했다. 능숙한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고, 시합의 긴장 덕분에 일은 가볍게 느껴졌다. 티로스 자줏빛 양털이 다른 색 양털과 나란히 놓였고, 색들은 서로 너무도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 이음새가 눈을 속였다. 이는 소나기에 반사된 햇빛으로 이루어져 하늘을 가로지르는 긴 곡선의 무지개와 같았다. 색이 만나는 곳에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접점에서 조금 떨어지면 완전히 다른 색이 되는 무지개 말이다.

아테나는 자신이 포세이돈과 벌였던 경쟁의 장면을 자기 천에 수놓았다. 천의 한가운데에는 하늘의 권능 열두 신이 나타나 있다. 가운데 위엄 있게 앉은 이는 제우스이다.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들고 있는데, 그것으로 막 땅을 내리친 듯하고 땅에서는 말 한 마리가 튀어 올라 있다. 아테나는 투구를 쓴 머리에 가슴을 아이기스로 가린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다. 이것이 중앙의 원이었다. 네 모서리에는 감히 신들과 다투려 한 오만한 필멸자들에게

신들이 노여워한 일을 보여 주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경쟁자에게 너무 늦기 전에 겨루기를 그만두라고 보내는 경고였다.

아라크네는 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고른 주제들로 자기 천을 채웠다. 한 장면에서는 레다가 백조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우스가 그 모습으로 변장했던 것이다. 또 다른 장면에는 아버지가 그녀를 가둔 청동 탑 안의 다나에가 있었는데, 신은 황금 소나기의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갔다. 또 다른 장면에는 제우스가 황소로 둔갑해 속인 에우로페가 있었다. 황소가 너무 순해 보이자 에우로페는 용기를 내어 그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제우스는 바다로 나아가 그녀를 태우고 헤엄쳐 크레타로 갔다. 그 솜씨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헤엄치는 황소도 그 물도 진짜처럼 보였을 것이다. 에우로페는 떠나오는 해안을 그리움 어린 눈으로 되돌아보며 동무들에게 도와 달라고 부르는 듯했다.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몸을 떨며 발을 물에서 빼내는 듯도 했다.

아라크네는 같은 종류의 주제들로 자기 천을 채웠는데, 솜씨는 놀라웠으나 그녀의 오만과 불경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아테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모욕에 분개했다. 그녀는 북으로 천을 내리쳐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고는 아라크네의 이마를 건드려 그녀가 자신의 죄와 수치를 느끼게 했다. 아라크네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서 목을 매었다. 아테나는 그녀가 밧줄에 매달린 것을 보고 가엾게 여겼다. “살아라,” 그녀가 말했다. “죄 많은 여인이여! 이 교훈의 기억을 간직하도록, 너와 네 후손 모두 앞으로 영원히 매달려 있으라.” 그러고는 그녀에게 투구꽃의 즙을 뿌렸다. 즉시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졌고, 코와 귀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은 쪼그라들었고, 머리는 더 작아졌다. 손가락들은 옆구리에 붙어 다리 노릇을 하게 되었다. 나머지 몸 전체가 몸통이 되었고, 그 몸에서 그녀는 실을 뽑는다. 종종 그 실에 매달린 채로, 아테나가 그녀를 건드려 거미로 바꾸었을 때와 같은 자세로 있다.

스펜서는 「뮤이오포트모스」에서 아라크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스승 오비디우스를 아주 가까이 따르면서도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그보다 낫게 다듬었다. 다음 두 연은 여신이 올리브 나무가 생겨나는 장면을 천에 수놓은 뒤에 일어난 일을 말한다.

"이 잎들 사이에 여신은 나비 한 마리를 수놓았다,
놀라운 솜씨와 기묘한 재주로,
올리브 나무 사이를 장난스레 나풀거리며,
눈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도 같아 살아 있는 듯했다.
날개 위에 얹힌 벨벳 같은 솜털,
등을 덮은 비단 같은 보푸라기,
넓게 펼친 더듬이, 털 난 허벅지,
찬란한 빛깔, 반짝이는 눈."

"아라크네가 그것을 보고, 그토록 빼어난 솜씨에
완전히 압도당해,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눈을 떼지 못한 채 여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낭패했음을 드러내는 침묵으로,
승리를 여신의 몫으로 내주었다.
그러나 속으로 그녀는 애를 태우며 사납게 타올랐고,
그녀의 모든 피는 독 같은 원한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이 변신은 여신이 직접 내린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라크네 자신의 굴욕과 분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다음은 옛 방식의 정중한 찬사를 보여 주는 가릭의 글이다:

"여인의 자수에 바치는 노래

"아라크네는 시인들이 전하듯 옛적에
자기 솜씨를 여신과 견주려 들었다.
그 대담한 인간은 곧 쓰러졌으니
자신의 교만이 빚은 가련한 희생자였다.

"오, 그러니 아라크네의 운명을 경계하라.
현명하라, 클로에여, 그리고 굴복하라.
그대는 반드시 여신의 미움을 사게 되리니,
여신의 솜씨와 재치에 견줄 만한 그대이기에."

테니슨은 자신의 시 「예술의 궁전」에서 그 궁전을 장식한 예술 작품들을 묘사하며, 에우로페를 이렇게 암시한다.

"… 사랑스러운 에우로페의 겉옷이 풀려
어깨에서 흘러내려 뒤로 날리고,
한 손은 크로커스를 늘어뜨리고, 한 손은
온순한 황소의 황금 뿔을 붙잡았다."

그의 『공주』에는 다나에를 암시하는 다음 구절이 있다:

"이제 대지는 별들에게 다나에처럼 몸을 열어 누웠고,
그대의 마음은 모두 내게 활짝 열려 있다."

니오베

아라크네의 운명은 온 나라에 알려져, 감히 신들과 자신을 견주려는 오만한 필멸자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이면서도 겸손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여인이 하나 있었다. 테바이의 왕비 니오베였다. 그녀에게는 분명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그녀를 우쭐하게 만든 것은 남편의 명성도, 자신의 아름다움도, 집안의 고귀한 혈통도, 왕국의 힘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들이었다. 니오베가 자신을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녀는 정말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을 것이다. 어느 날 레토와 그녀의 자식들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기리는 해마다의 제전이 열렸다. 테바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이마에 월계관을 쓰고, 제단에 유향을 바치며 서원을 올리고 있을 때, 니오베가 군중 사이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차림은 금과 보석으로 눈부셨고, 얼굴은 화가 난 여인이 지닐 수 있는 만큼 아름다웠다. 그녀는 서서 거만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 무슨 어리석음이냐.” 그녀가 말했다. “눈앞에 서 있는 이를 두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들을 더 좋아하다니! 어찌하여 레토가 숭배를 받고, 나는 아무 예배도 받지 못하는가? 내 아버지는 신들의 식탁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탄탈로스였고, 내 어머니는 여신이었다. 내 남편은 이 도시 테바이를 세우고 다스리며, 프리기아는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내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나의 권세를 이루는 요소들이 보이고, 내 모습과 위엄도 여신에게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나는 아들 일곱과 딸 일곱을 두었고, 내 가문과 어울릴 만한 사위와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겠는가? 티탄의 딸 레토가 자식 둘을 데리고 있다고 해서, 그녀를 나보다 높이 치겠느냐? 나는 그녀의 일곱 배나 되는 자식을 두었다. 나는 참으로 행운아이며, 앞으로도 행운아일 것이다! 이것을 부정할 자가 있느냐? 내 풍요가 곧 나의 안전이다. 나는 운명이 굴복시키기에는 너무 강하다고 느낀다. 운명이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이 남을 것이다. 내 자식 몇을 잃는다 해도, 겨우 둘만 가진 레토만큼 가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제전에서 물러가라. 이마의 월계관을 벗어라. 이 예배는 그만두어라!"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따라 자리를 떠났고, 신성한 제사는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여신은 분노했다. 자신이 사는 킨토스산 꼭대기에서 그녀는 두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아이들아, 나는 너희 둘을 자랑스럽게 여겨 왔고, 헤라를 제외하면 어느 여신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말 여신인지조차 의심스럽구나. 너희가 나를 지켜 주지 않는다면, 나는 숭배를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녀가

이런 투로 말을 이어 가려 할 때, 아폴론이 가로막았다.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가 말했다. "말은 벌을 늦출 뿐입니다." 아르테미스도 같은 말을 했다. 두 신은 구름에 싸인 채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 도시의 성탑 위에 내려앉았다. 성문 앞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전투 훈련을 겸한 경기를 하고 있었다. 니오베의 아들들도 다른 이들과 함께 있었다. 어떤 아들은 화려한 마구를 단 기운찬 말을 타고 있었고, 어떤 아들은 화려한 전차를 몰고 있었다. 맏아들 이스메노스는 거품을 문 말들을 몰고 달리다가, 위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고 "아아!" 하고 외치며 고삐를 놓고 생기를 잃은 채 쓰러졌다. 또 다른 아들은 활시위 소리를 듣고,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온 돛을 올려 항구로 달아나는 뱃사공처럼, 말들에게 고삐를 맡기고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화살이 달아나는 그를 따라잡았다. 아직 어린 두 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막 운동장에 와서 씨름을 하고 있었다. 둘이 가슴을 맞대고 서 있을 때, 화살 하나가 둘을 함께 꿰뚫었다. 두 아이는 함께 비명을 질렀고, 함께 주위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으며, 함께 숨을 거두었다. 형 알페노르는 동생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도우려고 급히 달려갔다가, 형제로서 해야 할 일을 하던 바로 그 순간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이제 아들은 일리오네우스 하나만 남았다. 그는 기도가 효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겨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 “신들이시여, 저를 살려 주소서!” 그는 모든 신에게 빌 필요는 없다는 것도 모른 채 신들 모두에게 외쳤다. 아폴론은 그를 살려 주려 했지만,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뒤였고, 너무 늦었다.

소식은 곧 백성들의 공포와 시종들의 비탄을 통해 니오베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신들이 감히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분노했고, 그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남편 암피온은 그 충격에 압도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아! 얼마 전까지 백성들을 성스러운 제전에서 쫓아내고, 도시를 가로지르며 당당하게 걷던 니오베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던 그녀는 이제 적들에게서조차 연민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생기 없는 시신들 위에 무릎을 꿇고, 죽은 아들들을 하나씩 차례로 입 맞추었다. 창백한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고 그녀는 말했다. “잔인한 레토여, 내 고통으로 그대의 분노를 실컷 채우시오! 나의 일곱 아들을 무덤까지 따라가는 동안, 그대의 굳은 마음을 채우시오. 그런데 그대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자식을 잃은 나는 그래도 나를 이긴 그대보다 여전히 부유하다.”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활시위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니오베를 제외한 모든 이의 가슴에 공포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지나친 슬픔 때문에 오히려 용감해져

있었다. 딸들은 죽은 오라비들의 관대 앞에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한 명은 화살에 맞아 쓰러져, 자신이 애도하던 시신 위에 누운 채 죽었다. 다른 한 명은 어머니를 위로하려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생기를 잃은 채 땅에 쓰러졌다. 셋째는 도망쳐 목숨을 건지려 했고, 넷째는 몸을 숨기려 했으며, 또 다른 딸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떨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여섯 명이 죽었고, 한 명만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자기 온몸으로 감싸듯 덮고 있었다. "하나만은 살려 주시오, 그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이만이라도! 이토록 많은 자식 중에 하나만이라도 살려 주시오!" 그녀가 이렇게 부르짖는 동안, 그 마지막 아이도 쓰러져 죽었다. 아들들과 딸들과 남편이 모두 죽은 가운데 그녀는 외롭게 앉아 있었고, 슬픔에 굳어 버린 듯했다. 바람도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지 못했고, 뺨에는 핏기가 없었으며, 두 눈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 주변에는 생명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혈관은 생명의 흐름을 더 이상 실어 나르지 않았다. 목은 굽혀지지 않았고, 팔은 몸짓을 하지 않았으며, 발은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다. 그녀는 안팎으로 돌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눈물은 계속 흘렀다.
그녀는 회오리바람에 실려 고향 산으로 옮겨졌고, 지금도

바위 덩어리로 그곳에 남아 있다. 그 바위에서는 졸졸 흐르는 물줄기가 솟아나는데, 끝없는 슬픔이 바치는 눈물의 공물이라고 한다.

니오베의 이야기는 바이런에게 현대 로마의 몰락한 처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예가 되었다.

> "민족들의 니오베여! 그녀가 저기 서 있구나,
> 자식도 왕관도 없이, 말 없는 슬픔 속에.
> 시든 두 손에 빈 항아리를 쥔 채,
> 그 거룩한 재는 오래전에 흩어졌도다.
> 스키피오의 무덤에는 이제 재도 없고,
> 무덤들마저 제 영웅들이 떠나
> 텅 비어 누워 있구나. 오래된 티베르여,
> 너는 대리석 황무지 사이를 흐르는가?
> 누런 물결을 일으켜 그녀의 설움을 덮어 주어라."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제4편 79연.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피렌체의 황실 미술관에 있는 유명한 조각상의 소재가 되었다. 이 조각상은 원래 한 신전의 박공 장식으로 배치되었으리라 여겨지는 군상의 주인공이다. 겁에 질린 아이가 팔로 매달린 어머니의 모습은 고대 조각상 가운데 가장 찬탄받는 것 중 하나다. 이 작품은 라오콘 상,

아폴론 상과 더불어 예술의 걸작들 가운데 손꼽힌다. 다음은 이 조각상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스 경구시의 번역이다.

> "신들은 그녀를 돌로 바꾸었으나 헛된 일이었으니,
> 조각가의 솜씨가 그녀를 다시 숨 쉬게 하였도다."

니오베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무어가 「길 위의 운율」에서 그것을 써먹은 방식에는 웃지 않을 수 없다:

> "마차 안에서 숭고한 리처드 블랙모어 경은
> 운을 맞추곤 했다네.
> 재치 있는 자들이 그를 잘못 보지 않았다면,
> 죽음과 서사시 사이에서 그는 시간을 보냈네,
> 온종일 끼적이고 죽이며.
> 마차에 편히 앉은 포이보스처럼,
> 어떤 때는 높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 어떤 때는 어린 니오베들을 죽이면서."

리처드 블랙모어 경은 의사이자 동시에 매우 다작이었으나 취향은 몹시 떨어지는 시인이었다. 그의 작품은 이제 잊혔고, 다만 무어 같은 재담꾼이 농담 삼아 떠올리는 경우에만 기억될 뿐이다.

제15장

그라이아이 또는 잿빛 처녀들 — 페르세우스 — 메두사 — 아틀라스 — 안드로메다



에드워드 번존스, 「불길한 머리」(1885)

그라이아이와 고르고네스

그라이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희었던 세 자매였으니, 그 이름도 거기서 왔다. 고르고네스는 돼지와 같은 커다란 엄니와 청동 발톱, 뱀처럼 꿈틀거리는 머리카락을 지닌 괴물 같은 여자들이었다. 이 존재들은 메두사만 빼고는 신화에서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메두사는 고르고 가운데 한 명으로, 그 이야기는 곧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들을 언급하는 주된 이유는 현대의 몇몇 작가들이 내놓은 재치 있는 해석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그 해석에 따르면 고르고네스와 그라이아이는 바다의 공포를 의인화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고르고네스는 넓게 트인 바다의 거센 파도를, 그라이아이는 해안 바위에 부딪히는 흰 물마루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리스어로 그들의 이름이 바로 위의 두 수식어를 뜻한다.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에의 아들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는 자기 딸의 아이가 자신을 죽게 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불안해하였다. 그래서 그는 모자를 궤짝에 가두어 바다에 띄워 보냈다. 궤짝은 세리포스 쪽으로 떠내려갔고, 그곳에서 한 어부가 궤짝을 발견하여 모자를 그 나라의 왕 폴리덱테스에게 데려갔다. 폴리덱테스는 두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였다. 페르세우스가 자라자
폴리덱테스는 그를 보내 메두사 정벌에 나서게 했다.
메두사는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무서운 괴물이었다.
그녀는 본래 아름다운 처녀였고,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은
머리카락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테나와 아름다움을 겨루려
하자, 여신은 그녀에게서 그 매력을 빼앗고 아름다운
곱슬머리를 쉬익거리는 뱀들로 바꾸어 버렸다. 그녀는
잔인한 괴물이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여 살아 있는
어떤 것도 그녀를 바라보면 돌로 변하였다. 그녀가 사는 동굴
주위에는 우연히 그녀를 얼핏 보고 그 모습에 굳어 버린
사람과 짐승들의 돌로 된 형상이 보였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았다. 아테나는 그에게
자신의 방패를 빌려주었고,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빌려주었다. 그는 메두사가 잠든 틈을 타 다가갔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가 든 빛나는 방패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나아갔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베어
아테나에게 바쳤고, 아테나는 그 머리를 자신의 아이기스
한가운데에 달았다.

밀턴은 「코머스」에서 아이기스를 이렇게 언급한다:

"그 뱀 머리 고르고의 방패는 무엇이었던가,
정복되지 않은 처녀, 저 지혜로운 아테나가 걸쳤던,
그것으로 적들을 굳은 돌로 얼려 버렸으니,
다름 아닌 정숙한 엄격함의 굳은 눈빛과
난폭한 힘을 무너뜨려
갑작스러운 경외와 멍한 두려움에 빠뜨린 고귀한 품위가 아니었던가!"

『건강 보전의 기술』을 쓴 시인 아믈스트롱은 서리가 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제 거친 북풍이 불어와 굳어 가는 땅 곳곳을 차갑게 얼리고, 키르케가 달여 낸 것이나 흉악한 메데이아가 빚은 어떤 주술보다 강력한 힘으로, 본디 제 강둑에 재잘대던 개울마다 강둑 사이에 갇혀 꼼짝없이 얼어붙는다. 시든 갈대도 움직이지 않는다. … 사나운 북동풍에 들쑤셔진 물결은 성난 머리를 짜증스럽게 흔들며 솟구치다가, 미친 듯 일렁이던 물거품 한가운데서 그대로 얼어붙어 기념비 같은 얼음이 된다."

"끔찍한 메두사의 무서운 모습도 이처럼 엄하고 순식간인 처형을 내렸다. 메두사가 숲을 떠돌다 그곳의 사나운 거주자들을 돌로 만들었을 때가 그러했다. 거품을 문 사자가 맹렬히 먹이를 향해 뛰어오른 바로 그 순간, 메두사의 더 빠른 힘이 그 서두름을 앞질렀다. 그리하여 그 사나운 자세 그대로 굳어 선 모습은 대리석으로 새긴 분노와도 같다!"

— 셰익스피어 모방시.

페르세우스와 아틀라스

메두사를 죽인 뒤 페르세우스는 고르고의 머리를 가지고 땅과 바다 위를 멀리까지 날아갔다. 밤이 되자 그는 해가 지는 대지의 서쪽 끝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는 아침까지 쉬고 싶었다. 그곳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덩치가 큰 아틀라스 왕의 나라였다. 그는 양과 소가 많았고, 그의 나라를 다툴 이웃이나 경쟁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정원이었다. 그 정원의 열매는 황금이었는데, 황금 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황금 잎사귀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페르세우스가 그에게 말했다. "저는 손님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고귀한 혈통을 존중한다면, 저는 제우스를 제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업적을 존중한다면, 저는 고르고를 정복했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저는 쉴 곳과 음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틀라스는 오래된 예언을 떠올렸다. 그 예언은 언젠가 제우스의 아들이 자기의 황금 사과를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거짓으로 내세우는 영광도 혈통도 너를 지켜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밀어내려 했다. 페르세우스는 그 거인이 자기보다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당신이 제 우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이 선물이라도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얼굴을 돌리고 고르고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아틀라스는 그

큰 몸 전체가 돌로 변했다. 그의 수염과 머리카락은 숲이 되었고, 팔과 어깨는 절벽이, 머리는 산봉우리가, 뼈는 바위가 되었다. 각 부분은 점점 커져 마침내 그는 산이 되었고, 신들의 뜻에 따라 하늘과 그 모든 별이 그의 어깨 위에 얹혀 있게 되었다.

바다 괴물

페르세우스는 날아가던 길을 이어 가 아이티오피아인의 나라에 이르렀다. 그 나라의 왕은 케페우스였다. 왕비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감히 바다의 님프들과 견주려 들었다. 이에 님프들이 분노하여 해안을 황폐하게 할 엄청난 바다 괴물을 보냈다. 신들을 달래기 위해 신탁은 케페우스에게 딸 안드로메다를 괴물에게 바쳐 삼키게 하라고 일렀다. 페르세우스가 공중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한 처녀가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뱀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창백하고 움직임이 없어서, 흘러내리는 눈물과 산들바람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이 없었다면 대리석 조각상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그 광경에 그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날개 젓는 것을 잊을 뻔했다. 그녀 위를 맴돌며 그가 말했다. “오, 처녀여, 그대는 그런 쇠사슬에 묶일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연인들을 묶어 주는 것에 어울릴 사람이오. 간청하오니, 그대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묶여 있는지 말해 주시오."
처음에 그녀는 수줍어서 침묵했고, 할 수만 있었다면 손으로
얼굴을 가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질문을 되풀이하자,
자신이 말하기 두려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겨질까
걱정되어,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어머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을 밝혔다. 그녀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멀리 물 위에서 소리가 들렸고, 바다 괴물이 머리를 수면
위로 치켜들고 넓은 가슴으로 파도를 가르며 나타났다.
처녀는 비명을 질렀다. 이제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비참했으나, 어머니 쪽이 더 그럴 만했다.
그들은 곁에 서 있을 뿐 보호해 줄 힘이 없었고, 오직 탄식을
쏟아내며 희생자를 껴안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때
페르세우스가 말했다. "눈물을 흘릴 시간은 충분할 것이오.
구출할 수 있는 때는 지금 이 순간뿐이오.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고르고를 죽인 자로서의 명성이 있으니, 구혼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소. 그러나 신들이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나는 공을 세워 그녀를 얻으려 하오. 만약 내 용기로
그녀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녀를 내 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겠소." 부모는 (어찌 망설일 수 있었겠는가) 동의했고,
그녀와 함께 왕실의 혼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괴물은 솜씨 좋은 투석꾼이 던진 돌이 닿을 거리까지 다가왔고, 그때 젊은이는 갑자기 몸을 솟구쳐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뱀을 보고 덮쳐서, 뱀이 고개를 돌려 독니를 쓰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움켜쥐듯, 젊은이는 괴물의 등 위로 내리꽂혀 칼을 어깨에 깊이 찔러 넣었다. 상처에 화가 난 괴물은 몸을 곧추세워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물속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자 짖어 대는 사냥개 떼에 둘러싸인 멧돼지처럼 괴물은 재빨리 이쪽저쪽으로 몸을 돌렸고, 젊은이는 날개를 써서 그 공격을 피했다. 비늘 사이로 칼을 찔러 넣을 틈이 보이는 곳마다 상처를 냈다. 옆구리를 찌르고, 다음에는 꼬리 쪽으로 기울어진 허리를 찔렀다. 괴물은 콧구멍으로 피가 섞인 물을 뿜어 냈다. 영웅의 날개는 그 물에 젖었고, 그는 더 이상 날개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파도 위로 솟은 바위에 내려앉아, 바위에서 튀어나온 돌덩이를 붙잡고 버텼다. 괴물이 가까이 떠오르자 그는 치명타를 날렸다. 해안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 그 소리가 언덕에 메아리쳤다. 부모는 기쁨에 겨워 장차 사위가 될 젊은이를 끌어안았다. 그를 자신들의 구원자이자 집안을 구한 은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싸움의 원인이자 보상이었던 처녀는 바위에서 내려왔다.

카시오페이아는 아이티오피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자랑하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검었다. 적어도 밀턴은 그렇게 생각한 듯하다. 그는 「사색하는 사람」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며 우울을 향해 이렇게 노래한다.

"……여신이여, 현명하고 거룩하신 분이여,
그 성스러운 얼굴은 너무도 밝아
인간의 시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눈에는
진중한 지혜의 빛깔인
검은 빛으로 덮여 보이나이다.
검되, 존경받기에 알맞은
멤논 왕자의 누이가 지녔을 법한 검음,
또는 바다의 님프들과 그 힘을 거슬러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들 위에 두려 애쓴
별자리가 된 저 아이티오피아의 왕비가 지녔던 검음이니이다."

카시오페이아는 죽은 뒤 별들 사이에 놓여 같은 이름의 별자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별처럼 빛나는 아이티오피아의 여왕"이라 불린다. 그녀는 이런 영예를 얻었으나, 옛 적수였던 바다의 님프들은 그녀를 하늘의 극 가까운 곳에 놓이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밤마다 절반의 시간 동안 머리를 아래로 한 채 거꾸로 매달려 있게 되었으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멤논은 아이티오피아의 왕자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뒤의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혼례 잔치

기쁨에 찬 부모는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그들을 위한 잔치가 차려져 있었고, 모든 것이 기쁨과 흥겨움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투의 함성 같은 소란이 들렸다. 처녀와 약혼한 사이인 피네우스가 자기 편 무리를 이끌고 뛰어 들어와, 그 처녀를 자기 것이라고 요구했다. 케페우스가 항의해 보았지만 헛일이었다. "자네는 그녀가 괴물의 제물이 되어 바위에 묶여 있을 때 그녀를 달라고 나섰어야지. 신들이 그녀에게 그런 운명을 내렸으니, 그 판결은 죽음 그 자체가 그랬을 것처럼 모든 약속을 무효로 만들었네." 피네우스는 대답하지 않고 페르세우스를 향해 창을 던졌지만, 창은 표적을 빗나가 해를 입히지 못한 채 떨어졌다. 이번에는 페르세우스가 창을 던지려 했으나, 비겁한 공격자는 달아나 제단 뒤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 행동은 그의 무리에게 케페우스의 손님들을 공격하라는 신호가 되었다. 손님들은 맞서 싸웠고, 전면적인 난전이 벌어졌다. 늙은 왕은 헛된 항의를 거듭한 끝에 현장에서 물러나며, 자신은 손님 대접의 권리를 이토록 짓밟은 이 폭거와 무관하다고 신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페르세우스와 그의 벗들은 한동안 불리한 싸움을 버텨 냈다. 그러나 공격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 그들은 버틸 수 없었고, 파멸이 피할 수 없어 보이던 순간 페르세우스에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내 적이 나를 지켜 주게 만들겠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내 벗이 있다면 눈을 돌리라!” 그리고 고르고의 머리를 높이 쳐들었다. “네 요술로 우리를 겁주려 하지 마라.” 테스켈루스가 말하며 창을 들어 던지려 했고, 바로 그 자세 그대로 돌이 되어 버렸다. 암픽스는 쓰러져 있는 적의 몸에 칼을 꽂으려던 참이었으나, 팔이 굳어 버려 앞으로 찌르지도 뒤로 빼지도 못했다. 또 다른 자는 목청껏 도전하다가 입을 벌린 채 멈춰 섰고, 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페르세우스의 벗 아콘테우스는 고르고를 보았다가 다른 이들처럼 굳어 버렸다. 아스티아게스가 그를 칼로 내리쳤지만, 칼은 상처를 내지 못하고 쨍그랑 소리를 내며 튕겨 나왔다.

피네우스는 자신의 부당한 공격이 빚어낸 이 끔찍한 결과를 보고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벗들을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들을 만져 보고서야 그들이 돌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페르세우스 쪽으로 뻗었다. 그러나 고개는 돌려 외면한 채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무엇이든 다 가져가시오. 내 목숨만 살려 주시오.” “비겁한 자여,” 페르세우스가 말했다. “이것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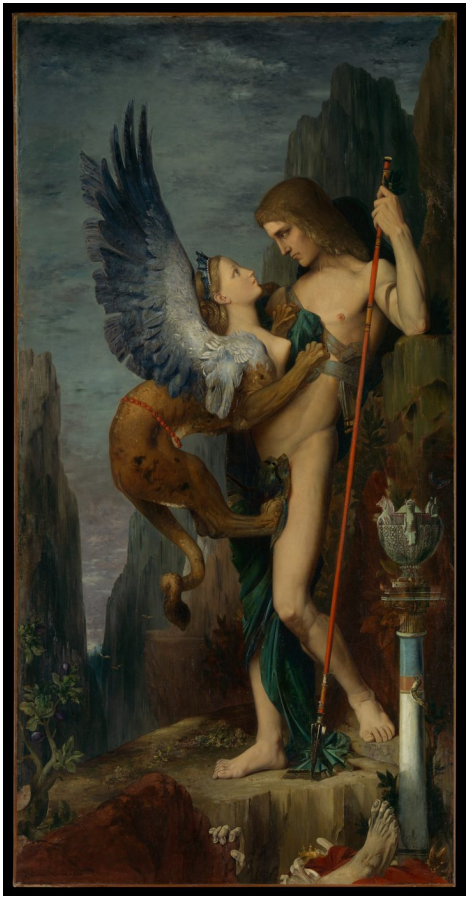
허락하겠다. 어떤 무기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일의 기념으로 너를 내 집에 두어 보존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고르고의 머리를 피네우스가 보고 있는 쪽으로 들이밀었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뻗고 얼굴을 돌린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굳어 버렸고, 움직일 수 없는 돌덩이가 되었다.

다음은 밀먼의 「사모르」에 나오는 페르세우스를 언급한 구절이다:

> "리비아의 전설 속 혼례 자리에 서 있던 것처럼,
> 분노의 엄숙한 고요 속에 페르세우스가 섰다.
> 반쯤은 서 있고 반쯤은 부풀어 오른 발목 날개에 떠서,
> 방패 위의 빛나는 얼굴이 미친 싸움을 돌로 굳혔듯이,
> 그렇게 브리튼인 사모르가 일어섰다.
> 마법의 무기는 없었으나, 오직 그의 굳건한 눈빛이 지닌
> 두려운 위엄과 통제를 두르고서.
> 그가 일어서자 경외가 사방으로 번졌고,
> 소란스럽던 홀은 고요해졌다."

제16장

괴물들



귀스타브 모로,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1864)

거인들, 스핑크스, 페가소스와 키마이라, 켄타우로스, 그리폰, 그리고 피그미족

신화의 언어에서 괴물이란 비정상적인 크기나 신체 부위를 가진 존재로, 대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엄청난 힘과 사나움을 지녔고, 그것을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데 썼다. 개중에는 여러 동물의 신체 부위를 한데 합친 것으로 여겨진 존재도 있었다. 스핑크스와 키마이라가 그러하다.
이들에게는 야생 짐승의 온갖 무서운 특성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함께 주어졌다. 다른 한편, 거인들은 주로 몸집에서 인간과 달랐다. 이 점에서 우리는 거인들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음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른바 인간 거인들, 예컨대 키클롭스, 안타이오스, 오리온 같은 존재들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였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인간과 사랑도 하고 다투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들과 싸운 초인적인 거인들은 훨씬 더 거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티티오스는 들판에 드러누우면 아홉 에이커를 뒤덮었고, 엔켈라도스를 눌러 두려면 아이트나 산 전체를 그 위에 얹어야 했다.

우리는 이미 거인들이 신들에게 벌인 전쟁과 그 결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거인들은 무서운 적수였다. 개중에는 브리아레오스처럼 팔이 백 개인 자도

있었고, 티폰처럼 불을 내뿜는 자도 있었다. 한때 거인들은 신들을 몹시 두렵게 만들어, 신들은 이집트로 달아나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여 몸을 숨겼다. 제우스는 숫양의 모습을 취했는데, 그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집트에서 굽은 뿔을 가진 신 아몬으로 숭배받게 되었다. 아폴론은 까마귀가 되었고, 디오니소스는 염소가, 아르테미스는 고양이가, 헤라는 암소가, 아프로디테는 물고기가, 헤르메스는 새가 되었다. 또 다른 때에는 거인들이 하늘로 기어오르려 했고, 그 목적으로 오사 산을 들어 올려 펠리온 산 위에 쌓아 올렸다. 마침내 거인들은 번개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 번개는 아테나가 고안하여 헤파이스토스와 그의 키클롭스들에게 가르쳐 제우스를 위해 만들게 한 것이었다.

스핑크스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는 신탁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아들이 자라도록 두면 왕좌와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한 목자에게 맡기며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목자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그렇다고 명령을 완전히 거역할 용기도 없었기에, 아이의 두 발을 묶어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두었다. 이렇게 매달려 있던

아기를 한 농부가 발견했고, 그는 아기를 주인 내외에게 데려갔다. 두 사람은 아기를 양자로 삼고 이름을 오이디푸스, 즉 '부은 발'이라 불렀다.

수년 뒤 라이오스는 델포이로 가는 길에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나섰다. 좁은 길에서 그는 역시 전차를 몰고 오던 한 젊은이와 마주쳤다. 그 젊은이가 길을 비키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수행원이 그의 말 한 마리를 죽였다. 이에 분노한 낯선 젊은이는 라이오스와 수행원을 모두 죽였다. 그 젊은이가 바로 오이디푸스였으며, 그는 이렇게 자기도 모른 채 제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되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테바이 시는 큰길을 어슬렁거리는 괴물에게 시달리게 되었다. 그것은 스핑크스라 불렸다. 몸은 사자였고 윗부분은 여인이었다. 스핑크스는 바위 꼭대기에 웅크리고 앉아 그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모두 붙잡아 수수께끼를 냈다. 풀면 무사히 지나가게 해 주지만, 풀지 못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조건이었다. 아직 그것을 푼 사람은 없었고, 도전한 자들은 모두 죽었다. 오이디푸스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에도 겁먹지 않고 대담하게 시험에 나섰다. 스핑크스가 물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기고, 한낮에는 두 발로 걸으며,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이냐?" 오이디푸스가 대답했다. "사람이다. 어릴 때는

손과 무릎으로 기고, 어른이 되면 똑바로 걸으며, 늙어서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는다.” 수수께끼가 풀리자 스핑크스는 크게 굴욕감을 느끼고 바위에서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이 너무 커서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삼고, 왕비 이오카스테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을 알지 못한 채 이미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왕비와 혼인함으로써 어머니의 남편이 되었다. 이 끔찍한 일들은 한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마침내 테바이에 기근과 역병이 덮쳤고, 신탁을 묻자 오이디푸스가 저지른 이중의 죄가 밝혀졌다.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이디푸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자기 두 눈을 찔러 뽑고는 테바이를 떠나 방랑하였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며 버렸지만, 오직 그의 딸들만은 끝까지 충실히 곁을 지켰다. 그렇게 비참한 방랑이 오래 이어진 끝에야 그는 자신의 불행한 생을 마감하였다.

페가소스와 키마이라

메두사의 머리를 페르세우스가 베어 냈을 때, 땅으로 스며든 피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가 태어났다. 아테나가 그를 붙잡아 길들였고, 그를 뮤사들에게 바쳤다. 뮤사들의 산 헬리콘에 있는 샘 히포크레네는 그가 발굽으로 한 번 걷어차자 솟아났다.

키마이라는 불을 내뿜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 몸의 앞부분은 사자와 염소가 합쳐진 모습이었고, 뒷부분은 용의 몸이었다. 키마이라는 리키아 땅에서 큰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왕 이오바테스는 그것을 없앨 영웅을 찾았다. 그 무렵 그의 궁정에 용감한 젊은 전사가 찾아왔는데, 이름은 벨레로폰이었다. 그는 이오바테스의 사위 프로이토스가 써 준 편지를 가지고 왔다. 편지는 벨레로폰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영웅이라며 더없이 극진하게 추천했다. 그러나 편지의 끝에는 장인에게 그를 죽여 달라는 부탁이 덧붙어 있었다. 프로이토스가 벨레로폰을 질투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내 안테아가 이 젊은 전사를 지나치게 우러러본다고 의심했다. 벨레로폰이 자신의 사형 선고장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가져간 이 일에서 '벨레로폰의 편지'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이 말은 사람이 자기에게 해로운 내용이 담긴 전갈을 스스로 전하게 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

이오바테스는 편지를 읽고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를 어기고 싶지 않았지만, 사위의 부탁도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벨레로폰을 키마이라와 싸우러 보내는 것이었다. 벨레로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싸움에 나서기 전에 예언자 폴리이도스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폴리이도스는 할 수 있다면 이 싸움을 위해 말 페가소스를 얻으라고 일렀다. 그러려면 아테나 신전에서 하룻밤을 지내라고 일러 주었다. 벨레로폰은 그대로 했다. 잠이 든 그에게 아테나가 찾아와 황금 재갈을 주었다. 잠에서 깨어 보니 재갈이 그의 손에 있었다. 아테나는 또 페가소스가 피레네 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날개 달린 말은 그 재갈을 보자 순순히 다가와 몸을 맡겼다. 벨레로폰은 페가소스에 올라타 함께 하늘로 솟구쳤고, 곧 키마이라를 찾아내어 어렵지 않게 그 괴물을 물리쳤다.

키마이라를 무찌른 뒤에도 벨레로폰은 적대적인 주인의 손에 의해 더 많은 시련과 노역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페가소스의 도움으로 그 시련들을 모두 이겨냈다. 마침내 이오바테스는 이 영웅이 신들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자신의 왕위를 잇게 했다. 하지만 벨레로폰은 결국 자만과 오만으로 신들의 노여움을 샀다. 그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하늘까지

날아오르려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자 제우스가 쇠등에 한 마리를 보냈고, 그 벌레가 페가소스를 쏘아 말이 기수를 떨어뜨리게 했다. 그 결과 벨레로폰은 다리를 절고 눈이 멀게 되었다. 이후 그는 알레이온의 들판을 홀로 떠돌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피했고, 비참하게 죽었다.

밀턴은 『실낙원』 제7권 첫머리에서 벨레로폰을 언급한다.

> "하늘에서 내려오라, 우라니아여, 그 이름이 참으로 네게 맞는다면,
> 신성한 네 목소리를 따라 나는 올림포스 산 위로 솟아오르니,
> 페가소스 날개의 비상보다 더 높이 네게 이끌려,
> 나는 하늘 가운데 하늘로 감히 올라왔노라,
> 땅에서 온 손님으로서, 그리고 천상의 공기를 들이마셨노라
> (네가 알맞게 누그러뜨려 준 것을). 같은 안전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려
> 나를 내 본래의 원소로 돌려보내 다오.
> 고삐 없는 이 나는 말에서
> (한때 벨레로폰이 그랬듯이, 비록 더 낮은 하늘에서였지만),
> 알레이온 들판에 나가떨어져,
> 거기서 길을 잃고 외로이 헤매게 될까 두렵구나."

영은 『밤의 생각들』에서 회의론자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 맹목적 사고가 내세를 부정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짊어진다, 벨레로폰이여, 그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그는 스스로를 단죄한다.
제 가슴을 읽는 자는 불멸의 생명을 읽나니,
그렇지 않다면 자연이 제 아들들을 속이려
그곳에 우화를 적어 두었으리라. 인간은 거짓으로 빚어졌으리라."

제2권 12쪽

페가소스는 뮤사들의 말이므로 언제나 시인들을 섬겨 왔다. 실러는 궁핍한 한 시인이 그를 팔아넘기는 바람에 그가 수레와 쟁기를 끌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페가소스는 그런 일에 맞지 않았고, 촌스러운 주인은 그를 어떻게 다룰지 알지 못했다.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서서 자기가 한번 타 보게 해 달라고 청했다. 청년이 등에 올라앉자마자, 처음에는 사납게 보였다가 나중에는 기가 꺾인 듯했던 말이 왕처럼 우뚝 일어섰다. 그러고는 정령이요 신인 양 찬란한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우리 시인 롱펠로 역시 그 유명한 말이 겪은 모험 하나를 「우리에 갇힌 페가소스」라는 시에 기록하였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에서 페가소스를 언급한다. 거기서 버넌은 헨리 왕자를 이렇게 묘사한다.

"나는 투구 면갑을 내린 젊은 해리를 보았소,
넓적다리를 덮은 갑옷을 차려입고, 늠름히 무장한 채로,
날개 단 헤르메스처럼 땅에서 솟아올라,
그처럼 수월하게 안장 위로 뛰어올랐소.
마치 천사가 구름에서 내려온 듯이,
불타는 페가소스를 돌리고 휘몰아
고귀한 마술(馬術)로 세상을 홀리듯이—"

켄타우로스

이 괴물들은 머리에서 허리까지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나머지 몸은 말이었다. 고대인들은 말을 몹시 좋아했기에,
말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합쳐진 존재를 그리 천한
혼합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고대에 상상된 괴물들
가운데 좋은 성품이 주어진 것은 켄타우로스뿐이다.
켄타우로스들은 사람과 어울리는 벗으로 받아들여졌고,
피리토오스가 히포다메이아와 혼인했을 때 하객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잔치에서 켄타우로스 가운데 한 명인
에우리티온이 포도주에 취해 신부를 해치려 들었다. 다른
켄타우로스들도 그를 따랐고, 그 결과 끔찍한 싸움이 벌어져
그들 가운데 여럿이 죽었다. 이것이 라피타이인과
켄타우로스들의 유명한 싸움이며, 고대의 조각가와 시인들이
즐겨 다룬 주제였다.

그러나 모든 켄타우로스가 피리토오스의 거친 손님들과 같았던 것은 아니다. 케이론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사냥과 의술과 음악과 예언의 기술로 이름이 높았다. 그리스 이야기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들이 그의 제자였다. 그 가운데 아폴론이 아버지로서 그에게 맡긴 갓난아기 아스클레피오스도 있었다. 현자가 그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딸 오키로에가 마중 나왔다. 그녀는 예언하는 여인이었으므로, 아기를 보자마자 예언의 노래를 터뜨렸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자라 떨칠 영광을 미리 알린 것이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자라서 이름난 의사가 되었고, 한 번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기까지 했다. 이것을 하데스가 못마땅히 여겼다. 그래서 하데스의 청을 받은 제우스는 그 대담한 의사에게 벼락을 내려 죽였다. 그러나 죽은 뒤에는 그를 신들의 무리에 받아들였다.

케이론은 모든 켄타우로스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정의로운 자였다. 그가 죽자 제우스는 그를 별자리들 사이에 올려 궁수자리로 삼았다.

피그미족

피그미족은 키가 작은 종족이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그 말은 큐빗, 곧 열세 인치가량 되는 길이 단위를 뜻했다. 이들의 키가 그만큼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나일강의 발원지 근처에 살았다고 하며, 다른 이들에 따르면 인도에 살았다고 한다. 호메로스는 두루미들이 해마다 겨울이면 피그미족의 나라로 날아갔다고 전한다. 두루미가 나타나는 것은 몸집이 작은 이 주민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신호였다. 그들은 약탈을 일삼는 낯선 침입자들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어야 했다. 피그미족과 그들의 적인 두루미는 여러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후대의 작가들은 피그미족의 군대가 잠든 헤라클레스를 발견하고 마치 도시를 공격하려는 듯 그에게 달려들 채비를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영웅은 잠에서 깨어나 작은 전사들을 보고 웃었다. 그는 그들 가운데 몇을 사자 가죽에 싸서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가져갔다.

밀턴은 『실낙원』 제1권에서 피그미족을 직유로 쓴다.

"…인도 산 너머의 저 피그미족처럼,
또는 요정 나라의 꼬마 요정들이
숲가나 샘가에서 한밤의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듯,
뒤늦은 농부가 보거나 (보았다고 꿈꾸거나),
머리 위엔 달이 심판자처럼 앉아 있고
달은 땅에 더 가까이 창백한 길을 돌아가는데,
그들은 흥에 겨워 춤추기에 골몰하며
즐거운 음악으로 그의 귀를 홀린다.
그는 기쁨과 두려움으로 한꺼번에 가슴이 뛴다."

그리핀, 혹은 그리폰

그리핀은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를 달고, 등은 깃털로 덮인 괴물이다. 새처럼 둥지를 틀지만, 알 대신 그 안에 마노를 낳는다. 발톱과 갈고리발톱이 길고 커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으로 술잔을 만들었다. 그리핀의 원래 고향은 인도로 여겨졌다. 그리핀들은 산에서 금을 찾아내 그것으로 둥지를 지었다. 그래서 그 둥지는 사냥꾼들에게 몹시 탐나는 것이었고, 그리핀들은 둥지를 지키기 위해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했다. 그들은 본능으로 땅속에 묻힌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약탈자들을 멀리하려고 온 힘을 다했다. 그리핀들이 번성했던 아리마스피아인은 스키티아에 살던 외눈박이 민족이었다.

밀턴은 『실낙원』 제2권에서 그리핀에게서 직유를 빌려 온다.

> “마치 그리핀이 황야를 가로질러
> 날개 달린 걸음으로, 언덕과 이끼 낀 골짜기를 넘어,
> 아리마스포이 사람을 뒤쫓는 것처럼. 그자는 몰래
> 깨어 있는 감시를 피해 훔쳐 갔다
> 지켜지던 황금을,”

제17장

황금 양털 — 메데이아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이아손과 메데이아」(1907)

황금 양털

아주 옛날 테살리아에는 아타마스와 네펠레라는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있었다. 얼마 뒤 아타마스는 아내에게 마음이 식어 그녀를 내쫓고 다른 여자를 맞아들였다. 네펠레는 새 왕비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위험해질 것을 짐작하고, 아이들을 새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낼 방도를 마련했다. 헤르메스가 그녀를 도와, 황금 양털을 가진 숫양을 주었다. 네펠레는 양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믿고 두 아이를 그 등에 태웠다. 숫양은 아이들을 등에 태운 채 공중으로 솟아올라 동쪽을 향해 날아갔다.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해협을 건널 무렵, 헬레라는 이름의 딸이 양의 등에서 바다로 떨어졌다. 그 바다는 그녀의 이름을 따 헬레스폰토스라 불렸으니, 지금의 다르다넬스 해협이다. 숫양은 계속 날아 흑해 동쪽 연안에 있는 콜키스 왕국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아들 프릭소스를 무사히 내려놓았다.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는 프릭소스를 극진히 맞아들였다. 프릭소스는 그 숫양을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고, 황금 양털은 아이에테스에게 주었다. 아이에테스는 그것을 신성한 숲에 걸어 두고, 잠들지 않는 용에게 지키게 했다.

테살리아에는 아타마스의 왕국 가까이에 또 다른 왕국이 있었고, 그곳은 아타마스의 친척이 다스리고 있었다. 왕 아이손은 통치의 근심에 지쳐, 왕관을 동생 펠리아스에게 넘겼다. 다만 아이손의 아들 이아손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왕위를 맡는다는 조건이었다. 이아손이 자라나 삼촌에게 왕관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펠리아스는 그것을 내줄 뜻이 있는 척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젊은이에게 황금 양털을 찾아 떠나는 영광스러운 모험을 권했다. 황금 양털은 콜키스 왕국에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펠리아스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 집안의 정당한 재산이었다. 이아손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 곧바로 원정을 준비했다. 그 무렵 그리스인이 아는 항해 수단이라고는 나무줄기 속을 파서 만든 작은 배나 카누뿐이었다. 그래서 이아손이 아르고스에게 쉰 명을 태울 수 있는 배를 만들라고 시켰을 때, 그것은 거대한 사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배는 완성되었고,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 '아르고'라고 불렸다. 이아손은 그리스의 모험심 많은 젊은이들에게 모두 초대장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담한 청년들의 무리를 이끌게 되었다. 그중 많은 이들은 나중에 그리스의 영웅과 반신으로 이름을 떨쳤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오르페우스, 네스토르도 그 무리에 있었다. 그들은 배의 이름을 따 아르고나우타이, 곧 '아르고의 뱃사람들'이라 불린다.

‘아르고’호는 영웅들을 태우고 테살리아의 해안을 떠났다. 그들은 렘노스 섬에 들렀다가 미시아로 건너갔고, 거기서 다시 트라키아로 나아갔다. 이곳에서 그들은 현자 피네우스를 만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가르침을 그에게서 받았다. 흑해의 입구는 두 개의 작은 바위섬에 가로막혀 있었다고 한다. 그 섬들은 수면 위에 떠 있다가 흔들리고 출렁이면서 때때로 서로 맞부딪혔다. 그 사이에 끼인 것은 무엇이든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섬들을 ‘심플레가데스’, 곧 ‘부딪치는 섬들’이라 불렀다. 피네우스는 아르고나우타이에게 이 위험한 해협을 통과하는 방법을 일러 주었다. 그들이 섬에 이르렀을 때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다. 비둘기는 바위 사이를 지나갔고, 꼬리의 깃털 몇 개만 잃고 무사히 빠져나갔다. 이아손과 선원들은 섬들이 튕겨 나와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해협을 통과했다. 섬들은 그들의 뒤에서 다시 닫혔고, 배의 고물을 아슬아슬하게 스쳤다. 이제 그들은 바닷가를 따라 노를 저어 흑해의 동쪽 끝에 이르렀고, 콜키스 왕국의 땅에 상륙했다.

이아손은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아이에테스는 이아손이 발이 청동인 불을 뿜는 황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워 쟁기를 끌게 하고, 카드모스가 죽인 용의 이빨을 밭에 뿌린다면 황금 양털을 내주겠다고 했다.

용의 이빨에서는 무장한 병사들이 돋아나 그것을 뿌린 자에게 창끝을 겨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아손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시험할 날이 정해졌다. 그러나 그 전에 이아손은 왕의 딸 메데이아에게 자신의 청을 호소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그녀에게 혼인을 약속했고, 두 사람이 헤카테의 제단 앞에 섰을 때 그 여신을 증인으로 세워 맹세했다. 메데이아는 마음을 허락했다. 강력한 마녀였던 그녀의 도움으로 이아손은 불을 뿜는 황소들의 숨결과 무장한 병사들의 무기에 무사히 맞설 수 있는 주문을 얻었다.

정해진 날이 되자 사람들은 아레스의 숲에 모였고, 왕은 왕좌에 앉았으며, 군중은 언덕 비탈을 가득 메웠다. 발이 청동인 황소들이 뛰쳐나왔다. 콧구멍에서 불을 내뿜었고, 그 불은 지나가는 곳의 풀을 모두 태워 버렸다. 그 소리는 용광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고, 연기는 생석회에 물을 부었을 때처럼 피어올랐다. 이아손은 대담하게 나아가 그들을 맞았다. 그리스에서 뽑힌 영웅들인 그의 동료들은 그를 보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이아손은 뜨거운 숨결을 개의치 않고 목소리로 황소들의 격분을 가라앉혔으며, 두려움 없는 손으로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멍에를 씌워 황소들이 쟁기를 끌도록 만들었다.
콜키스인들은 놀랐고, 그리스인들은 기뻐서 함성을 질렀다.
이아손은 다음으로 용의 이빨을 뿌리고 쟁기로 흙에 묻었다.

곧 무장한 병사들이 돋아났다. 놀랍게도 그들은 땅 위로 올라오자마자 무기를 휘두르며 이아손에게 달려들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영웅을 위해 몸을 떨었다. 이아손에게 살아날 길을 마련해 주고 그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그녀, 메데이아 자신도 두려움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 이아손은 한동안 칼과 방패로 적들을 막아 냈다. 그러나 적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자, 메데이아가 가르쳐 준 주문을 썼다. 그는 돌을 집어 적들 한가운데로 던졌다. 병사들은 즉시 서로를 향해 무기를 돌렸고, 머지않아 용의 자식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영웅을 얼싸안았다. 메데이아도 감히 할 수만 있었다면 그를 얼싸안았을 것이다.

황금 양털을 지키던 용을 재우는 일이 남아 있었다. 메데이아가 준비한 약을 몇 방울 용에게 뿌려 이 일을 해냈다. 그 냄새를 맡자 용은 분노를 누그러뜨렸고,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한 번도 감긴 적이 없던 그 크고 둥근 눈을 감고 옆으로 몸을 뒤집어 깊이 잠들었다. 이아손은 양털을 움켜쥐었다. 동료들과 메데이아가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은 아이에테스 왕이 출발을 막기 전에 배로 서둘러 달려갔고, 가능한 한 빨리 테살리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무사히 도착했고, 이아손은 양털을 펠리아스에게 바치고 '아르고'호를 포세이돈에게 봉헌했다. 그 뒤 양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다른 많은 황금 전리품들처럼, 그것을 얻는 데 든 수고만큼의 값어치는 없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을지도 모른다.

최근의 한 작가가 말했듯이, 이것은 허구의 두터운 층 아래에 진실의 바탕이 놓여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는 신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다. 아마 이것이 최초의 중요한 해상 원정이었을 것이다.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여느 민족의 첫 해상 시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원정도 아마 반쯤은 해적 같은 성격을 띠었을 것이다. 막대한 전리품이 그 결과로 따라왔다면, 그것만으로도 황금 양털이라는 생각이 생겨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학식 높은 신화학자 브라이언트가 내놓은 또 다른 견해는, 이것이 노아와 방주 이야기가 변질된 전승이라는 것이다. '아르고'라는 이름이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며, 비둘기 일화는 그 주장을 한층 굳혀 준다.

포프는 「성녀 세실리아 축일을 위한 송시」에서 '아르고'호의 출항과, 그가 트라키아인이라 부른 오르페우스의 음악이 지닌 힘을 이렇게 기린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대담한 배가 바다에 맞섰을 때,
고물 높이 선 트라키아인이 노래를 드높였다.
아르고 호는 제 동족인 나무들이
펠리온 산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황홀에 잠긴 반신들이 둘러서고,
그 소리에 사람들은 영웅이 되어 갔다."

다이어의 시 「양털」에는 '아르고'호와 그 선원들에 관한 서술이 있는데, 이 원시적인 바다 모험의 모습을 잘 그려 낸다:

"아이게아 해안의 모든 땅에서
용감한 이들이 모여들었다. 그 빛나는 쌍둥이,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음률 고운 시인 오르페우스.
바람처럼 빠른 제테스와 칼라이스. 힘센 헤라클레스와
이름 높은 장수들이 수없이 많았다.
깊은 이올코스의 모래 해안에 그들이 몰려들었는데,
갑옷에 빛을 받으며 공훈을 향한 열정으로 타올랐다.
곧 그들은 월계수 밧줄과 거대한 돌을
갑판 위로 들어 올려 배를 뭍에서 풀어냈다.
그 용골은 놀라울 만큼 길었고, 아르고스의 솜씨 좋은 손이
그 당당한 시도를 위해 깎아 만든 것이었다.
펼쳐진 용골 위에는 높은 돛대가 세워졌고,
돛은 부풀어 올랐다. 장수들에게는 낯선 광경이었다.
이제 처음으로, 그들은 배를 몰아
바다의 파도 위를 더 대담하게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황금빛 별들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것은 케이론의 기술이
천구에 표시해 둔 그대로였다……"

헤라클레스는 미시아에서 원정대를 떠났다. 그가 아끼던 젊은이 힐라스가 물을 길으러 갔다가 샘의 님프들에게 붙들려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님프들은 그의 아름다움에 홀려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그 소년을 찾아 나섰고, 그가 없는 사이에 '아르고'호는 바다로 떠나 그를 남겨 두고 말았다. 무어는 한 노래에서 이 일화를 아름답게 암시한다.

"항아리를 들고 샘으로 심부름 보내진 힐라스는
햇살 가득한 들판을 장난기 어린 가슴으로 가로질렀다.
가벼이 소년은 풀밭과 언덕을 쏘다녔고,
길가에 핀 꽃에 홀려 제 일을 잊고 말았다.

나처럼 많은 이들이 젊은 날 마셔야 했을 샘을
철학의 사당 곁을 흐르는 그 샘을 맛보지 못했다.
샘가의 꽃들과 어울려 그들은 시간을 흘려보냈고,
가벼운 항아리를 내 것처럼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었다."

메데이아와 아이손

황금 양털을 되찾은 기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아손은 한 가지가 아쉬웠다. 나이와 병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아이손이 곁에 없었던 것이다. 이아손은 메데이아에게 말했다. "나의 아내여, 나를 도울 때 그토록 막강한 힘을 보여 준 당신의 마법으로 한 가지만 더 해 줄 수 있다면 좋겠소. 내 목숨에서 몇 해를 덜어 내어 아버지의 목숨에 더해 줄 수 있겠소?" 메데이아가 대답했다. "그런 대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법이 통한다면, 당신의 목숨을 줄이지 않고 아버님의 목숨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름달 밤, 메데이아는 모든 생물이 잠든 틈에 홀로 밖으로 나섰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사방은 고요했다. 그녀는 별들을 향해, 그리고 달을 향해 주문을 외웠다. 저승의 여신 헤카테와, 마법의 힘을 지닌

약초를 자라게 하는 대지의 여신 텔루스에게도 빌었다. 숲과 동굴의 신들, 산과 골짜기의 신들, 호수와 강의 신들, 바람과 안개의 신들도 불러냈다. 그녀가 말을 이어 가자 별빛이 더욱 밝아졌고, 곧 날개 달린 뱀들이 끄는 전차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메데이아는 그 전차에 올라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멀고 먼 곳으로 나아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목적에 쓸 수 있는 강력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녀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알고 있었다. 아홉 밤 동안 그녀는 약초를 찾아다녔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기 궁전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어떤 지붕 아래에 머물지도 않았으며,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했다.

그다음 그녀는 제단 두 개를 세웠다. 하나는 헤카테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춘의 여신 헤베를 위한 것이었다. 검은 양 한 마리를 바치고 우유와 포도주를 제주로 부었다. 그녀는 하데스와 그가 훔쳐 간 신부에게 간청하여, 노인의 목숨을 서둘러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빌었다. 그런 다음 아이손을 데려오게 하고, 주문으로 그를 깊은 잠에 빠뜨려 죽은 사람처럼 약초 더미 위에 눕히게 했다. 이아손과 다른 모든 사람은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다. 신성한 의식을 부정한 눈이 보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메데이아는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채 제단을 세 바퀴 돌았고, 불붙은 나뭇가지를 피에 담갔다가 제단 위에 올려

태웠다. 그사이 가마솥과 그 안에 담을 재료도 준비되었다. 그녀는 그 안에 마법의 약초를 넣었다. 맵고 즙이 쓴 씨앗과 꽃, 먼 동방에서 가져온 돌, 세상을 둘러싼 대양의 해변에서 주운 모래를 넣었다. 달빛 아래 모은 서리, 부엉이의 머리와 날개, 늑대의 내장도 넣었다. 거북의 등껍데기 조각과 사슴의 간도 넣었다. 모두 명이 질긴 짐승들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아홉 세대보다 오래 사는 까마귀의 머리와 부리도 넣었다. 이것들과 "이름 없는" 그 밖의 많은 것들을 그녀는 목적한 일을 위해 함께 끓이면서, 마른 올리브 가지로 저어 섞었다. 그러자 보라, 꺼낸 가지는 즉시 푸르러졌고, 머지않아 잎이 돋고 어린 올리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 그리고 가마솥의 액체가 끓어오르며 거품을 일으키고 때로 넘쳐흐를 때마다, 그 방울이 떨어진 곳의 풀은 봄처럼 싱그러운 푸름으로 돋아났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메데이아는 노인의 목을 베어 피를 모두 빼냈다. 그리고 가마솥에서 우러난 즙을 노인의 입과 상처에 부어 넣었다. 그가 그것을 남김없이 들이마시자,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얀빛을 벗고 젊음의 검은빛을 되찾았다. 창백하고 야윈 기색도 사라졌다. 혈관에는 피가 가득 찼고, 사지에는 기운과 탄탄함이 돌아왔다. 아이손은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이 사십 년 전 젊은 날의 자신과 같다는 것을 떠올렸다.

메데이아는 여기서 자신의 마법을 좋은 목적에 썼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그 마법을 복수의 도구로 삼았다. 독자들이 기억하겠지만, 펠리아스는 이아손의 왕위를 빼앗은 삼촌이었고 이아손에게 왕국을 내주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그에게는 나름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딸들은 메데이아가 아이손에게 한 일을 보고,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해 주기를 바랐다. 메데이아는 그러겠다고 응하는 척하며, 전과 같이 가마솥을 준비했다. 그녀의 요청에 따라 늙은 양 한 마리가 끌려와 가마솥에 던져졌다. 곧 솥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고, 뚜껑을 열자 어린 양 한 마리가 뛰쳐나와 풀밭으로 깡충깡충 달아났다. 펠리아스의 딸들은 기뻐하며 그 실험을 지켜보았고, 아버지가 같은 시술을 받을 날을 정했다. 하지만 메데이아는 그를 위한 가마솥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다. 그녀는 물과 몇 가지 간단한 약초만 넣었다. 밤이 되자 메데이아는 자매들과 함께 늙은 왕의 침실로 들어갔다. 왕과 호위병들은 메데이아가 걸어 둔 주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딸들은 무기를 뽑아 들고 침대 곁에 섰지만 망설였다. 그러자 메데이아가 그들의 우유부단함을 꾸짖었다. 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무렇게나 칼을 휘둘러 아버지를 찔렀다. 잠에서 깬 펠리아스가 소리쳤다. “얘들아, 너희는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아비를 죽이려는 것이냐?" 그러자 딸들은 용기를 잃고 무기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나 메데이아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그가 더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를 가마솥에 넣었다. 메데이아는 딸들이 자신의 배신을 알아차리기 전에 뱀이 끄는 전차를 타고 서둘러 떠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딸들의 복수는 끔찍했을 것이다. 그녀는 빠져나갔지만, 자신의 죄가 가져온 열매를 누린 것은 거의 없었다. 메데이아가 그토록 많은 일을 해 준 이아손은 코린토스의 공주 크레우사와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 메데이아를 내쳤다. 은혜를 모르는 그의 행동에 분노한 메데이아는 신들에게 복수를 빌었다. 신부에게 독을 바른 옷을 선물로 보내고,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뒤 궁전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뱀이 끄는 전차에 올라 아테나이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테세우스의 아버지인 아이게우스 왕과 결혼했다. 우리는 그 영웅의 모험을 다룰 때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메데이아의 주문은 독자에게 『맥베스』의 마녀들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다음 시행들은 고대의 원형을 가장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다.

"가마솥 둘레를 돌아라,
독을 품은 내장을 던져 넣어라.

> 늪 독사의 살점을
> 가마솥에 넣고 끓여라.
> 도롱뇽의 눈알과 개구리의 발가락,
> 박쥐의 털과 개의 혀,
> 살무사의 갈라진 혀와 발없는도마뱀의 독침,
> 도마뱀의 다리와 올빼미의 날개를 넣어라.
>
> 게걸스러운 바닷속 상어의 아가리,
> 어둠 속에서 캐낸 독미나리 뿌리," 등등
>
> — 『맥베스』, 제4막 제1장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다:

> 맥베스.—무엇을 하는 거요?
> 마녀들.—이름 없는 일이라오.

메데이아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마녀의 이야기라 해도 기록하기 꺼려질 만큼 끔찍하다. 고대와 현대의 시인들은 마녀라는 부류에게 온갖 잔혹함을 돌리곤 했다. 메데이아는 콜키스를 떠날 때 어린 남동생 압시르토스를 데리고 갔다. 아이에테스의 배들이 아르고나우타이를 바짝 쫓아오자, 그녀는 소년을 죽이게 하고 그 사지를 바다에 흩뿌렸다. 아이에테스는 그곳에 이르러 살해된 아들의 슬픈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가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명예롭게 장사 지내는 동안, 아르고나우타이는 달아났다.

캠벨의 시집에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이아』에 나오는 합창 가운데 하나를 옮긴 번역이 실려 있다. 이 시인은 그 대목을 빌려 자신의 고향인 아테나이를 찬양하는 열띤 찬사를 바쳤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다.

> "오, 수척한 여왕이여! 아테나이로 너는 몰아가는가
> 피붙이의 피에 젖은 그 빛나는 전차를;
> 아니면 그 저주받을 혈육 살해를 숨기려 하는가
> 평화와 정의가 영원히 머무는 그곳에?"

제18장

멜레아그로스와 아탈란테



페테르 파울 루벤스, 「아탈란테와 멜레아그로스」(1616년경)

아르고호 원정대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은 칼리돈의 왕과 왕비인 오이네우스와 알타이아의 아들 멜레아그로스였다. 알타이아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세 운명의 여신을 보았는데, 그들은 운명의 실을 자으며 이 아이의 목숨은 화로에서 타고 있는 장작이 다 타 버릴 때까지만 이어진다고 예언했다. 알타이아는 그 장작을 낚아채 불을 끄고, 멜레아그로스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동안 몇 해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그런데 어느 때 오이네우스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아르테미스에게는 마땅한 공경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자 여신은 그 소홀함에 분노하여 칼리돈의 들판을 황폐하게 할 거대한 멧돼지를 보냈다. 그 짐승의 눈은 피와 불로 번뜩였고, 뻣뻣한 털은 위협하는 창처럼 곤두섰으며, 엄니는 인도 코끼리의 것과 같았다. 자라나는 곡식은 짓밟혔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망가졌으며, 가축 떼와 소 떼는 살육하는 적에게 쫓겨 어지럽게 흩어졌다. 여느 방법으로는 어떤 도움도 소용없어 보였다. 그러나 멜레아그로스는 그리스의 영웅들을 불러 이 게걸스러운 괴물을 쫓는 대담한 사냥에 함께하자고 청했다. 테세우스와 그의 벗 피리토오스, 이아손, 훗날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가 된 펠레우스, 아이아스의 아버지 텔라몬, 그때는 젊은이였으나 늙어서는 트로이아 전쟁에서 아킬레우스, 아이아스와 함께 무기를 든 네스토르, 이들과 그 밖에 많은

이들이 이 일에 나섰다. 그들과 함께 아르카디아의 왕 이아시오스의 딸 아탈란테도 왔다. 윤기 나는 황금 걸쇠가 그녀의 옷을 여미고 있었고, 상아 화살통이 왼쪽 어깨에 걸려 있었으며, 왼손에는 활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성다운 아름다움과 씩씩한 젊음의 가장 좋은 우아함이 어우러져 있었다. 멜레아그로스는 그녀를 보자 사랑에 빠졌다.

이제 사냥꾼들은 괴물의 굴 근처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튼튼한 그물을 쳤고, 사냥개들을 풀어놓았으며, 풀숲에서 사냥감의 발자국을 찾으려 애썼다. 숲에서 내려가면 습지가 나왔다. 멧돼지는 갈대 사이에 누워 있다가 자기를 쫓는 자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그들을 향해 뛰쳐나왔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임을 당했다. 이아손은 아르테미스에게 성공을 빌며 창을 던졌다. 호의를 가진 여신은 그 창이 짐승에게 닿도록 허락했지만 상처를 입히지는 않도록 했다. 여신이 날아가는 창에서 강철 창끝을 빼 버렸기 때문이다. 공격을 받은 네스토르는 나무 가지 위로 몸을 피해 안전을 찾았다. 텔라몬은 달려들었으나 튀어나온 나무뿌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러나 마침내 아탈란테가 쏜 화살이 처음으로 괴물의 피 맛을 보았다. 상처는 가벼웠지만 멜레아그로스가 그것을 보고 기쁨에 차 소리쳤다. 한 여자에게 쏟아진 칭찬에 질투심이 솟구친

안카이오스는 자신의 용맹을 큰 소리로 자랑하며, 멧돼지와 그것을 보낸 여신 모두에게 도전했다. 그러나 그가 달려드는 순간 성난 짐승이 치명상을 입혀 그를 쓰러뜨렸다.
테세우스가 창을 던졌지만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막혀 빗나갔다. 이아손의 투창은 목표를 맞히지 못하고 대신 그들의 사냥개 한 마리를 죽였다. 그러나 멜레아그로스는 한 번 실패한 일격 뒤에 창을 괴물의 옆구리에 찔러 넣었고, 그다음 달려들어 거듭 내리쳐 짐승의 숨통을 끊었다.

그러자 주위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승리자에게 축하를 건네며 그의 손을 잡으려고 몰려들었다.
멜레아그로스는 쓰러진 멧돼지의 머리 위에 발을 얹은 채 돌아서서, 아탈란테에게 그 성공의 전리품인 머리와 거친 가죽을 건넸다. 그러나 이 일은 나머지 사람들의 질투를 일으켜 다툼을 불러왔다. 멜레아그로스 어머니의 형제인 플렉십포스와 톡세우스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선물에 반대하며, 소녀가 받은 전리품을 억지로 빼앗았다.
멜레아그로스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에 분노가 치솟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해진 모욕에는 더욱 격분하여, 혈연의 도리를 잊고 칼을 뽑아 가해자들의 가슴을 찔렀다.

아들의 승리를 기리며 신전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려던
알타이아는, 자신의 형제들이 살해된 시신과 마주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치고, 축제의 옷을 서둘러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나 살인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자,
슬픔은 아들에게 복수하려는 냉혹한 욕망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는 한때 불길에서 구해 낸 그 치명적인 장작을
꺼냈다. 운명의 여신들이 멜레아그로스의 목숨과 이어 놓은
그 장작이었다. 그녀는 불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이나 장작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네
번 모두 아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생각에 몸을 떨며 물러섰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어머니의 감정과 누이의 감정이 맞서
싸웠다. 계획한 행위를 떠올리면 그녀는 창백해졌고, 아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다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한
방향으로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는 조류가 밀어대는
배처럼, 알타이아의 마음은 불확실함 속에 매달려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이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겼고,
그녀는 치명적인 나무를 손에 쥔 채 말하기 시작했다.
“돌아보라, 복수의 여신들이여, 벌을 내리는 여신들이여!
내가 바치는 제물을 보라고 돌아서라! 죄는 죄로 갚아야 한다.
테스티우스의 집안이 황폐해졌는데 오이네우스는 승리한
아들을 보며 기뻐해야 하는가? 아, 하지만 나는 무슨 행위로
끌려가고 있는가! 형제들이여, 어머니의 나약함을 용서하라!

내 손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내 손에 죽어야 할 까닭은 없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남아, 승리를 누리며 칼리돈을 다스리게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그림자들 사이에서 복수도 못 한 채 떠돌아야 하는가? 아니다! 너는 내가 준 목숨으로 살았으니, 이제 네 죄 때문에 죽어라. 내가 두 번 준 목숨을 돌려주어라. 한 번은 네가 태어났을 때, 또 한 번은 내가 이 장작을 불길에서 빼냈을 때였다. 아, 그때 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 이 승리는 나쁜 승리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이겼다." 그녀는 얼굴을 돌린 채, 그 치명적인 나무를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 던졌다.

장작은 죽어 가는 자의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아니, 낸 것만 같았다. 멜레아그로스는 자리에 없었고 그 원인도 알지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고통을 느꼈다. 그는 불타고 있었고,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을 오직 용기 있는 긍지로 견뎌 냈다. 그가 슬퍼한 것은 오직 피 흘리지 않고 명예도 없이 죽어 간다는 사실뿐이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는 늙은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들을 불렀다. 사랑하는 아탈란테를 불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운명을 결정지은 어머니를 불렀다. 불길이 커질수록 영웅의 고통도

커졌다. 이윽고 둘 다 가라앉았다. 둘 다 꺼졌다. 장작은 재가 되었고, 멜레아그로스의 목숨은 떠도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알타이아는 그 일이 끝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멜레아그로스의 누이들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오라비를 애도했다. 그러다 아르테미스가 그 집안의 슬픔을 가엾이 여겼다. 한때 그 집안에 분노했던 여신이었다. 그래서 여신은 누이들을 새가 되게 했다.

아탈란테

그 많은 슬픔의 순진한 원인은 한 처녀였다. 그녀의 얼굴은 소녀치고는 소년 같다고 해야 했고, 소년치고는 너무 소녀다웠다. 그녀의 운명을 점쳐 보니 이런 말이 나왔다. "아탈란테야,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네 파멸이 될 것이다." 이 신탁에 겁을 먹은 그녀는 남자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사냥의 놀이에 몸을 바쳤다. 구혼자들(그녀에게는 구혼자가 많았다)에게는 대개 그들의 괴롭힘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었던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 "나는 달리기 시합에서 나를 이기는 자의 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도했다가 지는 모든 자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이들이 있었다. 히포메네스가 이 경주의

심판을 맡게 되었다. “아내를 얻으려고 그토록 많은 것을 걸 만큼 무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경주를 위해 겉옷을 벗는 모습을 보자 그는 생각을 바꾸고 말했다. “용서하게, 젊은이들이여. 자네들이 무엇을 놓고 겨루는지 내가 몰랐네.” 그는 그들을 훑어보며 모두가 지기를 바랐고, 조금이라도 이길 법해 보이는 자에게는 질투로 속이 끓었다.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처녀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달리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바람이 그녀의 발에 날개를 달아 주는 듯했다.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흩날렸고, 옷자락의 화려한 술 장식이 뒤에서 펄럭였다. 붉은 빛이 그녀의 흰 살결을 물들였는데, 마치 진홍빛 휘장이 대리석 벽에 드리운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경쟁자는 뒤처졌고, 자비 없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결과에도 기죽지 않은 히포메네스는 처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뒤처진 자들을 이겼다고 자랑할 게 뭐 있소? 나는 이 경주에 나서겠소.” 아탈란테는 연민 어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이기고 싶은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토록 젊고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내던지도록 유혹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 나는 그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그래도 그는 아름답다) 그의 젊음 때문에 그가 가엾다. 그가 경주를 포기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렇게까지 미쳤다면, 나를 앞지르기를 바랄 수밖에.” 그녀가 이런 생각을 되새기며

망설이는 동안, 관중들은 경주를 기다리며 조바심을 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준비하라고 재촉했다. 그때 히포메네스는 아프로디테에게 기도를 올렸다. "아프로디테여, 나를 도우소서. 당신이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 아프로디테는 이를 듣고 그에게 호의를 보였다.

그녀의 신전 정원, 곧 그녀의 섬 키프로스에는 노란 잎과 노란 가지와 황금빛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었다. 그녀는 거기서 황금 사과 세 개를 따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게 히포메네스에게 주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 일러 주었다. 신호가 울리자 두 사람은 출발점을 떠나 모래 위를 스치듯 달렸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던지, 강물 위나 물결치는 곡식밭 위를 가라앉지 않고 달려갈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구경꾼들의 함성이 히포메네스를 북돋웠다. "지금이야, 지금! 힘을 내라! 서둘러라! 그녀를 따라잡고 있다! 늦추지 마라! 한 번만 더 힘을 내라!" 이 외침을 듣고 더 기뻐한 쪽이 청년인지 처녀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숨이 차기 시작했고, 목은 바싹 말라 갔으며, 결승점은 아직도 멀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황금 사과 하나를 던졌다. 처녀는 크게 놀랐다. 그녀는 그것을 주우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히포메네스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녀는 힘을 두 배로 내어 곧 그를 따라잡았다. 그가 다시 사과를 던졌다. 그녀는 또 멈추었지만, 또다시 그를 따라잡았다. 결승점이

가까웠고,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이제, 여신이여,” 그가 말했다. “당신의 선물이 힘을 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사과를 옆으로 던졌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아프로디테가 그녀를 몰아 그쪽으로 몸을 틀게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고, 결국 지고 말았다. 청년은 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두 연인은 자신들의 행복에 너무 취한 나머지 아프로디테에게 마땅한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었고, 여신은 그들의 배은망덕에 분노했다. 여신은 그들이 키벨레를 모욕하게 만들었다. 그 강력한 여신은 그렇게 쉽게 모욕당하고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거두고, 그들의 성품을 닮은 짐승으로 바꾸어 놓았다. 구혼자들의 피를 보며 승리를 누리던 사냥꾼 여주인공은 암사자가 되었고, 그녀의 주인이자 남편인 청년은 수사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신은 그들을 자신의 수레에 매어 두었다. 키벨레 여신을 그린 조각이나 그림에는 지금도 이 두 마리의 사자가 함께 보인다.

키벨레는 그리스인이 레아라고 부른 여신의 라틴어 이름이다. 그녀는 크로노스의 아내이자 제우스의 어머니였다. 예술 작품에서 그녀는 헤라와 데메테르에게서 볼 수 있는 어머니다운 풍모를 지니고 있다. 때로는 베일을

쓰고 옆에 사자를 둔 채 왕좌에 앉아 있고, 때로는 사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있다. 그녀는 성벽 왕관을 쓰는데, 이는 테두리가 탑과 성가퀴 모양으로 조각된 왕관이다. 그녀의 사제들은 코리반테스라고 불렸다.

바이런은 아드리아해의 낮은 섬 위에 세워진 도시 베네치아를 묘사하면서, 키벨레에게서 한 가지 비유를 빌려 온다:

> "그녀는 바다에서 막 솟아난 바다의 키벨레처럼 보이네,
> 자랑스러운 탑들로 엮은 왕관을 머리에 이고
> 아스라한 거리에서, 장엄한 몸짓으로 떠오르며,
> 물과 그 힘을 다스리는 여왕으로."
>
> —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4권

무어의 「여행길의 운율」에서 시인은 알프스의 풍경을 말하며 아탈란테와 히포메네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 쓴다:

> "여기서도, 이 경이의 땅에서도 나는 알아차린다,
> 날랜 발을 가진 상상이 진실을 멀찍이 뒤에 남겨 두는 것을,
> 적어도 히포메네스처럼, 그녀를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을
> 그가 그녀의 앞길에 던진 황금빛 환영들로."

제19장

헤라클레스 — 헤베와 가니메데스



안니발레 카라치, 「헤라클레스의 선택」(1596)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의 아들이었다. 헤라는 남편이 필멸의 여인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 늘 적의를 품었으므로,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헤라는 요람에 누워 있는 그를 죽이려고 뱀 두

마리를 보냈지만, 남달리 일찍 자란 아기는 맨손으로 그 뱀들을 목 졸라 죽였다. 그러나 헤라의 술수로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종속되었고, 그의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그에게 연이은 위험한 모험을 맡겼는데, 이것이 이른바 '헤라클레스의 열두 가지 과업'이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와 싸우는 일이었다. 네메아 골짜기에는 무서운 사자가 출몰하고 있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그 괴물의 가죽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헤라클레스는 몽둥이와 화살로 사자에게 맞섰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맨손으로 그 짐승을 목 졸라 죽였다. 그는 죽은 사자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그러나 에우리스테우스는 사자를 보고 겁에 질렸고, 영웅의 놀라운 힘을 직접 목격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헤라클레스에게 앞으로는 업적을 성 밖에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다음 과업은 히드라를 죽이는 일이었다. 이 괴물은 아르고스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아미모네의 샘 근처 늪지에 살고 있었다. 이 샘은 땅이 가뭄으로 메마르던 때 아미모네가 발견한 것이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를 사랑한 포세이돈이 그녀가 삼지창으로 바위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했고, 그러자 세 갈래 물줄기가 솟아올랐다고 한다. 히드라는 바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없애라는 명을 받고 보내졌다.

히드라에게는 머리가 아홉 개 있었는데, 가운데 머리는 죽지 않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가 몽둥이로 머리들을 쳐서 떨어뜨리면, 떨어진 머리 자리에서 매번 새 머리가 두 개씩 돋아났다. 마침내 그는 충직한 하인 이올라오스의 도움을 받아 히드라의 머리들을 불로 태워 없앴고, 죽지 않는 아홉 번째 머리는 커다란 바위 아래 묻어 버렸다.

또 다른 과업은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치우는 일이었다. 엘리스의 왕 아우게이아스에게는 소 삼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외양간은 서른 해 동안 한 번도 치워지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알페이오스강과 페네이오스강의 물줄기를 외양간 안으로 끌어들였고, 하루 만에 외양간을 말끔히 씻어 냈다.

그다음 과업은 이보다 더 섬세한 종류였다. 에우리스테우스의 딸 아드메타가 아마존족 여왕의 허리띠를 가지고 싶어 했고,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가서 그것을 얻어 오라고 명했다. 아마존족은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민족이었다. 그들은 매우 호전적이었고 번영하는 도시들을 여럿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관습에 따라 여자아이만 길렀고, 남자아이는 이웃 민족에게 내보내거나 죽여 버렸다. 헤라클레스는 자원한 이들을 여럿 데리고 떠났고, 여러 모험을 겪은 끝에 마침내 아마존족의 땅에

닿았다. 여왕 히폴리테는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고, 허리띠를 내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헤라는 아마존족 여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다른 여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들의 여왕을 납치하려 한다고 설득했다. 아마존족은 즉시 무장하고 떼를 지어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가 배신했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죽였고, 허리띠를 빼앗은 뒤 고향을 향해 배를 몰았다.

또 다른 과업은 그에게 게리온의 소들을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끌고 오라는 것이었다. 게리온은 몸이 셋 달린 괴물로, 붉은 섬이라는 뜻의 에리테이아 섬에 살았다. 이 섬이 그렇게 불린 까닭은 서쪽, 지는 해의 빛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묘사는 게리온이 왕으로 다스리던 스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나라를 지나온 헤라클레스는 마침내 리비아와 유럽의 경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기념으로 칼페 산과 아빌라 산 두 산을 세웠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 산을 둘로 갈라 양쪽에 반씩 남겨 놓았는데, 이것이 지브롤터 해협을 이루었고 두 산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불리게 되었다. 소들은 거인 에우리티온과 머리가 둘 달린 그의 개가 지키고 있었으나, 헤라클레스는 거인과 개를 죽이고 소들을 무사히 몰고 가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넘겼다.

가장 어려운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얻어 오는 일이었다. 헤라클레스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과는 헤라가 결혼할 때 대지의 여신에게서 받은 것이었고, 헤라는 그것을 헤스페로스의 딸들에게 맡겨 두었으며, 깨어 있는 용이 그들을 돕고 있었다. 여러 모험을 거친 끝에 헤라클레스는 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에 이르렀다. 아틀라스는 신들과 싸웠던 티탄 가운데 하나였는데, 티탄들이 제압된 뒤 그는 하늘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는 벌을 받았다. 그는 헤스페리데스의 아버지였으므로, 헤라클레스는 누구든 할 수 있다면 아틀라스가 사과를 찾아 가져다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아틀라스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가 없는 동안 하늘을 떠받칠 수 있단 말인가?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그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고, 아틀라스를 보내 사과를 찾아오게 했다. 아틀라스는 사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다소 마지못해 다시 짐을 어깨에 짊어졌고, 헤라클레스가 사과를 가지고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밀턴은 『코머스』에서 헤스페리데스를 헤스페로스의 딸이자 아틀라스의 질녀로 삼았다.

"… 헤스페로스와 그 세 딸이 사는 아름다운 정원 사이에서, 황금 나무 둘레에서 노래하는 그들…"

시인들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이 보여 주는 아름다운 빛깔에 비추어, 서쪽을 밝음과 영광의 땅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축복받은 자들의 섬을 두었고, 붉은 섬 에리테이아도 두었다. 그 섬에서는 게리온의 빛나는 소들이 풀을 뜯었다. 헤스페리데스의 섬도 그곳에 두었다. 이 황금 사과가 스페인의 오렌지였으리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리스인들은 이 오렌지에 대해 막연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다.

헤라클레스의 유명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안타이오스와의 싸움에서 거둔 승리였다. 안타이오스는 대지의 여신 테라의 아들로, 힘이 엄청나게 센 거인이자 씨름꾼이었다. 그는 어머니인 땅과 닿아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의 나라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은 모두 그와 씨름해야 했다. 지면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실제로 모두 지고 말았다. 헤라클레스가 그와 맞섰을 때, 그를 넘어뜨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안타이오스는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그를 땅에서 들어 올려 공중에서 목을 졸라 죽였다.

카쿠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의 동굴에 살며 주변 지역을
약탈하던 거대한 거인이었다. 헤라클레스가 게리온의 소
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영웅이 잠든 틈을 타서
카쿠스가 소 몇 마리를 훔쳐 갔다. 소들의 발자국으로 어디로
끌려갔는지 드러나지 않도록, 그는 소들을 꼬리를 잡고
뒷걸음질 치게 하여 자기 동굴로 끌고 갔다. 그래서 발자국은
모두 소들이 반대 방향으로 간 것처럼 보였다. 헤라클레스는
이 계략에 속아 넘어갔고, 만약 남은 소 떼를 몰고 가다가
훔친 소들이 숨겨진 동굴 앞을 지나가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소들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동굴 안의
소들이 울음소리를 내었고, 그렇게 해서 소들이 발견되었다.
카쿠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기록할 마지막 업적은 저승에서 케르베로스를 데려온
일이다. 헤라클레스는 헤르메스와 아테나를 동반하고
하데스로 내려갔다. 그는 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데스에게서 받아 냈다. 괴물이 몸부림쳤지만 헤라클레스는
그를 붙잡아 단단히 움켜쥐고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끌고
갔으며, 그 뒤에 다시 저승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는 하데스에
있는 동안 테세우스를 풀어 주었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를 흠모하고 따라 하던 사람이었는데,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다 실패하여 그곳에 붙잡혀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광기에 사로잡혀 친구 이피토스를 죽였고, 이 죄로 옴팔레 여왕의 노예가 되어 삼 년을 섬겨야 했다. 이 기간에 영웅의 본성은 달라진 듯 보였다. 그는 여자처럼 유약하게 살았고, 때로는 여자의 옷을 입고 옴팔레의 시녀들과 함께 양털로 실을 자았으며, 그동안 여왕은 그의 사자 가죽을 둘렀다. 이 봉사가 끝나자 그는 데이아네이라와 혼인하여 그녀와 함께 삼 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다. 어느 날 그가 아내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강에 이르렀는데, 그 강에서는 켄타우로스 네소스가 정해진 삯을 받고 나그네들을 건네주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강을 걸어서 건넜지만, 데이아네이라는 네소스에게 맡겨 건네 주도록 했다. 네소스는 그녀를 데리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가 그녀의 외침을 듣고 화살을 쏘아 네소스의 심장을 꿰뚫었다. 죽어 가는 켄타우로스는 데이아네이라에게 자기 피를 조금 받아 간직하라고 일렀다. 그 피는 남편의 사랑을 지켜 주는 부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데이아네이라는 그렇게 했고, 머지않아 그것을 쓸 기회가 왔다고 여기게 되었다. 헤라클레스가 한 정복 전쟁에서 이올레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처녀를 포로로 잡아 왔는데, 그는 데이아네이라가 달가워하지 않을 만큼 그녀를 아끼는 듯했다. 헤라클레스가 승리를 기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려 할 때, 그는 그 자리에 입을 흰 옷을 가져오라고 아내에게

전갈을 보냈다. 데이아네이라는 사랑의 주문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옷을 네소스의 피에 적셨다. 그녀가 피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 냈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마법의 힘은 남아 있었다. 옷이 헤라클레스의 몸에 닿아 따뜻해지자마자 독이 그의 온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고,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미쳐 날뛰던 그는 이 치명적인 옷을 가져왔던 리카스를 붙잡아 바다에 던져 버렸다. 그는 옷을 잡아 찢었지만 옷은 살에 들러붙어 있었고, 그가 옷을 떼어 낼 때 몸의 살점이 통째로 뜯겨 나갔다. 이런 상태로 그는 배에 올라 집으로 실려 갔다. 데이아네이라는 자신이 모르고 저지른 일을 보고 목을 매었다. 헤라클레스는 죽을 준비를 하고 오이타 산에 올라가, 나무로 장작더미를 쌓았다. 그는 활과 화살을 필록테테스에게 주고, 머리는 곤봉을 베개 삼고 몸은 사자 가죽으로 덮은 채 장작더미 위에 누웠다. 마치 잔칫상에 자리 잡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로 그는 필록테테스에게 횃불을 대라고 명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 곧 장작더미 전체를 휘감았다.

밀턴은 헤라클레스의 광란을 이렇게 암시한다:

"오이칼리아를 정복하고 승리의 관을 쓴 알케이데스가 독 묻은 옷을 느끼고 고통에 못 이겨, 테살리아의 소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리카스를 오이타 산꼭대기에서 에우보이아 바다로 내던졌을 때와 같이."

신들조차 땅의 수호자가 그토록 최후를 맞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러나 제우스는 밝은 얼굴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들이여, 그대들이 그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오. 나는 충직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내 아들이 그대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흐뭇하오. 그대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의 고귀한 업적 때문이겠지만, 그렇다고 내게 덜 기쁜 일은 아니오. 하지만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밖의 모든 것을 정복한 자는 오이타 산 위에서 타오르는 저 불길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부분만이 죽을 수 있을 뿐이며, 나에게서 받은 것은 불멸이오. 나는 죽어 땅을 떠난 그를 하늘의 해안으로 데려갈 것이니, 그대들 모두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기를 바라오. 만약 그대들 가운데 그가 이 영예를 얻는 것에 상심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누구도 그가 이 영예를 받을 만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오." 신들은 모두 동의했다. 헤라만은 마지막 말이 자신을 특별히 겨냥한 것처럼 들려 얼마간 불쾌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후회할 만큼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불길이 헤라클레스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부분을 모두 태우자, 신적인 부분은 상처를 입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힘으로 되살아나는 듯했고, 더 높은 기품과 더 경외로운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드러났다. 제우스는 그를 구름으로 감싸 네 마리 말이 끄는 전차에 태워 올려, 별들 사이에 머물게 했다. 그가 하늘에 자리를 잡자, 아틀라스는 더해진 무게를 느꼈다.

헤라는 이제 그와 화해하여 딸 헤베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시인 실러는 「이상과 삶」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실용과 상상의 대비를 아름다운 연 몇 개로 그려 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두 연은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다.

"비겁한 자의 노예로 깊이 전락하여도, 용감한 알케이데스는 끝없는 싸움을 견디었네. 가시밭길 같은 고난으로 인도되어, 히드라를 죽이고 사자의 힘을 꺾었네. 벗을 빛으로 이끌려고 스스로 몸을 던졌네, 산 몸으로 죽은 자를 싣는 거룻배에. 헤라의 증오가 그에게 지울 수 있었던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모든 노고를, 그는 잘 견디었네, 운명으로 정해진 그 탄생에서부터 장엄하고 애처로운 삶의 끝까지."

"마침내 신이 흙의 부분을 버리고, 불길 속 사람에게서 떼어 내져, 더 맑은 하늘의 에테르 숨결을 들이마셨다. 낯설게 가벼워진 몸으로 기뻐하며, 그는 천상의 빛을 향해 솟아올랐다. 대지의 어둡고 무거운 짐은 죽음 속에 잃고. 높은 올림포스는 화목한 인사로 맞이한다, 그가 우러르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궁전으로. 청춘의 밝은 여신은 만남에 얼굴을 붉히며, 그녀의 주인에게 넥타르를 건넨다."

— 에스지비

헤베와 가니메데스

헤라의 딸이자 청춘의 여신인 헤베는 신들의 술잔 시중을 들었다. 흔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헤라클레스의 아내가 되면서 그 직분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우리 동포인 조각가 크로퍼드가 지금 아테네움 미술관에 있는 「헤베와 가니메데」 군상에서 채택한 다른 설명도 있다. 그에 따르면 헤베는 신들을 모시던 어느 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그 일로 직분에서 쫓겨났다. 그 뒤를 이은 이는 트로이아의 소년 가니메데스였다.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신해 이다 산에서 놀이 친구들 한가운데서 그를 낚아채 하늘로 데려가, 비어 있던 자리에 앉혔다.

테니슨은 「예술의 궁전」에서 벽을 장식한 그림 가운데 이 전설을 그린 그림을 묘사한다.

“거기에는 또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가니메데스가 있었다.
그의 장밋빛 허벅지는 독수리의 솜털에 반쯤 묻혀 있었고,
그는 나는 별처럼 홀로, 기둥들이 늘어선 도시 위 하늘을
가로질러 내달렸다.”

그리고 셸리의 「프로메테우스」에서 제우스는 자신의 술 따르는 시종을 이렇게 부른다:

“하늘의 술을 따르라, 이다 산의 가니메데스여, 그리고
그것이 정교하게 빚은 잔들을 불처럼 채우게 하라.”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는 아름다운 전설은 『태틀러』 제97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0장

테세우스 — 다이달로스 —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피터르 브뤼헐(전칭),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1555년경)

테세우스

테세우스는 아테나이의 왕 아이게우스와 트로이젠 왕의 딸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트로이젠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 아테나이로 가서 아버지 앞에 나서야 했다.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 아이트라와 헤어지면서, 자기 칼과 신발을 커다란 바위 밑에 감춰 두었다. 그리고

아이트라에게, 아들이 그 바위를 굴려 치우고 칼과 신발을 꺼낼 만큼 힘이 세지면 자기에게 보내라고 일렀다. 때가 되었다고 여긴 어머니는 테세우스를 바위 앞으로 데려갔고, 그는 아무 어려움 없이 바위를 치우고 칼과 신발을 손에 넣었다. 길에는 강도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더 짧고 안전한 길, 곧 바닷길을 택하라고 간곡히 권했다. 그러나 청년은 자기 안에 영웅의 기개와 혼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그리스 전역이 헤라클레스의 명성으로 떠들썩하던 때였으므로, 그도 나라를 짓누르는 악한 자들과 괴물들을 무찔러 헤라클레스처럼 이름을 떨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더 위험하고 모험에 찬 육로를 택했다.

그가 처음 하루 동안 걸어 도착한 곳은 에피다우로스였다. 그곳에는 헤파이스토스의 아들 페리페테스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이 사납고 야만스러운 자는 언제나 쇠몽둥이를 들고 다녔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모두 그의 폭력을 두려워했다. 그는 테세우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덤벼들었지만, 곧 젊은 영웅의 일격에 쓰러졌다. 테세우스는 그의 몽둥이를 빼앗아 들었고, 그 뒤로도 그것을 첫 승리의 기념으로 늘 지니고 다녔다.

이 밖에도 그 땅의 작은 폭군들과 약탈자들과 겨루는 비슷한 싸움이 이어졌고, 그 싸움에서 테세우스는 모두 이겼다. 이 악한들 가운데 하나는 프로크루스테스, 곧 '늘여 놓는 자'라고 불렸다. 그는 쇠로 된 침상을 갖고 있었는데, 손에 걸려든 나그네는 모두 그 위에 묶었다. 나그네가 침상보다 짧으면 사지를 잡아 늘여 침상에 맞추었고, 침상보다 길면 그만큼 잘라 냈다. 테세우스는 그가 다른 이들에게 했던 그대로 그에게 되갚아 주었다.

길의 온갖 위험을 넘긴 테세우스는 마침내 아테나이에 이르렀으나, 그곳에는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법에 능한 메데이아는 이아손과 헤어진 뒤 코린토스에서 달아났고,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법으로 테세우스가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테세우스가 아들로 인정받으면 남편에게 가진 자신의 영향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이게우스의 마음에 이 젊은 이방인에 대한 의심을 채워 넣었고, 그에게 독이 든 잔을 권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테세우스가 그 잔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섰을 때,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본 아버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그 치명적인 술은 마시지 않게 되었다. 술수가 드러난 메데이아는 마땅한 벌을 피해 다시

달아나 아시아에 이르렀다. 훗날 그녀의 이름을 따 메디아라고 불리게 된 땅이 그곳이다. 테세우스는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았고, 후계자로 선언되었다.

그 무렵 아테나이인들은 크레타 왕 미노스에게 바치는 공물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공물은 해마다 청년 일곱 명과 처녀 일곱 명을 보내는 것이었고, 그들은 황소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가진 괴물 미노타우로스에게 먹히도록 바쳐졌다. 이 괴물은 매우 힘이 세고 사나웠으며, 다이달로스가 지은 미궁 속에 갇혀 있었다. 그 미궁은 매우 교묘하게 짜여 있어서, 그 안에 갇힌 자는 누구도 도움 없이는 결코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했다. 미노타우로스는 이곳을 배회했고, 사람 제물로 먹이를 받았다.

테세우스는 조국 사람들을 이 재앙에서 구하겠다고, 그러지 못하면 그 일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공물을 보낼 때가 되어 관례대로 청년과 처녀를 제비뽑기로 뽑아 보내게 되자, 그는 아버지의 간청을 물리치고 제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원했다. 배는 여느 때처럼 검은 돛을 달고 떠났는데, 테세우스는 승리하여 돌아오면 그 돛을 흰 돛으로 바꾸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다. 크레타에 도착하자 청년과 처녀들은 미노스 앞에 세워졌다. 그곳에 있던 왕의 딸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테세우스

역시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리아드네는 그에게 미노타우로스와 맞설 칼을 주었고, 미궁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게 해 줄 실타래도 주었다. 테세우스는 성공하여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미궁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아리아드네를 길동무로 데리고 구출한 동료들과 함께 아테나이를 향해 배를 몰았다. 가는 길에 그들은 낙소스 섬에 들렀는데, 테세우스는 거기서 잠들어 있던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 버렸다. 자신을 구해 준 은인에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그가 내세운 변명은, 아테나가 꿈에 나타나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아티카 해안에 가까워졌을 때,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정해 준 신호를 잊고 흰 돛을 올리지 않았다. 늙은 왕은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하여 테세우스가 아테나이의 왕이 되었다.

테세우스가 벌인 가장 유명한 모험 가운데 하나는 아마존족 원정이다. 그는 아마존족이 헤라클레스의 공격에서 아직 회복하기 전에 그들을 덮쳤고, 그들의 여왕 안티오페를 사로잡아 데려갔다. 아마존족은 이번에는 아테나이 땅을 침공하여 도시 안까지 밀고 들어왔다. 테세우스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무찌른 싸움은 바로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이 싸움은 고대 조각가들이 즐겨 다룬 주제였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여러 예술 작품에 기념되어 있다.

테세우스와 피리토오스의 우정은 매우 가까운 것이었지만, 그 시작은 무기를 든 싸움 한가운데였다. 피리토오스가 마라톤 평원에 쳐들어와 아테나이 왕의 가축 떼를 몰아 갔던 것이다. 테세우스는 약탈자들을 물리치러 나섰다. 피리토오스는 그를 보자마자 감탄에 사로잡혔다. 그는 평화의 표시로 손을 내밀며 외쳤다. “네가 직접 판결하라. 무엇으로 만족하겠느냐?” “너의 우정이다.” 아테나이인이 대답했고, 두 사람은 깨뜨릴 수 없는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의 행동은 그 맹세와 어긋나지 않았으며, 그들은 언제까지나 무기를 함께 든 참된 형제로 남았다. 둘 다 제우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바랐다. 테세우스는 헬레네를 골랐는데, 그때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나중에 트로이아 전쟁의 원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여인이었다. 그는 벗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납치했다. 피리토오스는 에레보스의 왕비를 원했다. 테세우스는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야심 찬 연인이 저승으로 내려가는 길에 동행했다. 그러나 하데스가 두 사람을 붙잡아 자기 궁전 문 앞의 마법에 걸린 바위 위에

앉혀 놓았다. 그들은 헤라클레스가 도착해 테세우스를 풀어 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피리토오스는 그대로 운명에 맡겨졌다.

안티오페가 죽은 뒤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의 딸 파이드라와 혼인했다. 파이드라는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에게서, 아버지의 모든 우아함과 덕을 갖추고 자기와 비슷한 나이인 젊은이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으나 히폴리토스는 그녀의 구애를 물리쳤고,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다. 그녀는 눈이 먼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테세우스는 포세이돈에게 아들에게 보복해 달라고 빌었다. 어느 날 히폴리토스가 해변을 따라 전차를 몰고 가고 있을 때, 바다 괴물 하나가 물 위로 솟아올라 말들을 놀라게 했다. 말들은 달아나 전차를 산산조각 냈다. 히폴리토스는 죽었지만, 아르테미스의 도움으로 아스클레피오스가 그를 다시 살렸다. 아르테미스는 히폴리토스를 속은 아버지와 거짓된 계모의 손에서 빼내어, 이탈리아에서 님프 에게리아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테세우스는 결국 백성들의 신망을 잃고 스키로스의 왕 리코메데스의 궁정으로 물러났다. 리코메데스는 처음에는 그를 친절히 맞이했으나, 나중에는 그를 속여 죽였다. 훗날

아테나이인 장군 키몬이 그의 유해가 놓인 곳을 찾아내어, 그것을 아테나이로 옮기게 했다. 유해는 영웅을 기리기 위해 세운 테세이온이라 불리는 신전에 안치되었다.

아마존족의 여왕으로 테세우스가 아내로 맞은 이를 어떤 이들은 히폴리테라고 부른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에서도 그녀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작품의 주제는 테세우스와 히폴리테의 혼례를 둘러싼 축제이다.

헤만스 부인에게는 마라톤 전투에서 자국민을 격려하는 "테세우스의 혼령"이 나타났다는 고대 그리스 전승을 다룬 시가 있다.

테세우스는 반쯤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가 당시 아티카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부족을 하나의 나라로 묶었고, 그 수도가 아테나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여 그는 아테나이의 수호신 아테나를 기리는 축제 파나테나이아를 제정했다. 이 축제는 다른 그리스의 경기들과 두 가지 점에서 주로 달랐다. 아테나이인만의 축제였다는 점,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의식이 장엄한 행렬이었다는 점이다. 이 행렬에서 아테나의 성스러운 옷인 펩로스를 파르테논으로 가져가 여신상 앞에 걸었다. 펩로스에는 아테나이 최고 명문가의 선발된 처녀들이 수놓은 자수가 덮여 있었다. 행렬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했다.

노인들은 손에 올리브 가지를 들었고, 젊은이들은 무기를 들었다. 젊은 여인들은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성스러운 도구들과 과자, 그리고 제물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 행렬은 파르테논 신전의 바깥을 장식한 부조의 주제가 되었다. 이 조각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현재 '엘긴 마블'이라 불리는 조각들의 일부로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올림피아 및 기타 경기

여기서 그리스의 다른 유명한 전국 경기들을 언급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은 아닐 것이다. 가장 먼저 있었고 가장 저명했던 것은 올림피아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전해지기로 제우스 자신이 세운 것이었다. 경기는 엘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열렸다. 그리스 곳곳에서,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칠리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구경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경기는 여름 한가운데에 다섯 해마다 되풀이되었고, 닷새 동안 이어졌다. 이 경기로부터 올림피아드로 시간을 헤아리고 사건의 연대를 매기는 관습이 생겨났다. 첫 올림피아드는 대개 기원전 776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티아 경기는 델포이 근처에서, 이스트모스 경기는 코린토스 지협에서, 네메아 경기는 아르골리스의 도시 네메아에서 열렸다.

이 경기들의 종목은 다섯 가지였다. 달리기, 멀리뛰기, 레슬링,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또는 권투였다. 이러한 힘과 민첩함을 겨루는 종목 외에도 음악과 시와 웅변의 경연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경기들은 시인과 음악가와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대중 앞에 선보일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고, 승자들의 명성은 멀리멀리 퍼져 나갔다.

다이달로스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따라 테세우스가 빠져나온 미로는 가장 솜씨 좋은 장인 다이달로스가 지었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굽이진 길과 모퉁이가 서로 이어진 건축물이었으며, 시작도 끝도 없는 듯 보였다. 마이안드로스 강이 굽이굽이 제 물길로 되돌아오면서, 어떤 때는 앞으로 흐르고 어떤 때는 거꾸로 흘러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았다. 다이달로스는 이 미로를 미노스 왕을 위해 지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왕의 총애를 잃었고, 탑에 갇히고 말았다. 그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바다를 통해 섬을 떠날 수는 없었다. 왕이 모든 배를 엄중히 감시하고, 철저히 수색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출항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미노스는 땅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 하늘의 영역까지는 다스리지 못한다.” 다이달로스가 말했다. “나는 그 길로 가 보겠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어린 아들 이카로스를 위해

날개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깃털을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점 큰 것을 덧대어 가며 차츰 넓어지는 면을 이루도록 엮었다. 큰 깃털은 실로 묶고 작은 깃털은 밀랍으로 붙여, 전체에 새의 날개처럼 완만한 곡선을 주었다. 소년 이카로스는 곁에 서서 지켜보았다. 때로는 바람에 날아간 깃털을 주우러 뛰어다녔고, 때로는 밀랍을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으로 주물렀다. 그렇게 장난을 치느라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곤 했다. 마침내 일이 끝나자, 장인은 날개를 흔들어 보았다. 그러자 그의 몸이 위로 떠올랐고, 그는 날갯짓으로 공기를 치며 허공에 뜬 채 균형을 잡았다. 다음으로 그는 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날개를 달아 주고, 나는 법을 가르쳤다. 마치 새가 높은 둥지에서 새끼를 공중으로 꾀어내는 것과 같았다.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나자 그가 말했다. “이카로스, 내 아들아, 너에게 당부하니 적당한 높이를 유지하거라. 너무 낮게 날면 물기가 날개를 무겁게 할 것이고, 너무 높이 날면 열기가 날개를 녹여 버릴 것이다. 내 곁에 바짝 붙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가르치고 아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 주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은 눈물에 젖었고 두 손은 떨렸다. 그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이 마지막 입맞춤이 될 줄은 알지 못한 채였다. 그러고는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다. 아들에게도 따라오라고 격려하며, 자신이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아 아들이 날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폈다. 그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바라보았고, 목자는 지팡이에 기대어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광경에 놀라 그들이 공기를 가르며 저렇게 날 수 있는 것을 보니 신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왼쪽으로 사모스와 델로스를 지나고 오른쪽으로 레빈토스를 지나 날아갔다. 그때 소년은 날아가는 일에 들떠 동행의 인도를 저버리고, 마치 하늘에 닿으려는 듯 위로 솟구쳤다. 타오르는 태양이 가까워지자 깃털을 붙잡고 있던 밀랍이 녹았고, 깃털들이 떨어져 나갔다. 이카로스는 팔을 허우적거렸지만, 공기를 붙들 깃털은 남아 있지 않았다.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치던 그의 입은 푸른 바닷물에 잠겼고, 그 뒤로 그 바다는 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아버지는 외쳤다. “이카로스, 이카로스, 너는 어디 있느냐?” 마침내 그는 물 위에 떠 있는 깃털을 발견했다. 자신의 기술을 쓰라리게 한탄하며 그는 시신을 묻었고, 자식을 기리기 위해 그 땅을 이카리아라고 불렀다. 다이달로스는 무사히 시칠리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아폴론을 위해 신전을 짓고,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로 자신의 날개를 걸어 두었다.

다이달로스는 자신의 업적에 너무 자부심이 강해서 경쟁자가 있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누이는 아들 페르딕스를 기계 기술을 배우도록 그의 밑에 맡겼다. 소년은 재능이

뛰어난 제자였고 두드러진 재주를 보여 주었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걷던 그는 물고기의 등뼈를 주웠다. 그것을 본떠 쇠조각을 들고 가장자리에 톱니를 냈고, 그렇게 톱을 발명했다. 그는 쇠붙이 두 조각을 한쪽 끝에서 못으로 잇고 다른 쪽 끝을 뾰족하게 갈아 컴퍼스를 만들었다.
다이달로스는 조카의 솜씨를 시기한 나머지, 어느 날 둘이 높은 탑 꼭대기에 함께 서 있는 기회를 틈타 그를 밀어 떨어뜨렸다. 그러나 재주를 아끼는 아테나가 그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의 운명을 막아, 그를 그의 이름을 딴 새, 자고새로 바꾸어 놓았다. 이 새는 나무에 둥지를 틀지 않고 높이 날아오르지도 않으며, 울타리 덤불 속에 깃든다. 그리고 떨어졌던 일을 기억하여 높은 곳을 피한다.

이카로스의 죽음은 다윈의 다음 시행으로 전해진다:

"…녹은 밀랍과 풀린 끈으로,
배반하는 날개에 실려 가엾은 이카로스가 가라앉았다;
그는 겁에 질린 허공을 곤두박질쳐 달려갔고,
사지는 뒤틀렸으며 머리카락은 흩날렸다;
흩어진 깃털은 물결 위에서 춤을 추었고,
슬퍼하는 네레이데스가 그의 물속 무덤을 꾸몄다;
창백한 시신 위로 진주빛 바다꽃을 뿌렸고,
대리석 같은 그의 잠자리에는 진홍빛 이끼를 깔았다;
그들은 산호 탑에서 조종(弔鐘)을 울렸고,
대양 곳곳에서 그의 메아리치는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는 레다와 백조 사이에서 난 자식이었는데, 그 백조는 제우스가 변장해 몸을 숨긴 모습이었다. 레다는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헬레네는 그 뒤 트로이아 전쟁의 원인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녀가 이 쌍둥이의 누이였다.

테세우스와 그의 친구 피리토오스가 헬레네를 스파르타에서 납치했을 때, 젊은 영웅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는 부하들과 함께 그녀를 구하러 서둘러 달려갔다. 테세우스는 그때 아티카에 없었고, 형제는 누이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카스토르는 말을 길들이고 다루는 솜씨로 이름이 높았고, 폴리데우케스는 권투에 능했다. 두 형제는 더없이 따뜻한 우애로 맺어져 있었고, 어떤 모험에서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아르고호 원정에 함께했다. 항해 도중 폭풍이 일었는데, 오르페우스가 사모트라케의 신들에게 기도하며 수금을 타자 폭풍이 가라앉고 두 형제의 머리 위에 별이 나타났다. 이 일로부터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는 나중에 뱃사람과 항해자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대기의 특정한 상태에서 배의 돛대와 돛 둘레에 어른거리는 불꽃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아르고호 원정이 끝난 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는 이다스와 링케우스 형제와 싸우게 된다. 카스토르는 이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 폴리데우케스는 형을 잃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 제우스에게 형 대신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그 청을 어느 정도 들어주어, 두 형제가 생명의 은혜를 번갈아 누리도록 허락했다. 하루는 땅 아래에서, 다음 날은 하늘의 거처에서 지내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의 다른 판본에서는, 제우스가 두 형제의 깊은 우애를 기려 그들을 쌍둥이자리라는 이름으로 별들 사이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그들은 디오스쿠로이(제우스의 아들들)라는 이름으로 신적인 영예를 받았다. 후대에도 그들이 이따금 나타나 치열한 전장에서 어느 한쪽을 편든다고 믿었으며, 그런 때면 그들이 눈부시게 하얀 말을 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를테면 로마의 초기 역사에서 그들은 레길루스 호수의 전투에서 로마인을 도왔다고 하며, 승리 뒤에는 그들이 나타난 자리에 그들을 기리는 신전이 세워졌다.

매콜리는 『고대 로마의 노래들』에서 이 전설을 이렇게 암시한다:

“그들은 너무도 닮아서, 어떤 필멸자도
둘을 서로 구별해 알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갑옷은 눈처럼 희었고,
그들의 군마도 눈처럼 희었다.
세상의 어떤 모루 위에서도
이토록 귀한 갑옷이 빛난 적은 없었고,
이토록 늠름한 군마가
이 땅의 시내에서 물을 마신 적도 없었다.”

“싸움의 때에 위대한 쌍둥이 형제가
자기 오른편에 갑옷 차림으로 선 것을 보았던
우두머리는 승리에 겨워 돌아온다.
물결과 폭풍을 뚫고
배는 무사히 항구에 닿는다,
위대한 쌍둥이 형제가
돛 위에 빛나며 앉아 있다면.”

제21장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티치아노,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1520~1523)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세멜레의 아들이었다. 헤라는 세멜레에 대한 원한을 풀고자 그녀를 파멸시킬 계획을 꾸몄다. 헤라는 세멜레의 늙은 유모 베로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연인으로 찾아온 이가 정말 제우스 자신인지 의심을 불어넣었다. 한숨을 쉬며 헤라가 말했다. “그렇기를 바라지만,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구나. 사람은 늘 자기가 내세우는 모습 그대로인 것은 아니란다. 그가 정말 제우스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해라. 하늘에서 입는 그 모든 찬란한 차림새를 하고 오라고 청하렴. 그러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다.” 세멜레는 그 시험을 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무엇을 원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제우스는 약속하며, 신들에게조차 두려운 강 스틱스를 증인으로 삼아 돌이킬 수 없는 맹세로 그 약속을 확인했다. 그러자 세멜레는 자기 청을 털어놓았다. 신은 그녀가 말을 꺼내는 순간 막으려 했지만, 그녀가 한발 더 빨랐다. 말은 이미 새어 나갔고, 신은 약속도 그녀의 청도 되돌릴 수 없었다. 깊은 괴로움에 잠긴 제우스는 그녀를 떠나 천상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는 찬란한 차림새를 갖추었는데, 거인족을 쓰러뜨릴 때처럼 공포의 위엄을 모두 두른 것이 아니라, 신들 사이에서 ‘작은 갑주’라고 알려진

차림이었다. 그 차림으로 그는 세멜레의 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죽을 몸인 그녀는 불멸의 빛이 뿜는 찬란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재가 되어 타 버렸다.

제우스는 갓난 디오니소스를 데려다 니사이아의 요정들에게 맡겼다. 요정들은 그가 아기 때와 소년 때를 보살폈고, 그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제우스는 그들을 히아데스라는 이름으로 별들 사이에 올려놓았다. 디오니소스가 자라서는 포도나무 재배법과 그 귀한 즙을 짜내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나 헤라가 그를 미치게 하여, 그는 땅의 여러 곳을 떠도는 방랑자가 되어 쫓겨 다녔다. 프리기아에서는 여신 레아가 그를 고쳐 주고 자신의 제의를 가르쳤다. 그는 그 뒤 아시아를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포도 재배를 가르쳤다. 그의 방랑 가운데 가장 이름난 것은 인도 원정이었는데, 이 원정은 여러 해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개선하여 돌아온 그는 그리스에도 자신의 숭배를 들여오려 했지만, 몇몇 군주들이 반대했다. 그 숭배가 가져오는 혼란과 광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디오니소스가 고향 도시 테바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왕 펜테우스는 새 숭배를 존중하지 않았기에 그 제의를 치르지 못하도록 금했다. 그러나 디오니소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자와 여자, 특히 여자들이 젊은이와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와 그를 맞이하고, 그의 개선 행렬에 가담했다.

롱펠로는 「술 노래」에서 디오니소스의 행진을 이렇게 묘사한다:

> "파우누스들이 젊은 디오니소스를 따르나니;
> 담쟁이 화관이 그 이마를 두르고, 천상의
> 아폴론의 이마처럼 빛나며,
> 영원한 젊음을 지녔도다."

> "그의 둘레에는 아름다운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이,
> 심벌즈와 피리와 티르소스를 들고,
> 낙소스의 숲과 잔테의 포도밭에서
> 미쳐 날뛰며 광란의 노래를 부르나니,"

펜테우스가 꾸짖고 명령하고 위협했지만 헛수고였다. "가서,"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무리를 이끄는 이 떠돌이를 붙잡아 내 앞으로 끌고 와라.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그자의 거짓 주장을 곧 실토하게 만들고, 그 가짜 숭배를 버리도록 하겠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장 현명한 조언자들이 타이르고, 신에게 맞서지 말라고 간청한 것도 헛수고였다. 그들의 충고는 오히려 그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디오니소스를 붙잡으라고 보냈던 부하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에게 쫓겨났지만, 그중 한 명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그 사람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어 왕 앞으로 끌고 왔다. 펜테우스는 노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놈!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네 운명이 남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하겠다. 네 처벌을 미루기는 못마땅하나, 말해 보아라. 너는 누구이며, 감히 거행하겠다는 이 새로운 의식은 무엇이냐."

붙잡힌 자는 겁내지 않고 대답했다. "내 이름은 아케테스이고, 고향은 마이오니아입니다. 내 부모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남겨 줄 밭이나 가축이 없었고, 대신 낚싯대와 그물, 그리고 어부의 생업을 물려주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일을 했지만, 한곳에 머무는 데 싫증이 나서 키잡이의 기술과 별을 보고 항로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번은 델로스로 항해하던 중 디아 섬에 들러 뭍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하들을 보내 담수를 길어 오게 하고, 나 자신은 바람을 살피려고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돌아와서는 전리품이라며 한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것을 찾아낸 아이로, 용모가 곱고 여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귀한 집안의 소년이거나 어쩌면 왕자일 테니 넉넉한 몸값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나는 그의 옷차림과 걸음걸이와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인간의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어떤 신이 숨어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분명 거기 있다. 온화한 신이여, 우리가 저지른 무례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일이 성공하도록 해 주소서.' 그러자 내가 가장 믿는 선원 가운데 하나로 돛대에 올라가고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솜씨가 좋은 딕티스, 내 키잡이 멜란토스, 뱃사람들의 노 젓는 구령을 맡은 에포페우스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이득을 탐하는 욕심은 그토록 눈이 먼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배에 태우려 하자 나는 막아섰습니다. '이 배가 그런 불경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누구보다 이 배에 더 큰 몫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사나운 자인 리카바스가 내 목을 움켜쥐고 나를 바다에 던지려 했고, 나는 밧줄에 매달려 겨우 살아났습니다. 나머지 자들은 그 짓을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가(그 소년은 정말 디오니소스였다) 졸음을 떨치듯 소리쳤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이 다툼은 무엇 때문이오? 나를 여기로 데려온 자는 누구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요?' 그들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거기까지 데려다주겠다.' '내 집은 낙소스요,' 디오니소스가 말했다. '거기로 데려가 주면 충분히 사례하겠소.'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더러 배를 낙소스로 몰라고 명령했다. 낙소스는 오른편에 있었고, 나는 그곳으로 가려고 돛을 조절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몇은 손짓으로, 다른 몇몇은 속삭임으로 나에게 반대 방향으로 배를 몰아 소년을 이집트로 데려가 노예로 팔아넘기라는 뜻을 전했다. 나는 당혹스러워서 말했다. '다른 누군가가 이 배의 키를 잡아라.'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그들은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중 한 명은 '우리의 안전이 너한테 달려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고 외치며 키잡이 자리를 차지하고, 낙소스에서 배를 멀리 몰아갔다."

"그러자 신은, 선원들의 배신을 방금 알아챈 척하며 바다를 내다보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뱃사람들이여, 이곳은 그대들이 나를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한 해안이 아니오. 저기 보이는 섬은 내 집이 아니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요? 가련한 소년을 속여 얻을 영광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오.'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지만, 선원들은 우리 둘을 비웃으며 배를 바다 위로 빠르게 몰았다. 그때 갑자기,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이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땅에 박힌 듯 멈춰 섰다. 선원들은 놀라 노를 힘껏 젓고 돛을 더 펼쳐서 두 가지 힘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담쟁이덩굴이 노에 감겨 움직임을 가로막았고, 돛에도 무거운 열매송이와 함께 엉겨 붙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덩굴이 돛대를 타고 올라 배의 양옆을 따라 뻗었다. 피리 소리가 들리고, 향기로운 포도주 냄새가 사방에 퍼졌다. 신 자신은 포도잎 화관을 쓰고, 담쟁이덩굴로 감싼 창을 손에 들고 있었다. 호랑이들이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고, 살쾡이와 얼룩표범의 모습들이 그의 주위를 뛰놀았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미쳐 버렸다. 일부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같은 짓을 하려고 준비하던 자들은 물속에 있는 동료들이 변해 가는 것을 보았다. 몸이 납작해지고 끝이 굽은 꼬리로 끝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이게 무슨 기적이냐!' 하고 외쳤는데, 그가 말하는 동안 입이 넓어지고 콧구멍이 벌어지더니 온몸이 비늘로 뒤덮였다. 또 다른 사람은 노를 당기려다 손이 오그라들더니 곧 손이 아니라 지느러미가 되었다. 또 한 사람은 밧줄에 닿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다가 팔이 없음을 알고는, 망가진 몸을 구부려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의 다리였던 것은 초승달 모양 꼬리의 두 끝이 되었다. 선원들은 모두 돌고래가 되어 배 주위를 헤엄쳤다. 어떤 때는 수면 위에, 어떤 때는 배 아래에서 물보라를 흩뿌리고, 넓은 콧구멍으로 물을 뿜어 올렸다. 스무 명의 사내 가운데 나만 남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신이 격려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말했다.

‘낙소스 쪽으로 배를 몰아라.’ 나는 그 말에 따랐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 나는 제단에 불을 피우고 디오니소스의 신성한 의식을 거행했다.”

펜테우스가 외쳤다. “이 어리석은 이야기에 시간을 충분히 낭비했다. 그를 데려가 지체 없이 처형하라.” 아케테스는 시종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단단히 갇혔다. 그런데 그들이 처형 도구를 준비하는 동안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고, 사슬이 그의 팔다리에서 떨어졌다. 그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펜테우스는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이를 보내는 대신 직접 제의의 현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키타이론 산은 숭배자들로 온통 술렁였고,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이 지르는 외침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군마의 투지를 불태우듯, 그 소리는 펜테우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숲을 헤치고 나아가 제의의 중심 장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트인 곳에 이르렀다. 바로 그 순간 여인들이 그를 보았다. 그들 가운데 맨 먼저 그의 어머니 아가베가 신에게 눈이 멀어 외쳤다. “저기 보아라, 이 숲을 배회하는 가장 큰 괴물, 멧돼지다! 자매들이여, 어서 오라! 내가 그 멧돼지를 제일 먼저 쓰러뜨리겠다.” 무리 전체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때로는 전보다 덜 오만하게 말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를 에워싸고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모들에게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지켜 달라고 소리쳤지만 헛된 일이었다.
아우토노에가 한쪽 팔을, 이노가 다른 팔을 붙잡았고,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겼다. 그러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소리쳤다. "승리다! 승리다! 우리가 해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하여 디오니소스 숭배는 그리스에 자리 잡았다.

밀턴의 「코머스」 46행에는 디오니소스와 선원들의 이야기에 대한 암시가 있다. 키르케의 이야기는

제29장

"디오니소스가 처음으로 자줏빛 포도송이에서
남용된 포도주의 달콤한 독을 짜냈으니,
토스카나 선원들을 변신시킨 뒤
바람이 이끄는 대로 티레니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
키르케의 섬에 닿았다(태양의 딸 키르케를
모르는 이가 있으랴? 그녀의 마법 잔을
맛본 자는 누구든 곧은 몸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천한 돼지가 되었다)."

아리아드네

우리는 테세우스의 이야기에서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가 미궁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운 뒤 그에게 이끌려 낙소스 섬으로 갔다는 것을 보았다. 아리아드네는 그곳에 잠든 채 남겨졌고, 은혜를 모르는 테세우스는 그녀를 두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을 떠났다. 아리아드네는 깨어나 자신이 버려진 것을 알고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아프로디테가 그녀를 가엾이 여겨, 잃은 필멸의 연인 대신 불멸의 연인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며 위로했다.

아리아드네가 버려진 그 섬은 디오니소스가 특히 좋아한 섬이었다. 그가 티레니아 선원들에게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섬이었는데, 선원들은 그를 붙잡아 몸값을 받아내려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아리아드네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앉아 있을 때 디오니소스가 그녀를 찾아내 위로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혼례의 선물로 그는 보석으로 장식된 황금 왕관을 그녀에게 주었다. 아리아드네가 죽자 디오니소스는 그 왕관을 집어 하늘로 던졌다. 왕관이 높이 올라갈수록 보석들은 더욱 밝게 빛나며 별이 되었고, 왕관은 본래의

모양을 간직한 채 하늘에 고정되어 별자리가 되었다. 무릎 꿇은 헤라클레스와 뱀을 든 사람 사이에 놓인 그 별자리가 바로 아리아드네의 왕관이다.

스펜서는 아리아드네의 왕관을 언급하지만, 그의 신화 지식에는 몇 가지 잘못이 있다. 켄타우로스들과 라피타이인들이 싸운 것은 테세우스의 혼례가 아니라 피리토오스의 혼례에서였다.

> “아리아드네가 상아 같은 이마에 썼던 왕관을 보라,
> 그날 테세우스가 그녀를 신부로 데려가던 그날에,
> 그때 대담한 켄타우로스들이 사나운 라피타이인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다
> 오히려 그들에게 기가 꺾였다.
> 이제 그 왕관은 하늘에 놓여
> 밝은 하늘을 가로질러 빛을 펼치고,
> 별들에게는 장식이 되어,
> 별들은 그 둘레를 질서 정연하게 돌고 있다.”

제22장

농촌의 신들 — 에리시크톤 — 로이코스 — 물의 신들 — 카메나이 — 바람



아르놀트 뵈클린, 「갈대밭의 판」(1858)

농촌의 신들

숲과 들, 양 떼와 목자의 신 판은 동굴에 살면서 산과 골짜기를 떠돌았고, 사냥을 하거나 님프들의 춤을 이끌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음악을 좋아했다. 앞서 본 것처럼 그는 목자의 피리인 시링크스를 발명했고, 직접 그것을 훌륭하게 불었다. 판은 다른 숲의 신들처럼, 밤에 숲을 지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런 장소의 어둠과 적막이 사람의 마음을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기울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까닭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는 판의 탓으로 여겨졌고, 그것을 판의 공포라고 불렀다.

'판'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뜻하기에, 판은 우주의 상징이자 자연의 의인화로 여겨지게 되었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 모든 신들과 이교 신앙 그 자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보기도 했다.

실바누스와 파우누스는 라틴 신이었다. 그 성격이 판과 거의 같아서, 이름만 다른 같은 존재로 보아도 무방하다.

숲의 요정들은 판이 춤을 함께 추던 상대였으나, 요정의 한 부류일 뿐이었다. 그 밖에도 개울과 샘을 맡은 나이아데스, 산과 동굴의 요정 오레아데스, 바다의 요정 네레이데스가 있었다. 마지막 세 부류는 불사의 존재였다. 그러나

드리아데스 또는 하마드리아데스라 불린 숲의 요정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나무와 함께 태어나고 그 나무와 함께 죽는다고 여겨졌다. 그러므로 나무를 아무 이유 없이 베어 넘기는 것은 불경한 짓이었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한 벌을 받았다. 우리가 곧 기록할 에리시크톤의 이야기가 그런 예다.

밀턴은 태초의 창조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판을 자연의 의인화로 이렇게 암시한다.

> "…보편의 판이
> 은총의 여신들과 계절의 여신들과 함께 춤의 고리로 엮여,
> 영원한 봄을 이끌어 가네."

그리고 이브의 거처를 묘사하며:

> "…더 그늘진 나무 그늘에,
> 더 신성하거나 더 은밀한 곳에, 꾸며낸 이야기 속이라 해도,
> 판도 실바누스도 잠든 적 없고, 어떤 님프도
> 파우누스도 드나들며 떠돌지 않았다."
>
> — 『실낙원』 제4권

고대 이교 신앙의 아름다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연의 모든 작용에서 신의 손길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다. 그리스인의 상상력은 땅과 바다의 모든 곳을 신들로 채웠고, 우리 철학이

자연법칙의 작용으로 돌리는 현상들을 그 신들의 행위로 여겼다. 때로 우리는 시적인 기분에 젖어 그 변화를 아쉬워하며, 머리가 얻은 만큼 마음이 잃었다고 생각하곤 한다. 시인 워즈워스는 이 감정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다.

> "……위대하신 하느님, 차라리 나는
> 낡아 빠진 신앙으로 젖을 먹고 자란 이교도였으면 좋겠어요.
> 그러면 이 즐거운 풀밭에 서서
> 외로움을 덜어 줄 환상을 엿볼 수 있을 테니.
>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프로테우스를 볼 수 있고,
> 늙은 트리톤이 나선으로 감긴 뿔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

실러는 「그리스 신들」이라는 시에서 고대의 아름다운 신화가 무너진 것을 아쉬워하는데, 그 표현은 기독교 시인 엘리자베스 배럿 브라우닝 부인으로 하여금 「죽은 판」이라는 시로 응답하게 했다. 다음 두 연이 그 한 예이다.

> "그대를 정복한 어떤 으뜸가는 아름다움을
> 고백하는 그대의 아름다움에 걸고,
> 우리의 웅대하고 영웅적인 짐작,
> 그대의 거짓을 통해 진실을 향한 그 짐작에 걸고,
> 우리는 울지 않으리라! 대지는 굴러가리니
> 모든 신의 후광을 물려받아,
> 그리고 판은 죽었도다."

"땅은 자라나 젊은 날 그녀 곁에서 불리던
신화의 환상들을 넘어서나니;
그리고 그 우아한 로맨스들은
진실 곁에서 그저 싱겁게 울린다.
포이보스의 전차는 제 길을 다했다!
시인들이여, 태양을 우러러보라!
판, 판은 죽었도다."

이 시구들은 초기 기독교의 한 전승에 바탕을 둔다. 천상의 무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리스의 모든 섬을 뚫고 들려온 깊은 신음이 위대한 판이 죽었음을 알렸고, 올림포스의 왕족 신들이 모두 왕좌에서 쫓겨나 여러 신들이 차갑고 어두운 곳을 떠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턴은 그의 「그리스도 탄생 찬가」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외딴 산들 너머로,
그리고 울리는 해안 위로,
울음소리와 크나큰 애곡이 들려온다.
귀신 든 샘과 골짜기에서,
창백한 포플러가 가장자리를 두른 곳에서,
떠나가는 게니우스가 한숨 속에 보내진다.
꽃으로 엮은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님프들은 얽힌 덤불의 황혼 그늘에서 슬피 운다."

에리시크톤

에리시크톤은 신들을 업신여기는 불경한 자였다. 어느 날 그는 데메테르에게 바쳐진 숲을 감히 도끼로 범했다. 이 숲에는 존엄한 떡갈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크기는 그것만으로 한 숲을 이룰 만했다. 오래된 줄기는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그 나무에는 흔히 간구하는 이들이 감사를 드리며 걸어 둔 봉헌의 화환들이 매달려 있었고, 나무의 님프에게 바치는 감사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드리아데스들은 그 둘레에서 손에 손을 잡고 자주 춤을 추었다. 줄기는 둘레가 열다섯 큐빗이나 되었고, 다른 나무들이 덤불 위로 솟아 있듯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 위로 솟아 있었다. 그럼에도 에리시크톤은 이 나무를 살려 둘 까닭을 알지 못했고, 하인들에게 그것을 베어 버리라고 명했다. 하인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자 그는 한 명의 손에서 도끼를 낚아채며 이렇게 불경스럽게 외쳤다. “이 나무가 여신이 사랑하는 나무인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설령 여신 자신이라 해도 내 앞을 가로막는다면 쓰러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도끼를 들어 올리자, 떡갈나무는 몸을 떠는 듯 신음 소리를 냈다. 첫 번째 도끼질이 줄기에 떨어지자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그곳에 있던 이들은 모두 공포에 질렸고, 한 사람이 감히 나서서 그를 말리며 치명적인 도끼를 붙잡았다. 에리시크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에게 말했다.

"너의 경건함에 대한 보답을 받아라." 그러고는 나무에서 비켜 잡고 있던 그 무기를 그에게 돌려, 그의 몸을 여러 군데 베고 머리를 베어 버렸다. 그때 떡갈나무의 한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나무에 사는 나는 데메테르가 사랑하는 님프다. 너의 손에 죽어 가며 너에게 경고하노니, 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범죄를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거듭된 도끼질에 갈라지고 밧줄에 끌린 나무는 굉음을 내며 쓰러져, 쓰러지면서 숲의 큰 부분을 짓눌러 버렸다.

드리아데스들은 동료를 잃고 숲의 자랑이 쓰러진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겨, 모두 상복을 입고 떼 지어 데메테르에게 가서 에리시크톤에게 벌을 내려 달라고 빌었다. 데메테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머리를 숙이자 가득 찬 들판에서 추수를 기다리던 곡식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처럼 죄 많은 자도 동정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그를 가엾게 여길 만큼 혹독한 벌을 계획했다. 그것은 그를 기아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운명의 여신들이 이 두 여신이 결코 만나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기에, 데메테르 자신은 기아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산에서 오레아스 한 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얼음에 덮인 스키티아의 가장 먼 곳에 한 장소가 있다. 나무도 없고 곡식도 없는 슬프고 메마른 땅이다. 그곳에는 추위와 두려움과 전율, 그리고 기아가 산다. 가서 그

마지막, 기아에게 전하여라. 에리시크톤의 창자를 차지하라고. 풍요가 그녀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고, 내 선물의 힘이 그녀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라. 거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기아는 데메테르로부터 아주 멀리 살고 있었다.) "내 전차를 가져가라. 용들은 빠르고 고삐에 순종하니, 하늘을 날아 짧은 시간에 너를 데려다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고삐를 건넸고, 오레아스는 전차를 몰고 떠나 곧 스키티아에 이르렀다. 카우카소스 산에 도착한 그녀는 용들을 멈추었고, 돌투성이 밭에서 기아를 찾아냈다. 기아는 이빨과 발톱으로 몇 가닥 남지 않은 풀을 뽑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거칠었고, 눈은 움푹 꺼졌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으며, 턱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살갗은 팽팽하게 당겨져 뼈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오레아스는 멀리서 기아를 보며(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다) 데메테르의 명령을 전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만 머물렀고, 거리를 최대한 지키며 말했지만, 그럼에도 그녀 자신도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용들의 머리를 돌려 테살리아로 되돌아 몰아갔다.

기아는 데메테르의 명령에 따라 공중을 날아 에리시크톤의 집에 이르렀고, 죄 지은 자의 침실로 들어가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날개로 그를 감싸고 그의 몸속으로 자신을 불어넣어, 자신의 독을 그의 핏줄에 부었다. 임무를

마친 그녀는 풍요로운 땅을 서둘러 떠나 늘 머물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에리시크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는데, 꿈속에서 음식을 갈구하며 마치 먹고 있는 듯 턱을 움직였다. 깨어났을 때 그의 배고픔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기 앞에 차려 주기를 원했고, 먹고 있으면서도 배고프다고 투덜거렸다. 한 도시나 한 민족을 먹이고도 남을 음식이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많이 먹을수록 그는 더 많이 갈구했다. 그의 굶주림은 모든 강을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차지 않는 바다와 같았고, 또는 쌓아 올린 땔감을 모두 태우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탐하는 불과도 같았다.

그의 재산은 식욕의 끊임없는 요구 아래 빠르게 줄어들었으나, 그의 굶주림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써 버리고 딸 하나만 남았는데, 그 딸은 더 나은 아버지를 두기에 합당한 아이였다. 그는 그녀마저 팔아 버렸다. 그녀는 사는 자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마다하고, 바닷가에 서서 포세이돈에게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포세이돈은 그녀의 기도를 들었다. 새 주인은 멀리 있지 않았고 바로 조금 전까지 그녀에게 눈을 두고 있었지만, 포세이돈은 그녀의 모습을 바꾸어 일에 몰두한 어부의 모습을 하게 했다. 그녀를 찾던 주인은 모습이 바뀐 그녀를 보고 다가가 말했다. “좋은 어부여, 방금 내가 보았던 소녀,

머리를 풀어헤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채 당신이 서 있는 이 근처에 서 있던 그 소녀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 주게. 사실대로 말해 주게. 그래야 당신에게 운이 따르고,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건드리고 달아나지 않을 것이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알아차렸고, 자기에 대해 묻는 말을 들으며 속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대답했다. "나그네여, 용서하시오. 나는 낚싯줄에만 정신이 팔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그러나 내가 여자나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이 근처에 한동안 있었다고 믿는다면, 다시는 물고기를 낚지 못하기를 바라오. 나 말고는 말이오." 그는 속아 넘어갔고, 노예가 달아났다고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그러자 그녀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여전히 자기 곁에 있고, 팔아서 얻은 돈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다시 팔았다. 하지만 포세이돈의 은혜로 그녀는 팔릴 때마다 모습이 바뀌었는데, 어떤 때는 말이, 어떤 때는 새가, 어떤 때는 소가, 또 어떤 때는 사슴이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사들인 자들에게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이 비열한 방법으로 굶주린 아버지는 먹을 것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마침내 굶주림은 그로 하여금

자기 사지를 뜯어 먹게 만들었다. 그는 자기 몸을 먹어서 몸을 기르려 애썼고, 결국 죽음이 그를 데메테르의 복수에서 풀어 주었다.

로이코스

하마드리아데스는 상처를 갚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진 도움에도 보답할 줄 알았다. 로이코스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 준다. 로이코스는 막 쓰러지려는 참나무를 보고 하인들에게 그것을 받치라고 명했다. 나무와 함께 목숨을 잃을 뻔했던 님프가 와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데 감사를 표하며, 무엇을 상으로 원하는지 말해 보라고 했다. 로이코스는 대담하게도 그녀의 사랑을 청했고, 님프는 그의 바람에 응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에게 변치 말라고 당부하였고, 벌 한 마리가 자신의 전령이 될 것이며 언제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그 벌이 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벌이 로이코스에게 왔을 때 그는 체커 놀이를 하던 중이었는데, 무심코 벌을 쫓아 버렸다. 이 일에 님프는 몹시 분노하여 그에게서 시력을 빼앗아 버렸다.

같은 미국인인 제임스 러셀 로웰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짧은 시 가운데 한 편의 소재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시작한다:

"자, 이제 옛 그리스의 이 요정 전설을 들어보라,
지금도 자유와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모든 시대를 위해 어느 아티카 부조에 새겨진
그 우아함의 불멸의 싱그러움이 그러하듯."

물의 신들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는 물의 원소를 다스리던 티탄이었다. 제우스와 그 형제들이 티탄을 몰아내고 그 권능을 차지하자,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를 대신해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가 바다를 다스리는 자리를 이어받았다.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물의 신들의 우두머리였다. 그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은 삼지창, 곧 끝이 세 갈래인 창이었다. 그는 이 창으로 바위를 부수고, 폭풍을 불러내거나 가라앉히고, 해안을 뒤흔드는 일 따위를 했다. 그는 말을 만들었고 경마의 수호신이기도 했다. 그의 말들은 청동 발굽과 황금 갈기를 가졌다. 그 말들이 그의 전차를 바다 위로 끌면, 바다는 그 앞에서 잔잔해졌고, 깊은 바다의 괴물들이 그의 길 주위에서 뛰놀았다.

암피트리테

암피트리테는 포세이돈의 아내였다. 그녀는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딸이었고, 트리톤의 어머니였다. 포세이돈은 암피트리테에게 구애하려고 돌고래를 타고 나타났다. 그녀를 얻은 뒤 그는 돌고래를 별들 사이에 올려놓아 그 공을 치하했다.

네레우스와 도리스

네레우스와 도리스는 네레이데스의 부모였다. 그 가운데 가장 이름 높은 이들은 암피트리테,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 그리고 키클롭스 폴리페모스가 사랑했던 갈라테이아였다. 네레우스는 지식과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났으며, 그래서 '노인'이라고 불렸다. 예언의 능력 또한 그에게 주어졌다.

트리톤과 프로테우스

트리톤은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의 아들이며, 시인들은 그를 아버지의 나팔수로 그린다. 프로테우스 역시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다. 그는 네레우스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미래 일을 아는 힘 때문에 바다의 노인이라 불린다. 그의 특이한 능력은 뜻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었다.

테티스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딸 테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우스 자신도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러나 티탄 프로메테우스에게서 테티스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해질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을 듣고 나서, 제우스는 청혼을 거두고 테티스가 필멸의 인간과 맺어지도록 명했다. 켄타우로스 케이론의 도움으로 펠레우스는 이 여신을 신부로 얻는 데 성공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명성 높은 아킬레우스였다. 트로이아 전쟁을 다루는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테티스는 아들에게 충실한 어머니였다. 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에 힘을 보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이익을 살피며 지켜보았다.

레우코테아와 팔라이몬

카드모스의 딸이자 아타마스의 아내인 이노는, 미쳐 날뛰는 남편을 피해 어린 아들 멜리케르테스를 품에 안고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신들은 가엾게 여겨 그녀를 레우코테아라는 이름의 바다 여신으로, 아들은 팔라이몬이라는 이름의 신으로 만들었다. 두 신은 난파에서 구해 주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고, 뱃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빌었다. 팔라이몬은 보통 돌고래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를 기리기 위해 이스트모스의 경기가 열렸다. 로마인들은 그를 포르투누스라 불렀으며, 항구와 해안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다.

밀턴은 「코머스」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에서 이 신들을 모두 언급한다.

> "…오, 아름다운 사브리나여,
> 들어 주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 주오,
> 위대한 오케아노스의 이름으로 청하노니.
> 땅을 뒤흔드는 포세이돈의 철퇴로,
> 그리고 테티스의 무겁고 위엄 있는 걸음으로,
> 백발의 네레우스의 주름진 얼굴로,
> 그리고 카르파토스의 마법사가 쓰는 갈고리로,
> 비늘 돋은 트리톤의 굽이진 소라로,
> 그리고 늙은 예언자 글라우코스의 주문으로,
> 레우코테아의 사랑스러운 손으로,
> 그리고 해변을 다스리는 그녀의 아들로.
> 테티스의 은실 장식 신을 신은 발로,
> 그리고 달콤한 세이렌들의 노래로……" 등등.

『건강 보전의 기술』의 시인 암스트롱은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나이아데스를 기린다. 파이온은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 둘 다의 이름이다.

"오라, 나이아데스여!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라!
자애로운 처녀들이여! 남은 일은 노래하는 것이니
그대들의 선물을 (파이온이, 건강의 힘들이
명하듯이) 그대들의 맑은 원소를 기리는 것이다.
오, 살가운 시냇물이여! 열띤 입술로
떨리는 손으로 지친 목마른 이들이 들이켜니,
그대들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싱싱한 기운이 혈관을 채운다.
시골의 옛 시대는 이보다 독한 잔을 알지 못했고,
인류의 조상들도 이보다 독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
온화한 평화 속에 행복하게 그들의 평온한 날들은
열병 같은 광란의 발작과
병든 낙담을 느끼지 않았다. 여전히 고요하고 흡족하게,
질병으로부터 신성한 면역을 누리며,
그들은 오랜 세월을 살았다. 그들의 유일한 운명은
무르익은 노년이었고, 죽음보다는 잠이었다."

카메나이

라틴인들은 이 이름으로 뮤사들을 가리켰지만, 그 이름 아래에는 다른 몇몇 신들도 포함시켰는데, 주로 샘의 님프들이었다. 에게리아도 그중 하나였으며, 그녀의 샘과 동굴은 지금도 볼 수 있다. 로마의 두 번째 왕인 누마는 이 님프에게서 은밀한 만남의 은총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그가 떠오르는 나라의 제도 속에 담아낸 지혜와 법의 가르침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 누마가 죽은 뒤 그 님프는 야위어 가다가 샘으로 변하였다.

바이런은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제4편에서 에게리아와 그녀의 동굴을 이렇게 암시한다:

> "여기서 그대는 이 마법에 싸인 은신처에 살았도다,
> 에게리아여! 그대의 신성한 가슴이 모두 뛰고 있었나니
> 그대 필멸의 연인의 먼 발걸음을 기다리며;
> 자줏빛 한밤이 그 신비로운 만남을
> 가장 별이 많은 천막으로 가려 주었도다;" 등등.

테니슨 역시 그의 「예술의 궁전」에서, 연인인 왕이 만남을 기다리는 모습을 잠깐 보여 준다.

> "한 손을 귀에 대고서,
> 숲의 님프를 보기 전에 그 발소리를 들으려고
> 토스카나의 왕은 기다리고 있었네, 듣고자
> 지혜와 법에 관한 것을."

바람

그보다 덜 활발한 숱한 힘들까지 의인화되었으니, 바람만 의인화되지 않았을 리는 없다. 바람으로는 북풍 보레아스(또는 아퀼로), 서풍 제피로스(또는 파보니우스),

남풍 노토스(또는 아우스테르), 그리고 동풍 에우로스가 있었다. 앞의 두 바람은 시인들이 주로 노래했는데, 보레아스는 거칠음의, 제피로스는 부드러움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보레아스는 님프 오리티이아를 사랑하여 연인의 역할을 해 보려 했으나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기가 어려웠고, 한숨을 쉬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침내 헛된 노력에 지친 그는 본래의 기질을 드러냈다. 그는 그 처녀를 움켜잡아 데려가 버렸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제테스와 칼라이스였는데, 날개 달린 전사들이었다. 이들은 아르고호의 원정에 동행했고, 괴물 같은 새들인 하르피이아이와 맞붙었을 때 큰 공을 세웠다.

제피로스는 플로라의 연인이었다. 밀턴은 『실낙원』에서 이들을 언급하는데,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아직 잠들어 있는 이브를 바라보는 대목이다.

"… 그는 옆으로 누워
반쯤 몸을 일으킨 채, 다정한 사랑의 눈빛으로
그녀 위에 매혹되어 몸을 숙였고, 바라보았다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특별한 우아함을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그러고는 목소리로,
제피로스가 플로라에게 불어올 때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이렇게 속삭였다. '깨어나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이, 나의 아내, 내가 맨 나중에 얻은 이,
하늘이 준 마지막이자 가장 좋은 선물, 언제나 새로운 나의 기쁨
이여.'"

「밤의 상념」을 쓴 시인 영 박사는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연약한 자들이여!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여
(너희야말로 가장 견디기 힘든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겨울 장미는 피어야 하고, …
… 비단처럼 부드러운
파보니우스는 더욱 부드럽게 불어야 하니, 아니면 꾸지람을 들으리라!"

제23장

아켈로오스와 헤라클레스 — 아드메토스와 알케스티스 — 안티고네 — 페넬로페



프레더릭 레이턴, 「알케스티스의 몸을 두고 죽음과 씨름하는 헤라클레스」(1869~1871)

아켈로오스와 헤라클레스

강의 신 아켈로오스는 테세우스와 그의 일행을 자신의 풍성한 식탁에 맞아 대접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물이 넘쳐 여행길이 막혀 있었다. 그는 에리시크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덧붙였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힘을 지닌 사례인데, 어찌 다른 이들의 변신을 말할 필요가 있겠소?

나는 때로 뱀이 되고, 때로는 머리에 뿔이 달린 황소가 된다오. 아니,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다고 해야겠소. 지금은 뿔이 하나뿐이오. 하나를 잃었기 때문이지." 그러고는 신음을 내뱉고 입을 다물었다.

테세우스는 그에게 슬픔의 까닭과 뿔을 어떻게 잃었는지 물었다. 강의 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누가 자기 패배를 즐겨 이야기하겠소? 그래도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하겠소. 나를 이긴 자가 위대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오. 나를 이긴 자는 헤라클레스였소. 아마 당신도 소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데이아네이라의 명성을 들어 보았을 것이오. 수많은 구혼자가 그녀를 얻으려고 다투었고, 헤라클레스와 나도 그 가운데 있었소. 나머지는 우리 둘에게 밀려났지요. 헤라클레스는 자기 편을 들어, 자신이 제우스의 후손임을 내세웠고, 계모인 헤라가 강요한 것을 넘어서는 과업을 치러 냈다고 주장했소. 나는 반대로 처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소. '보시오, 당신의 땅을 흐르는 물들의 왕인 나를. 나는 낯선 해안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이며 당신 나라의 일부입니다. 왕비 헤라가 나에게 적의를 품지 않고 무거운 과업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이자의 말은 거짓된 허세이거나, 참이라 해도 그에게는 수치이니, 어머니의 부끄러움 없이는

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헤라클레스는 나를 노려보았고,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소. '내 말보다 내 손이 더 잘 대답할 것이오.' 그가 말했소. '말싸움의 승리는 당신에게 넘기겠지만, 내 주장은 행동의 다툼에 맡기겠소.' 그러고는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방금 한 말이 있었기에 물러서는 것이 부끄러웠소. 나는 초록빛 겉옷을 벗어 던지고 싸움에 나섰소. 그는 나를 넘어뜨리려 했는데, 어떤 때는 머리를, 어떤 때는 몸을 공격했소. 내 몸집이 나의 방패였고, 그는 나를 헛되이 공격했소. 한동안 우리는 멈췄다가 다시 싸움으로 돌아갔소. 우리는 각자 자리를 지키며 굽히지 않기로 다짐했소. 발과 발을 맞대고, 나는 그를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의 손을 내 손으로 움켜쥐었으며, 내 이마는 거의 그에게 닿을 듯했소. 헤라클레스는 세 번 나를 떨쳐내려 했고, 네 번째에 성공하여 나를 땅에 쓰러뜨리고 자기는 내 등 위에 올라탔소. 진실을 말하건대, 마치 산이 내 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소. 나는 팔을 자유롭게 하려고 버둥거렸고, 숨을 헐떡이며 땀에 젖어 김을 뿜었소. 그는 내가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내 목을 움켜쥐었소. 내 무릎은 땅에 닿아 있었고, 내 입은 먼지 속에 처박혀 있었소."

"나는 전사의 기예로는 그와 맞설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수단에 기대어 뱀의 모습으로 미끄러져 달아났다. 몸을 똬리처럼 틀고 갈라진 혀로 그에게 쉭쉭거렸다. 그는 이를

보고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뱀을 이기는 일은 내가 젖먹이 때 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두 손으로 내 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거의 숨이 막혔고, 목을 그의 손아귀에서 빼내려고 버둥거렸다. 이 모습으로도 지자, 나에게 남은 것, 오직 그것 하나를 시도했다. 황소의 모습을 취한 것이다. 그는 팔로 내 목을 감고 내 머리를 땅으로 끌어내려, 나를 모래 위에 메다꽂았다. 그것으로도 그치지 않았다. 그의 무자비한 손이 내 머리에서 뿔 하나를 뜯어냈다. 나이아데스가 그것을 집어 들어 성스럽게 바치고, 향기로운 꽃으로 채웠다. 풍요의 여신은 내 뿔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고, 그것을 '코르누코피아'라 불렀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화 이야기에서 숨은 뜻을 찾아내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아켈로오스가 헤라클레스와 벌인 이 싸움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켈로오스는 우기에 제 둑을 넘쳐흐르던 강이었다는 것이다. 신화가 아켈로오스가 데이아네이라를 사랑하여 그녀와 맺어지기를 바랐다고 말할 때, 그 뜻은 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데이아네이라의 나라 일부를 지나갔다는 것이다. 강이 뱀의 모습을 취한다고 한 것은 그 굽이침 때문이고, 황소의 모습을 취한다고 한 것은 흐름 속에서 요란하게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강이 불어나면 제 스스로 다른 물길을 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뿔이 난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둑과 수로로 이 주기적인

범람이 되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그가 강의 신을 이기고 그 뿔을 잘라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범람에 시달렸으나 이제 다시 얻은 땅은 아주 비옥해졌고, 이것이 바로 '풍요의 뿔'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이다.

또 다른 풍요의 뿔 유래 이야기가 있다.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레아는 아기를 크레테의 왕 멜리세우스의 딸들에게 맡겼다. 그들은 염소 아말테이아의 젖으로 이 어린 신을 먹여 길렀다. 제우스는 그 염소의 뿔 하나를 부러뜨려 유모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뿔에 소유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채워지는 놀라운 힘을 주었다.

일부 작가들은 아말테이아라는 이름을 디오니소스의 어머니에게도 붙인다. 밀턴은 『실낙원』 제4권에서 이 이름을 그렇게 쓴다.

> "… 저 니사의 섬은,
> 트리톤 강이 두르고 있으니,
> 이방인들이 아몬이라 부르는 늙은 캄,
> 리비아의 제우스가,
> 아말테이아와 그녀의 혈색 좋은 아들,
> 어린 디오니소스를 숨겨 두었던 곳이니,
> 계모 레아의 눈길에서 멀리."

아드메토스와 알케스티스

아폴론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버지에게서 치유의 기술을 받았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죽은 이를 다시 살려내기까지 했다. 이에 하데스가 놀라, 제우스를 설득해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번개를 내리치게 했다.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아폴론은 분노했고, 그 번개를 만든 죄 없는 장인들에게 복수했다. 그들은 아이트나 산 아래에 대장간을 둔 키클롭스였으며, 그곳 용광로의 연기와 불꽃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아폴론이 키클롭스를 화살로 쏘자 제우스는 크게 노했고, 벌로 아폴론에게 일 년 동안 필멸자의 종이 되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아폴론은 테살리아의 왕 아드메토스를 섬기게 되었고, 아드메토스를 위해 암프리소스 강의 푸른 강둑에서 그의 가축 떼를 돌보았다.

아드메토스는 펠리아스의 딸 알케스티스의 구혼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펠리아스는 사자와 멧돼지가 끄는 전차를 타고 딸을 데리러 오는 자에게 그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드메토스는 자기 목자인 신의 도움으로 그 과제를 해냈고, 알케스티스를 아내로 얻어 행복했다. 그런데 아드메토스가 병이 들어 죽음에 가까워졌다. 아폴론은 운명의 여신들을 설득하여,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죽겠다고 나서면 그를 살려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아드메토스는 목숨을 건진 기쁨에

취해 그 대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신하와 식솔들이 늘 입버릇처럼 해 온 충성의 맹세를 떠올리며, 대신할 자를 찾기는 쉬울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주군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을 용감한 전사들도, 병상에서 그를 위해 죽는다는 생각에는 움츠러들었다. 어릴 적부터 그와 그의 집안의 은덕을 입어 온 늙은 하인들도, 감사의 뜻을 보이기 위해 남은 얼마 안 되는 생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째서 그의 부모 가운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가? 그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오래 살 날은 많지 않고, 자신들이 낳은 목숨이 때 이르게 스러지는 것을 막으라는 부름을 그들만큼 절실히 느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부모는 아들을 잃을 생각에 괴로워했으면서도, 그 부름 앞에서는 물러섰다. 그때 알케스티스가 관대한 자기희생의 마음으로 자신이 그 대신이 되겠다고 나섰다. 아드메토스는 삶에 애착이 컸지만, 그런 대가를 치르고 목숨을 건지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었다. 운명의 여신들이 정한 조건은 이미 채워졌고,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었다. 아드메토스가 회복되어 가는 동안 알케스티스는 병들어 갔고, 그녀는 빠르게 무덤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 헤라클레스가 아드메토스의 궁전에 도착했다. 그는 궁 안의 사람들이 헌신적인 아내이자 사랑받는 여주인을 곧 잃게 된다는 생각에 크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노고도 마다하지 않는 헤라클레스는 그녀를 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죽어 가는 왕비의 방문 앞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죽음이 제 먹이를 데리러 왔을 때, 헤라클레스는 그를 붙잡고 희생자를 내놓도록 강요했다. 알케스티스는 기력을 되찾았고, 남편에게 돌아갔다.

밀턴은 「죽은 아내에 부치는 소네트」에서 알케스티스의 이야기를 암시한다.

> "나는 꿈에 보았다, 내 사랑하던 성스러운 아내가
> 무덤에서 알케스티스처럼 내게로 이끌려 옴을,
> 제우스의 위대한 아들이 기쁜 남편에게 되돌려 준 그녀,
> 죽음에서 힘으로 구해져, 창백하고 기진하였으나."

제임스 러셀 로웰은 짧은 시의 소재로 「아드메토스 왕의 양치기」를 골랐다. 그는 그 사건을 인간에게 시가 처음 전해진 순간으로 삼는다.

> "사람들은 그를 두고 쓸모없는 젊은이라 불렀네,
> 그 안에 좋은 것이라곤 보이지 않는다고.
>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 그의 무심한 말을 법으로 삼고 말았다네."

"나날이 더욱 거룩해졌다네
그가 발자취를 남긴 곳마다,
마침내 훗날의 시인들은 알게 되었다네
그들의 맏형이 신이었다는 것만을."

안티고네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흥미로운 인물과 숭고한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여성의 몫이다. 안티고네는 알케스티스가 부부간의 헌신을 보여 준 것처럼, 부모와 형제에 대한 충실함의 밝은 본보기였다. 그녀는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딸이었다. 이들과 그 후손들은 모두 가차 없는 운명의 희생자였고, 운명은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오이디푸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자기 두 눈을 뽑아 버렸고, 신의 복수의 대상이 되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가운데 그가 다스리던 테바이에서 쫓겨났다. 그의 딸 안티고네만이 아버지의 떠돎을 함께하며 그가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고, 그 뒤에야 테바이로 돌아왔다.

그녀의 두 오빠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왕국을 둘이 나누어 해마다 번갈아 다스리기로 합의했다. 첫해는 에테오클레스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자 그는 왕국을 동생에게 넘기기를 거부했다.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에게로 도망쳤고,

아드라스토스는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으며, 왕국에 대한 그의 권리를 관철하도록 군대를 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테바이를 치러 간 일곱 장수"라는 유명한 원정으로 이어졌고, 이 원정은 그리스의 서사시인과 비극 시인들에게 풍부한 소재를 제공했다.

아드라스토스의 매부 암피아라오스는 이 원정에 반대했다. 그는 예언자였고, 자기 기술로 아드라스토스를 빼고는 어떤 지휘관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암피아라오스는 왕의 누이 에리필레와 혼인할 때, 자기와 아드라스토스의 의견이 갈리면 결정은 에리필레에게 맡기기로 약속해 두었다. 폴리네이케스는 이것을 알고 에리필레에게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를 주었고, 그렇게 하여 그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 목걸이는 헤파이스토스가 하르모니아가 카드모스와 혼인할 때 그녀에게 준 선물이었는데, 폴리네이케스는 테바이에서 도망칠 때 그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다. 에리필레는 이처럼 유혹적인 뇌물을 뿌리칠 수 없었고, 그녀의 결정으로 전쟁을 벌이기로 정해졌고, 암피아라오스는 피할 수 없는 자기 운명을 향해 떠났다. 그는 싸움에서 용감하게 제 몫을 다했으나, 자기 운명을 피하지는 못했다. 적에게 쫓기던 그는

강을 따라 도망쳤는데, 그때 제우스가 던진 벼락이 땅을 갈랐고, 그와 그의 전차, 그리고 전차 모는 자는 땅속으로 삼켜졌다.

이 싸움을 특징지은 모든 영웅적 행위와 잔혹한 행위를 자세히 적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그러나 에리필레의 약함과 맞세워, 에바드네의 충절은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한다. 에바드네의 남편 카파네우스는 싸움의 열기 속에서 제우스 자신이 막아서더라도 도시에 기어이 쳐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성벽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갔지만, 제우스는 그의 불경한 말에 분노하여 벼락으로 그를 쳤다. 장례를 치를 때 에바드네는 그의 장작더미 위로 몸을 던져 죽었다.

싸움 초기에 에테오클레스는 승패에 관하여 예언자 티레시아스에게 물었다. 티레시아스는 젊은 시절 우연히 아테나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신은 분노하여 그의 시력을 빼앗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누그러져 그 보상으로 미래를 아는 지혜를 주었다. 에테오클레스의 물음을 받자 그는, 크레온의 아들 메노이케우스가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나서면 승리는 테바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영웅적인 청년은 이 신탁을 듣고 첫 교전에서 목숨을 내던졌다.

포위는 오래 이어졌고 전세는 이쪽저쪽으로 기울었다. 마침내 양쪽 진영은 형제가 단판 승부로 다툼을 가리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맞붙어 싸웠고, 서로의 손에 쓰러졌다. 이어 군대가 다시 싸움을 벌였고, 결국 침략자들은 물러나 도망쳤으며 죽은 자들을 묻지도 못하고 떠났다. 쓰러진 왕자들의 삼촌 크레온은 이제 왕이 되어, 에테오클레스의 장례를 훌륭한 예우로 치르게 했다. 그러나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버려 두었고, 누구든 장사를 지내면 죽음으로 벌하겠다고 명령했다.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의 누이로서, 오빠의 시신을 개와 독수리에게 내맡기고 죽은 자의 안식에 필수적이라 여겨진 장례 의식마저 빼앗는 그 역겨운 칙령을 듣고 분노했다. 다정하지만 겁이 많은 동생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던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손으로 시신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행위를 하다가 들켰다. 크레온은 그녀가 나라의 엄숙한 칙령을 일부러 어겼다며 산 채로 묻으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연인이자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은 그녀의 운명을 막을 수 없었고, 그녀보다 오래 살기를 마다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티고네는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의 두 편의 훌륭한 비극의 소재다. 제임슨 부인은 『여성의 특성』에서 그녀의 성격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 나오는 코딜리아의 성격과 견주어 보았다. 독자들은 그녀의 논평을 읽는다면 분명 흡족해할 것이다.

다음은 죽음이 마침내 오이디푸스를 고통에서 풀어 주었을 때 안티고네가 그를 두고 부르는 애가이다:

> "아아! 나도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 가엾은 아버지와 함께.
> 이제 와서 더 살기를 바랄 까닭이 무엇인가?
> 오, 나는 그분과 함께라면 괴로움마저 좋았다.
> 그분 곁에서는 가장 보기 싫은 것조차 사랑스러웠다.
> 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 이제 땅속 깊은 어둠에 숨으셨구나.
> 나이에 짓눌리셨어도 당신은 여전히
> 내게 소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리라."
>
> — 프랭클린의 소포클레스.

페넬로페

페넬로페는 아름다움이 외모보다 성품과 행실에 있었던 또 다른 신화 속 여인이다. 그녀는 스파르타의 왕자 이카리오스의 딸이었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청혼했고,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녀를 얻었다. 신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가 되자, 이카리오스는 딸을 보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머물고, 남편을 따라 이타카로 가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다.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에게 그와 함께 가거나 남거나 선택하게 했다. 페넬로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얼굴 위로 베일을 내렸다. 이카리오스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딸이 떠난 뒤, 그들이 헤어진 자리에 정숙의 여신을 위한 상을 세웠다.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결혼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아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나 오디세우스가 떠나야 했고, 둘의 행복은 그렇게 중단되었다. 그가 오래 돌아오지 않는 동안, 그가 아직 살아 있는지조차 불확실했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페넬로페에게는 수많은 구혼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을 피할 길은 그중 한 사람을 남편으로 고르는 것뿐인 듯했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남편의 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장례 덮개를 짜는 일을 맡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옷감을 다 짜면 구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르겠다고 약속했다. 낮에는 옷감을 짰지만, 밤이면 낮에 짠 것을 다시 풀었다. 이것이 유명한 페넬로페의 베틀 이야기로, 끝없이

하고 있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 일을 가리키는 속담처럼 쓰인다. 페넬로페의 나머지 이야기는 남편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다룰 때 이어서 들려주겠다.

제24장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 아리스타이오스 — 암피온 — 리노스 — 타미리스 — 마르시아스 — 멜람포스 — 무사이오스



카미유 코로, 「에우리디케를 이끌고 저승을 나서는 오르페우스」(1861)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오르페우스는 아폴론과 뮤사 칼리오페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수금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타는 법을 배웠는데, 그 솜씨가 얼마나 완벽했던지 그의 음악의 매력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인간들만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그의 가락에 누그러졌다. 그들은 그의 둘레에 모여들어 사나움을 내려놓고 그의 노래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나무와 바위조차 그 매력을 느꼈다. 나무들은 그의 둘레로 몰려들었고, 바위들은 그의 음에 녹아 단단함을 얼마간 늦추었다.

히메나이오스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혼례에 축복을 주려고 불려 왔다. 그러나 그는 참석하기는 했으나 좋은 징조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의 횃불조차 연기를 내며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다. 이런 불길한 징조와 맞물리듯,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우리디케가 동무인 요정들과 거닐던 중 양치기 아리스타이오스가 그녀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도망쳤고, 달아나다 풀숲에 숨어 있던 뱀을 밟았다. 뱀이 발을 물었고 그녀는 죽었다. 오르페우스는 지상의 공기를 숨 쉬는 모든 이에게, 신들과 인간 모두에게 자신의 슬픔을 노래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자 그는

아내를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타이나로스 곶의 옆구리에 있는 동굴로 내려가 스틱스의 왕국에 이르렀다. 그는 망령들의 무리를 지나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옥좌 앞에 나아갔다. 그는 수금을 타며 노래했다. “저승의 신들이여, 우리 살아 있는 모든 자가 마침내 찾아가야 할 그대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은 참되오. 나는 타르타로스의 비밀을 엿보러 온 것이 아니고, 입구를 지키는 뱀 머리카락의 세 머리 개와 힘을 겨루러 온 것도 아니오. 나는 아내를 찾으러 왔소. 그녀의 어린 생명은 독사의 이빨에 물려 때아니게 끊겼소.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소. 땅 위에 사는 우리에게 전능한 신인 사랑이, 옛 전승이 참되다면 이곳에서도 그러하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처소, 침묵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의 이 왕국에 걸고 간청하오. 에우리디케의 생명의 실을 다시 이어 주시오. 우리 모두는 그대들에게 운명 지워져 있고, 이르든 늦든 그대들의 영역으로 건너가야 하오. 그녀도 제 삶의 기간을 채우고 나면 당연히 그대들의 것이 될 것이오. 그러나 그때까지만은 그녀를 내게 허락해 주시오, 간청하오. 나를 거절하신다면 나는 홀로 돌아갈 수 없소. 그러면 그대들은 우리 둘의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오.”

그 애절한 노래를 부르자 망령들조차 눈물을 흘렸다.
탄탈로스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잠시 물을 찾던 손을
멈추었고, 익시온의 바퀴도 멈춰 섰으며, 독수리는 거인의
간을 쪼는 일을 그쳤다. 다나오스의 딸들은 체로 물을 긷던
일을 쉬었고, 시시포스는 바위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처음으로 복수의 여신들의 뺨도
눈물에 젖었다고 한다. 페르세포네도 그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고, 하데스 자신도 물러섰다. 에우리디케가 불려 왔다.
그녀는 새로 도착한 망령들 가운데서 나왔는데, 상처 입은 발
때문에 절뚝거리고 있었다. 오르페우스는 한 가지 조건 아래
그녀를 데려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지상의 공기에 이를
때까지 그가 뒤돌아 그녀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 아래 두 사람은 길을 떠났다. 그는 앞서 가고 그녀는
뒤따르며, 어둡고 가파른 통로를 완전한 침묵 속에 걸었다.
그리고 밝은 윗세상으로 나가는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오르페우스는 잠시 잊고서 그녀가 아직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끌려가
버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잡은 것은
공기뿐이었다! 이제 두 번째로 죽게 된 그녀는 남편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녀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의 조급함을

어찌 나무랄 수 있겠는가? “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지막 작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너무도 빨리 끌려가 버려, 그 목소리는 거의 그의 귀에 닿지도 못했다.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따라가려고 애썼고, 돌아가서 그녀를 구해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도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엄격한 뱃사공은 그를 물리치고 배에 태우기를 거절했다. 그는 이레 동안 강가를 맴돌았는데,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러다 그는 에레보스의 권능을 가혹하다고 쓰라리게 비난하며, 바위와 산을 향해 자신의 탄식을 노래했다. 그 노래는 호랑이의 마음을 녹이고 참나무를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했다. 그는 여자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으며, 자신의 슬픈 불행을 떠올리며 늘 그 생각에 잠겨 있었다. 트라키아의 처녀들은 그를 사로잡으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그는 그들의 구애를 물리쳤다. 처녀들은 할 수 있는 한 오래 참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여전히 무심한 것을 보자, 디오니소스의 제례로 흥분해 있던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다. “저기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그 창은 그의 수금 소리가 닿는 곳에 이르자마자, 그의 발치에 맥없이 떨어졌다. 그들이 던진 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여자들이 비명을 질러 음악 소리를 묻어 버렸고, 그제야 던진 무기들이 그에게 닿아 곧 그의 피로 물들었다. 광란한 여자들은 그의 사지를 찢어

흩뜨렸고, 그의 머리와 수금을 헤브로스 강에 던졌다. 머리와 수금은 강을 따라 떠내려가며 슬픈 가락을 흥얼거렸고, 강기슭은 그에 맞춰 애처로운 합주로 답했다. 뮤사들은 그의 몸의 조각들을 거두어 리벳드라에 묻었는데, 그곳에서 나이팅게일은 그리스의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아름답게 그의 무덤 위에서 노래한다고 전해진다. 그의 수금은 제우스가 별들 사이에 올려놓았다. 그의 망령은 두 번째로 타르타로스로 내려가, 에우리디케를 찾아내어 간절한 팔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두 사람은 행복한 들판을 함께 거닌다. 때로는 그가 앞서고 때로는 그녀가 앞선다. 그리고 오르페우스는 이제 원하는 만큼 그녀를 바라볼 수 있으며, 생각 없이 한 번 돌아본 것에 대한 벌을 더는 받지 않는다.

오르페우스 이야기는 음악의 힘을 보여 주는 예로 포프에게 소재를 주었으며, 그의 「성 세실리아 축일을 위한 송가」가 그것이다. 다음 연은 이야기의 결말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곧, 너무도 일찍 연인이 눈을 돌리니,
그녀는 다시 쓰러지고, 다시 죽고, 죽고 말았도다!
이제 너는 운명의 자매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사랑한 것이 죄가 아니라면, 네게는 아무 죄도 없었도다.
이제 깎아지른 산들 아래에서,
샘물의 폭포 곁에서,
혹은 헤브로스가 떠도는 곳에서,
굽이굽이 휘돌아 흐르는 곳에서,
홀로,
그는 탄식한다,
그리고 그녀의 혼을 부른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잃어버린 그녀를!
이제 복수의 여신들에게 둘러싸여,
절망하고 혼란스러워,
그는 떨고, 그는 타오른다,
로도페의 눈 덮인 봉우리 사이에서.
보라, 사막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바람처럼 거칠게 그는 달려가고;
들어라! 하이모스가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이 지르는 외침으로
울린다;
아, 보라, 그는 죽는다!
그러나 죽음에서조차 그는 에우리디케를 노래하였으니,
에우리디케는 여전히 그의 혀끝에서 떨렸도다:
숲이 에우리디케를,
강물이 에우리디케를,
바위와 텅 빈 산들이 에우리디케를 울렸도다.”

오르페우스의 무덤 위에서 울리는 나이팅게일 노랫소리가 더 뛰어난 선율이라는 것은 사우디가 그의 『탈라바』에서 암시한다.

> "그때 그의 귀에 얼마나 아름다운
> 화음의 소리들이 일어났던가!
>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거리에 부드러워진 노래가
> 즐거움의 나무 그늘에서 흘러나오고,
> 멀리 떨어진 폭포 소리,
> 잎 무성한 숲이 속삭이는 소리.
> 장미 덤불에 홀로 앉은 나이팅게일,
> 그 노랫소리는 너무도 풍부하여,
> 알을 품는 짝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 주는
> 그 가장 아름다운 새에게서도
> 트라키아의 목동이 오르페우스의 무덤 곁에서
> 이보다 더 감미로운 선율을 들은 적은 없었다.
> 비록 그곳에서 무덤의 정령이
> 자신이 사랑하는 향이 짙어지도록
> 자신의 모든 힘을 불어넣는다 하여도."

아리스타이오스, 벌치기

인간은 열등한 동물들의 본능을 제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 양봉의 기술은 이렇게 생겨났다. 꿀은 처음에 야생의 산물로 알려졌을 것이다. 벌들은 속이 빈 나무나 바위틈, 또는 우연히 생긴 비슷한 빈자리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은

짐승의 썩은 시체가 벌들의 거처가 되기도 했다. 벌이 썩어 가는 살에서 생겨난다는 미신도 틀림없이 이런 일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다음 이야기에서, 사실이라고 여겨진 이 일을 질병이나 사고로 벌떼를 잃었을 때 새 벌떼를 얻는 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벌치는 법을 처음 가르친 아리스타이오스는 물의 님프 키레네의 아들이었다. 그의 벌들이 모두 죽어 버렸고, 그는 도움을 구하러 어머니에게 갔다. 그는 강가에 서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제 삶의 자랑이 제게서 빼앗겼습니다! 제가 아끼던 벌들을 잃었습니다. 제 보살핌과 솜씨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어머니께서도 제게 닥친 불운의 타격을 막아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강바닥 궁전에 앉아 시녀 님프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이 탄식을 들었다. 님프들은 길쌈과 베 짜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나머지가 즐겁도록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리스타이오스의 슬픈 목소리가 그들의 일을 가로막자, 한 님프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그를 보고는 돌아가 어머니에게 알렸다. 키레네는 그를 데려오라고 명했다. 강은 그녀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갈라져 그가 지나가도록 길을 냈고, 양쪽 물은 산처럼 굽이쳐 서 있었다. 그는 큰 강들의 샘이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 그는 물을 담은 거대한 저장고를 보았고, 그 굉음에 거의 귀가 먹을 지경이었다. 그곳에서 물들이 여러 방향으로 서둘러 흘러

나가 대지의 얼굴을 적시는 광경을 그는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방에 이르자, 그는 키레네와 시녀 님프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가장 값진 진미로 식탁을
차렸다. 먼저 그들은 포세이돈에게 헌주를 따랐고, 그다음
잔치를 즐겼다. 그 뒤 키레네가 그에게 말했다.
"프로테우스라는 늙은 예언자가 있단다. 그는 바다에 살며
포세이돈의 총애를 받아, 그의 바다표범 떼를 돌보고 있지.
우리 님프들은 그를 크게 존경한단다. 그는 박식한 현자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안다. 얘야, 그가 네 벌들이
죽은 원인과 그것을 고칠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단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애원해도 그는 자진해서 말해 주지 않을 거다.
힘으로 그를 제압해야 한다. 네가 그를 붙잡아 쇠사슬로
묶으면, 풀려나고 싶어서 네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쇠사슬을
단단히 쥐고 있으면, 그는 온갖 술수를 써도 달아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의 동굴로 데려가마. 그는 정오에
한낮의 휴식을 취하러 그곳에 온단다. 그때 너는 쉽게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자신이 붙잡힌 것을 알면,
그는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는 힘에 기대려 할 거다. 멧돼지가
되기도 하고, 사나운 호랑이나 비늘 덮인 용이나 누런 갈기의
사자가 되기도 할 거다. 또는 불꽃이 탁탁 타는 소리나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내서, 네가 쇠사슬을 놓도록 유혹할 거다.
그러면 그는 달아나 버리겠지. 그러니 너는 그를 단단히 묶어

두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 마침내 그의 모든 술수가 소용없음을 알게 되고,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네 명령에 따를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아들에게 신들의 음료인 향기로운 넥타르를 뿌렸다. 그러자 곧 여느 때 없던 힘이 그의 몸에 차오르고, 그의 가슴에는 용기가 넘쳤으며, 그의 둘레에는 향기가 번졌다.

님프는 아들을 예언자의 동굴로 데려가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숨겨 두었고, 자신은 구름 뒤에 자리를 잡았다. 정오가 되어 사람과 가축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고요한 잠에 드는 시각이 오자, 프로테우스가 물에서 나왔다. 그 뒤를 바다표범 떼가 따랐고, 떼는 해변을 따라 흩어졌다. 그는 바위에 앉아 떼를 세었다. 그런 다음 동굴 바닥에 몸을 뻗고 잠이 들었다. 아리스타이오스는 프로테우스가 완전히 잠들기도 전에 그에게 족쇄를 채우고 큰 소리로 외쳤다. 프로테우스는 깨어나 자신이 사로잡힌 것을 알자 곧바로 술수를 부렸다. 처음에는 불이 되었고, 다음에는 홍수가 되었으며, 그다음에는 끔찍한 맹수가 되었다. 빠르게 차례로 모습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통하지 않자, 그는 마침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화난 목소리로 청년에게 말했다. "대담한 청년이여, 그대는 누구이기에 감히 내 거처를 침범하며,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아리스타이오스가 대답했다. "프로테우스여, 당신은 이미 알고 있소. 누구도

당신을 속이려 해 봐야 소용없으니 말이오. 그러니 당신도
나를 피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시오. 나는 신의 도움으로
여기에 왔소. 내 불행의 원인과 그것을 고칠 방법을
당신에게서 알아내려고 말이오." 이 말을 듣자 예언자는 잿빛
눈으로 그를 꿰뚫어 보듯 응시하며 말했다. "그대는 그대가
한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 일 때문에
에우리디케가 죽음을 맞았다. 그녀는 그대에게서 달아나다가
뱀을 밟았고, 그 뱀에게 물려 죽었다. 그녀의 죽음을
갚으려고, 그녀의 동무였던 님프들이 그대의 벌들에게 이
파멸을 보냈다. 그대는 그들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 방법은
이러하다. 모양과 크기가 완벽한 황소 네 마리와,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암소 네 마리를 고르라. 님프들을 위해
제단 네 개를 세우고 그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되, 그 사체는
잎이 무성한 숲에 그대로 두어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에게는, 그들의 원한을 누그러뜨릴 만한 장례의
예를 올려라. 아흐레가 지나 돌아가서, 죽은 소들의 사체를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아라." 아리스타이오스는
이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그는 소들을 제물로 바쳤고, 사체는
숲에 남겨 두었으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혼령에게
장례의 예를 올렸다. 그러고는 아흐레째 되는 날 돌아와

짐승들의 사체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벌떼 하나가 한 사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치 벌통에서 일하듯 그곳에서 제 일을 하고 있었다.

쿠퍼는 『과제』에서 러시아 여제 앤이 세운 얼음 궁전을 말할 때 아리스타이오스의 이야기를 끌어온다. 그는 폭포 따위와 관련해 얼음이 취하는 환상적인 모습을 묘사하던 중에 이렇게 쓴다.

> "사람이 만든 것이라 새롭기에 더 감탄을 자아내지만
> 칭찬받을 만한 가치는 덜하구나. 모피를 두른 러시아인의
> 여제여, 그대의 가장 웅장하고 강력한 기이함,
> 북방의 경이로다. 그대가 지으려 할 때 숲은 쓰러지지 않았고
> 채석장은 벽을 채울 재료를 보내지 않았다. 그대는 강물을 깎아
> 유리 같은 물결로 대리석을 만들었다.
> 그러한 궁전에서 아리스타이오스는 키레네를 만났다.
> 그가 잃어버린 벌들의 애처로운 사연을
> 어머니의 귀에 전하러 갔을 때였다."

밀턴은 「코머스」에서 세번 강의 님프 사브리나를 노래하는 수호 정령의 노래를 쓸 때에도, 키레네와 그녀의 가정 풍경을 마음에 두었던 듯하다.

"사브리나 아름다운 이여!
거기 앉아 있는 곳에서 들어 주오,
유리처럼 맑고 서늘한, 투명한 물결 아래에서
백합 꽃을 엮은 땋은 머리로
호박 방울 떨구는 머리채를 다듬는 그대여;
소중한 명예를 위해 들어 주오,
은빛 호수의 여신이여!
들어 주고 구해 주오."

다음은 그 밖의 유명한 신화 속 시인과 음악가들이다. 그중에는 오르페우스에 거의 못지않은 이들도 있었다.

암피온

암피온은 제우스와 테바이의 여왕 안티오페 사이에서 태어났다. 쌍둥이 형제 제토스와 함께 태어나자마자 키타이론 산에 버려졌고, 그곳에서 목동들 틈에서 자랐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헤르메스는 암피온에게 리라를 주고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고, 제토스는 사냥을 하고 양 떼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한편 그들의 어머니 안티오페는 테바이의 왕위를 찬탈한 리코스와 그의 아내 디르케에게서 끔찍한 학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고 자신을 도우러 오라고 부를 방도를 찾아냈다. 두 형제는 함께 자란 목동들을 데리고 리코스를 공격해 죽였다. 그리고 디르케의 머리채를

황소에 묶어, 그녀가 죽을 때까지 소가 끌고 다니게 했다.
테바이의 왕이 된 암피온은 도시 둘레에 성벽을 쌓았다. 그가 리라를 연주하면 돌들이 제 스스로 움직여 성벽의 제자리에 놓였다고 전해진다.

테니슨의 「암피온」이라는 시를 보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리노스

리노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음악을 가르친 스승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제자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꾸짖자,
헤라클레스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리라로 그를 내리쳐 죽였다.

타미리스

고대 트라키아의 한 음유시인으로, 뮤사 여신들에게 자신의 기량을 겨루자고 오만하게 도전했다가 시합에서 져서 뮤사들에게 시력을 빼앗겼다. 밀턴은 자신이 눈이 먼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눈먼 시인들과 함께 그를 언급하는데, 『실낙원』 제3권 35행을 보라.

마르시아스

아테나가 피리를 발명하고 그것을 불어 하늘의 모든 청중을 즐겁게 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 소년 에로스가 여신이 피리를 불 때 짓는 우스운 얼굴을 보고 감히 웃음을 터뜨렸다. 아테나는 분해서 그 악기를 던져 버렸고, 악기는 땅에 떨어졌다. 마르시아스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가 피리를 불자 그 소리가 너무도 황홀해서, 그는 그만 아폴론에게까지 음악 겨루기를 청하고 말았다. 당연히 신이 이겼고, 그는 마르시아스를 산 채로 가죽을 벗기는 벌을 내렸다.

멜람포스

멜람포스는 예언의 능력을 타고난 최초의 필멸자였다. 그의 집 앞에는 뱀 둥지가 있는 떡갈나무가 서 있었다. 늙은 뱀들은 하인들이 죽였지만, 멜람포스는 새끼 뱀들을 돌보며 정성껏 먹였다. 어느 날 그가 떡갈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을 때, 뱀들이 혀로 그의 귀를 핥았다.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새와 기어 다니는 것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음을 알고 놀랐다. 이 지식 덕분에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었고, 이름 높은 점쟁이가 되었다. 한번은 그의 적들이 그를 사로잡아 엄중하게 가두었다. 멜람포스는 고요한 밤에 들보 속 나무좀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말을 통해 들보가 거의 다 갉아 먹혀 지붕이 곧 무너질 것임을 알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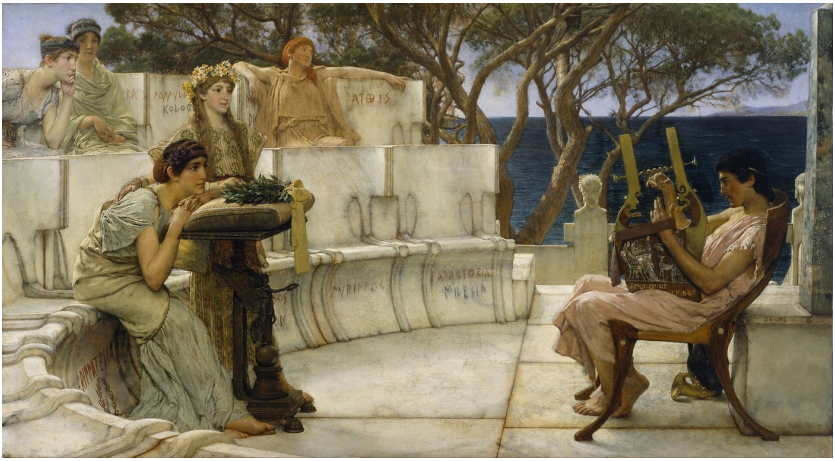
그는 간수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풀어 달라고 요구하며,
그들에게 경고도 했다. 그들은 그의 경고를 받아들여 파멸을
피했고, 멜람포스에게 보상을 주었으며 그를 크게 높였다.

무사이오스는 반(半)신화적 인물로, 한 전승에서는
오르페우스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는 신성한 시와 신탁을
썼다고 전해진다. 밀턴은 자신의 시 「사색하는 사람」에서
무사이오스의 이름을 오르페우스의 이름과 나란히 놓았다:

> “아, 슬픈 처녀여, 그대의 힘이
> 무사이오스를 그 나무 그늘에서 일으킬 수 있다면,
> 또는 오르페우스의 영혼에게 명하여
> 현에 실려 흐르던 그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할 수 있다면,
> 그 노래는 하데스의 뺨에 쇠눈물을 흘리게 했고
> 지옥으로 하여금 사랑이 구하던 것을 내주게 했다.”

제25장

아리온 · 이비코스 · 시모니데스 · 사포



로런스 알마타데마, 「사포와 알카이오스」(1881)

이 장에 나오는 시인들은 실제 인물이었으며, 그들이 남긴 작품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전해진다. 그들이 후대 시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남아 있는 시보다 더 크다. 아래 이야기에 기록된 그들의 모험은 '신화의 시대'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과 같은 근거에 기대고 있다. 곧 그 이야기들을 전한

시인들의 전승이다. 지금의 형태로 보면 앞의 두 이야기는 독일어에서 옮겨졌다. 아리온은 슐레겔의 글에서, 이비코스는 실러의 글에서 옮겼다.

아리온

아리온은 이름난 음악가였으며, 코린토스의 왕 페리안드로스의 궁정에 머물렀다. 그는 왕의 큰 총애를 받았다. 시칠리아에서 음악 경연이 열리게 되었고, 아리온은 상을 놓고 겨루고 싶어 했다. 그는 이 바람을 페리안드로스에게 털어놓았다. 왕은 형제에게 하듯 간곡히 청하며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 “제발 나와 함께 머물며 만족하게. 이기려고 애쓰는 자는 질 수도 있다네.” 아리온이 대답했다. “방랑하는 삶이야말로 시인의 자유로운 마음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신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다른 이들에게 기쁨의 원천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을 타면, 내 명성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느끼며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그는 떠나 상을 타고, 그 재물을 싣고 코린토스 배에 올라 고향으로 향했다. 출항하고 이틀째 아침, 바람은 부드럽고 순조롭게 불었다. “페리안드로스여,” 그가 외쳤다. “두려움은 거두시오! 곧 내 품에서 그 두려움을 잊게 될 것이오. 우리가 신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제물로 감사를 드리고, 잔치 상에서 얼마나 즐겁게 웃겠소!” 바람과 바다는

계속 순조로웠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는 바다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은 믿지 않았어야 했다. 그는 뱃사람들이 서로 넌지시 말을 주고받는 것을 엿들었고, 그들이 그의 재물을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았다. 곧 그들은 큰 소리로 불만을 외치며 그를 에워쌌다. "아리온, 너는 죽어야 한다! 뭍에 무덤이라도 갖고 싶다면 여기서 죽기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라." "내 목숨이 아니면 그대들은 만족하지 못하겠소?" 그가 말했다. "내 금을 가져가시오. 기꺼이 주겠소. 그 값으로 내 목숨을 사겠소." "안 돼, 안 돼. 너를 살려 둘 수는 없다. 네 목숨은 우리에게 너무 위험하다. 네가 우리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페리안드로스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하지? 금을 가진다 해도, 고향에 돌아가서도 두려움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러면," 그가 말했다. "마지막 청을 하나 들어주시오. 내 목숨을 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살아온 것처럼, 시인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죽게 해 주시오. 내가 죽음의 노래를 다 부르고 하프의 줄이 울림을 멈추면, 그때 나는 삶에 작별을 고하고 불평 없이 내 운명에 몸을 맡기겠소." 이 청도 다른 청들과 마찬가지로 무시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전리품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난 음악가의 노래를 듣는 것은 그들의 거친

마음을 움직였다. “내가 옷을 정돈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가 덧붙였다. “시인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폴론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 것이오.”

그는 잘 균형 잡힌 팔다리를 보기 좋은 금빛과 자줏빛 옷으로 감쌌다. 튜닉은 우아한 주름을 지으며 그의 몸을 감쌌고, 팔에는 보석이 장식되었으며, 이마에는 황금 화관이 얹혔다. 목과 어깨 위로는 향기로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왼손에는 리라를 들었고, 오른손에는 줄을 울리는 상아 채를 쥐었다. 영감을 받은 사람처럼 그는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했고,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는 듯했다. 뱃사람들은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배의 난간으로 걸어가 깊고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리라에게 말을 걸듯 노래했다. “나의 목소리의 벗이여, 나와 함께 그림자들의 나라로 가자. 케르베로스가 으르렁거릴지라도, 우리는 노래의 힘이 그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음을 안다. 어두운 강을 건넌 엘리시온의 영웅들이여, 행복한 영혼들이여, 나도 곧 그대들의 무리에 합류하리라. 그렇다 해도 그대들은 내 슬픔을 덜어 줄 수 있는가? 아, 나는 내 벗을 뒤에 남기고 떠난다. 그대, 에우리디케를 찾았다가 찾자마자 다시 잃었던 이여. 그녀가 꿈처럼 사라졌을 때, 그대는 그 명랑한 빛을 얼마나 미워했던가! 나는 떠나야 하지만 두렵지 않다. 신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죄 없는 나를 죽이는 그대들이여,

내가 사라진 뒤 그대들이 떨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 네레이데스여, 자비를 구하며 몸을 던지는 그대들의 손님을 받아 주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깊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파도가 그를 덮었고, 뱃사람들은 발각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며 제 갈 길을 갔다.

하지만 그의 음악 소리는 바닷속 생물들을 불러 모아 귀를 기울이게 했고, 돌고래들은 마치 마법에 묶인 듯 배를 따라왔다. 그가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한 마리 돌고래가 등을 내주어 그를 태우고 무사히 뭍까지 실어 날랐다. 그가 상륙한 자리의 바위 해안에는 훗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청동 기념비가 세워졌다.

아리온과 돌고래가 뭍과 바다로 각자 헤어질 때, 아리온은 이렇게 고마움을 쏟아냈다. "잘 가라, 충직하고 다정한 물고기여! 너에게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고, 나도 너와 함께 갈 수 없구나. 우리는 동행할 수 없다. 바다의 여왕 갈라테이아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그리고 너는 그 짐을 자랑스러워하며 깊은 바다의 매끄러운 거울 위로 그녀의 전차를 끌기를."

아리온은 해안을 서둘러 떠났고, 곧 눈앞에 코린토스의 탑들이 보였다. 그는 하프를 손에 들고 노래하며 길을 걸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잃어버린 것들은 잊었고, 남은 것,

곧 벗과 리라만을 생각했다. 그는 환대하는 궁전에 들어섰고, 이내 페리안드로스의 품에 안겼다. “벗이여, 내가 돌아왔소.” 그가 말했다. “신이 내려 준 재능은 수천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지만, 거짓된 악당들이 내가 정당히 번 보물을 빼앗아 갔소. 그래도 나는 널리 퍼진 명성을 의식하고 있소.”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모두 페리안드로스에게 이야기했다. 페리안드로스는 놀라움에 잠겨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악행이 승리하겠느냐?”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손에 맡겨진 권력도 헛된 것이로다. 범인들을 찾아내려면 그대는 여기서 몸을 숨기고 있어야 하오. 그래야 그들이 의심 없이 다가올 것이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페리안드로스는 선원들을 자기 앞으로 불렀다. “아리온에 대해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노라.” 선원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타렌툼에 그를 두고 올 때 그는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마치자, 아리온이 앞으로 나와 그들과 마주 섰다. 균형 잡힌 그의 팔다리는 보기에 아름다운 금빛과 자줏빛 옷으로 감싸였고, 튜닉은 우아한 주름을 지으며 그를 둘러쌌으며, 팔에는 보석이 빛났고, 이마에는 황금 화관이 씌워져 있었다. 목과 어깨 위로는 향기로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의 왼손에는 리라가, 오른손에는 그 현을 튕기는 상아 채가 들려 있었다. 선원들은 번개에 맞은

듯 그의 발치에 엎드렸다. “우리는 그를 죽이려 했는데, 그는 신이 되었구나. 오 대지여, 열려서 우리를 받아들이라!” 그때 페리안드로스가 말했다. “그는 살아 있다, 노래의 주인이! 자비로운 하늘이 시인의 목숨을 지켜 주셨다. 그대들에 대해서는 복수의 영을 불러내지 않겠다. 아리온은 그대들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 탐욕의 노예들이여, 물러가라! 어떤 야만의 땅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아름다운 무엇도 그대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를!”

스펜서는 아리온이 돌고래 등에 올라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의 행렬을 뒤따르는 모습을 그린다.

> “그때 더없이 천상의 소리가 들려왔으니,
> 그 뒤를 이어 울려 퍼지는 고운 음악이었다.
> 출렁이는 물결 위에 앉은 듯 자리를 잡은 아리온은
> 하프를 타며 그 아름다운 무리의 귀와 마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 그를 등에 태우고 해적들의 눈을 피해 에게해를 건너던 돌고래마저
> 그의 노래에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으니,
> 성난 바다는 온통 기쁨에 겨워 울부짖기를 잊었다.”

바이런은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제2편에서 아리온의 이야기를 암시한다. 항해를 묘사하면서 선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려고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을 그린다.

"달이 떠올랐다. 참으로 아름다운 저녁이로구나! 춤추는 물결 위로 긴 빛의 줄기가 퍼져 나간다. 이제 뭍에 남은 젊은이들은 한숨지을 것이고 처녀들은 믿을 것이다. 우리가 뭍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운명도 그러하기를! 그사이 어떤 투박한 아리온의 쉬지 못하는 손이 선원들이 좋아하는 경쾌한 화음을 깨운다. 즐거운 청중들이 둥글게 둘러서기도 하고, 잘 알려진 가락에 맞춰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 마치 뭍에서 아직도 마음대로 거닐 수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비코스

고대 극장은 만 명에서 삼만 명에 이르는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다는 점을, 아래에 이어지는 이비코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억해야 한다. 극장은 축제 때에만 쓰였고 누구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개 관객으로 가득 찼다. 지붕이 없이 하늘에 열려 있었으며, 공연은 낮에 이루어졌다. 둘째로, 이야기 속

복수의 여신들의 끔찍한 모습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비극 시인 아이스킬로스가 한번은 쉰 명의 배우로 이루어진 합창단으로 복수의 여신들을 표현했는데, 관객들의 공포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이 기절하고 경련을 일으켰으며, 관리들이 이후로 그런 식의 표현을 금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건한 시인 이비코스는 그리스 혈통을 가진 모든 이들이 모이는 코린토스 지협의 전차 경주와 음악 경연에 가는 길이었다. 아폴론은 그에게 노래의 재능과 시인의 꿀 같은 입술을 주었고, 그는 신으로 충만한 채 가벼운 걸음으로 길을 재촉했다. 언덕 위에 왕관처럼 얹힌 코린토스의 탑들이 이미 눈에 들어왔고, 그는 경건한 경외심을 품고 포세이돈의 성스러운 숲으로 들어섰다. 눈에 띄는 살아 있는 것은 없었다. 다만 두루미 떼가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는 길에 그와 같은 방향으로 머리 위를 날고 있을 뿐이었다. “행운이 있기를, 다정한 무리들이여.” 그가 외쳤다. “바다 건너에서 온 나의 동무들이여. 너희의 동행을 좋은 징조로 여기겠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와서 환대를 찾아 날아가고 있다. 우리 둘 모두 이방인 손님을 해로부터 지켜 주는 그 따뜻한 환대를 받기를!”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걸었고, 곧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다. 그때 좁은 골짜기 길에서 강도 두 명이 갑자기 나타나 그의 길을 막았다. 그는 굴복하거나 싸워야 했다. 그러나 리라에는 익숙하지만 무기로 다투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사람과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의 외침은 어떤 수호자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그가 말했다. "낯선 땅에서, 아무도 애도하지 않은 채, 무법자의 손에 베여, 나의 원한을 갚아 줄 이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는 심하게 상처를 입고 땅에 쓰러졌다. 그때 머리 위에서 두루미들이 쉰 목소리로 울었다. "너희 두루미들이여, 내 원한을 맡아 다오," 그가 말했다. "나의 외침에 너희의 목소리 말고는 응답하는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다.

시신은 약탈당하고 난도질당한 채 발견되었다. 상처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코린토스에서 손님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알아보았다. "이렇게 당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까?" 그가 외쳤다. "노래 경연에서 승리의 화관으로 당신의 관자놀이를 장식하리라 바랐던 내가 말입니다!"

축제에 모인 손님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리스 전역이 상처를 느꼈고, 모든 이가 그 상실을 가슴 아파했다. 그들은 재판관들의 법정 주위로 몰려들어 살인자들에게 복수를 요구하고, 그 피로 속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축제의 화려함에 끌려 모여든 거대한 무리 가운데서 범인을 가리킬 흔적이나 표시는 무엇인가? 그는 강도의 손에 쓰러졌는가, 아니면 어떤 사적인 원수가 그를 죽였는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태양만이 알 수 있다. 다른 눈은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인자는 지금도 군중 한가운데를 걸으며 자신의 범죄가 가져다준 열매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복수는 그를 찾아 헛되이 헤매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바로 지금 원형극장으로 밀려드는 이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그들 사이에 자유로이 섞여 든 채 신들 자신의 신전 경내에서 그 신들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사람들이 줄지어 빽빽이 모여 앉아, 극장 건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다. 웅성이는 목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둥근 열들은 하늘에 닿으려는 듯 층층이 솟아오른다.

이제 그 거대한 무리는 복수의 여신들을 연기하는 합창단의 무시무시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합창단은 엄숙한 차림으로 재어 놓은 듯한 걸음을 옮기며 극장의 둥근 통로를

따라 나아간다. 저 무서운 무리를 이루는 이들이 정말 죽을 운명의 여인들인가? 말없이 앉아 있는 저 광대한 군중이 정말 살아 있는 존재들인가?

합창단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살이 없는 손에 송진처럼 검은 불꽃이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뺨에는 핏기가 없었고, 머리카락 대신 꿈틀거리며 부풀어 오르는 뱀들이 이마를 휘감고 있었다.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은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죄인들의 가슴을 찢고 그들의 모든 능력을 옭아맸다. 노랫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커져서 악기 소리를 덮어 버렸고, 판단력을 빼앗고, 심장을 마비시키고, 피를 엉기게 했다.

"행복하여라, 죄와 범죄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지켜 온 사람은! 우리 복수의 여신들은 그에게 손대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삶의 길을 안전하게 걷는다. 그러나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남몰래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밤의 두려운 가문인 우리가 그의 존재 전체에 달라붙는다. 달아나서 우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추격하며 더욱 빨리 날아가, 우리의 뱀들을 그의 발에 휘감아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린다. 지치지 않고 우리는 쫓는다. 어떤 연민도 우리의 행로를 막지 못한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삶의 끝까지, 우리는 그에게 평안도

휴식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에우메니데스가 노래했고,
엄숙한 박자에 맞춰 움직였다. 초인적인 존재들이 그 자리에
있는 듯, 온 집회 위로 죽음과 같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엄숙한 행진으로 극장을 한 바퀴 돌고,
무대 뒤편으로 빠져나갔다.

모든 가슴이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떨렸고, 모든 가슴이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에 숨을 헐떡였다. 은밀한 죄를
지켜보고 보이지 않게 운명의 실타래를 감는 그 무서운 힘
앞에서 사람들은 움츠러들었다. 바로 그 순간 맨 위쪽 관람석
가운데 한 곳에서 외침이 터졌다. “보라! 보라, 동무여, 저기
이비코스의 두루미들이다!” 그러자 하늘을 가로질러 검은
무리가 미끄러지듯 날아왔고, 잠깐 살펴보니 그것은 극장
바로 위를 날아가는 두루미 떼였다. “이비코스의
두루미라고? 그렇게 말했나?” 그 사랑받던 이름이 모든
가슴에 슬픔을 되살렸다. 바다 위로 물결이 물결을 따르듯,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다. “이비코스다! 우리 모두가
애도하는 사람, 어떤 살인자의 손에 쓰러진 바로 그 사람!
두루미들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목소리의
물결은 점점 높아졌다. 번개가 번쩍이듯 한 생각이 모든
마음을 스쳐 갔다. “보라, 에우메니데스의 힘을! 경건한
시인의 원수는 갚아지리라! 살인자가 스스로를 고발했다. 그
외침을 낸 자와 그가 말을 건넨 다른 자를 잡아라!”

범인은 그 말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기꺼이 되돌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공포로 창백해진 살인자들의 얼굴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갔고,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

시모니데스

시모니데스는 그리스의 초기 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시인 가운데 하나였으나, 그의 작품 중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몇 편의 단편뿐이다. 그는 찬가와 승리의 송가, 그리고 만가(挽歌)를 지었다. 마지막 갈래에서 그는 특히 뛰어났다. 그의 재능은 애처로운 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인간의 공감의 현을 그보다 더 진실하게 울릴 수 있는 시인은 없었다. 남아 있는 그의 시 단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나에의 탄식」은 다음과 같은 전승에 바탕을 둔다. 다나에와 그녀의 젖먹이 아들은 그녀의 아버지 아크리시오스의 명령으로 궤짝에 갇혀 바다에 띄워졌다. 궤짝은 세리포스 섬 쪽으로 떠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부 딕티스가 두 사람을 건져 그 나라의 왕 폴리덱테스에게 데려갔고, 왕은 그들을 받아들여 보호하였다. 아이 페르세우스는 자라서 유명한 영웅이 되었으니, 그의 모험은 앞 장에 기록되어 있다.

시모니데스는 생애의 많은 부분을 군주들의 궁정에서 보냈고, 자신이 업적을 찬양해 준 이들에게서 후한 보상을 받으며 찬양의 송가와 축제의 노래에 재능을 자주 쏟았다. 이 일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었고, 호메로스가 묘사한 데모도코스 같은 가장 이른 시절의 음유시인들, 또는 전승이 기록하는 대로의 호메로스 자신이 하던 일과 매우 닮아 있었다.

어느 때 시모니데스는 테살리아의 왕 스코파스의 궁정에 머물고 있었는데, 왕은 그에게 연회에서 낭송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적을 기리는 시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주제를 다채롭게 하려고, 경건함으로 이름 높았던 시모니데스는 시에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의 행적을 끼워 넣었다. 이런 곁가지는 비슷한 자리에서 지은 시인들에게 드물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레다의 아들들과 찬사를 나누어 가지는 데 만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영은 까다롭다. 스코파스는 신하들과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연회석에 앉아 있다가, 자신을 칭송하지 않는 구절이 있을 때마다 아까워했다. 시모니데스가 약속된 보상을 받으려고 다가가자, 스코파스는 기대했던 금액의 절반만 내주며 말했다. “여기 그대가 내 몫으로 지은 시에 대한 값이 있소. 그대가 저 두 신에 관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가 분명 보상해 줄 것이오.” 당황한 시인은

위대한 사람이 던진 농담 뒤에 터져 나온 웃음소리 속에서 자리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전갈이 왔다. 말을 탄 두 젊은이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그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시모니데스는 서둘러 문으로 갔지만, 방문객들은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연회장을 나서자마자 지붕이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려, 스코파스와 그의 모든 손님들을 잔해 아래에 묻어 버렸다. 시모니데스가 자신을 불렀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자, 그는 그들이 다름 아닌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자신들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포

사포는 그리스 문학의 매우 이른 시기에 활약한 여류 시인이다. 그의 작품은 남은 것이 거의 없고 단편 몇 편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뛰어난 시적 재능을 지녔음을 충분히 보여 준다. 사포에 관해 흔히 언급되는 이야기는 그가 파온이라는 아름다운 청년을 열렬히 사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하자, 그는 레우카디아 곶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다. 이른바 '연인의 도약'을 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면 사랑의 병에서 낫는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바이런은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제2편에서 사포의 이야기를 언급한다:

"차일드 해럴드는 항해하며 황량한 곳을 지났다. 슬픈 페넬로페가 파도를 내려다보던 곳이다. 그리고 그는 아직 잊히지 않은 산을 바라보았다. 연인들의 피난처이자 레스보스 여인의 무덤이었다. 어두운 사포여! 불멸의 시조차 그토록 불멸의 불꽃이 깃든 그 가슴을 구하지 못했던가?"

"그리스의 가을날 부드러운 저녁이었다. 차일드 해럴드는 멀리 레우카디아의 곶을 발견하고 환호했다……"

사포와 그녀의 "도약"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는 『스펙테이터』 제223호와 제229호를 읽어 보라. 무어의 『그리스에서의 저녁들』도 함께 보면 좋다.

제26장

엔디미온 · 오리온 · 에오스와 티토노스 · 아키스와 갈라테이아



클로드 로랭, 「아키스와 갈라테이아가 있는 풍경」(1657)

아르테미스와 엔디미온

엔디미온은 라트모스 산에서 양 떼를 치는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어느 고요하고 맑은 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잠들어 있는 그를 보았다. 처녀 여신의 차가운 마음은 그의 뛰어난 아름다움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내려와 입을 맞추고, 그가 잠든 동안 곁을 지켰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제우스는 엔디미온에게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잠을 함께 주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이에게는 기록할 만한 모험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르테미스는 그가 잠만 자며 지내는 탓에 살림이 기우는 일이 없도록 돌보았다고 전한다. 그녀는 그의 양 떼를 불려 주었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과 어린 양을 지켜 주었다.

엔디미온 이야기에는 그 얇은 베일 뒤에 숨은 인간의 뜻에서 나오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우리는 엔디미온에게서 젊은 시인을 본다. 그의 상상과 마음은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을 헛되이 찾고 있다. 그는 고요한 달빛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발견하고, 말없이 빛나는 증인의 광선 아래에서 자신을 태우는 우울과 열정을 키운다. 이 이야기는 높은 곳을 동경하는 시적인 사랑,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보낸 삶, 그리고 이르지만 반가운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에스 지 비

키츠의 『엔디미온』은 자유분방하고 환상적인 시로, 다음과 같은 달에 바치는 뛰어난 시구도 담겨 있다:

"… 잠든 소들은 그대의 빛 속에 누워 신성한 들판을 꿈꾸고,
셀 수 없는 산들이 솟고 또 솟는다, 그대의 눈길로
성스러워지기를 열망하며. 그럼에도 그대의 축복은 하나의
외진 숨은 곳도, 기쁨이 닿을 수 있는 작은 한 점도 빠뜨리지
않으니, 둥지에 깃든 굴뚝새도 고요한 시야 안에서 그대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본다;" 등등, 등등.

영 박사는 『밤의 명상』에서 엔디미온을 이렇게 암시한다:

"… 오 밤이여, 이 생각들은 그대의 것이니; 다른 이들이 잠든
동안, 연인의 은밀한 한숨처럼 그대에게서 흘러나왔도다.
그처럼 시인들이 꾸며 말하기를, 킨티아는 그늘에 싸인 채
부드럽게 자기 궤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그녀에게 빠진
정도가 내가 그대에게 빠진 것보다 덜한 목동을 위로했다고
하노라."

플레처는 『충실한 목동녀』에서 이렇게 말한다:

"창백한 포이베가 숲속에서 사냥하다가 처음 소년
엔디미온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영원한
불을 옮겨 받았던 일; 그녀가 잠든 그를 부드럽게 옮겨,
관자놀이를 양귀비로 감싼 채 늙은 라트모스의 가파른

정상에 눕혔던 일, 그녀는 밤마다 그곳으로 내려와
오라버니의 빛으로 산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입 맞추곤 했다."

오리온

오리온은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다. 그는 잘생긴 거인이자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바다의 깊은 곳을
헤치고 다닐 힘을 주었는데, 다른 이들의 말에 따르면 바다의
표면 위를 걸을 힘을 주었다고도 한다.

오리온은 키오스의 왕 오이노피온의 딸 메로페를 사랑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였다. 그는 섬에서 맹수들을
몰아냈고,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연인에게 선물로 바쳤다.
그러나 오이노피온은 계속 승낙을 미루었고, 오리온은 결국
힘으로 그 처녀를 차지하려 하였다. 이 행동에 분노한
아버지는 오리온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바닷가에 내던졌다. 눈먼 영웅은 키클롭스가
망치질하는 소리를 따라 렘노스에 이르렀고,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 닿았다. 헤파이스토스는 그를 가엾게 여겨,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인 케달리온을 붙여 태양이 사는 곳까지

안내하도록 하였다. 오리온은 케달리온을 어깨에 태우고 동쪽으로 나아갔으며, 그곳에서 태양신을 만나 그의 빛살을 받고 다시 눈을 떴다.

이후 오리온은 아르테미스와 함께 사냥꾼으로 지냈고, 그녀의 총애를 받았다. 그녀가 그와 혼인하려 했다는 말까지 전해진다. 그녀의 오빠는 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 자주 누이를 꾸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아폴론은 오리온이 머리만 물 위에 내놓은 채 바다를 헤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이에게 그것을 가리켜 보이면서 바다 위의 저 검은 것을 그녀가 맞힐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궁수인 여신은 치명적인 정확도로 화살을 쏘았다. 파도는 죽은 오리온의 몸을 뭍으로 밀어 올렸고, 아르테미스는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두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끝에 그를 별들 사이에 올렸다. 그는 허리띠와 칼, 사자 가죽, 곤봉을 든 거인의 모습으로 거기 나타난다. 그의 사냥개 시리우스가 그를 뒤따르고, 플레이아데스는 그 앞에서 달아난다.

플레이아데스는 아틀라스의 딸들로,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요정들이었다. 어느 날 오리온이 그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그들을 쫓았다. 궁지에 몰린 그녀들이 신들에게 모습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자, 제우스가 가엾이 여겨 그들을

비둘기로 만들었고, 그 뒤 하늘에 별자리로 놓았다. 그녀들의 수는 일곱이지만 보이는 별은 여섯뿐이다. 전하는 바로는 그중 하나인 엘렉트라가 트로이아가 무너지는 꼴을 보지 않으려고 제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그 도시를 세운 것이 그녀의 아들 다르다노스였기 때문이다. 그 광경이 그녀의 자매들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주어, 그 뒤로 그들은 창백하게 보인다.

롱펠로 씨에게는 「오리온의 가려짐」이라는 시가 있다. 다음 구절은 그가 이 신화 이야기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먼저 짚어 둘 것이 있다. 천구의에서 오리온은 사자 가죽을 두르고 곤봉을 든 모습으로 그려진다. 별자리의 별들이 하나씩 달빛에 잠겨 꺼져 갈 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떨어졌다, 사자의 붉은 가죽이 발치의 강물 속으로. 그의 거대한 곤봉은 더는 황소의 이마를 치지 않았다. 그는 옛날처럼 바닷가에서 비틀거렸다. 오이노피온에게 눈이 멀자, 그는 대장간의 대장장이를 찾아갔고, 좁은 골짜기를 기어올라 텅 빈 눈을 태양에 고정했다."

테니슨은 플레이아데스에 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밤, 나는 부드러운 그늘 사이로 떠오르는
플레이아데스가 은빛 땋은 머리 속에 얽힌 반딧불이 떼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 「록슬리 홀」

바이런은 잃어버린 플레이아스를 암시한다:

“아래 세상에서는 더는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플레이아스처럼.”

이 주제에 대한 헤먼스 부인의 시도 함께 보라.

에오스와 티토노스

새벽의 여신은 자매인 달의 여신처럼 때때로 인간을
사랑하곤 했다. 그녀가 가장 아낀 이는 트로이아의 왕
라오메돈의 아들 티토노스였다. 그녀는 그를 납치하여
제우스에게 청해 불사의 생명을 얻게 해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생명과 함께 젊음도 주도록 하는 것을 잊고 말았다.
얼마 지나자 그녀는 그가 늙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그녀에게는 몹시 속상한 일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게 세었을 때 그녀는 그와의 교제를 끊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의 궁전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신들의 음식을 먹으며 천상의 옷을 입고 지냈다. 마침내 그는

사지를 움직이는 힘마저 잃었고, 그러자 그녀는 그를 그의 방에 가두었다. 그곳에서 그의 힘없는 목소리가 때때로 들려오곤 했다. 결국 그녀는 그를 베짱이로 바꾸어 버렸다.

멤논은 에오스와 티토노스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이티오피아인의 왕이었고, 동쪽 끝, 오케아노스의 해안에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친족을 돕기 위해 전사들을 이끌고 트로이아 전쟁에 왔다. 프리아모스 왕은 그를 크게 환대했고, 대양 해안의 놀라운 것들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감탄하며 들었다.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멤논은 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나섰다. 네스토르의 용감한 아들 안틸로코스가 그의 손에 쓰러졌고, 그리스군은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때 아킬레우스가 나타나 싸움을 되돌렸다. 그와 에오스의 아들 사이에는 길고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이 이어졌다. 마침내 승리는 아킬레우스에게 돌아갔고, 멤논은 쓰러졌으며, 트로이아인들은 놀라 흩어져 달아났다.

하늘에서 아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걱정스레 지켜보던 에오스는, 아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바람의 신인 그의 형제들에게 명하여 그의 시신을 파플라고니아의 에세포스 강가로 옮기게 하였다. 저녁이 되자 에오스는 계절의 여신들과 플레이아데스를 거느리고 와서 아들을 위해 울며

애도하였다. 밤의 여신도 그 슬픔에 공감하여 하늘을 구름으로 덮었다. 세상 만물이 새벽의 아들을 위해 함께 슬퍼하였다. 아이티오피아인들은 님프들의 숲, 강가에 그의 무덤을 세웠다. 제우스는 그의 장작더미에서 튀어 오른 불꽃과 재를 새들로 바꾸었는데, 그 새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장작더미 위에서 서로 싸우다가 마침내 불길 속으로 떨어졌다. 그 뒤로 매년 멤논이 죽은 날이 돌아오면 새들은 다시 와서 같은 방식으로 그의 장례를 치른다. 에오스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직도 달래지 못하고 있다. 그녀의 눈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 이른 아침이면 풀잎 위의 이슬방울로 볼 수 있다.

고대 신화의 기이한 일들 대부분과 달리, 이 일에 관해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기념물이 있다. 이집트의 나일강 기슭에는 거대한 조상(彫像) 두 개가 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멤논의 상이라고 한다. 고대의 작가들은 떠오르는 해의 첫 햇살이 이 상에 닿으면 그 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기록하였다. 그들은 그 소리를 하프의 줄이 끊어지는 소리에 견주었다. 지금 남아 있는 조상이 고대인들이 묘사한 바로 그 상인지는 의심스럽고, 그 신비한 소리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린다고 증언하는 근대의 기록이 없지는 않다. 바위의 틈이나 동굴에서 갇혀 있던 공기가 빠져나오며 내는 소리가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최근의 여행가로서 더없이 권위 있는 가드너 윌킨슨 경은 그 조상을 직접 살펴보고, 속이 비어 있으며 "상의 무릎 부분에 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두드리면 금속성의 소리가 나서, 그 힘을 믿으려는 마음이 이미 있는 방문객을 여전히 속이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인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노래하는 멤논의 상이다. 다윈은 그의 『식물원』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멤논의 신전에서 성스러운 태양을 향해 / 저절로 어우러진 화음들이 아침의 노래를 합창했다; / 동녘의 햇살에 닿자 살아 있는 리라가 / 응답하며 울리고 그 모든 줄을 떨게 했다; / 조화로운 회랑은 그 여린 음들을 길게 이어 주고, / 성스러운 메아리가 경배의 노래를 부풀게 했다."

제1권 182행.

아키스와 갈라테이아

스킬라는 시칠리아의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바다 요정들의 총애를 받았다. 그녀에게는 구혼자가 많았지만 그녀는 모두를 물리쳤고, 갈라테이아의 동굴로 찾아가 자신이 어떻게 시달림을 받는지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날 여신은

스킬라가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도 처녀여, 그대를 괴롭히는 자들은 그나마 점잖은 편인 인간 남자들이니, 그대가 원한다면 물리칠 수 있소. 하지만 나는 네레우스의 딸로서 이렇게 많은 자매들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키클롭스의 열정에서 벗어날 길은 바다 깊은 곳밖에 없었소.” 그러면서 눈물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측은히 여긴 처녀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 주고 여신을 달래며 말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슬픔의 까닭을 내게 말해 주오.” 그러자 갈라테이아가 말했다. “아키스는 파우누스와 나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몹시 아꼈지만, 그들의 사랑도 내 사랑만큼 깊지는 않았소. 아름다운 청년은 오직 나에게만 마음을 쏟았고, 그는 막 열여섯 살이 되어 뺨에 솜털이 막 거뭇거뭇 돋기 시작했소. 내가 그의 곁을 얼마나 찾았든, 키클롭스는 내 곁을 그만큼 찾았소. 그대가 내게 묻는다면, 내가 아키스를 사랑하는 마음과 폴리페모스를 미워하는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강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소. 둘은 똑같았으니까. 오, 아프로디테여, 그대의 힘은 얼마나 큰가! 숲의 공포였던 이 사나운 거인, 어떤 불운한 나그네도 상처 없이 빠져나가지 못했던 이 자, 제우스 그 자신에게도 맞섰던 자가, 사랑이란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고, 나를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자기 양떼와 풍요로운 동굴들을 잊고

말았소. 그때 처음으로 그는 자기 외모에 조금이나마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남에게 호감을 주려고 애썼소. 그 거친 머리털을 빗으로 빗었고, 낫으로 수염을 베었으며, 물에 비친 자기 험상궂은 얼굴을 들여다보고 표정을 가다듬었소. 살육을 좋아하던 마음, 그 사나움과 피에 대한 갈증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고, 그의 섬에 닿은 배들은 무사히 떠날 수 있었소. 그는 바닷가를 이리저리 거닐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대한 발자국을 남겼고, 지치면 동굴에 누워 편안히 쉬었소."

"바다로 튀어나온 절벽이 있는데, 그 양옆을 바닷물이 씻어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 거대한 키클롭스가 그곳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 사이 양떼는 그의 둘레로 흩어졌다. 그는 배의 돛을 떠받치는 돛대로 쓰일 만한 지팡이를 내려놓고, 여러 개의 관을 이어 만든 악기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노래 소리로 언덕과 바다가 메아리치게 했다. 나는 사랑하는 아키스의 곁, 바위 밑에 숨어 멀리서 들려오는 그 가락을 들었다. 노래에는 나의 아름다움을 터무니없이 칭송하는 말이 가득했고, 그 사이사이에 나의 냉담함과 잔인함을 원망하는 열정적인 탄식이 섞여 있었다."

그가 노래를 마치고 일어나더니,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난 황소처럼 숲속으로 어슬렁어슬렁 사라졌다. 아키스와 나는 그를 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우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이르렀다. "너희를 보았다." 그가 소리쳤다. "이것을 너희가 만나는 마지막 밀회로 만들어 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화난 키클롭스만이 낼 수 있는 포효였다. 아이트나 산이 그 소리에 떨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아키스는 몸을 돌려 달아나며 외쳤다. "갈라테이아, 나를 구해 줘, 나를 구해 줘요, 부모님!" 키클롭스는 그를 쫓아가더니 산비탈에서 바위를 뜯어내 그에게 던졌다. 바위의 한 귀퉁이만 그에게 닿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는 바위에 깔려 버렸다.

"운명이 나에게 남겨 준 힘으로 나는 아키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나는 그에게 할아버지인 강의 신의 영예를 내려 주었다. 자줏빛 피가 바위 밑에서 흘러나왔지만, 차츰 옅어지더니 비에 흐려진 강물처럼 보이다가 이윽고 맑아졌다. 바위가 갈라지고, 그 틈에서 콸콸 솟아나는 물은 듣기 좋은 졸졸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렇게 아키스는 강으로 변했고, 그 강은 지금도 아키스라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드라이든은 「사이먼과 이피게네이아」에서 사랑의 힘으로 촌뜨기가 신사로 바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에는 갈라테이아와 키클롭스의 옛 이야기와 맞닿은 흔적이 보인다.

"아버지의 보살핌도 가정교사의 기술도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에 애써 심어 주지 못한 것을, 가장 훌륭한 스승인 사랑이 한순간에 깨우쳐 주었다. 메마른 땅이 불꽃에 달아올라 열매를 맺게 되듯이. 사랑은 그에게 수치심을 가르쳤고, 수치심은 사랑과 다투면서 곧 삶의 다정한 예절을 가르쳤다."

제27장

트로이아 전쟁



자크루이 다비드, 「아킬레우스의 분노」(1819)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었지만, 한 번은 아주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그녀는 아름다움의 상을 놓고 헤라, 아프로디테와 경쟁에 나섰다. 일은 이렇게 벌어졌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혼례에 모든 신이 초대되었지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빠졌다. 그 배제에 화가 난 여신은 손님들 사이에 황금 사과

한 알을 던졌는데, 거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자 헤라와 아프로디테와 아테나가 저마다 그 사과를 차지하겠다고 나섰다. 제우스는 이처럼 민감한 문제에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를 원치 않아, 여신들을 이다 산으로 보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목동 파리스가 양 떼를 치고 있었고, 판정은 그에게 맡겨졌다. 여신들은 그 앞에 나타났다. 헤라는 권력과 부를 약속했고,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영광과 명성을, 아프로디테는 여자들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세 여신은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판단을 기울이려 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편을 들어 그녀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고, 그리하여 다른 두 여신을 적으로 만들었다. 아프로디테의 보호를 받으며 파리스는 그리스로 항해했고,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그런데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야말로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위해 정해 둔, 그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많은 구혼자들이 그녀를 신부로 원했고, 그녀의 선택이 알려지기 전에 구혼자들은 모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오디세우스의 제안에 따라, 그녀를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키고 필요하면 그녀의 억울함을 갚아 주겠다고 맹세했다. 헬레네는 메넬라오스를 택했고, 파리스가 손님으로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은 파리스는 헬레네를 설득해 함께 달아나게 했고, 그녀를 트로이아로 데려갔다. 이 일로 유명한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 전쟁은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시라는 고대 최고의 작품들의 주제가 되었다.

메넬라오스는 그리스의 다른 족장들에게 서약을 지키라고 요청하며, 아내를 되찾으려는 자신의 노력에 함께해 달라고 청했다. 대개의 족장들은 앞으로 나섰지만, 페넬로페와 혼인하여 아내와 아이를 끔찍이 아끼며 행복하게 살던 오디세우스는 그처럼 성가신 일에 뛰어들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며 뒤로 물러섰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팔라메데스가 보내졌다. 팔라메데스가 이타카에 도착하자 오디세우스는 미친 척했다. 그는 소와 당나귀를 한 멍에에 묶어 쟁기를 끌게 하고는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팔라메데스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어린 텔레마코스를 쟁기 앞에 눕혔다. 그러자 아버지는 쟁기를 옆으로 비껴 돌렸고, 자신이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 뒤로 그는 더는 약속을 지키기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제 그 자신이 이 일에 나서게 되자, 그는 마지못해 하던 다른 족장들을 끌어들이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아킬레우스를 데려오려 애썼다. 이 영웅은 바로 여신들 사이에 불화의 사과가 던져졌던 그 혼례의 주인공, 테티스의 아들이었다. 테티스

자신도 바다의 님프로서 불멸하는 존재였는데, 아들이 원정길에 오르면 트로이아 앞에서 죽을 운명임을 알고 그가 떠나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 그녀는 아들을 리코메데스 왕의 궁정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왕의 딸들 사이에 처녀로 변장하여 숨어 지내도록 아들을 설득했다.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인으로 변장하여 궁전을 찾아갔다. 그는 여성용 장신구를 팔러 왔다고 하며 그 사이에 무기를 몇 점 섞어 놓았다. 왕의 딸들이 상인의 물건 가운데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아킬레우스는 무기를 집어 들었고,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고 말았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오디세우스는 그의 정체를 알아보았고, 그를 설득하여 어머니의 신중한 충고를 저버리고 동포들과 함께 전쟁에 나서게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프리아모스는 트로이아의 왕이었고, 양치기이자 헬레네를 유혹한 파리스는 그의 아들이었다. 파리스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자랐다. 그 예언은 이제 마침내 실현될 듯 보였다. 지금 준비 중인 그리스 원정군은 지금까지 꾸려진 어느 원정군보다 큰 규모였기 때문이다. 미케네의 왕이자 억울한 일을 당한 메넬라오스의 형인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으로 뽑혔다. 아킬레우스는 그들의 가장 뛰어난 전사였다. 그 뒤를 이어 몸집이 거대하고 용기가

대단하나 머리는 둔한 아이아스, 영웅다운 모든 자질에서 아킬레우스 다음가는 디오메데스, 지혜로 이름난 오디세우스, 그리스 족장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아 모두가 조언을 구하며 우러러보는 네스토르가 있었다. 그러나 트로이아는 약한 적이 아니었다. 왕 프리아모스는 이제 늙었지만 지혜로운 군주였고, 나라 안에서는 훌륭한 통치로, 이웃 나라들과는 많은 동맹으로 나라를 강하게 다져 놓았다. 그러나 그의 왕좌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자 버팀목은 그의 아들 헥토르였다. 그는 고대 이교 세계가 그려 낸 가장 고결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헥토르는 처음부터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감을 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영웅다운 저항을 끝까지 이어 갔다. 다만 그는 이 위험을 불러온 잘못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았다. 그는 안드로마케와 혼인하였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그의 성품은 전사로서의 모습만큼이나 훌륭했다. 헥토르 말고도 트로이아 편의 주요 지도자는 아이네이아스와 데이포보스, 글라우코스와 사르페돈이었다.

2년 동안 준비를 마친 그리스 함대와 군대는 보이오티아의 항구 아울리스에 모였다. 여기서 아가멤논이 사냥을 하다가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사슴을 죽였다. 그러자 여신은 그 대가로 군대에 역병을 내렸고, 배들이 항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바람을 잠재웠다. 그러자 예언자 칼카스가, 처녀

여신의 노여움은 처녀를 여신의 제단에 바쳐야만 달랠 수 있으며, 죄를 지은 자의 딸이 아니면 어떤 처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였다. 아가멤논은 내키지 않았지만 마침내 승낙하였고, 소녀 이피게네이아를 아킬레우스와 혼인시키려는 것처럼 꾸며 불러들였다. 그녀가 제물로 바쳐지려는 순간 여신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녀를 낚아채 갔으며, 그 자리에는 암사슴을 남겨 두었다. 이피게네이아는 구름에 싸인 채 타우리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아르테미스는 그녀를 자신의 신전의 사제로 삼았다.

테니슨은 「아름다운 여인들의 꿈」에서 이피게네이아가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자신이 느낀 감정을 이렇게 묘사한다:

"나는 그 슬픈 곳에서 희망으로부터 끊겨 있었다. 그곳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내 영혼은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눈물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말하려 애썼다. 목소리는 한숨에 막혀 꿈속에서처럼 탁했다. 희미하게나마 나는 보았다, 검은 수염을 기른 엄격한 왕들이 늑대 같은 눈으로 내가 죽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물 위에 뜬 높은 돛대들이 떨렸다, 신전들과 사람들과 해안도. 한 사람이 날카로운 칼을 내 여린 목에 천천히 긋고 있었다, 그리고—그뿐이었다.”

바람이 이제 순풍이 되자 함대는 돛을 올리고 군대를 트로이아의 해안으로 실어 날랐다. 트로이아인들은 그들의 상륙을 막으러 왔고, 첫 번째 접전에서 프로테실라오스가 헥토르의 손에 쓰러졌다. 프로테실라오스는 고향에 아내 라오다메이아를 두고 왔는데, 그녀는 그를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이 그녀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신들에게 그와 단 세 시간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 청은 받아들여졌다. 헤르메스가 프로테실라오스를 다시 윗세계로 데려왔고, 그가 두 번째로 죽자 라오다메이아도 그와 함께 죽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님프들이 그의 무덤 둘레에 느릅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들은 트로이아가 내려다보일 만큼 자랄 때까지 잘 자랐고, 그러고 나서 시들었으며, 그동안 뿌리에서는 새 가지가 돋아났다고 한다.

워즈워스는 프로테실라오스와 라오다메이아의 이야기를 한 편의 시에 담았다. 신탁은 전쟁에서 맨 처음 희생자를 낸 쪽이 승리를 차지하리라고 선언했던 모양이다. 시인은 프로테실라오스가 잠시 땅으로 돌아와 라오다메이아에게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으로 그린다:

"바라던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나는 고요한 바다 위에서 그 신탁을 되새겼다. 더 가치 있는 이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천 척의 배 가운데 내 배가 해안에 가장 먼저 뱃머리를 대리라고, 내 피가 트로이아의 모래를 가장 먼저 물들이리라고 나는 결심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여, 그대를 잃게 될 일을 떠올릴 때마다 쓰라림이 얼마나 자주 나를 찔렀던가! 내 기억은 그대에게 지나치게 깊이 매달렸고,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함께 나누던 기쁨들에도 매달렸다. 우리가 함께 걷던 길들, 이 샘들과 꽃들, 내가 새로 구상했던 도시들과 아직 끝내지 못한 탑들에도."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적이 소리치기라도 한다면, "보라, 저들이 떨고 있다! 대열은 오만하나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마음속으로 그 모욕을 떨쳐 냈다. 그러자 옛 나약함이 되살아났지만, 높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 나를 구해 냈다.'"

"… 헬레스폰토스 해협 기슭, 여인이 목숨을 바친 그 남자의 무덤에서 뾰족한 나무 한 무리가 여러 세월 동안 자라났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나무가 자라서 키가 일리오스의 성벽이 눈에 들어올 만큼 커질 때마다, 나무의 높은 꼭대기는 그 광경을 보고 시들었다. 자람과 시듦이 끊임없이 번갈아 일어났다!"

『일리아스』

전쟁은 아홉 해 동안 이렇다 할 결판 없이 이어졌다. 그러다 그리스 쪽의 대의를 치명적으로 위태롭게 할 듯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사이의 다툼이었다. 호메로스의 위대한 시 『일리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아를 상대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트로이아와 이웃한 동맹 도시들을 차지했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때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의 딸 크리세이스라는 여자 포로가 아가멤논의 몫으로 돌아갔다. 크리세스는 사제의 신성한 표지를 들고 찾아와 딸을 풀어 달라고 간청했다. 아가멤논은 거절했다. 그러자 크리세스는 그리스인들이 전리품을 내놓을 때까지 아폴론이 그들을 괴롭혀 달라고 빌었다. 아폴론은 사제의 기도를 들어주어 그리스 진영에 역병을 내렸다. 이에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고 재앙을 막을 방도를 논의하려고 회의가 소집되었다.

아킬레우스는 그들의 불행이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를 내주지 않은 탓이라고 거침없이 지적했다. 아가멤논은 화를 내며 포로를 내놓기로 했지만, 대신 아킬레우스가 전리품을 나눌 때 차지한 처녀 브리세이스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아킬레우스는 따랐으나, 즉시 이후로는 전쟁에 더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병력을 공동 진영에서 빼내고, 그리스로 돌아갈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이 유명한 전쟁에는 당사자들만큼이나 신들도 열심히 관여하였다. 신들은 적들이 끝까지 버티고 스스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트로이아가 결국 무너지도록 운명이 정해 놓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연이 끼어들 여지는 남아 있어서, 어느 한쪽을 편든 위의 신들은 번갈아 희망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파리스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업신여긴 일 때문에 헤라와 아테나는 트로이아인에게 적대적이었다. 아프로디테는 그와 반대되는 이유로 트로이아 편을 들었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을 흠모하는 아레스를 같은 편에 끌어들였으나, 포세이돈은 그리스인을 도왔다. 아폴론은 중립을 지켜, 때로는 이쪽을, 때로는 저쪽을 편들었다. 제우스 자신은 선량한 왕 프리아모스를 사랑했지만 어느 정도 공평함을 지켰다. 다만 그 공평함에도 예외가 없지는 않았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이 입은 부당한 대우에 크게 분노하였다. 그녀는 곧장 제우스의 궁전으로 가서, 트로이아인에게 승리를 안겨 줌으로써 그리스인이 아킬레우스에게 저지른 부당함을 뉘우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제우스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어진 전투에서 트로이아인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스인은 들판에서 쫓겨나 자신들의 배 곁으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아가멤논은 가장 현명하고 용맹한 장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네스토르는 아킬레우스에게 사절을 보내 다시 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아가멤논이 다툼의 원인이 된 소녀를 돌려주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갚을 만큼 넉넉한 선물도 함께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가멤논은 이를 받아들였고, 뉘우치는 뜻을 담은 말을 전하기 위해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와 포이닉스를 보냈다. 세 사람은 그 임무를 다하였으나, 아킬레우스는 그들의 간청에 귀를 막았다. 그는 전장으로 돌아가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지체하지 않고 그리스로 배를 띄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스인들은 함선 둘레에 방벽을 쌓았는데, 이제 그들은 트로이아를 포위하기는커녕 방벽 안에서 스스로 포위당한 셈이 되었다. 아킬레우스에게 보낸 사절이 실패로 끝난 다음

날 전투가 벌어졌다. 제우스의 가호를 받은 트로이아인들이 우세하였고, 그리스의 방벽을 뚫고 들어가 함선에 불을 지르려 하였다. 포세이돈은 그리스인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도우러 왔다. 그는 예언자 칼카스의 모습으로 나타나 큰 소리로 전사들을 격려하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말을 건네어 그들의 투지를 끌어올렸다. 그리하여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아인들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아이아스는 믿기 어려울 만큼 용맹하게 싸웠고, 마침내 헥토르와 맞닥뜨렸다. 아이아스가 큰 소리로 도전하자 헥토르도 응하여 거대한 장수를 향해 창을 던졌다. 창은 정확히 날아가 아이아스의 가슴에 맞았는데, 칼과 방패를 메는 띠가 가슴에서 서로 엇갈리는 자리였다. 이중으로 된 그 방호구 때문에 창은 몸을 뚫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졌다. 그러자 아이아스는 함선을 받치는 데 쓰던 거대한 돌 가운데 하나를 집어 들어 헥토르에게 던졌다. 돌은 헥토르의 목을 맞혀 그를 들판에 쓰러뜨렸다. 헥토르의 부하들은 즉시 달려와 정신을 잃고 상처 입은 그를 붙잡아 싣고 떠났다.

포세이돈이 이처럼 그리스인을 돕고 트로이아인을 밀어내는 동안, 제우스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헤라의 계략에 정신이 팔려 전장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신은 온갖 매력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다. 게다가 아프로디테에게서 '케스토스'라는 허리띠를 빌려

두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두른 사람의 매력을 한층 높여 누구도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렇게 차린 헤라는 올림포스에서 전투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을 찾아갔다. 제우스는 그녀를 보자 아리따움에 마음이 사로잡혀, 처음 사랑하던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그는 싸우는 군대도, 나라의 다른 모든 일도 잊은 채 오직 그녀만 생각하였고, 전투는 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이 넋을 빼앗긴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헥토르가 고통과 멍으로 거의 숨이 끊어질 듯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노하여 헤라를 물리치고, 이리스와 아폴론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하였다. 이리스가 오자 그는 포세이돈에게 엄한 전갈을 주어 보내며, 즉시 전장을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아폴론은 헥토르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의 마음에 다시 기운을 불어넣도록 보내졌다. 이 명령은 너무나 빠르게 이행되어, 싸움이 아직 한창인 동안 헥토르는 전장으로 돌아왔고 포세이돈은 자기 영토로 물러갔다.

파리스의 활에서 날아온 화살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 마카온에게 상처를 입혔다. 마카온은 아버지에게서 치료의 기술을 물려받았기에, 그리스인들에게는 가장 용맹한 전사 가운데 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들의 의사로서 매우 귀중한

존재였다. 네스토르는 마카온을 자기 전차에 태우고 전장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아킬레우스의 배들 곁을 지날 때, 그 영웅은 전장을 내다보다가 네스토르의 전차를 보고 노장을 알아보았으나, 상처 입은 장수가 누구인지는 분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벗인 파트로클로스를 불러,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네스토르의 막사로 보냈다.

파트로클로스는 네스토르의 막사에 이르러 마카온이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가 온 까닭을 말하고 곧 돌아가려 하였으나, 네스토르는 그를 붙잡아 두고 그리스군이 겪고 있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해 주었다. 또 그는 트로이아로 떠날 때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가 각자의 아버지에게서 서로 다른 충고를 받았던 일을 일깨웠다. 아킬레우스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었고, 연장자인 파트로클로스에게는 벗을 지켜보며 경험이 부족한 그를 이끌어 주라는 것이었다. 네스토르는 말하였다. “지금이 바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다. 신들이 허락한다면, 그대는 그를 공동의 대의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그가 자기 병사들을 전장으로 보내게 하라. 그리고 파트로클로스, 그대가 그의 갑옷을 입고 나서라. 그 갑옷을 보기만 해도 트로이아인들이 물러설지도 모른다.”

파트로클로스는 이 말에 크게 마음이 움직여,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아킬레우스에게 서둘러 돌아갔다. 그는 왕자에게 최근까지 함께하던 동료들의 진영이 처한 슬픈 형편을 전하였다. 디오메데스, 오디세우스, 아가멤논, 마카온, 모두가 상처를 입었고, 방벽은 무너졌으며, 적은 배들 사이까지 들어와 배를 불사를 채비를 하고 있어서 그리스로 돌아갈 길이 모두 끊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배 한 척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그 광경을 보자 아킬레우스의 마음도 누그러졌다. 그는 파트로클로스가 청한 대로 미르미돈인들(아킬레우스의 병사들을 이렇게 불렀다)을 이끌고 전장에 나서는 것을 허락하였고, 트로이아인들의 마음에 더 큰 공포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자기 갑옷을 빌려주었다. 병사들은 지체 없이 대열을 갖추었다.
파트로클로스는 빛나는 갑옷을 걸치고 아킬레우스의 전차에 올라, 싸움에 달아오른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갔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아킬레우스는 그에게 적을 물리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엄하게 당부하였다. “나 없이 트로이아인들을 몰아붙이려 하지 마라.” 그는 말했다. “이미 내가 입은 치욕에 그대가 또 다른 치욕을 더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그는 병사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였고, 그들은 싸움에 대한 열기에 가득 차 출전하였다.

파트로클로스와 미르미돈인들은 곧바로 싸움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는 곳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을 본 그리스인들은 기뻐서 함성을 질렀고, 그 함성은 배들 사이에 메아리쳤다. 익히 알려진 갑옷을 보자 트로이아인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에서 피할 곳을 찾았다. 먼저 배를 손에 넣고 불을 지르던 자들이 그 배를 버리고 물러났고, 그리스인들은 배를 되찾아 불을 껐다. 그러자 나머지 트로이아인들도 낭패에 빠져 달아났다. 아이아스, 메넬라오스, 그리고 네스토르의 두 아들은 놀라운 용맹을 떨쳤다. 헥토르는 말머리를 돌려 울타리 안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병사들은 해자에 얽혀 저마다 살길을 찾아 허둥댔다. 파트로클로스는 그들을 앞에 몰아붙이며 많은 적을 쓰러뜨렸다. 그 앞에서 감히 맞서 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이 파트로클로스와 맞서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제우스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를 기다리는 운명에서 낚아채 구해 주려 했다. 그러나 헤라가 넌지시 일러 주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다른 신들도 자기 자식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똑같이 끼어들 것이라고. 제우스는 그 이유에 설득되어 뜻을 거두었다. 사르페돈이 창을 던졌으나 파트로클로스를 빗나갔다. 이번에는 파트로클로스가 창을 던졌는데, 그의 창은 빗나가지 않았다. 창은 사르페돈의 가슴을 꿰뚫었고, 그는 쓰러졌다. 그는

동료들에게 적의 손에서 자기 시신을 지켜 달라고 외치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시신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그리스인들이 이겨 사르페돈의 갑옷을 벗겨 냈다. 그러나 제우스는 아들의 주검이 욕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명령으로 아폴론이 싸우는 자들 한가운데서 사르페돈의 시신을 낚아채 쌍둥이 형제인 죽음의 신과 잠의 신에게 맡겼다. 그들은 시신을 사르페돈의 고향 땅인 리키아로 옮겼고, 그곳에서 사르페돈은 마땅한 장례 의식을 받았다.

이제까지 파트로클로스는 가장 바라던 대로 트로이아인들을 물리치고 동료들을 구해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운명이 바뀌었다. 전차를 탄 헥토르가 그와 맞섰다.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를 향해 커다란 돌을 던졌다. 돌은 목표를 빗나갔지만 전차병 케브리오네스를 맞혀 그를 전차에서 떨어뜨렸다. 헥토르는 친구를 구하려고 전차에서 뛰어내렸고, 파트로클로스도 승리를 마무리하려고 내려섰다. 이렇게 두 영웅이 얼굴을 맞대고 마주 섰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인은 마치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기 싫은 듯, 포이보스가 파트로클로스에게 맞서 싸움에 끼어들었다고 기록한다. 포이보스는 그의 머리에서 투구를 쳐 떨어뜨리고, 손에서

창을 빼앗았다. 바로 그때 이름 없는 트로이아인 한 명이 그의 등을 찔렀고, 헥토르가 앞으로 밀고 나와 창으로 그를 꿰뚫었다. 파트로클로스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 뒤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두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다. 그의 갑옷은 곧바로 헥토르가 차지했다. 헥토르는 조금 물러나 자신의 갑옷을 벗고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은 다음 다시 싸움터로 돌아왔다. 아이아스와 메넬라오스는 시신을 지켰고, 헥토르와 그의 가장 용맹한 전사들은 그것을 빼앗으려 애썼다. 싸움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채 격렬하게 이어졌다. 그때 제우스가 하늘 전체를 검은 구름으로 뒤덮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다. 아이아스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킬레우스에게 친구의 죽음과, 시신이 적의 손에 떨어질 임박한 위험을 전할 만한 사람을 찾았지만, 알맞은 전령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여러 번 인용되는 그 유명한 시구를 외쳤다.

> “하늘과 땅의 아버지시여! 아카이아 군사들을
> 어둠에서 구하소서; 하늘을 맑게 하소서;
> 낮을 주소서; 그대의 지엄한 뜻이 그러하니,
> 그와 함께 파멸도 내리소서; 다만, 오, 우리에게 낮을 주소서.”
>
> — 쿠퍼

또는 포프가 옮긴 대로,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여!
오, 왕이시여! 오, 아버지시여! 제 겸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구름을 흩으시고, 하늘의 빛을 되돌려 주소서.
제게 보게만 해 주신다면, 아이아스는 더 바라지 않으리이다.
그리스가 멸망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으나,
부디 우리가 대낮의 빛 속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제우스가 기도를 들어주어 구름을 흩었다. 그러자 아이아스는 안틸로코스를 아킬레우스에게 보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과 그의 시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전하게 했다. 그리스인들은 마침내 시신을 배까지 옮기는 데 성공했는데,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를 비롯한 나머지 트로이아인들이 바싹 뒤쫓았다.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죽음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한 나머지, 안틸로코스는 한동안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봐 걱정했다. 그의 신음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어머니 테티스의 귀에까지 닿았고, 테티스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서둘러 그에게 왔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분노를 그토록 끝까지 품고 있다가 친구가 그 때문에 목숨을 잃게 내버려 두었다며 자책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은 복수를 하겠다는 희망뿐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헥토르를 찾아 달려 나가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지금 갑옷이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 하루만 기다리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훌륭한 갑옷 한 벌을 헤파이스토스에게서 얻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킬레우스는 동의했고, 테티스는 곧바로 헤파이스토스의 궁전으로 갔다. 그녀는 그가 자기가 쓸 삼각대들을 만들며 대장간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삼각대들은 솜씨 좋게 만들어져서, 필요할 때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나라고 하면 다시 물러났다. 테티스의 부탁을 들은 헤파이스토스는 즉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녀의 뜻을 들어주려고 서둘렀다. 그는 아킬레우스를 위해 훌륭한 갑옷 한 벌을 만들었다. 먼저 정교한 무늬로 장식한 방패를, 다음으로 금 장식이 달린 투구를, 그리고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게 단단히 벼린 흉갑과 정강이 보호대를 만들었는데, 모두 그의 몸에 꼭 맞고 솜씨가 더없이 훌륭했다. 이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었고, 테티스는 그것을 받아 들고 땅으로 내려와, 새벽이 밝아 올 무렵 아킬레우스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뒤 아킬레우스가 처음으로 기쁨을 느낀 것은 이 눈부신 갑옷을 보았을 때였다. 이제 그는 그것을 걸치고 진영으로 나가, 모든 장수를 회의에 불러 모았다. 그들이 다 모이자 그는 연설했다. 아가멤논에 대한 노여움을 내려놓고, 그 노여움에서 비롯된 온갖 비참함을 통렬히 애도하며, 그는 장수들에게 곧바로 전장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아가멤논은 알맞은 답을 했는데, 모든 책임을 불화의 여신 아테에게 돌렸다. 그리하여 두 영웅 사이에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싸움터에 나아갔다. 가장 용맹한 전사들도 그의 앞에서 달아나거나 그의 창에 쓰러졌다. 헥토르는 아폴론의 경고를 듣고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신은 프리아모스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리카온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아이네이아스에게 저 무서운 전사와 맞서 싸우라고 부추겼다.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지만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방패를 향해 창을 던졌다. 그 방패는 금속 판 다섯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두 장은 놋쇠, 두 장은 주석, 한 장은 황금이었다. 창은 두 겹을 뚫었지만 셋째 겹에서 멈추었다. 아킬레우스가 던진 창은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창은 아이네이아스의 방패를 뚫고 나갔으나, 어깨 가까이를 스치고 지나가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이어서 아이네이아스는 요즘 사람 둘이서도 겨우 들어 올릴 만한 돌을 집어 들고 던지려 했고, 아킬레우스는 칼을 뽑아 들고 그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이 싸움을 지켜보던 포세이돈이 아이네이아스를 가엾게 여겼다. 어서 구해 내지 않으면 아이네이아스는 틀림없이 목숨을 잃을 것이었다.

그래서 신은 두 전사 사이에 구름을 펼치고, 아이네이아스를 땅에서 들어 올려 전사들과 말들의 머리 위로 날라 전장 뒤편으로 데려갔다. 안개가 걷혔을 때 아킬레우스는 상대를 찾아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그 기적을 알아차리고 창끝을 다른 용사들에게로 돌렸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그의 앞에 서지 못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던 프리아모스는 트로이아 군 전체가 도시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도망치는 병사들을 받아들이도록 성문을 활짝 열라고 명령했고, 트로이아인들이 다 들어오면 적도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곧바로 닫으라고 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의 추격이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아폴론이 프리아모스의 아들 아게노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잠시 아킬레우스와 맞서지 않았다면 성문을 제때 닫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폴론은 맞서다가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고, 도시에서 떨어진 길을 택했다. 아킬레우스는 그를 쫓았고, 아게노르인 줄 알았던 상대를 성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쫓아갔을 때, 아폴론이 정체를 드러냈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추격을 포기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성안으로 빠져나갔을 때, 헥토르는 홀로 성 밖에 남아 싸움을 맞이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그의 늙은 아버지가 성벽 위에서 그를 불러,

물러서서 그런 싸움을 자초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어머니 헤카베도 같은 뜻으로 그에게 애원했지만 모두 헛일이었다. 헥토르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명령으로 백성은 오늘의 싸움터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이미 그토록 많은 이들이 쓰러졌다. 그런데 이제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한 사람의 적을 피해 달아나란 말인가? 그러나 만약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재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까지 넉넉히 더해 그에게 내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어떨까? 아니, 그것도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말하는 동안에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킬레우스가 다가왔다. 그는 아레스처럼 무서웠고, 움직일 때마다 갑옷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그 모습을 보자 헥토르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는 달아났다. 아킬레우스는 재빨리 그를 뒤쫓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성벽 가까이를 따라 달리며 도시를 세 바퀴나 돌았다. 헥토르가 성벽 쪽으로 다가설 때마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길을 가로막아, 더 넓은 원을 그리며 달아나도록 몰아붙였다. 그러나 아폴론은 헥토르의 힘을 북돋우고,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 그때 팔라스가 헥토르의 가장 용맹한 동생 데이포보스의 모습을 하고 갑자기 그의 곁에 나타났다. 헥토르는 기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렇게 힘을 얻어 달아나기를 멈추고 몸을 돌려

아킬레우스와 맞섰다. 헥토르는 창을 던졌다. 창은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맞고 튕겨 나갔다. 그는 데이포보스의
손에서 다른 창을 받으려고 몸을 돌렸지만, 데이포보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제야 헥토르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아아, 분명하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나는 데이포보스가 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팔라스가 나를
속였고, 그는 아직 트로이아에 있다. 그러나 나는
불명예스럽게 쓰러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허리에서 긴 칼을 뽑아 들고 곧바로 싸움에 뛰어들었다.
아킬레우스는 방패 뒤에 몸을 숨긴 채 헥토르의 접근을
기다렸다. 헥토르가 창이 닿을 만큼 가까이 왔을 때,
아킬레우스는 눈으로 약한 곳을 골랐다. 갑옷이 목을 드러내
놓은 자리였다. 그는 그 자리를 겨누어 창을 던졌고, 헥토르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는 힘없이 말했다. "내 시신만은
욕보이지 말아 다오. 내 부모가 몸값을 치르고 그것을 되찾게
해 주고, 나는 트로이아의 아들과 딸들에게서 장례 의식을
받게 해다오." 이에 아킬레우스가 대답했다. "개 같은 놈아,
나에게 몸값이나 연민을 이야기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너의 시체는 어떤 것으로도 개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스무 배의 몸값과 네 몸무게만큼의 황금을
바친다 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킬레우스는 시신에서 갑옷을 벗겨 냈다. 그리고 발목에 끈을 묶어 전차 뒤에 매달고, 시신이 땅바닥에 끌리도록 두었다. 그런 다음 전차에 올라 말을 채찍질하며, 도시 앞에서 시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 광경을 본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베 왕비의 슬픔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늙은 왕이 뛰쳐나가려는 것을 간신히 붙들어 말려야 했다. 왕은 흙먼지 속에 몸을 던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비켜 달라고 애원했다. 헤카베의 괴로움도 그에 못지않게 격렬했다. 시민들은 두 사람 주위에 둘러서서 함께 울었다.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는 시녀들과 함께 앉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곡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불길한 일을 직감하고 성벽으로 달려 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 그녀는 성벽에서 몸을 던지려 했지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시녀들의 품에 안겼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조국은 무너졌고, 자신은 포로가 되었으며, 아들은 낯선 이들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그려 보며 슬피 울었다.

아킬레우스와 그리스 군사들은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자에게 복수를 마친 뒤, 벗을 위해 마땅한 장례 의식을 치르는 데 힘썼다. 장작더미를 쌓고 엄숙한 의식 속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이어서 힘과 기량을 겨루는 경기가 열렸으니, 전차

경주, 레슬링, 권투, 활쏘기가 펼쳐졌다. 그런 다음 장수들은 장례 연회에 둘러앉았고, 연회가 끝나자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연회에 끼지도 않았고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다. 잃어버린 벗을 떠올리자 그는 잠들 수가 없었다. 전쟁터에서나 위험한 바다 위에서나 함께 고생하며 나누었던 우정이 되살아났다. 가장 이른 새벽이 밝기 전에 그는 막사를 나섰다. 날랜 말들을 전차에 매고, 헥토르의 시신을 뒤에 매달아 끌고 갔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를 두 번 돌며 시신을 끌고 다녔고, 결국 헥토르를 먼지 속에 내던져 두었다. 그러나 아폴론은 이 모든 능욕으로 시신이 찢기고 훼손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시신을 어떤 얼룩이나 더럽힘도 없이 온전하게 지켜 주었다.

아킬레우스가 용맹한 헥토르를 이렇게 욕보이며 분노를 풀고 있을 때, 제우스는 가엾게 여겨 테티스를 자기 앞으로 불렀다. 그는 테티스에게 아들에게 가서 헥토르의 시신을 그의 벗들에게 돌려주도록 설득하라고 일렀다. 그런 다음 제우스는 이리스를 프리아모스 왕에게 보내어,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 달라고 간청하도록 격려했다. 이리스가 전갈을 전하자, 프리아모스는 곧바로 따를 채비를 했다. 그는 보물창고를 열어 값비싼 옷과 천을 꺼냈고, 황금 열 탈란톤과 훌륭한 세 발 솥 두 개, 견줄 데 없는 솜씨로 만든

황금 잔도 꺼냈다. 그런 다음 아들들을 불러, 수레를 끌어내고 아킬레우스에게 몸값으로 바칠 여러 물건을 그 위에 실으라고 명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늙은 왕은 자기만큼이나 나이 든 동행 한 사람, 전령 이다이오스만 데리고 성문을 나섰다. 그곳에서 그는 왕비 헤카베와 모든 벗들과 작별했다. 그들은 그가 틀림없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며 슬피 울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그 존엄한 왕을 가엾게 여겨 헤르메스를 보내 그의 길잡이이자 호위가 되게 했다. 헤르메스는 젊은 전사의 모습을 하고 두 노인 앞에 나타났다. 그를 보자 두 사람은 달아날지 굴복할지 망설였다. 그러자 신은 다가와 프리아모스의 손을 잡고, 아킬레우스의 막사까지 길을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프리아모스는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헤르메스는 마차에 올라 고삐를 잡았고, 곧 그들을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데려갔다.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경비병들을 모두 잠들게 했고, 헤르메스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프리아모스를 아킬레우스가 있는 막사 안으로 들여보냈다. 아킬레우스는 두 명의 전사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늙은 왕은 아킬레우스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그토록 많이 죽인 그 무서운 손에 입을 맞추었다. “아킬레우스여,” 그가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오. 나처럼 늙어 삶의 어두운 끝자락에서 떨고 계실

그분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의 어떤 족장이 그분을
괴롭히고 있을지 모르오. 그분의 곤경을 도울 이는 곁에
없을지도 모르오. 그래도 아킬레우스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은 언젠가 그대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
바라며 여전히 기뻐하실 것이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위로도 찾아오지 않소. 일리오스의 꽃이었던 가장 용맹한 내
아들들은 모두 쓰러졌소. 그래도 내게는 한 아들이 있었소.
나이 든 내 기력의 버팀목이던, 다른 모든 아들보다 더
소중했던 아들이오. 조국을 위해 싸우던 그를 그대가 죽였소.
나는 그의 시신을 되찾으러 왔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몸값을 가져왔소. 아킬레우스여! 신들을 두려워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시오! 그분을 위해서라도 나를
가엾게 여기시오!" 이 말에 아킬레우스는 마음이 움직여
울었다. 그는 멀리 있는 아버지와 잃어버린 벗을 번갈아
떠올렸다. 프리아모스의 은빛 머리카락과 수염을 보고
연민이 일어, 그는 왕을 땅에서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프리아모스여, 나는 그대가 어떤 신의 인도를 받아 이곳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소. 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리 젊고
힘찬 사람이라도 감히 이런 일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오.
제우스의 분명한 뜻에 움직여,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일어나, 두 벗과 함께 막사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수레에서 짐을 내렸고, 시신을 덮을 외투 두

벌과 겉옷 한 벌만 남겨 두었다. 그리고 시신을 수레에 싣고, 덮개 없이 트로이아로 실려 가지 않도록 그 위에 옷을 펼쳐 덮었다. 그런 다음 아킬레우스는 먼저 장례 의식을 위해 열이틀 동안의 휴전을 약속한 뒤, 늙은 왕을 시종들과 함께 떠나보냈다.

시신을 실은 수레가 도시에 가까워져 성벽 위에서 그것이 보이자,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영웅의 얼굴을 보려고 쏟아져 나왔다. 누구보다 먼저 헥토르의 어머니와 아내가 달려왔고, 생명을 잃은 몸을 보자 그들의 통곡은 새로이 터져 나왔다. 백성들도 모두 그들과 함께 울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의 슬픔은 멈추거나 누그러지지 않았다.

이튿날 장례 의식 준비가 이루어졌다. 아홉 날 동안 사람들은 장작을 날라 장작더미를 쌓았고, 열째 날 시신을 그 꼭대기에 올리고 횃불을 댔다. 온 트로이아가 몰려나와 장작더미를 에워쌌다. 불이 완전히 사그라지자 사람들은 재에 포도주를 부어 불씨를 끄고, 뼈를 주워 모아 황금 항아리에 담았다. 그 항아리는 땅에 묻었고, 그 자리 위에는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 “그처럼 일리오스는 제 영웅에게 예를 바쳤나니,
> 그리하여 위대한 헥토르의 그림자는 평화로이 잠들었도다.”
>
> — 포프.

제28장

트로이아의 함락 — 그리스인의 귀향 —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



조반니 도메니코 티에폴로, 「트로이아로 들어가는 목마 행렬」(1760년경)

트로이아의 함락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헥토르의 죽음으로 끝난다. 다른 영웅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는 『오디세이아』와 그 뒤의 시들에서 알 수 있다. 헥토르가 죽은 뒤에도 트로이아는 곧바로 함락되지 않았다. 새로운 동맹군의 도움을 받아 여전히 버텼다. 그 동맹군 가운데 한 명이 아이티오피아인의 왕자 멤논이었는데, 그의 이야기는 이미 들려주었다. 또 한

명은 아마존족의 여왕 펜테실레이아였다. 그녀는 여전사들의 무리를 이끌고 왔다. 모든 기록은 그들의 용맹과 무시무시한 전투 함성의 효과를 증언한다. 펜테실레이아는 많은 용사를 쓰러뜨렸지만, 결국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었다. 그러나 쓰러진 적 위로 몸을 숙여 그녀의 아름다움과 젊음과 용기를 바라본 영웅은 자신의 승리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테르시테스는 오만하고 소란을 피우는 선동가였는데, 아킬레우스의 슬픔을 비웃었다. 그 결과 그는 영웅의 손에 죽었다.

아킬레우스는 우연히 프리아모스 왕의 딸 폴릭세네를 보았다. 아마 헥토르의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트로이아인에게 휴전이 허락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혔고,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그리스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트로이아와 화평을 맺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혼인을 협의하려고 아폴론의 신전에 있을 때, 파리스가 그를 향해 독화살을 쏘았다. 그 화살은 아폴론의 인도를 받아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를 맞혔다. 그것이 그의 몸에서 유일하게 상처 입을 수 있는 부위였다.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를 스틱스 강에 담갔는데, 그녀가 붙잡고 있던 발뒤꿈치를 제외하고는 몸의 모든 부분이 상처를 입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각주 1: 아킬레우스가 상처 입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호메로스에게서는 찾을 수 없으며, 호메로스의 서술과도 맞지 않는다. 아킬레우스가 정말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늘의 갑옷이 필요했겠는가?]

그토록 비열하게 죽임을 당한 아킬레우스의 시신은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가 구해 냈다. 테티스는 그리스인들에게,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영웅에게 그것을 주라고 일렀다. 갑옷을 노린 이는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뿐이었고, 다른 장수들 가운데 몇몇이 상을 정하는 자로 뽑혔다. 상은 오디세우스에게 돌아갔다. 용기보다 지혜가 앞선 셈이었다. 그러자 아이아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피가 땅에 스며든 자리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그것이 히아신스라 불리는 꽃이다. 그 잎에는 아이아스 이름의 처음 두 글자, 그리스어로 '슬픔'을 뜻하는 '아이'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아이아스는 이 꽃을 낳은 명예를 두고 소년 히아킨토스와 경쟁하는 셈이 되었다. 시인들의 히아신스를 대신하여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꽃도 있는데, 그것은 델피니움 아이아키스, 곧 아이아스의 종달이꽃이라 불리는 종이다.

이제 트로이아는 헤라클레스의 화살 없이는 함락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화살은 헤라클레스가 최후를 맞을 때 곁에 있으며 그의 화장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준 벗 필록테테스가 가지고 있었다. 필록테테스는 그리스 원정군에 합류했지만, 독화살 가운데 하나에 실수로 발을 다쳤다. 상처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동료들은 그를 렘노스 섬에 데려다 버리고 떠나 버렸다. 이제 디오메데스가 그를 설득하여 다시 군에 합류하게 하라는 명을 받고 파견되었다. 그는 성공했다. 필록테테스는 마카온에게 치료를 받아 상처가 나았고, 파리스가 그 치명적인 화살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괴로움에 빠진 파리스는 번영을 누리던 시절에 잊어버렸던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요정 오이노네였다. 그는 젊었을 때 그녀와 혼인했으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헬레네 때문에 그녀를 버렸다. 오이노네는 자신이 겪은 모욕을 떠올리고 상처를 고쳐 주기를 거절했다. 파리스는 트로이아로 돌아가 죽었다. 오이노네는 곧 후회하고 치료약을 들고 그의 뒤를 서둘러 따라갔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목을 매어 죽었다. [각주 1: 테니슨은 오이노네를 주제로 짧은 시를 썼으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시적인 부분, 곧 상처 입은 파리스가 돌아오는 장면과 그녀의 잔인함과 뒤이은 후회는 빼 버렸다.]

트로이아에는 팔라디온이라고 불리는 아테나 여신의 유명한 조각상이 있었다. 이 조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전해졌고, 이 조상이 도시 안에 남아 있는 한 트로이아는 함락될 수 없다고 믿어졌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변장을 하고 도시에 들어가, 팔라디온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여 그것을 그리스 진영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트로이아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그리스인들은 무력으로 그곳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꾀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포위를 풀고 떠날 준비를 하는 척했고, 배의 일부는 가까운 섬 뒤편에 숨겨 두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거대한 나무 말 한 필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것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속죄의 제물이라고 퍼뜨렸지만, 실은 무장한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남은 그리스인들은 배로 돌아가 마치 영영 떠나는 것처럼 바다로 나아갔다. 트로이아인들은 진영이 철거되고 함대가 사라진 것을 보고, 적이 포위를 포기했다고 결론지었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자유를 되찾은 온 백성이 기쁨에 차 쏟아져 나와, 얼마 전까지 진영이 있던 곳을 마음껏 거닐었다. 그 거대한 말이 가장 큰 구경거리였다. 사람들은

저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성안에 들이자고 권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포세이돈의 사제 라오콘이 외쳤다. "시민 여러분, 이 무슨 미친 짓입니까? 그리스인들의 속임수를 그만큼 겪고도 아직 경계할 줄 모릅니까? 나는 그리스인들이 선물을 바칠 때조차 그들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말의 옆구리에 창을 던졌다. 창이 꽂히자 속이 빈 울림이 신음 소리처럼 울렸다. 그때 사람들이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치명적인 말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부숴 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포로처럼 보이는 그리스인 한 사람을 끌고 왔다. 공포에 질린 그는 지휘관들 앞에 끌려갔고, 지휘관들은 그를 안심시키며, 묻는 말에 참된 대답을 하면 목숨을 살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인이며 이름은 시논이라고 밝혔다. 그리스인들이 떠날 때 오디세우스의 악의 때문에 동료들에게 버려졌다는 것이었다. 나무 말에 대해서는,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속죄의 제물이며, 성안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토록 거대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예언자 칼카스가 그리스인들에게, 트로이아인들이 그것을 차지하면 반드시 그리스인들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고, 그들은 그 거대한 말과 거기에 딸린 길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차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징조가 나타났다. 바다 위로 두 마리의 거대한 뱀이 다가오고 있었다. 뱀들이 뭍에 오르자 군중은 사방으로 달아났다. 뱀들은 곧장 라오콘이 두 아들과 함께 서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먼저 아이들을 덮쳐 그 몸을 휘감고, 독이 밴 숨을 그들의 얼굴에 내뿜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구하려 하자, 그도 뱀들에게 붙잡혀 똬리 속에 갇혔다. 그는 뱀을 떼어 내려고 몸부림쳤지만, 뱀들은 그의 모든 노력을 제압하고 독이 든 똬리로 그와 아이들의 목을 졸라 죽였다. 이 일은 신들이 라오콘이 나무 말을 불경스럽게 대한 것에 대해 노여워한다는 분명한 표시로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거룩한 물건으로 여기게 되었고, 마땅한 엄숙함을 갖추어 성안으로 들이기로 했다. 노래와 승리의 환호 속에서 그 일이 행해졌고, 그날은 잔치로 저물었다. 한밤중에 배반자 시논이 말의 몸속에 갇혀 있던 무장한 병사들을 풀어 주었고, 병사들은 성문을 열어 밤의 어둠을 틈타 돌아와 있던 동료들을 들였다. 도시에는 불이 질러졌고, 잔치에 취해 잠에 곯아떨어진 사람들은 칼에 쓰러졌으며, 트로이아는 완전히 정복되었다.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 뱀에게 휘감긴 모습을 그린 조각군은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조각 가운데 하나다. 그 석고 모형은 보스턴 아테네움이 소장하고 있고, 원작은 로마의 바티칸에 있다. 다음 시행은 바이런의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에서 가져온 것이다.

> "이제 바티칸으로 발걸음을 돌려 보라,
> 라오콘이 겪는 고통이 고통을 존엄하게 만드는 모습을;
> 아버지의 사랑과 필멸자의 고통이
> 불멸의 존재가 지닌 인내와 뒤섞인 모습을. 헛되도다!
> 그 몸부림은! 똬리 튼 힘에 맞서는 것이 헛되도다,
> 용의 움켜쥠이 깊어지며 조여드는 손아귀,
> 노인의 버팀이여; 독을 머금은 긴 사슬이
> 살아 있는 고리들을 못 박고; 거대한 독사가
>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헐떡임에 헐떡임을 짓눌러 끊는다."

희극 시인들도 때때로 고전의 암시를 빌려 쓴다. 다음은 스위프트의 「소나기가 내린 도시의 묘사」에서 가져온 구절이다.

"멋쟁이는 가마 속에 갇혀 초조하게 앉았다,
그사이 홈통에서 물이 지붕 위로 쏟아져 덜컥거리고,
가끔씩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가죽이 울린다. 그는 속에서 떤다.
그처럼 트로이아의 짐꾼들이 나무 말을 메고 갈 때
그 안에 든 그리스인들은 풀려나기를 조바심냈다.
(저 난폭한 그리스인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짐꾼에게 삯을 치르는 대신 찔러 죽였다.)
라오콘이 바깥을 창으로 쳤고,
갇힌 용사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떨었다."

프리아모스 왕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끝내 보고 말았고,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차지한 그 치명적인 밤에 결국 살해당했다. 그는 무장을 하고 싸우는 무리에 섞여 들려고 했으나, 늙은 왕비 헤카베가 그를 말렸다. 그녀는 그와 딸들을 데리고 제우스의 제단으로 가서 탄원하는 자의 몸으로 피신하자고 했다. 거기 있는 동안 막내아들 폴리테스가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에게 쫓기며 상처를 입은 채 뛰어 들어왔고, 아버지의 발치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프리아모스는 분노에 사로잡혀, 힘없는 손으로 창을 던져 피로스를 겨누었다. [각주 1: 피로스의 외침, "지금 이때는 이런 도움도, 이런 수호자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속담이 되었다. '속담 표현' 항목을 보라.] 그리고 프리아모스는 곧바로 피로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헤카베 왕비와 그의 딸 카산드라는 그리스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었다. 아폴론은 카산드라를 사랑하여 예언의 능력을 선물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에게 노하여, 그녀의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어 그 선물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또 다른 딸 폴릭세네는 아킬레우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전사의 유령이 그녀를 요구하였고, 그리스인들은 그녀를 아킬레우스의 무덤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메넬라오스와 헬레네

우리 독자들은 그토록 많은 살육을 불러온, 아름답지만 죄 많은 헬레네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트로이아가 함락되자 메넬라오스는 아내를 되찾았다. 그녀는 아프로디테의 힘에 굴복해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은 적은 없었다. 파리스가 죽은 뒤 그녀는 여러 차례 몰래 그리스인들을 도왔다. 특히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변장하고 도시에 들어가 팔라디온을 훔쳐 낼 때가 그러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았지만 그 비밀을 지켰고, 심지어 그들이 그 상을 손에 넣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그녀는 남편과 화해했고, 두 사람은 트로이아 해안을 떠나 고향으로 향한 첫 무리에 속했다. 그러나 신들의 노여움을 산 탓에 폭풍에 밀려

지중해의 이 해안에서 저 해안으로 떠돌았고, 키프로스와 페니키아와 이집트를 찾아갔다. 이집트에서 두 사람은 친절한 대접을 받았고 값진 선물들을 받았다. 그중 헬레네의 몫은 황금 물레 가락 하나와 바퀴 달린 바구니였다. 그 바구니에는 왕비가 일할 때 쓰는 양털과 실패를 담게 되어 있었다.

다이어는 그의 시 『양털』에서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암시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옛 실톳대를 고집한다,
가슴께에 단단히 꽂은 채로,
걸어가는 동안 빙글빙글 도는 가락을 던지며."

"이것은 예로부터의 방식이었다, 결코 불명예롭지 않던 시절에,
이집트의 군주가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황금 실톳대를 주었을 때 — 헬레네,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궁정에 손색없는 선물이었다."

밀턴은 또한 이집트 왕비가 헬레네에게 준 유명한 처방, 곧 네펜테라 불리는 기운을 북돋우는 음료도 암시한다.

"테온의 아내가 이집트에서
제우스의 딸 헬레네에게 준 저 네펜테스도
이것만큼 기쁨을 일으키는 힘은 없고,
삶에 이만큼 다정하지도, 갈증을 이만큼 식혀 주지도 못하리라."

— 코머스.

메넬라오스와 헬레네는 마침내 무사히 스파르타에 도착하여 왕의 위엄을 되찾았고, 화려하게 살며 나라를 다스렸다. 한편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 스파르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메넬라오스와 헬레네가 딸 헤르미오네를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와 혼인시키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가멤논, 오레스테스, 그리고 엘렉트라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이자 메넬라오스의 형인 아가멤논은, 자기가 아니라 동생이 당한 모욕을 갚으려고 이 싸움에 끌려 들어갔지만, 결말은 동생만큼 좋지 못했다.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그를 배신했다. 그가 돌아올 때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정부 아이기스토스와 함께 그를 없앨 계획을 세웠고, 그의 귀환을 축하하려고 베푼 잔치에서 그를 살해했다.

두 공모자는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도 함께 죽일 생각이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자라게 두면 언젠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오레스테스의 누이 엘렉트라는 동생을 몰래 포키스의 왕인 고모부 스트로피오스에게 보내 목숨을 구했다. 오레스테스는

스트로피오스의 궁전에서 왕의 아들 필라데스와 함께
자랐고, 둘 사이에는 나중에 속담이 될 만큼 뜨거운 우정이
싹텄다. 엘렉트라는 심부름꾼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를 동생에게 자주 일깨웠다.
오레스테스는 장성하자 델포이의 신탁을 구했고, 신탁은
그의 계획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변장을 하고 아르고스로
갔다. 스트로피오스가 보낸 전령인 척하며, 오레스테스의
죽음을 알리러 왔고 고인의 유골을 장례 항아리에 담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옛 의식에 따라
제물을 바친 뒤, 누이 엘렉트라에게 자기 정체를 밝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기스토스와
클리타임네스트라를 모두 죽였다.

이 끔찍한 행위, 곧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일은 희생자의 죄와
신들의 분명한 명령으로 어느 정도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옛사람들의 가슴에 오늘날 우리 가슴에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혐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복수의 여신들인
에우메니데스가 오레스테스를 붙잡아, 그를 미치게 만들어
이 땅 저 땅으로 내몰았다. 필라데스는 방랑하는 그와
동행하며 그를 지켜 주었다. 마침내 신탁에 두 번째로 물었을
때, 그는 스키티아의 타우리스로 가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믿어지던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가져오라는 답을 받았다.
그리하여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는 타우리스로 갔다. 그곳

야만인들은 손에 들어온 이방인을 모두 여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두 친구는 붙잡혀 묶인 채 신전으로 끌려가 제물로 바쳐질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의 여사제는 다름 아닌 오레스테스의 누이 이피게네이아였다.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제물로 바쳐지려는 순간 아르테미스에게 채여 간 인물이다. 이피게네이아는 포로들에게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자 자기 정체를 밝혔고, 세 사람은 여신상을 가지고 탈출하여 미케네로 돌아왔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아직 에리니에스의 복수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아테나이에서 아테나 여신에게 피신했다. 여신은 그를 보호하며 아레이오파고스 법정에 그의 운명을 판결하도록 했다. 에리니에스가 고소장을 내밀었고, 오레스테스는 델포이 신탁의 명령을 변명으로 내세웠다. 법정이 표결에 들어갔을 때 찬반이 같아지자, 아테나 여신의 뜻에 따라 오레스테스는 무죄 방면되었다.

바이런은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제4편에서 오레스테스의 이야기를 암시한다:

"오, 인간의 잘못에 한 번도 저울을 기운 채 둔 적 없는 그대, 위대한 네메시스여!
심연에서 복수의 여신들을 불러내어
오레스테스 둘레에서 울부짖고 쉭쉭거리게 하였던 그대여,
인륜을 거스른 그 응보 때문에 — 정당했으리라,
덜 가까운 손에서 나왔더라면 — 바로 이곳,
그대의 옛 나라에서, 나는 그대를 먼지 속에서 불러내노라!"

고대 비극 가운데 가장 애처로운 장면의 하나는 소포클레스가 포키스에서 돌아온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의 만남을 그려 낸 대목이다. 오레스테스는 엘렉트라를 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복수의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의 도착을 비밀로 해 두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유골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항아리를 내보인다. 엘렉트라는 그가 정말 죽은 것으로 믿고 항아리를 받아 품에 안고, 다정함과 절망으로 가득한 말로 슬픔을 쏟아 낸다.

밀턴은 자신의 한 소네트에서 이렇게 말한다.

"… 슬픈 엘렉트라를 노래한 시인의
되풀이된 노래가 능히 힘을 지녔으니
아테나이의 성벽을 처참한 파멸에서 구하였도다."

이것은 아테나이가 스파르타 적군의 손아귀에 떨어져 도시를 허물자는 제안이 나왔던 어느 때의 이야기를 가리킨다. 그때 누군가가 우연히 에우리피데스의 합창 한 대목을 인용하자, 그 제안은 물리쳐졌다고 한다.

트로이아

트로이아 성에 관한 사실은 아직도 역사에 알려져 있지 않다. 고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실제 도시와 그 통치자들에 관한 어떤 기록을 찾아 왔다. 가장 흥미로운 탐사는 1890년경 독일 학자 헨리 슐리만이 진행한 것이었다. 그는 전통적으로 트로이아의 터로 여겨지는 히사를리크 언덕에서 고대 도성을 발굴했다고 믿었다. 슐리만은 서너 개 정착지의 폐허 아래를 파 내려갔고, 그때마다 더 오래된 문명이 드러났다. 마침내 그는 왕실 보석과 다른 유물들을 찾아냈는데, 이것들은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고 불렸다. 이 발견들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제29장

오디세우스의 모험 — 로토파고이족 — 키클롭스 — 키르케 — 세이렌 —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 칼립소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오디세우스와 세이렌」(1891)

오디세우스의 귀환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낭만적인 서사시에 우리의 관심을 돌릴 차례다. 이 시는 오디세우스(로마 이름 울릭세스)가 트로이아에서 자신의 왕국 이타카로 돌아가는 동안 겪은 방랑을 이야기한다.

트로이아에서 출발한 배들은 먼저 키코네스인의 도시 이스마로스에 닿았다. 그곳에서 주민들과 벌인 소규모 충돌로 오디세우스는 배마다 여섯 명씩 잃었다. 그곳을 떠나 항해하던 그들은 폭풍에 휘말렸고, 폭풍은 아흐레 동안 그들을 바다 위로 몰아붙여 로토파고이족의 땅에 이르게 했다. 그들은 여기서 물을 긷고, 오디세우스는 세 명의 부하를 보내 주민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다. 이 세 사람은 로토파고이족 사이에 들어가자 그들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인 로토스를 얻어먹었다. 이 음식을 맛본 자들은 모두 고향에 대한 생각을 잊고 그 땅에 남기를 바랐다. 오디세우스는 억지로 이 사람들을 끌고 왔으며, 나중에는 배의 의자 아래에 묶어 둘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 그들은 키클롭스족의 땅에 닿았다. 키클롭스들은 거인이었고, 그들만이 차지한 어떤 섬에 살았다. 그 이름은 '둥근 눈'이라는 뜻인데, 이 거인들은 눈이 하나뿐이고 그 눈이 이마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그들은 동굴에 살았고, 섬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과 자기 가축이 내놓는 것을 먹고 살았다. 그들은 목자였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본대의 배들을 닻을 내려 세워 두고, 배 한 척만 이끌고 식량을 구하러 키클롭스의 섬으로 갔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상륙하며 선물로 줄 포도주 한 항아리를 들고 갔다. 큰 동굴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 안을 살펴보았다. 동굴에는 무리에서 골라낸 가장 좋은 가축들이 가득했고, 치즈가 수북했으며, 우유가 담긴 통과 그릇이 있었고, 우리 안에는 어린 양과 새끼 염소가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곧 동굴의 주인 폴리페모스가 나타났는데, 그는 엄청나게 큰 장작 다발을 메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동굴 입구 앞에 내던졌다. 그러고는 젖을 짜야 할 양과 염소를 동굴 안으로 몰아넣었다. 안으로 들어온 그는 스무 마리의 소도 끌지 못할 거대한 바위를 굴려 동굴 입구를 막았다. 그다음 자리에 앉아 암컷 양들의 젖을 짰고, 일부는 치즈를 만들려고 따로 두고, 나머지는 평소처럼 마실 것으로 옆에 두었다. 그러고는 커다란 눈을 돌려 낯선 자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으르렁거리며 물었다. 오디세우스는 몹시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얼마 전 트로이아를 정복하며 큰 영광을 얻은 대원정의 그리스인이며,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들의 이름으로 환대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말을 맺었다. 폴리페모스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뻗어 그리스인 두 명을 붙잡더니, 그들을 동굴 벽에 내던져 머리를 부수었다. 그는 아주 맛있다는 듯 그들을 먹어 치웠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는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잤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그를 칼로 찌를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바위 때문에 모두가 확실히 죽게 된다는 것을

떠올렸다. 거인이 입구를 막은 바위는 그들이 치울 수 있는 힘을 훨씬 넘어섰고, 그러면 그들은 빠져나갈 길 없이 갇혀 버릴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인은 그리스인 두 명을 더 붙잡아 동료들과 같은 방식으로 죽여서, 살점 한 조각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먹었다. 그러고는 입구에서 바위를 치우고 가축들을 몰아 밖으로 나갔으며, 나갈 때는 입구를 조심스레 다시 막았다. 그가 떠나자 오디세우스는 죽은 동료들의 원수를 갚고, 살아남은 부하들과 함께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동굴 안에서 찾은, 키클롭스가 지팡이로 쓰려고 잘라 둔 거대한 나무 막대를 준비하게 했다. 그들은 그 끝을 뾰족하게 깎고 불에 그슬려 단단하게 만든 뒤, 동굴 바닥의 짚더미 아래에 숨겼다. 그다음 가장 용감한 네 명을 골랐고, 오디세우스는 스스로 다섯 번째로 그들과 함께했다. 저녁이 되자 키클롭스가 돌아와 바위를 굴리고, 평소처럼 가축을 동굴 안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전과 같이 젖을 짜고 준비를 마친 뒤, 오디세우스의 동료 두 명을 더 붙잡아 머리를 부수고, 앞서 죽인 자들처럼 그들을 저녁 식사로 삼았다. 저녁을 마치자 오디세우스가 다가가 포도주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키클롭스여, 이것은 포도주다. 사람 살점으로 된 식사를 마친 뒤 맛보고 마셔라.” 그는 그것을 받아 마셨고, 그 맛에 크게 기뻐하며 더 달라고 외쳤다. 오디세우스는 한 번 더 따라 주었고, 이것이 거인을

몹시 기쁘게 해서 그는 호의의 표시로 일행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잡아먹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름을 물었고, 오디세우스는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님'이다"라고 대답했다.

저녁을 먹은 뒤 거인은 누워 쉬다가 곧 깊이 잠들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네 명의 믿을 만한 동료와 함께 뾰족한 막대의 끝을 불에 넣어, 온통 타오르는 숯덩이가 될 때까지 달구었다. 그다음 그것을 거인의 하나뿐인 눈 바로 위에 겨누어 들고, 목수가 송곳을 돌리듯 눈구멍 깊숙이 찔러 넣고 빙빙 돌렸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고, 그 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재빨리 그를 피해 물러나 동굴 안에 몸을 숨겼다. 거인은 고함을 지르며 근처의 가깝고 먼 동굴에 사는 키클롭스들을 모두 큰 소리로 불렀다. 그들은 그의 외침을 듣고 동굴 입구로 몰려와, 대체 무슨 끔찍한 상처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자신들의 잠을 깨우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친구들이여, 나는 죽어 가고 있다. '아무도 아님'이 나를 쳤다." 그들은 대답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우스의 일격이니 너는 그것을 견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신음하는 그를 남겨 두고 떠났다.

다음 날 아침 키클롭스는 양 떼를 풀밭으로 내보내려고
입구를 막은 바위를 굴려 치웠다. 그러나 그는 동굴 입구에 떡
버티고 서서, 양들이 하나씩 나갈 때마다 손으로 더듬어
살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양 떼에 섞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동굴 바닥에서 찾아낸 버들가지로 양 떼의
숫양들을 세 마리씩 나란히 묶게 해 두었다. 세 마리 중
한가운데 숫양의 배 밑에는 그리스인 한 명이 매달렸고, 그는
양옆의 바깥쪽 숫양들이 감싸 주어 안전했다. 양 떼가 지나갈
때 거인은 짐승들의 등과 옆구리를 더듬었을 뿐, 배 밑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지나간 것은 오디세우스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이르자,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숫양에서 몸을 풀고 양 떼의 상당수를 몰아 해안의 배까지
내려갔다. 그들은 서둘러 양들을 배에 싣고 해안에서 배를
밀어냈다. 충분히 안전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오디세우스가
외쳤다. “키클롭스여, 신들이 너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충분히 갚아 주었구나. 네가 부끄럽게도 시력을 잃은 까닭은
바로 오디세우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 두어라.” 이 말을
들은 키클롭스는 산비탈에서 튀어나온 바위를 움켜잡고 그
자리에서 뽑아내더니, 높이 쳐들었다가 온 힘을 다해
목소리가 난 방향으로 던졌다.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내렸지만, 배의 고물을 간신히 비껴 갔다. 엄청난 바위가 바다에 떨어지자 파도가 배를 육지 쪽으로 밀어붙였고, 배는 파도에 잠기는 것을 겨우 면했다. 극도의 어려움 끝에 그들이 간신히 해안에서 멀어지자, 오디세우스는 다시 거인을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러지 말라고 간곡히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이 거인의 투석을 피했다는 것을 거인에게 알려 주었다. 다만 이전보다 훨씬 안전한 거리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 거인은 저주로 대답했지만,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곧 다른 동료들과 다시 만났다.

다음으로 오디세우스는 아이올로스의 섬에 이르렀다. 제우스는 이 왕에게 바람을 다스리는 일을 맡겨, 그가 뜻대로 바람을 내보내기도 하고 붙잡아 두기도 하게 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를 환대했고, 떠날 때 은실로 묶은 가죽 자루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해롭고 위험한 바람들이 들어 있었고, 배들을 고향 쪽으로 밀어 줄 순풍만은 따로 불도록 명해 두었다. 아흐레 동안 배들은 바람을 타고 나아갔고, 그 동안 오디세우스는 잠도 자지 않고 키를 잡고 서 있었다. 마침내 몹시 지친 그는 누워 잠이 들었다. 그가 자는 사이 선원들은 그 신비한 자루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안에는 환대하는 왕 아이올로스가 그들의 지휘관에게 준 보물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그중 얼마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끈을 풀었다. 그러자 곧바로 바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배들은 항로에서 멀리 밀려났고, 방금 떠나온 섬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다. 아이올로스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분개하여 더 이상 도와주기를 거절했고, 그들은 노를 저어 다시 한 번 힘겹게 항로를 나아가야 했다.

라이스트리고네스인

그다음 모험은 야만인 부족인 라이스트리고네스인과의 싸움이었다.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만이 안전해 보여서, 배들은 모두 항구 안으로 들어갔다. 오디세우스만 자기 배를 항구 밖에 정박시켰다. 라이스트리고네스인은 배들이 완전히 자기들 손안에 들어온 것을 알자마자 공격했다. 그들은 거대한 바위를 던져 배를 부수고 뒤집었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선원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 오디세우스의 배만 밖에 남아 있어서 무사했고, 그 배를 제외한 모든 배가 부서지고 선원들도 모두 죽었다. 오디세우스는 달아나는 것 말고는 살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에게 힘차게 노를 저으라고 독려했고, 그들은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죽은 동료들을 생각하는 슬픔과 자신들이 빠져나온 데서
오는 기쁨이 뒤섞인 채, 그들은 항해를 계속하여 태양의 딸
키르케가 사는 아이아이에 섬에 이르렀다. 상륙한
오디세우스는 언덕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다. 섬 한가운데
한 곳을 빼고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나무에 둘러싸인 궁전이 있었다. 그는 에우릴로코스가
이끄는 부하 절반을 먼저 보내, 그곳에서 어떤 환대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게 했다. 그들이 궁전에 가까이 다가가자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가 그들을 에워쌌다. 그 짐승들은
사납지 않았다. 키르케가 강력한 마법사였기에, 그녀의
기술로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다. 이 짐승들은 한때 모두
사람이었으나, 키르케의 마법으로 짐승의 모습이 되었다.
궁전 안에서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달콤한
여자의 목소리가 노래하고 있었다. 에우릴로코스가 큰
소리로 불렀다. 여신이 밖으로 나와 그들을 안으로 청했다.
위험을 의심한 에우릴로코스만 빼고, 모두 기꺼이 안으로
들어갔다. 여신은 손님들을 자리에 앉히고 포도주와 여러
진미를 내왔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자, 여신은 지팡이로
한 사람씩 건드렸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돼지로 변했다.
머리와 몸과 목소리와 털까지 돼지였지만, 지능만은 전과
같았다. 키르케는 그들을 돼지우리에 가두고, 돼지가
좋아하는 도토리 같은 먹이를 주었다.

에우릴로코스는 배로 달려가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직접 가서 어떻게든 동료들을 구해 낼 수 있는지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혼자 걸어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다. 청년은 그의 모험을 알고 있는 듯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헤르메스라고 밝히고, 키르케의 술법과 그녀에게 다가갈 때의 위험을 알려 주었다.
오디세우스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안 헤르메스는 마법을 막는 놀라운 힘을 지닌 식물 몰리의 가지 하나를 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다. 오디세우스는 길을 계속 가서 궁전에 이르렀다. 키르케는 정중하게 그를 맞이하고, 동료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대접했다. 그가 먹고 마시자, 그녀는 지팡이로 그를 건드리며 말했다. “가라, 돼지우리로 가서 네 동무들과 함께 뒹굴어라.”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따르지 않고, 칼을 뽑아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키르케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다. 그는 그녀가 동료들을 풀어 주고, 그와 그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도록 했다. 키르케는 그대로 따라 맹세했고, 동시에 그들을 극진히 대접한 뒤 모두를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말한 대로 했다. 사람들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나머지 선원들도 해안에서 불러왔다. 그리고 날마다 성대한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오랜 나날이 흐르자 오디세우스는 고향 땅을 잊은 듯했고, 영광 없이 안락과 쾌락만을 좇는 삶에 스스로 몸을 맡긴 듯했다.

마침내 동료들이 그를 일깨워 더 고귀한 마음을 되찾게 했고,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키르케는 그들의 출발을 도왔고, 세이렌들이 사는 해안을 무사히 지나는 방법을 일러 주었다. 세이렌들은 바다의 요정들로, 노랫소리로 듣는 이를 모두 홀리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불행한 뱃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파멸하고 말았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으라고 일렀다. 그리고 선원들에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세이렌의 섬을 완전히 지나기 전까지는 결코 그를 풀어 주지 말라고 엄격히 당부하라고 했다. 오디세우스는 그 지시를 따랐다. 그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그들이 그를 밧줄로 단단히 돛대에 묶도록 했다. 그들이 세이렌의 섬에 가까이 다가가자 바다는 잔잔했고, 물 위로 너무도 황홀하고 매혹적인 음악 소리가 흘러왔다. 오디세우스는 풀려나려고 몸부림쳤고, 소리치고 손짓하며 자신을 풀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앞서 받은 명령에 따라 앞으로 달려 나와 그를 더욱 단단히 묶었다. 그들은 항로를 계속 잡아

나아갔고, 음악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기뻐하며 동료들에게 귀를 여는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그를 묶은 밧줄을 풀어 주었다.

현대 시인 키츠는 상상력을 발휘해, 키르케의 희생자들이 변신한 뒤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간 생각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의 「엔디미온」에서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코끼리의 모습을 한 왕이 인간의 언어로 마녀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그린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 "나는 행복했던 왕관을 다시 구하지 않으리;
> 나는 평원의 내 대열을 구하지 않으리;
> 나는 외롭고 과부가 된 내 아내를 구하지 않으리;
> 나는 내 붉은 생명의 방울들을 구하지 않으리,
> 내 어여쁜 자식들,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들도;
> 나는 그들을 잊으리라; 이 기쁨들도 나는 단념하리라,
> 그토록 하늘 높은 것은 아무것도 청하지 않으리; 너무도, 너무도 높으니;
> 다만 나는 가장 소중한 은총으로 죽기를 빌 뿐이니;
> 이 무거운 육신에서 풀려나기를,
> 이 조잡하고, 혐오스럽고, 더러운 그물에서,
> 그리고 그저 차갑고 황량한 공기에 내맡겨지기를.
> 자비를 베푸소서, 여신이여! 키르케, 나의 기도를 헤아려 주소서!"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서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두 괴물에 대해 경고를 들었다. 우리는 이미 글라우코스의 이야기에서 스킬라를 만났다. 그녀가 한때 아름다운 처녀였으나 키르케에 의해 뱀 같은 괴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높은 절벽 위의 동굴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긴 목들을 내밀곤 했다(그녀에게는 머리가 여섯 개 있었다). 그리고 목이 닿는 곳을 지나는 배마다 입 하나에 선원을 하나씩 낚아챘다. 다른 공포인 카리브디스는 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는 소용돌이였다. 하루에 세 번 물이 끔찍한 틈으로 세차게 밀려 들어갔고, 세 번 다시 토해졌다. 밀물이 밀려들 때 소용돌이 가까이 다가오는 배는 반드시 삼켜질 수밖에 없었다. 포세이돈 자신도 그 배를 구할 수 없었다.

두려운 괴물들이 사는 곳에 가까이 이르자, 오디세우스는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엄중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카리브디스가 물을 삼키는 굉음이 멀리서부터 경고를 울렸지만, 스킬라의 모습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불안한 눈으로 무시무시한 소용돌이를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스킬라의 공격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로 경계하지 않았다. 그러자 괴물은 뱀 같은 머리들을 번개처럼 내밀어 부하 여섯 명을 낚아채고는,

비명을 지르는 그들을 자기 굴로 끌고 갔다. 오디세우스가 지금까지 본 가운데 가장 슬픈 광경이었다. 친구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키르케는 그에게 또 다른 위험을 경고해 두었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를 지난 뒤 그가 다음으로 닿을 땅은 트리나키아였다. 그곳에는 태양신 히페리온의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고, 그의 딸 람페티아와 파에투사가 그 소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 무리는 건드려서는 안 되었다. 뱃사람들이 아무리 굶주려도 마찬가지였다. 이 금령을 어기면 범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멸이 떨어질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태양의 섬을 그냥 지나쳤으면 했다. 그러나 동료들이 뭍에 내려 쉬고 밤을 보내며 기운을 차리자고 너무도 간곡히 졸랐기에, 그도 결국 그 뜻을 따랐다. 다만 그는 그들을 맹세로 묶었다. 신성한 소와 양 떼 가운데 한 마리도 건드리지 말고, 키르케가 배에 실어 준 식량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었다. 그 식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맹세를 지켰다. 그러나 역풍이 불어 그들은 한 달 동안 섬에 발이 묶였고, 가져온 양식을 모두 먹어 치운 뒤에는 잡을 수 있는 새와 물고기에 기대어 살아야 했다. 굶주림이 그들을 짓눌렀고, 마침내 어느 날

오디세우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은 소를 몇 마리 잡았다. 노여움을 산 신들에게 그 고기 일부를 바쳐 죄를 씻어 보려 했지만 헛된 일이었다. 해안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그들이 저지른 일을 보고 경악했다. 뒤이어 나타난 불길한 징조들 때문에 그 놀람은 더욱 컸다. 가죽이 땅 위를 기어 다녔고, 굽는 꼬챙이 위의 고깃덩이들이 울음소리를 냈다.

순풍이 불자 그들은 섬을 떠났다. 얼마 못 가 날씨가 바뀌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다. 번개 한 줄기가 돛대를 쪼개 버렸고, 쓰러지는 돛대에 맞아 키잡이가 죽었다. 마침내 배 자체가 산산이 부서졌다. 용골과 돛대가 나란히 떠 있게 되자, 오디세우스는 그 둘로 뗏목을 엮어 그것에 매달렸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파도가 그를 칼립소의 섬으로 실어 갔다.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다음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주제에 관한 암시로, 밀턴의 「코머스」 252행이다:

"…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 키르케와 세 세이렌이
꽃무늬 치마 입은 나이아데스들 사이에서
강력한 약초와 해로운 약을 뜯는 것을,
그들이 노래하면 갇힌 영혼을 붙잡아
엘리시온에 감싸 안았다는 것을. 스킬라는 울었고,
짖어 대는 파도를 꾸짖어 귀 기울이게 했으며,
사나운 카리브디스는 나직이 박수를 보냈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는 앞길을 양쪽에서 위협하는 두 위험을 가리키는 속담이 되었다. 「속담 표현」을 참고하라.

칼립소

칼립소는 바다의 님프였다. 님프란 지위는 낮지만 신들의 여러 속성을 나누어 가진 수많은 여신들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극진히 맞이하여 성대하게 대접하였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를 영원히 곁에 두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불사의 몸을 주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고향과 아내와 아들에게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칼립소는 제우스의 명령을 받아 그를 보내야 했다. 헤르메스가 이 명령을 전하러 가서 동굴에 있는 그녀를 만났다. 그 동굴의 모습은 호메로스가 이렇게 묘사하였다.

"동산의 포도 덩굴이 사방으로 무성히 뻗어
넓은 동굴을 뒤덮고, 송이송이 풍성히 매달려 있었다.
맑디맑은 샘물 네 줄기가
굽이굽이 나란히 흘러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어디에서나 한껏 부드러운 초원이 펼쳐졌으니
그 위에는 제비꽃이 자줏빛으로 피어 있었다.
하늘의 신이라도 이 광경을 보면
놀라움과 기쁨에 가득 차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칼립소는 제우스의 명령을 따르기를 몹시 꺼렸지만 결국 따랐다.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뗏목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내주었고, 항해에 필요한 식량을 넉넉히 실어 주었으며, 순풍을 불어 보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순조롭게 나아갔다. 그러다 마침내 육지가 보이던 무렵 폭풍이 일어 돛대가 부러지고 뗏목이 산산조각 날 위험에 처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를 본 자비로운 바다의 님프가 가마우지의 모습으로 뗏목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에게 허리띠 하나를 건네며, 가슴 아래에 단단히 두르라고 일렀다. 만약 그가 어쩔 수 없이 파도에 몸을 맡기게 되더라도, 이 띠가 그를 물 위에 띄워 주고 헤엄쳐 육지에 닿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페네롱은 『텔레마코스의 모험』에서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 그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도착한 여러 곳 가운데 칼립소의 섬도 있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신은 온갖 수단을 다해 그를 붙잡아 두려 했고, 자신의 불멸을 그와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멘토르의 모습으로 그와 동행하며 모든 움직임을 이끌던 아테나는 그가 여신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했다. 달리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자 두 사람은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렸고, 해안 앞에서 바람이 멎어 있던 배까지 헤엄쳐 갔다. 바이런은 다음 연에서 텔레마코스와 멘토르의 이 도약을 암시한다.

> "하지만 조용히 지나칠 수는 없다, 칼립소의 섬들을,
> 깊은 바다 한가운데 함께 자리한 자매의 섬들을.
> 지친 이에게는 여기 항구가 여전히 미소 짓나니,
> 아름다운 여신이 오래전에 울기를 그쳤다 해도,
> 그 절벽 위에서 헛된 망을 지키기를 그쳤다 해도
> 감히 인간 신부를 택한 그 사람을 위해.
> 여기서도 그의 아들이 무서운 도약을 시도했으니,
> 엄한 멘토르가 저 높은 곳에서 저 너머 물결로 뛰라 재촉했다.
> 이렇게 둘 다 잃은 님프 여왕은 갑절로 한숨지었다."

제30장

파이아키아인 — 구혼자들의 최후



핀투리키오, 「구혼자들과 페넬로페」(1509년경)

파이아키아인

오디세우스는 뗏목의 나무들이 아직 붙어 있는 동안 그것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다 뗏목이 더 이상 몸을 받쳐 주지 못하자, 허리에 띠를 둘러 묶고 헤엄쳤다. 아테나가 그의 앞 물결을 잠재우고, 파도를 해안 쪽으로 밀어 보내는 바람을 불어 주었다. 바닷물이 바위 위로 높이 부서져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보였다. 그러나 마침내 완만한 개울의 하구에서 잔잔한 물을 찾아내고, 그는 뭍에 올랐다. 그는 노고에 지쳐 숨이 가쁘고 말을 잃었으며, 거의 죽은 사람과 같았다. 한참 뒤 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기뻐하며 땅에 입을 맞췄다. 그러나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막막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숲이 보였고, 그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서 그는 얽힌 가지들이 햇볕과 비를 똑같이 막아 주는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는 나뭇잎을 긁어모아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몸을 뻗고, 나뭇잎을 몸 위에 수북이 덮은 채 잠이 들었다.

그가 떨어진 땅은 파이아키아인의 나라 스케리아였다. 이 사람들은 본래 키클롭스들 가까이에 살았다. 그러나 그 사나운 종족에게 억압당하자, 왕 나우시토오스의 인도를 받아 스케리아 섬으로 옮겨 왔다. 시인은 그들이 신들과 가까운 종족이라고 전한다. 신들은 그들이 제물을 바칠 때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어 함께 잔치를 벌였고, 홀로 길을 가는

나그네를 만나도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재물이 넉넉했고, 전쟁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다. 이익을 좇는 인간들과 멀리 떨어져 살았으므로 어떤 적도 그들의 해안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활과 화살통을 쓸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의 주된 일은 항해였다. 새처럼 빠르게 나아가는 그들의 배에는 지성이 깃들어 있어서, 모든 항구를 알았고 길잡이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우시토오스의 아들 알키노오스가 이제 그들의 왕이었다. 그는 지혜롭고 공정한 군주였으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파이아키아 섬에 밀려 올라와 잎으로 만든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던 바로 그날 밤, 왕의 딸 나우시카는 아테나가 보낸 꿈을 꾸었다. 꿈은 그녀에게 혼례날이 멀지 않았음을 일깨우며, 그 일을 앞두고 집안의 옷을 모두 빨아 두는 것이 현명한 준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샘은 조금 떨어져 있었고, 옷가지는 그곳까지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잠에서 깬 공주는 마음에 품은 생각을 털어놓으려고 부모에게 서둘러 갔다. 혼례날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좋은 다른 이유들을 댔다. 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하고, 마부들에게 그 일에 쓸 수레를 마련하라고 명했다. 옷들은 수레에 실렸고, 왕비인 어머니는 넉넉한 음식과 포도주도 수레에 함께 실었다. 공주는 자리에 앉아 채찍을 휘둘렀고, 시녀들은

걸어서 뒤를 따랐다. 강가에 이르자 그들은 노새를 풀어 풀을 뜯게 했다. 수레에서 짐을 내린 뒤 옷가지를 물가로 날랐고, 즐겁고 날래게 일해 금세 일을 끝냈다. 그러고 나서 옷을 해변에 펼쳐 말리고, 자신들도 몸을 씻은 뒤 앉아서 식사를 즐겼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서는 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들이 노는 동안 공주가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러나 옷을 다시 개어 성읍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테나가 공주가 던진 공을 물에 떨어지게 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났다.

이제 우리는 파도에서 겨우 몇 시간 전에 빠져나와 입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난파당한 뱃사람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 그는 몇 그루 덤불 너머에 젊은 처녀들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들의 몸가짐과 차림새를 보니 평범한 시골 처녀들이 아니라 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 그는 몹시 도움이 필요했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필요한 것을 청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위기 때마다 한 번도 그를 저버린 적 없는 그의 수호 여신 아테나가 개입할 만한 경우였다. 그는 나무에서 잎이 무성한 가지 하나를 꺾어 몸 앞에 들고 덤불에서 걸어 나왔다. 처녀들은 그를 보자 사방으로 달아났지만, 오직 나우시카만은 예외였다. 아테나가 그녀를 도와 용기와 분별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공손히 조금 떨어져 서서 자신의 딱한 처지를 말하고, 그 아름다운 상대에게 (여왕인지 여신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청했다. 공주는 정중히 대답하며, 당장 도와주겠다고, 또 사정을 알게 되면 아버지도 손님으로 맞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는 흩어진 시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놀란 것을 꾸짖으며 파이아키아인에게는 두려워할 적이 없음을 일깨웠다. 이 사람은 불행한 방랑자이니 보살피는 것이 도리라고, 가난한 이와 나그네는 제우스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시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수레에 실린 물건 가운데 그녀의 오라버니의 옷도 몇 벌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끝나자, 오디세우스는 가려진 곳으로 물러나 몸에 묻은 바닷물 거품을 씻어 내고 옷을 입고 음식으로 기운을 차렸다. 그때 팔라스는 그의 모습을 키우고, 그의 넓은 가슴과 사내다운 이마 위에 우아함을 부어 주었다.

공주는 그를 보고 감탄하여, 시녀들에게 신들이 자신에게 이런 남편을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들판을 지나는 길이 이어지는 동안은 자신과 일행을 따라 도시로 오라고 권했다. 그러나 도시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했다. 무례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공주가 이런 늠름한 낯선 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이 두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시에 맞닿은 숲에서 멈추라고 일러 주었다. 그 숲에는 왕의 소유인 농장과 정원이 있었다. 공주와 시녀들이 도시에 들어갈 시간을 준 뒤, 그는 그곳으로 가면 되었는데, 길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든 물으면 왕의 거처까지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디세우스는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때가 되자 도시로 나아갔다.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물을 길으러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젊은 처녀를 만났다. 그 모습을 취한 것은 아테나였다. 오디세우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왕 알키노오스의 궁전으로 가는 길을 알려 달라고 청했다. 처녀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고 했다. 궁전은 그녀의 아버지 집 가까이에 있다고 알려 주었다. 여신의 인도를 받고, 그녀의 힘으로 구름에 싸여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된 오디세우스는 분주한 군중 사이를 지나갔다. 그는 항구와 배들, 영웅들이 모이는 광장, 성벽을 놀라움 속에 바라보며 나아갔고, 마침내 궁전에 다다랐다. 여신은 그가 만나게 될 나라와 왕, 백성에 관해 몇 가지 일러 준 뒤 그를 떠났다. 오디세우스는 궁전의 안뜰로 들어서기 전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살펴보았다. 그 화려함에 그는 놀랐다. 입구에서 안쪽 건물까지 청동 담이 뻗어 있었고, 그 집의 문은 황금이었으며, 문설주는 은이었고, 문 위의 상인방은 은에 황금 장식이 더해져 있었다. 양옆에는 황금과 은으로 만든 사냥개

조각상이 줄지어 서서 다가오는 이를 지키는 듯했다. 벽을 따라 놓인 의자들은 끝에서 끝까지 파이아키아 처녀들이 짠 가장 고운 천의 덮개로 덮여 있었다. 귀족들은 그 의자에 앉아 잔치를 벌였고, 우아한 젊은이들의 황금 조각상들은 손에 든 횃불로 그 자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집안일을 맡은 여종이 모두 쉰 명이나 있었는데, 어떤 이는 곡식을 빻고, 어떤 이는 자줏빛 양털을 감거나 베틀을 다루었다. 파이아키아 여인들은 집안일의 기술에서 다른 모든 여인을 훨씬 앞질렀으니, 그 나라의 뱃사람들이 배를 다루는 솜씨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앞지르는 것과 같았다. 안뜰 바깥에는 넓이가 네 에이커에 이르는 큰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석류, 배, 사과, 무화과, 올리브 등 키 큰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 겨울의 추위도 여름의 가뭄도 그 성장을 막지 못했고, 나무들은 끊임없이 차례로 번성했다. 어떤 나무에는 싹이 돋고 다른 나무에는 열매가 익어 갔다. 포도밭도 그와 마찬가지로 열매가 풍성했다. 한쪽에서는 꽃이 핀 포도나무와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를 볼 수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포도를 따는 이들이 포도즙 틀을 밟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원의 가장자리에는 온갖 빛깔의 꽃이 일 년 내내 피었고, 그 꽃들은 가장 정교한 솜씨로 배열되어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두 개의 샘이

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나는 인공 물길을 따라 정원 곳곳으로 흘렀고, 다른 하나는 궁전 안뜰을 지나도록 이끌려, 도시의 모든 시민이 그곳에서 물을 길어 갈 수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광경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서 있었지만, 아테나가 그를 둘러싸게 한 구름이 여전히 그를 가려 주었기에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마침내 충분히 살펴본 뒤,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족장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저녁 식사 뒤에 드리는 헤르메스 제사의 술을 막 따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테나가 구름을 걷어 그를 모인 족장들 앞에 드러냈다. 그는 왕비가 앉은 자리로 나아가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호의와 도움을 간청했다. 그러고는 물러나, 탄원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화덕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한 원로가 왕을 향해 말했다. “우리에게 환대를 청하는 나그네를 탄원자의 몰골로 이렇게 방치하고, 아무도 맞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우리 가운데 자리로 안내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내주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디세우스의 손을 잡고 그를 자리로 이끌었다. 왕은

나그네에게 자리를 내주려고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서 비키게 했다. 음식과 포도주가 그 앞에 놓였고, 오디세우스는 먹고 마시며 기운을 되찾았다.

왕은 손님들을 돌려보내며, 다음 날 회의를 열어 그 나그네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의논하겠다고 알렸다.

손님들이 떠나고 오디세우스만 왕과 왕비와 함께 남았을 때, 왕비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왕비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왕비 자신과 시녀들이 지은 옷이었다. 그래서 왕비는 그 옷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도 물었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에서 지낸 일과 그곳을 떠나게 된 경위를 들려주었다. 뗏목이 부서진 일, 헤엄쳐 살아남은 일, 그리고 공주가 베풀어 준 도움도 이야기했다. 부모는 듣고 흡족해했으며, 왕은 손님이 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모인 족장들은 왕의 약속을 확인했다. 배가 준비되었고, 힘센 노꾼들이 뽑혔다. 모두 궁전으로 가서 풍성한 잔치를 즐겼다. 잔치가 끝나자 왕은 젊은이들에게 손님에게 사내다운 운동 솜씨를 보여 주라고 권했다. 모두 경기장으로 나가 달리기, 씨름, 그 밖의 여러 경기를 했다. 모두 힘껏 겨룬 뒤, 오디세우스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 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사양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놀리자, 그는 파이아키아인 누구도 던진 적 없는 훨씬 무거운 원반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파이아키아인들이 가장 멀리 던진 것보다도 더 멀리 날려 보냈다. 모두 놀랐고, 손님을 훨씬 더 깊이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경기가 끝나자 그들은 다시 홀로 돌아왔고, 전령은 눈먼 음유시인 데모도코스를 안으로 이끌었다.

> "뮤사의 사랑을 받았으니,
> 그녀는 복과 화를 함께 정해 주어
> 그에게서 빛을 거두었으나 신성한 노래를 주었도다."

그는 제재로 "목마"를 택했는데, 그 목마를 통해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폴론이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는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의 공포와 무훈을 너무도 절절하게 노래하여 모두가 기뻐했으나, 오디세우스만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알키노오스는 노래가 끝나자 그에게 트로이아 이야기가 나올 때 왜 슬픔이 되살아나느냐고 물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나 형제, 또는 어떤 소중한 벗을 잃었느냐는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참이름을 밝히며 응답했고, 그들의 청에 따라 트로이아를 떠난 뒤 자신에게 일어난 모험들을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파이아키아인들이 손님에게 품은 동정과 감탄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왕은 모든 족장이

그에게 선물을 주자고 제안했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였다. 그들은 따랐고, 저마다 이 이름 높은 나그네에게 값진 선물을 안기려고 경쟁했다.

다음 날 오디세우스는 파이아키아인의 배를 타고 출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섬 이타카에 무사히 닿았다. 배가 해변에 닿았을 때 그는 잠들어 있었다. 뱃사람들은 그를 깨우지 않고 뭍으로 옮겼으며, 그가 받은 선물이 든 궤짝도 함께 내려놓고는 배를 몰고 떠났다.

포세이돈은 파이아키아인들이 이렇게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구해 준 일에 몹시 분노하였다. 그래서 배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는 배를 항구 입구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바위로 바꾸어 버렸다.

호메로스가 그린 파이아키아인의 배는 현대 증기 항해의 경이를 미리 보여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겨져 왔다. 알키노오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느 도시에서, 어떤 지방에서 파도에 밀려 왔는지 말해 보시오.
그곳에는 어떤 이들이 살고 있소?
그러면 그대는 정해진 땅에 빨리 닿으리니,
놀라운 배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지혜를 품은 배들이 그대를 실으리라.
그 배의 뱃길을 잡아 주는 키도 없고, 이끄는 사공도 없소.
사람처럼 영리한 그 배들은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니,
햇살이 내리비추는 아래 놓인
모든 해안과 모든 만(灣)을 그것들은 알고 있소."

— 『오디세이아』 제8권.

칼라일 경은 『터키와 그리스 바다에서 쓴 일기』에서 코르푸 섬을 이렇게 말한다. 그는 이 섬을 옛 파이아키아인의 섬이었다고 본다.

"이 유적들은 『오디세이아』를 설명해 준다. 바다의 신을 모신 신전이 이보다 더 알맞은 곳에 세워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탄력 좋은 잔디로 덮인 평평한 대지 위, 항구와 해협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절벽의 가장자리다. 안쪽 항구의 입구 바로 곁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바위가 솟아 있고, 그 꼭대기에 작은 수도원이 걸터앉아 있다. 어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오디세우스의 배가 변해 굳어진 것이라고 한다."

"섬에 있는 강은 거의 하나뿐인데, 그 강은 왕궁과 도시가 있었음 직한 자리에서 딱 알맞은 거리에 있다. 그러니 공주 나우시카가 궁의 시녀들과 함께 빨래하러 갈 때 마차를 타고 가서 점심을 먹었던 일도 충분히 그럴 법하다."

구혼자들의 최후

오디세우스는 이제 이타카를 떠난 지 스무 해가 되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고향 땅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테나가 젊은 목동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고, 궁전의 형편도 말해 주었다. 이타카와 이웃 섬들의 백 명이 넘는 귀족들이 오랫동안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청혼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여기고, 그의 궁전과 백성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휘두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복수하려면 무엇보다 오디세우스가 알아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아테나는 그를 볼품없는 거지로 바꾸어 놓았고, 그는 그런 모습으로 그 집안의 충직한 하인인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따뜻하게 맞아들여졌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아 떠나 있었다. 그는 트로이아 원정에서 돌아온 다른 왕들의 궁전을 찾아다녔다. 찾아다니는 동안 아테나의 권유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이타카에 도착하자 구혼자들 앞에 나서기 전에 궁전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갔다. 그런데 에우마이오스와 함께 있는 낯선 나그네가 눈에 띄었다. 나그네는 거지의 차림이었지만 텔레마코스는 그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텔레마코스가 알게 된 바로는 구혼자들이 자기를 가로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에우마이오스를 궁전으로 보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페넬로페에게 은밀히 알리게 했다. 에우마이오스가 떠나자 아테나가 오디세우스 앞에 나타나, 아들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일렀다. 아테나는 동시에 그를 어루만져, 노인과 가난뱅이의 모습을 한순간에 벗겨 내고 본래 그에게 어울리는 장년의 건장한 모습을 되돌려 주었다.
텔레마코스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고, 처음에는 그가 인간을 넘어선 존재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고, 모습이 바뀐 것은 아테나가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목을 두 팔로 끌어안고 울었다.
통곡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두 사람을 함께 사로잡았다. 부드럽게 속삭이며
저마다 제 슬픔에 몸을 맡겼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의논하여, 구혼자들을 어떻게 눌러 이기고 그들이 저지른 횡포에 대해 벌을 줄지 정했다. 텔레마코스는 전과 같이 궁전으로 가서 구혼자들 틈에 섞여 있기로 했다. 오디세우스도 거지 차림으로 궁전에 가기로 했다. 거지라는 신분은 거친 옛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떠돌이 이야기꾼으로서 거지는 족장들의 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종종 손님처럼 대접받았다. 물론 때로는 무례한 푸대접을 받기도 했을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자기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여 자기가 겉보기와 다른 사람임을 안다는 티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자기가 모욕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 것을 보더라도, 그가 어떤 낯선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 궁전에 이르자 그들은 여느 때와 같이 잔치와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구혼자들은 텔레마코스가 돌아온 것을 반기는 체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계략이 실패한 것에 분해하고 있었다. 늙은 거지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식탁에서 나온 음식 한 몫을 받았다.

오디세우스가 궁전의 뜰에 들어설 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다. 늙은 개 한 마리가 뜰에 누워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거의 죽어 가고 있었다. 그 개는 낯선 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머리를 들었고, 두 귀를 곧추세웠다. 그것은 오디세우스 자신의 개인 아르고스였는데, 지난날 그가 사냥에 자주 데리고 다니던 개였다.

> "… 오래 잃었던 오디세우스가
> 가까이 온 것을 알아채자마자, 그의 두 귀가 축 처져
> 머리에 바짝 붙었다. 그리고 꼬리로 반가운
> 인사를 표했으나, 일어설 힘이 없어
> 옛날처럼 주인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다.
> 오디세우스는 그것을 보고 남몰래
> 눈물 한 방울을 훔쳤다.
> … 그러고 나서 운명은 늙은 아르고스를 놓아주었다.
> 스무 해 만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 마침내 보고 난 그 순간에."

홀에서 오디세우스가 자기 몫의 음식을 먹고 있자, 구혼자들은 그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다. 그가 온화하게 항의하자, 그중 한 명이 걸상을 들어 그를 내리쳤다. 텔레마코스는 자기 집 홀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보고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당부를 떠올리고, 비록 어리지만 집의 주인으로서, 또 손님의 보호자로서 어울리는 말만 하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페넬로페는 구혼자들 가운데 누구를 택할지 결정을 너무 오래 미루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남편이 계속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가 더는 돌아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동안 아들은 자라서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구혼자들 사이에서 재주를 겨루어 선택을 정하는 방법에 동의했다. 시험으로 고른 것은 활쏘기였다. 열두 개의 고리를 일렬로 세워 놓고, 화살이 그 열두 개를 모두 꿰뚫는 자가 왕비를 상으로 얻기로 했다. 옛날 오디세우스에게 그의 전우 가운데 한 명이 준 활을 무기고에서 가져와, 화살이 가득 든 전통과 함께 홀에 놓았다. 텔레마코스는 경쟁의 열기 속에서 누군가 성급한 순간에 무기를 엉뚱하게 쓸 위험이 있다는 구실로, 다른 모든 무기를 치워 두도록 신경을 써 두었다.

시험 준비가 모두 끝나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활시위를 걸 수 있도록 활을 구부리는 것이었다. 텔레마코스가 먼저 해 보려 했지만 온 힘을 다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기 힘에 부치는 일을 시도했다고 겸손히 털어놓고 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 사람도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동료들의 웃음과 야유 속에서 포기했다. 또 다른 사람이 해 보았고 그다음 사람도 해 보았다. 그들은 활에 짐승 기름을 발라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활은 휘지 않았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나서서 자기에게도 한번 해 볼 기회를 달라고

겸손하게 청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렇게 거지 꼴이지만 한때는 군인이었소. 내 늙은 팔다리에도 아직 힘이 남아 있소.” 구혼자들은 비웃으며 야유를 퍼부었고, 주제넘은 짓이라며 그를 홀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텔레마코스가 그를 감싸고 나서서, 그저 노인을 기쁘게 해 주려고 한번 해 보라고 허락했다. 오디세우스는 활을 받아 들고 명장의 손길로 다루었다. 그는 쉽게 시위를 활의 홈에 걸었고, 화살을 활에 메겨 시위를 당기며 쏘았다. 화살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고리들을 꿰뚫고 날아갔다.

그들이 놀랄 틈도 주지 않고 그는 “자, 이번에는 다른 과녁이다!” 하고 외치며, 구혼자들 가운데 가장 무례한 자를 똑바로 겨누었다. 화살은 그의 목을 꿰뚫었고, 그는 쓰러져 죽었다. 텔레마코스와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또 한 명의 충직한 하인이 무장을 갖추고 오디세우스 곁으로 뛰어들었다. 구혼자들은 놀라서 무기를 찾아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달아날 길도 없었다. 에우마이오스가 문을 이미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오래 불안에 떨게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주인, 그들이 집을 침범하고 재산을 탕진하며 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아내와 아들을 괴롭혀 온 바로 그 주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복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혼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오디세우스는 자기 궁전의 주인으로, 왕국과 아내의 주인으로 남았다.

테니슨의 시 「율리시스」는 늙은 영웅을 그린다. 그는 위험을 모두 겪고 나서, 이제 집에 머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할 일 없이 지내는 데 지쳐 다시 길을 떠나 새로운 모험을 찾기로 결심한다.

> "… 오라, 벗들이여,
> 새로운 세계를 찾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 노를 저어 나아가자, 자리를 바로 하고 앉아
> 소리 내는 물이랑을 힘껏 치자. 나의 뜻은 변함없으니
> 해 지는 곳 너머로, 서쪽 별들이
> 모두 목욕하는 곳까지 항해하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 어쩌면 깊은 바다가 우리를 휩쓸어 가리라.
> 어쩌면 우리는 복된 섬들에 닿아
> 우리가 알던 위대한 아킬레우스를 다시 보리라," 등등.

제31장

아이네이아스의 모험 — 하르피이아이, 디도, 팔리누루스



피에르나르시스 게랭, 「디도에게 트로이아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아이네이아스」(1815)

아이네이아스의 모험

우리는 그리스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은 방랑을 따라갔다. 이제는 무너진 고향 도시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선, 정복당한 민족의 남은 이들이 겪는 운명을 그들의 우두머리 아이네이아스와 함께 나누려 한다. 목마가 무장한 병사들을 쏟아낸 그 치명적인 밤, 도시가 함락되고 불에 타 버린 그날 밤, 아이네이아스는 아버지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파괴의 현장을 빠져나왔다. 아버지 앙키세스는 나이가 많아 필요한 만큼 빨리 걸을 수가 없었으므로, 아이네이아스는 그를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짐을 진 채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아내를 뒤따르게 하며, 그는 불타는 도시를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그의 아내는 인파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집결지에 이르니 남녀 가릴 것 없이 많은 피난민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아이네이아스의 인도를 따르기로 했다. 몇 달 동안 준비를 한 끝에 마침내 배에 올랐다. 그들은 먼저 이웃한 트라키아 해안에 닿았고, 거기서 도시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아이네이아스는 한 가지 징조에 가로막혔다. 제물을 바치려고 그가 덤불에서 잔가지를 꺾자, 꺾인 자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가 놀라 다시 가지를 꺾으려 하자, 땅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아이네이아스여, 그만두어라. 나는 너의 혈족 폴리도로스다. 여기서 수많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 화살들이 내 피를 먹고 자라 이 덤불이 되었다.” 이 말에 아이네이아스는 폴리도로스가 트로이아의 어린 왕자였음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의 참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라도록 막대한 재물과 함께 그를 이웃 나라 트라키아로 보냈었다. 그런데 그를 맡은 왕은 그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던 것이다. 아이네이아스와 동료들은 이토록 끔찍한 죄의 얼룩으로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기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다음 그들은 델로스 섬에 상륙했다. 이 섬은 한때 물 위에 떠다니던 섬이었으나, 제우스가 금강석 사슬로 바닷속 밑바닥에 붙들어 매었다. 이곳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태어났고, 섬은 아폴론의 성지가 되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여기서 아폴론의 신탁을 구했고, 늘 그렇듯 모호한 답을 얻었다. “너희의 옛 어머니를 찾아가라. 그곳에서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 살며 다른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트로이아인들은 기뻐하며 서로에게 물었다. “신탁이 가리키는 곳은 대체 어디인가?” 앙키세스는 그들의 조상이 크레타에서 왔다는 전승을 떠올렸고, 그들은 그곳으로 배를 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크레타에 닿아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병이 번졌고,

그들이 일군 밭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일이 암담해졌을 때, 아이네이아스는 꿈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 땅을 떠나 서쪽의 헤스페리아라 불리는 땅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곳은 트로이아 민족의 참된 시조인 다르다노스가 본래 떠나온 땅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헤스페리아, 곧 지금의 이탈리아를 향해 앞으로의 항로를 잡았다. 그리고 수많은 모험과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요즘의 뱃사람이라면 세계를 여러 바퀴 돌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처음 상륙한 곳은 하르피이아이의 섬이었다. 이들은 처녀의 머리를 한 역겨운 새들로, 긴 발톱에 굶주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신들이 이들을 보낸 것은 피네우스를 괴롭히기 위해서였다. 피네우스는 잔혹한 짓을 저질러 제우스에게 시력을 빼앗긴 자였다. 누군가 그의 앞에 음식을 차려 놓을 때마다 하르피이아이는 공중에서 내리꽂혀 음식을 채 갔다. 아르고호의 영웅들이 피네우스에게서 이들을 쫓아냈고, 하르피이아이는 아이네이아스가 지금 찾아낸 이 섬으로 피신해 있었던 것이다.

트로이아인들이 항구에 들어서자 평원에 소떼가 흩어져 풀을 뜯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 소를 잡아 잔치를 준비했다. 그러나 식탁에 자리를 잡기가 무섭게 공중에서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역겨운 하르피이아이 떼가 그들을 향해 쏟아져 내려왔다. 새들은 발톱으로 접시의 고기를 낚아채고는 날아가 버렸다. 아이네이아스와 동료들은 칼을 뽑아 괴물들을 힘껏 내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새들은 너무도 날쌔서 맞히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그 깃털은 칼날도 뚫지 못하는 갑옷과 같았다.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가까운 절벽에 내려앉아 소리쳤다. “트로이아인들이여, 우리같이 죄 없는 새들을 이렇게 대하는가? 먼저 우리 소를 죽이고, 이제는 우리와 싸움을 벌이는가?” 그러고는 그들이 앞으로 겪을 끔찍한 고난을 예언하였다. 분노를 쏟아 낸 새는 날아가 버렸다. 트로이아인들은 서둘러 그 땅을 떠났고, 다음에는 에피로스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 상륙하였는데, 놀랍게도 포로로 이곳에 끌려왔던 트로이아의 망명자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헥토르의 미망인 안드로마케는 승리한 그리스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남편이 죽자 그녀는 아들의 후견인으로서 이 나라의 섭정이 되었고, 같은 포로 신세였던 트로이아 왕족 출신의 헬레노스와 다시 혼인하였다. 헬레노스와 안드로마케는 망명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선물을 가득 안겨 떠나보냈다.

그곳을 떠나 아이네이아스는 시칠리아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키클롭스의 땅을 지나갔다. 그러자 해안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불렀는데, 그것은 몰골이 비참한 존재였다.
해진 옷을 보고서야 그들은 그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오디세우스의 동료였는데, 그 장수가 급히
떠나면서 자신을 남겨 두고 갔다고 말하였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와 겪은 모험을 이야기하고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살아갈 방도가 야생 열매와
뿌리뿐이며 키클롭스가 늘 두렵다고 하면서 함께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가 말을 하고 있을 때 폴리페모스가
나타났다. 그것은 모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이었고, 눈은 하나뿐인데 그마저 뽑혀 있었다.
그는 지팡이로 더듬어 가며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바닷가까지
내려와, 뽑힌 눈구멍을 파도에 씻으려 하였다. 물가에 이르자
그는 그들을 향해 물속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 엄청난 키
덕분에 바다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자
트로이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를 저어 달아났다. 노 젓는 소리를 듣고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해안이 울렸다. 그
소리에 다른 키클롭스들도 동굴과 숲에서 쏟아져 나와, 높이

솟은 소나무들처럼 해안을 따라 줄지어 섰다.
트로이아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곧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어졌다.

아이네이아스는 헬레노스에게서 괴물 스킬라와 카리브디스가 지키는 해협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았었다. 독자도 기억하겠지만,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부하 여섯 명을 잃었다. 뱃사람들이 카리브디스를 피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는 사이 스킬라가 그들을 낚아챘던 것이다. 아이네이아스는 헬레노스의 충고를 따라 그 위험한 해협을 피하고, 시칠리아 섬을 따라 항해하였다.

헤라는 트로이아인들이 목적지인 해안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보자, 그들에 대한 오래된 원한이 되살아났다. 파리스가 미의 상을 다른 여신에게 준 모욕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천상의 신들도 마음에 이런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바람들의 주인인 아이올로스에게 서둘러 갔다.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순풍을 보내 주고, 역풍은 자루에 묶어 그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신이었다. 아이올로스는 여신에게 순종하여 아들들인 보레아스, 티폰, 그리고 다른 바람들을 내보내 바다를 뒤흔들게 하였다. 무서운 폭풍이 일어났고, 트로이아의 배들은 항로를 벗어나 아프리카 해안 쪽으로 밀려갔다.

배들은 난파할 위험이 임박했고, 서로 흩어졌다. 그래서 아이네이아스는 자기 배를 빼고는 모두 잃었다고 생각하였다.

이 위기의 순간에 포세이돈은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머리를 파도 위로 들어 올렸다. 그러자 아이네이아스의 함대가 강풍에 밀려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헤라의 적의를 알았기에 이 일이 누구의 짓인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자기 영역에 이렇게 간섭한 데 대한 노여움은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그는 바람들을 불러 엄하게 꾸짖고 물러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파도를 잠재우고, 태양의 얼굴 앞을 가리던 구름을 걷어 냈다. 바위에 얹힌 배 몇 척은 자신의 삼지창으로 직접 떼어 내었고, 트리톤과 바다의 님프는 어깨를 밀어 넣어 다른 배들을 다시 물 위에 띄웠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트로이아인들은 가장 가까운 해안을 찾아 나아갔는데, 그곳은 카르타고의 해안이었다. 아이네이아스는 배들이 하나씩 모두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비록 배들은 심하게 상했지만 말이다.

윌러는 호국경 크롬웰을 기린 시 「호국경 찬가」에서 포세이돈이 폭풍을 가라앉힌 이 일을 암시한다:

파도 위로 포세이돈이 얼굴을 드러내
바람을 꾸짖고 트로이아 족을 구하셨듯,
그처럼 전하께서도 뭇사람 위에 높이 서서,
우리를 뒤흔들던 야심의 폭풍을 잠재우셨도다.

디도

카르타고는 망명자들이 이제 도착한 곳으로, 시칠리아 맞은편 아프리카 해안의 한 자리였다. 그때 그곳에는 여왕 디도가 이끄는 티로스인 식민지가 있었고, 그들은 훗날 로마 그 자체와 맞서게 될 나라의 기초를 놓고 있었다. 디도는 티로스 왕 벨로스의 딸이었고, 아버지의 왕위를 이은 피그말리온의 누이였다. 그녀의 남편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시카이오스였으나, 그의 재물을 탐낸 피그말리온이 그를 죽이게 했다. 디도는 많은 남녀 벗과 추종자들과 함께 여러 척의 배에 시카이오스의 재물을 싣고 티로스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장차 살 곳으로 고른 자리에 닿자, 원주민에게 소가죽 한 장으로 둘러쌀 수 있을 만큼의 땅만 달라고 청했다. 이것이 흔쾌히 허락되자, 그녀는 가죽을 가느다란 끈으로 잘라 그것으로 한 곳을 둘러쌌고, 그 자리에 성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비르사(가죽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이 요새 둘레에서 카르타고 도시가 솟아올라, 곧 강력하고 번성한 곳이 되었다.

그때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아인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디도는 이 저명한 망명자들을 친절과 환대로 맞이했다. “나도 고난을 모르지 않아서, 불행한 이들을 돕는 법을 배웠노라.” 그녀가 말했다. 여왕의 환대는 힘과 기량을 겨루는 경기가 펼쳐지는 잔치로 드러났다. 손님들은 여왕의 백성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승리의 영예를 다투었고, 여왕은 승자가 “트로이아인이든 티로스인이든 그녀에게는 차이가 없다”고 선언했다. [각주 1: 속담 표현 참조.] 경기 뒤에 이어진 잔치에서, 아이네이아스는 여왕의 청에 따라 트로이아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과 도시가 함락된 뒤 자신이 겪은 모험을 들려주었다. 디도는 그의 이야기에 매혹되었고 그의 업적에 감탄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에게 뜨거운 사랑을 품었고, 그 역시 방랑의 행복한 끝과 집, 왕국, 그리고 신부를 한꺼번에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듯했다. 즐거운 교제 속에 여러 달이 흘렀고, 이탈리아와 그 해안에 세워질 운명이었던 제국은 모두 잊힌 듯했다. 이를 본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아이네이아스에게 그의 높은 운명을 일깨우고, 항해를 다시 시작하라고 명했다.

아이네이아스는 디도와 헤어졌다. 디도는 그를 붙잡기 위해 온갖 유혹과 설득을 다 써 보았다. 그러나 사랑과 자존심이 입은 타격이 너무 커서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 그가 떠나

버렸음을 알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세우게 했던 화장용 장작더미에 올라갔다. 그리고 스스로를 찌른 뒤 장작더미와 함께 불타 버렸다. 도시 위로 솟아오르는 불길은 떠나가는 트로이아인들의 눈에 들어왔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불길은 아이네이아스에게 그 치명적인 사건을 어렴풋이 알려 주었다.

다음 경구는 『엘리건트 익스트랙츠』에서 찾을 수 있다:

라틴어에서 옮김

"불행하구나, 디도여, 그대의 운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혼인에서 모두 그러했도다! 한 남편은 죽음으로 그대를 떠나게 했고, 다른 남편은 떠남으로 그대의 죽음을 불렀도다."

팔리누루스

시칠리아 섬에 들러 트로이아 혈통의 왕자 아케스테스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환대를 받은 뒤, 트로이아인들은 다시 배에 올라 이탈리아를 향해 뱃길을 잡았다. 이때 아프로디테가 포세이돈에게 간청하여, 아들이 마침내 바라던 목적지에 이르고 바다에서 겪는 고난을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다. 포세이돈은 그러겠다고 승낙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는 대가로 한 생명을 바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 제물이 된 이는 키잡이 팔리누루스였다. 팔리누루스는 손을 키에 얹은 채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포세이돈이 보낸 힙노스가 포르바스의 모습으로 다가와 말했다. “팔리누루스여, 바람은 순하고 물결은 잔잔하며, 배는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가고 있소. 잠시 누워 필요한 휴식을 취하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해 키를 잡겠소.” 팔리누루스가 대답했다. “잔잔한 바다나 순한 바람 이야기는 내게 하지 마시오. 그 배신을 내가 수없이 겪어 보았소. 날씨와 바람의 우연에 아이네이아스를 맡길 수 있겠소?” 그러고는 여전히 키를 움켜쥔 채 눈을 별에 고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힙노스가 레테의 이슬에 젖은 나뭇가지를 그의 머리 위에서 흔들자, 그가 아무리 버티려 해도 두 눈이 감겼다. 그러자 힙노스는 그를 뱃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렸다. 팔리누루스는 떨어지면서도 키를 놓지 않았고, 키는 그와 함께 뜯겨 나갔다. 포세이돈은 약속을 잊지 않고, 키도 키잡이도 없는 배를 그 항로 위에 그대로 나아가게 했다. 아이네이아스가 그 상실을 알아차릴 때까지 배는 그렇게 갔다. 충실했던 키잡이를 깊이 애도한 아이네이아스는 직접 배의 방향을 잡았다.

스콧의 「마미온」 제1곡 서문에는 팔리누루스 이야기를 아름답게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있다. 시인은 최근 세상을 떠난 윌리엄 피트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 "오, 생각해 보라, 마지막 날까지,
> 죽음이 바로 곁을 맴돌며 제 먹이를 노리던 때에도,
> 팔리누루스와 같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 그는 위험한 자리를 굳게 지켰으니,
> 쉬라는 모든 간청을 물리치고,
> 죽어 가는 손으로 키를 놓지 않았도다,
> 쓰러지는 그 운명의 한 번 흔들림에
> 나라의 키마저 함께 뜯겨 나갈 때까지."

배는 마침내 이탈리아 해안에 닿았고, 모험자들은 기쁘게 땅으로 뛰어내렸다. 사람들이 야영지를 세우는 동안 아이네이아스는 시빌라의 거처를 찾아갔다. 그곳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과 숲에 딸린 동굴이었다. 아이네이아스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시빌라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고 있는 듯했고, 그 자리를 지키는 신의 힘에 이끌려 예언의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가 앞으로 최종 성공에 이르기까지 겪게 될 고난과 위험을 어둡게 암시했다. 그녀는 이후 속담이 된 격려의 말로 끝맺었다. "재앙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에게

무엇이 닥치든 이미 각오를 다졌다고 대답했다. 그에게는 청할 것이 단 하나 있었다. 꿈에서 아버지 앙키세스를 만나 자신과 후손의 앞날에 대한 계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들의 거처를 찾아가라는 말을 들었기에, 그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시빌라가 대답했다. "아베르누스로 내려가는 길은 쉽다. 하데스의 문은 밤낮으로 열려 있으니까. 하지만 발걸음을 되돌려 윗세상의 공기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수고이며 그것이 어려움이다." 그녀는 그에게 숲에서 금빛 가지가 달린 나무를 찾으라고 일렀다. 이 가지는 꺾어서 페르세포네에게 바칠 선물로 가져가야 했다. 운명이 호의를 베푼다면 가지는 손길에 순순히 응해 제 줄기를 떠날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힘으로도 떼어 낼 수 없었다. 떼어 낸다면, 다른 가지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시빌라의 지시를 따랐다. 그의 어머니 아프로디테는 비둘기 두 마리를 보내 그의 앞을 날며 길을 보여 주게 했다. 그 도움으로 그는 나무를 찾아내어 가지를 꺾었고, 그것을 들고 서둘러 시빌라에게 돌아왔다.

제32장

지옥 세계 — 시빌라



요아힘 파티니르, 「스틱스강을 건너는 카론」(1520~1524년경)

지옥 세계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이교도의 세계 창조 이야기를 전했듯이, 이제 끝에 가까워지면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소개하려 한다. 이 세계는 이교도 가운데 가장 깨어 있던 시인 중 한 명이 그렸으며, 그는 가장 존중받던 철학자들에게서 그 교리를 끌어왔다. 베르길리우스가 이 거처로 들어가는

입구를 둔 곳은, 아마 지상의 어떤 곳보다도 무시무시하고 초자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일 것이다. 그곳은 베수비오 근처의 화산 지대로, 땅 전체가 깊은 틈으로 갈라져 있고, 그 틈에서 유황 불꽃이 솟아오르며, 땅은 갇힌 증기로 흔들리고, 대지의 뱃속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새어 나온다. 아베르누스 호수는 사화산의 분화구를 채운 것으로 여겨진다. 둥글고 너비는 반 마일쯤이며 매우 깊다. 높은 둑이 둘러싸고 있는데, 베르길리우스의 시대에는 그 둑이 어둡고 음울한 숲으로 덮여 있었다. 호수 물에서는 독성 증기가 피어올라 둑에는 어떤 생명도 없고, 그 위로는 새도 날지 않는다. 시인에 따르면 바로 이곳에 지옥 세계로 통하는 동굴이 있었고, 아이네이아스는 여기서 지하의 신들, 페르세포네와 헤카테와 복수의 여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땅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언덕 꼭대기의 숲이 흔들렸으며, 개들이 짖어 신들의 다가옴을 알렸다. 그때 시빌라가 말했다. “이제 용기를 내라. 그것이 필요할 테니.” 그녀가 동굴로 내려가자 아이네이아스도 뒤따랐다. 지옥의 문턱 앞에서 그들은 한 무리의 존재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슬픔과 복수하는 근심, 창백한 질병과 우울한 노년, 죄로 이끄는 두려움과 굶주림, 노고와 가난과 죽음으로 열거되는 자들로, 바라보기에도 끔찍한 형상들이었다. 그곳에는 복수의 여신들이 잠자리를 펴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독사로 되어 피 묻은 띠로 묶인 불화도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괴물들도 있었으니, 백 개의 팔을 가진 브리아레오스, 쉭쉭 소리 내는 히드라들, 불을 뿜는 키마이라들이었다. 아이네이아스는 그 광경에 몸서리치며 칼을 뽑아 내려치려 했으나, 시빌라가 그를 말렸다. 그들은 검은 강 코키토스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뱃사공 카론을 만났다. 카론은 늙고 꼴사나웠지만 힘차고 기운찼으며, 온갖 종류의 망자들을 배에 태우고 있었다. 당당한 영웅들, 소년들, 미혼의 소녀들이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만큼이나 많았고, 겨울이 다가오면 남쪽으로 날아가는 새 떼만큼이나 많았다. 그들은 건너갈 길을 얻으려고 밀치며 건너편 기슭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엄격한 뱃사공은 자기가 고른 자들만 태우고, 나머지는 밀쳐 되돌려 보냈다. 아이네이아스는 그 광경에 놀라 시빌라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골라 태우는 것입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배에 오르는 자들은 제대로 장례 의식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다. 매장되지 못하고 남은 나머지 무리는 강을 건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백 년 동안 떠돌며 기슭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에야 건너게 된다.” 아이네이아스는 폭풍에 목숨을 잃은 동료들 몇 명을 떠올리고 슬퍼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배에서 떨어져 익사한 자신의 키잡이 팔리누루스를 보았다. 아이네이아스가 그에게 말을 걸어 그 불행의 원인을 묻자,

팔리누루스는 키가 떨어져 나갔고, 자신은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함께 휩쓸려 갔다고 대답했다. 그는 아이네이아스에게 간곡히 손을 내밀어 자신을 함께 건너편 기슭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시빌라는 하데스의 법을 어기려는 그 소망을 꾸짖었다. 다만 그를 위로하며, 그의 시신이 파도에 밀려간 해변의 사람들이 기이한 징조에 의해 움직여 그에게 제대로 장례를 치러 줄 것이며, 그 곶은 팔리누루스 곶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고 알려 주었다. 그 곶은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이 말에 위로받은 팔리누루스를 남겨 두고, 그들은 배에 다가갔다. 카론은 다가오는 전사를 매섭게 노려보며, 살아 있고 무장한 몸으로 어떤 권리로 이 기슭에 다가오느냐고 물었다. 시빌라는 그들이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네이아스의 유일한 목적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그녀가 황금 가지를 내보이자, 그것을 본 카론의 분노가 누그러졌고, 그는 서둘러 배를 기슭으로 돌려 그들을 태웠다. 육신 없는 영혼들의 가벼운 짐만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배는 영웅의 무게에 삐걱거렸다. 그들은 곧 건너편 기슭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머리가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와 마주쳤다. 그의 목들은 뱀으로 곤두서 있었다. 개는 세 개의 목구멍으로 짖어 댔으나, 시빌라가 약을 탄 과자를 던져 주자 그것을 게걸스럽게 삼키고는, 굴에

드러누워 잠들어 버렸다. 아이네이아스와 시빌라는 땅으로 뛰어올랐다. 가장 먼저 그들의 귀에 닿은 소리는 삶의 문턱에서 죽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였다. 그 가까이에는 거짓 고발을 받아 죽은 자들이 있었다. 미노스가 재판관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며, 각 사람의 행적을 살피고 있었다. 다음 부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삶을 미워하여 죽음에서 피난처를 구한 것이었다. 아, 이제 그들은 얼마나 기꺼이 가난과 노동과 그 밖의 어떤 고통이라도 견디려 할 것인가. 다만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는 슬픔의 세계가 놓여 있었는데, 그곳은 숨겨진 샛길로 나뉘어 있었고, 그 길은 도금양 숲을 지나갔다. 여기서는 응답받지 못한 사랑의 희생자들이 떠돌고 있었으며, 그들은 죽음 그 자체로도 고통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서 아이네이아스는 디도의 모습을 본 듯했고, 그녀의 상처는 아직 생생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한순간 확신하지 못했으나, 가까이 다가가 그것이 틀림없이 그녀임을 알아보았다.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고, 그는 사랑의 어조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불행한 디도여! 그대가 죽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아, 내가 그 원인이었단 말인가? 나는 신들을 증인으로 부르노니, 그대를 떠난 것은 내키지 않았으며 제우스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내 떠남이 그대에게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는

나도 믿지 못했다. 멈추어 달라, 간청하노니, 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거절하지 말라."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눈을 땅에 고정한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러다 바위처럼 그의 간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지나가 버렸다. 아이네이아스는 한참 동안 그녀를 따라갔으나, 무거운 마음으로 동료에게 돌아가 다시 길을 이어 갔다.

그다음 그들은 전쟁에서 쓰러진 영웅들이 떠도는 들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리스인과 트로이아인 전사들의 많은 그림자를 보았다. 트로이아인들은 아이네이아스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를 보고 또 보아도 성에 차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온 까닭을 물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질문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어둑한 대기 속에서 빛나는 그의 갑옷을 보고 그 영웅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트로이아 들판에서 늘 그랬듯이 등을 돌려 달아났다.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아 친구들과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시빌라는 그를 재촉해 데리고 갔다. 그들은 다음으로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는데, 한쪽 길은 엘리시온으로, 다른 쪽 길은 죄인들이 가는 지역으로 이어졌다. 아이네이아스는 한쪽에서 거대한 도시의 성벽을 보았는데, 그 둘레로는 플레게톤이 불타는 물결을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신도 인간도 부수고 들어갈 수 없는 강철 문이

있었다. 문 곁에는 쇠로 된 탑이 서 있었고, 그 위에서는
복수의 여신 티시포네가 망을 보고 있었다. 도시 안에서는
신음 소리와 채찍 소리,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 쇠사슬이
쩔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네이아스는 공포에 질려,
지금 들리는 저 소리는 어떤 죄를 벌하는 소리냐고
안내자에게 물었다. 시빌라가 대답했다. "여기는
라다만토스의 재판정이다. 그는 살아생전 저지른 죄를
밝혀내는데, 죄를 지은 자는 그것이 완전히 숨겨졌다고
헛되이 믿었을 뿐이다. 티시포네가 전갈 채찍을 휘두르며,
죄인을 자매인 다른 복수의 여신들에게 넘긴다."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쇳소리와 함께 청동 문이 열렸고,
아이네이아스는 그 입구를 지키는 머리 쉰 개짜리 히드라를
보았다. 시빌라는 그에게 타르타로스의 구렁이 아주 깊이
내려가 있어서, 그 가장 깊은 곳이 그들의 머리 위로 솟은
하늘만큼이나 발밑으로 멀리 있다고 말했다. 이 구렁의
바닥에는 신들에게 맞선 티탄족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제우스와 겨루려 한 살모네우스도 있었는데, 그는 청동
다리를 놓고 그 위로 전차를 몰아 천둥소리를 흉내 냈고,
번개를 흉내 내어 백성들에게 불붙은 횃불을 던졌다. 결국
제우스가 진짜 벼락을 내리쳐서, 그에게 필멸자의 무기와
신의 무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쳤다. 여기에는 거인
티티오스도 있었다. 그 몸집이 너무 거대해서 누워 있으면

아홉 에이커에 걸쳐 몸이 뻗어 있었고, 독수리 한 마리가 그의 간을 쪼아 먹었다. 간은 먹히는 족족 다시 자라나, 그의 형벌에는 끝이 없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은 무리를 보았다. 그 곁에는 복수의 여신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들이 음식을 입에 대려고 할 때마다 재빨리 낚아채 갔다. 다른 이들은 머리 위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질 듯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들은 형제를 미워했거나, 부모를 때렸거나, 자신을 믿은 친구를 속였거나, 부자가 된 뒤 재산을 혼자 움켜쥐고 남에게는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은 자들이었다. 마지막 부류가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혼인의 맹세를 어긴 자들, 나쁜 명분으로 싸운 자들, 고용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자들도 있었다. 금을 받고 자기 나라를 팔아넘긴 자도 있었고, 법을 뒤틀어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도록 만든 자도 있었다.

익시온은 쉼 없이 돌아가는 바퀴 둘레에 묶여 있었다. 시시포스는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굴려 올리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정상에 거의 다다르면 바위는 어떤 갑작스러운 힘에 밀려 다시 아래 벌판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는 다시 그 바위를 붙잡고 애를 썼다. 땀이 지친 사지를 흠뻑 적셨으나 모두 헛일이었다. 탄탈로스도 있었다. 그는

연못 속에 서 있었는데, 턱은 물 높이에 닿아 있었지만 목이 타는 듯 말랐으나 그 목마름을 달랠 길이 없었다. 물을 마시려고 백발의 머리를 숙이면 물은 달아나 버리고, 발밑의 땅만 바싹 말라 드러났다. 열매가 가득 달린 키 큰 나무들이 그의 머리 위로 가지를 숙였다. 배, 석류, 사과, 달콤한 무화과였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것들을 잡으려 하면 바람이 그것들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휘몰아 올렸다.

시빌라는 이제 아이네이아스에게 이 우울한 곳을 떠나 복된 자들의 도시를 찾을 때라고 일렀다. 그들은 어둠에 잠긴 중간 지대를 지나 엘리시온 들판에 이르렀다. 행복한 이들이 머무는 숲이었다. 그곳에서는 공기가 더 가볍게 느껴졌고, 모든 것이 자줏빛 광채에 감싸여 있었다. 이 땅에는 저만의 해와 별이 있었다. 주민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풀밭 위에서 힘과 기예를 겨루는 놀이를 했고, 어떤 이들은 춤추거나 노래했다. 오르페우스가 리라의 현을 타며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소리를 불러냈다. 여기서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아 나라의 건설자들을 보았다. 더 행복한 시절에 살았던 기품 있는 영웅들이었다. 그는 이제 쓰이지 않고 쉬고 있는 전차와 번쩍이는 무기들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창들은 땅에 꽂힌 채 서 있었고, 멍에를 벗은 말들은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살아생전 옛 영웅들이

느꼈던, 빛나는 무구와 훌륭한 말에 대한 자부심이
이곳에서도 그들과 함께했다. 다른 무리는 잔치를 벌이며
음악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월계수 숲에 있었다.
그곳에서 큰 강 포강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흘러나온다. 여기에는 조국을 위한 싸움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이들이 머물고 있었다. 거룩한 사제들도, 아폴론에
어울리는 생각을 노래한 시인들도 있었다. 또 실용적인
기예에서 이룬 발견으로 삶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인류에게 봉사함으로써 그 기억을 복되게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마에 눈처럼 흰 띠를 두르고 있었다.
시빌라는 그들 가운데 한 무리에게 말을 걸어 앙키세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그를 찾을 곳을 알려 주었고, 두
사람은 곧 푸른 골짜기에서 그를 찾았다. 앙키세스는
그곳에서 자기 후손들의 행렬을 살펴보며, 그들의 운명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룰 가치 있는 업적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아이네이아스를 알아보자 두 팔을
내밀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드디어 왔구나,” 그가
말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 많은 위험을 지나고 너를
다시 보는구나. 오, 내 아들아, 네 여정을 지켜보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 이에 아이네이아스가
대답했다. “오, 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제 앞에서

저를 인도하고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버지를 품에 안으려 했으나, 그의 두 팔이 감싼 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뿐이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앞에서 넓은 골짜기를 보았다. 나무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고요한 풍경 사이로 레테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기슭을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거닐고 있었는데, 여름 공기 속의 벌레만큼이나 많았다.
아이네이아스는 놀라서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앙키세스가 대답했다. “이들은 때가 되면 몸을 받게 될 영혼들이다. 그동안은 레테의 강기슭에 머물며, 지난 삶을 잊는 망각의 물을 마시고 있다.” “오, 아버지!” 아이네이아스가 말했다. “이 고요한 자리를 떠나 위의 세상으로 가기를 바랄 만큼 삶을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앙키세스는 창조의 계획을 설명하며 대답했다. 창조자는 처음에 영혼을 이루는 재료를 네 원소, 곧 불과 공기, 흙과 물로 만들었다. 이 재료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가장 고귀한 부분인 불의 형상을 띠었고, 그것이 곧 불꽃이 되었다. 이 재료는 씨앗처럼 하늘의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 사이에 흩뿌려졌다. 이 씨앗으로 낮은 신들이 사람과 다른 모든 짐승을 만들었는데, 그때 여러 비율의 흙을 섞었다. 그 결과 씨앗의 순수함은 섞여 흐려지고 줄어들었다. 따라서 구성에서 흙이 많을수록 개체는 덜 순수해진다. 우리는 다 자란 몸을 가진 남자와 여자에게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의 결합이 오래 이어질수록 영혼이 입은 더러움도 늘어난다. 이 더러움은 죽은 뒤에 씻겨 나가야 한다. 그 일은 영혼을 바람의 흐름에 쐬어 말리거나, 물에 담그거나, 불로 더러움을 태워 없애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앙키세스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 몇몇 영혼은 곧바로 엘리시온에 받아들여져 그곳에 머문다고 넌지시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영혼들은 땅의 더러움이 씻겨 나간 뒤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삶으로 돌려보내진다. 그때 레테의 물이 지난 삶의 기억을 완전히 씻어 낸다. 하지만 어떤 영혼들은 너무 깊이 타락해 사람의 몸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영혼들은 사자, 호랑이, 고양이, 개, 원숭이 같은 짐승의 몸으로 바뀐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영혼 윤회, 곧 영혼의 이주라고 불렀다. 이 가르침은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그들은 가장 하찮은 짐승의 목숨조차 빼앗기를 꺼린다. 그 짐승이 다른 모습으로 바뀐 친척일지도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앙키세스는 이렇게 많은 것을 설명한 뒤, 아이네이아스에게 앞으로 태어날 그의 후손들을 하나하나 가리켜 보이며, 그들이 세상에서 이룰 업적을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아이네이아스와 그 동료들이 이탈리아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아직 이루어야 할 일들을 아들에게 말해 주었다.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벌여야 했으며, 신부를

얻어야 했다. 그 결과 트로이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로마의 힘이 일어나 언젠가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아이네이아스와 시빌라는 그렇게 앙키세스와 작별하고, 시인이 설명하지 않는 어떤 지름길을 통해 상층 세계로 돌아왔다.

엘리시온

베르길리우스는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시온을 땅 밑에 두고, 축복받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정해 두었다. 그러나 호메로스에게 엘리시온은 죽은 자들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엘리시온을 대지의 서쪽 끝, 오케아노스 가까이에 두고, 눈도 추위도 비도 없고 언제나 제피로스의 상쾌한 미풍이 불어오는 행복한 땅으로 그린다. 신들의 총애를 받은 영웅들은 죽지 않은 채 이곳으로 옮겨 가 라다만토스의 다스림 아래 행복하게 산다. 헤시오도스와 핀다로스가 말하는 엘리시온은 서쪽 대양에 있는 축복받은 자들의 섬, 즉 행운의 섬들에 있다. 바로 이 섬들에서 행복한 섬 아틀란티스의 전설이 생겨났다. 이 복된 땅은 아마 전부

상상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다만 폭풍에 밀려간 몇몇 뱃사람이 아메리카 해안을 얼핏 보았다는 소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제임스 러셀 로웰은 그의 짧은 시 가운데 한 편에서, 현재 시대도 저 행복한 나라의 특권 몇 가지를 누린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 “네 안에 있던 참된 삶은 무엇이든
> 우리 시대의 핏줄 속에서 뛰고 있다.
>
> 여기서 우리의 싸움과 근심이 몰아치는 거친 물결 가운데에는,
> 푸른 ‘행운의 섬들’이 떠 있다.
> 거기에는 너의 모든 영웅들의 영혼이 살아 있어
> 우리의 순교와 수고를 함께 나누고 있다.
> 지금 이 시대는 옛 시절을 빛나게 했던
> 용감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흘러간다.”

밀턴 또한 『실낙원』 제3권 568행에서 같은 신화를 암시한다.

> “옛적에 이름 높던 저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처럼,
> 행복한 들판과 숲과 꽃피는 골짜기,
> 세 번 복된 섬들처럼.”

그리고 제2권에서 그는 에레보스의 강들을, 그리스어에서 그 이름이 지닌 뜻에 따라 묘사한다.

"치명적인 증오의 강, 가증스러운 스틱스여,
깊고 검은 슬픔의 강, 비통한 아케론이여;
요란한 통곡에서 이름을 딴 코키토스,
그 통곡은 슬픈 물결 위에서 들리고; 사나운 플레게톤은
그 불길의 격류 물결로 노여움을 타오르게 한다.
이들에게서 멀리, 느리고 고요한 강 하나,
망각의 강 레테가 흐르며
그 물의 미로를 펼친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곧바로 제 이전의 상태와 존재를 잊나니,
기쁨도 슬픔도, 쾌락도 고통도 잊는다."

시빌라

아이네이아스와 시빌라가 땅 위로 돌아가는 길을 걸을 때, 아이네이아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가 여신이든, 신들이 사랑하는 필멸자이든, 나는 언제나 그대를 공경할 것이오. 내가 윗세상에 이르면 그대를 기리는 신전을 짓게 하고, 나 자신이 제물을 가져오겠소." 시빌라가 말했다. "나는 여신이 아니오. 제사나 제물을 받을 자격도 없소. 나는 죽을 몸이오. 그래도 내가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불멸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는 내가 그의 것이 되겠다고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소. 나는 모래 한 줌을 집어 내밀며 말했소. '내 손에 든 모래알만큼 많은 생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변치 않는 젊음을 달라고 청하는 것을 잊었소. 그것도 내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들어주었을 것이오. 그러나 내가 거절하자 그는 노여워하며 나를 늙어 가게 내버려 두었소. 내 젊음과 젊은 기력은 오래전에 사라졌소. 나는 칠백 년을 살았고, 모래알 수만큼 채우려면 아직 삼백 번의 봄과 삼백 번의 가을을 더 봐야 하오. 해가 갈수록 내 몸은 쪼그라들고, 때가 되면 내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내 목소리만은 남아 있을 것이며 다가올 세대들은 내 말을 존중할 것이오."

이 마지막 말에서 시빌라는 자신의 예언하는 힘을 암시하였다. 그녀는 동굴 안에서 나무에서 딴 잎사귀에 사람들의 이름과 운명을 적곤 했다. 이렇게 글을 적은 잎들은 동굴 안에 차례대로 놓였고, 그녀를 찾아온 이들이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행여 문을 열 때 바람이 불어 들어와 잎들을 흩뜨리면, 시빌라는 그것을 다시 모으는 일을 도와주지 않았고, 그렇게 신탁은 되돌릴 수 없이 사라져 버렸다.

다음의 시빌라 이야기는 더 뒤 시대의 일이다. 타르퀴니우스 가문의 한 왕이 다스리던 때, 한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나 아홉 권의 책을 팔겠다고 제안하였다. 왕은 그 책을 사기를 거절하였고, 그러자 여인은 떠나더니 책 세 권을 불태우고, 돌아와서는 남은 여섯 권을 처음 아홉 권에 불렀던 값에 내놓았다. 왕은 다시 거절하였다. 그러나 여인이 책 세 권을 더 태운 뒤 돌아와, 남은 세 권을 처음 아홉 권에 불렀던 같은

값에 팔겠다고 하자, 왕은 호기심이 일어 마침내 그 책들을 샀다. 책을 살펴보니 로마 국가의 운명이 적혀 있었다. 책은 제우스 카피톨리누스의 신전에 보관되었는데, 돌상자에 담겨 있었고, 그 일을 맡도록 특별히 임명된 관리들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관리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책을 찾아보고, 그 신탁을 백성에게 풀이해 주었다.

여러 시빌라가 있었지만, 오비디우스와 베르길리우스가 쓴 쿠마이의 시빌라가 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오비디우스는 그녀의 삶이 천 년에 이르렀다고 적는데, 이는 여러 시빌라가 사실은 한 사람이 거듭 나타난 것이라는 뜻으로 한 말일지도 모른다.

영은 『밤의 생각들』에서 시빌라를 언급한다. 세속의 지혜를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적는다:

“만약 그녀가 미래의 운명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모두 나뭇잎에 적힌 것이니, 시빌라의 잎처럼 실체 없는 덧없는 행복이다. 첫 바람이 불면 그것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 세속의 계획은 시빌라의 나뭇잎을 닮았으니,
> 선한 사람의 날들도 시빌라의 책에 견줄 만하다,
> 그 값은 권수가 줄어들수록 점점 오른다.”

제33장

카밀라 — 에반데르 — 니수스와 에우리알로스 — 메젠티우스 — 투르누스



루카 조르다노, 「아이네이아스와 투르누스」(1688)

아이네이아스는 시빌라와 헤어진 뒤 함대와 다시 합류하여 이탈리아 해안을 따라 나아가다가 티베르 강 어귀에 닻을 내렸다. 시인은 자신의 영웅을 이 자리, 곧 그 방랑의 운명이 정해 둔 종착지에 데려다 놓은 뒤, 사건이 숨 가쁘게 벌어지던

그 순간의 형세를 들려 달라고 뮤사에게 청한다. 그 땅은 크로노스로부터 3대째 후손인 라티누스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늙었고 아들은 없었지만, 사랑스러운 딸 라비니아가 하나 있었다. 이웃의 많은 족장들이 그녀에게 청혼했는데, 그중에서도 루툴리인의 왕 투르누스가 그녀의 부모의 마음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라티누스의 꿈에 그의 아버지 파우누스가 나타나 경고한 바가 있었다. 라비니아의 운명의 남편은 낯선 땅에서 올 것이며, 그 결합에서 태어날 겨레는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우리 독자들은 기억하겠지만, 하르피이아이와 벌인 싸움에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인 그 괴물 가운데 하나가 트로이아인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예고했었다. 특히 그녀는 방랑이 끝나기 전에 트로이아인들이 굶주림에 내몰려 식탁까지 먹어 치우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이 징조가 이제 실현되었다. 풀밭에 앉아 변변찮은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은 딱딱한 비스킷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숲에서 주워 온 것들을 그 위에 얹었다. 그것을 다 먹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빵 껍질까지 먹었다. 이것을 본 소년 이울루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보세요, 우리가 식탁을 먹고 있어요.” 아이네이아스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징조로 받아들였다. “약속된 땅이여, 그대에게 인사하노라!” 그가 외쳤다. “이곳이 우리의 집이고, 이곳이 우리의 나라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선물과 우호와 동맹을 청하는 말을 지닌 백 명의 가려 뽑힌 사람들이 라티누스의 마을로 보내졌다. 그들은 가서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다. 라티누스는 곧바로 이 트로이아의 영웅이 바로 신탁이 예고한 그 약속된 사위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기꺼이 동맹을 허락했고, 자신의 마구간에서 고른 말에 태우고 선물과 우호의 전언을 가득 실어 사신들을 돌려보냈다.

헤라는 트로이아인들의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보자 묵은 증오가 되살아났다. 그녀는 에레보스에서 알렉토를 불러내어 불화의 씨를 뿌리도록 보냈다. 이 복수의 여신은 먼저 왕비 아마타를 사로잡아 새로운 동맹에 온갖 방식으로 맞서도록 부추겼다. 그런 다음 알렉토는 투르누스의 도시로 서둘러 가서, 늙은 여사제의 모습을 하고 그에게 이방인들이 도착했다는 것과 그들의 왕자가 그의 신부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렸다. 이어서 그녀는 트로이아인들의 진영으로 눈을 돌렸다. 거기서 그녀는 소년 이울루스와 그의 동무들이 사냥을 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사냥개들의 후각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 개들을 몰아 덤불 속에서 한 마리의 길들여진 수사슴을 깨우게 했다. 그 사슴은 왕의 목자 티레우스의 딸 실비아가

아끼던 것이었다. 이울루스의 손에서 날아간 창이 그 짐승에게 상처를 입혔고, 사슴은 간신히 힘을 내어 집으로 달려가 주인의 발밑에서 죽었다. 그녀의 울부짖음과 눈물에 그녀의 형제들과 목자들이 들고일어났고, 그들은 손에 닿는 대로 무기를 움켜쥐고 사냥 무리를 맹렬히 공격했다. 사냥꾼들은 동료들의 보호를 받았고, 목자들은 결국 두 명을 잃은 채 물러나야 했다.

이 일들만으로도 전쟁의 폭풍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왕비도, 투르누스도, 시골 사람들도 늙은 왕에게 그 이방인들을 나라에서 몰아내라고 재촉했다. 왕은 할 수 있는 한 오래 버티었으나, 자신의 반대가 소용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굴복하고 은거지로 물러났다.

문 열린 야누스 신전

그 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에는 최고 행정관이 관복을 입고 엄숙한 의식을 치르며 야누스 신전의 문을 열어야 했다. 그 문은 평화가 이어지는 동안 줄곧 닫혀 있었다. 백성들은 이제 늙은 왕에게 그 엄숙한 의식을 치르라고 재촉했지만, 왕은 응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투는 사이 헤라가 몸소 하늘에서 내려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문을 쳐서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자 온 나라가 곧바로 불길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달려 나왔고, 입에 담는 것은 오직 전쟁뿐이었다.

투르누스는 모두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다른 이들도 동맹자로 합류했다. 그중 우두머리는 메젠티우스였다. 그는 용맹하고 유능한 전사였으나, 끔찍할 만큼 잔인했다. 그는 이웃 도시의 우두머리였지만 백성들이 그를 쫓아냈다. 그와 함께 그의 아들 라우수스가 뜻을 같이했다. 그는 너그러운 청년이었고, 이런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를 가질 만한 사람이었다.

카밀라

카밀라는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는 사냥꾼이자 전사였다. 아마존족의 방식을 따라, 엄선된 여성들이 끼어 있는 기마 무리를 이끌고 와서 투르누스 편에 섰다. 이 처녀는 실패와 베틀을 다뤄 본 적이 없었다. 대신 전쟁의 고됨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바람보다 빠르게 달리는 법을 익혔다. 그녀는 여문 곡식 위를 밟고 지나가도 이삭을 꺾지 않을 것 같았고, 물 위를 달려도 발끝을 적시지 않을 것 같았다. 카밀라의 내력은 처음부터 남달랐다. 그녀의 아버지 메타부스는 내분으로 자기 도시에서 쫓겨났는데, 달아나는 길에 어린 딸을 데리고

갔다. 적들이 바짝 뒤쫓는 가운데 숲을 지나던 그는 아마제누스 강가에 이르렀다. 비에 불어난 강물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어떻게 할지 정했다. 그는 나무껍질로 엮은 포대기로 아기를 자기 창에 묶고, 치켜든 손에 창을 겨눈 채 아르테미스에게 말했다. "숲의 여신이시여! 이 아이를 당신께 바칩니다." 그러고는 짐을 매단 창을 맞은편 강기슭으로 던졌다. 창은 우렁차게 흐르는 물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추격자들은 이미 그의 등 뒤까지 와 있었지만, 그는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건너갔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창을 찾았는데, 아기는 무사했다. 그때부터 메타부스는 목자들 사이에서 살았고, 딸을 숲의 기예 속에서 키웠다. 어린 카밀라는 활 쏘는 법과 투창 던지는 법을 배웠다. 물매로는 두루미나 야생 백조도 떨어뜨릴 수 있었다. 그녀의 옷은 호랑이 가죽이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아르테미스에게 변함없이 충실했고 결혼이라는 생각을 물리쳤다.

에반데르

그런 막강한 동맹군들이 아이네이아스에게 맞서 늘어섰다. 밤이었고, 그는 탁 트인 하늘 아래 강기슭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강의 신, 아버지 티베르가 버들 위로 머리를 드는 듯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신의 아들이여, 라티움 땅을

차지할 운명을 타고난 자여, 여기가 약속된 땅이다. 여기가 너의 집이 될 것이다. 네가 충실히 버티기만 한다면 하늘 권능들의 적개심도 여기서 끝나리라. 멀지 않은 곳에 벗들이 있다. 배를 준비하여 내 물길을 거슬러 노를 저어라. 아르카디아의 우두머리 에반데르에게 너를 인도하겠다. 그는 오래도록 투르누스와 루툴리인들과 다투어 왔고, 너의 동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어나라! 헤라에게 서원을 바치고 그녀의 노여움을 달래라. 승리를 거두거든 나를 기억하라." 아이네이아스는 잠에서 깨어 그 다정한 환영에 즉시 따랐다. 그는 헤라에게 제물을 바치고, 강의 신과 그 모든 지류의 샘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무장한 전사들을 가득 실은 배가 처음으로 티베르 강 위에 떴다. 강은 물결을 고르게 펴고 흐름을 부드럽게 하였으며, 노 젓는 사람들의 힘찬 노질에 따라 배들은 강을 거슬러 빠르게 나아갔다.

그날 한낮쯤 그들은 아직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시의 흩어진 건물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훗날 그곳에서 로마라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자라나, 그 영광이 하늘에 닿게 된다. 우연히도 늙은 왕 에반데르는 그날 헤라클레스와 모든 신들을 기리는 연례 제전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아들 팔라스와 이 작은 공동체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곁에 서 있었다. 숲 가까이로 큰 배가 미끄러져 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놀라서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팔라스는 제전을 중단하지 말라고 명하고, 무기를 집어 들고 강기슭으로 나아갔다. 그는 큰 소리로 그들이 누구이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올리브 가지를 높이 들고 대답했다. "우리는 트로이아인이다. 너희와는 벗이고, 루툴리인들과는 적이다. 우리는 에반데르를 찾아왔으며, 우리의 무기를 너희의 무기와 함께 쓰기를 바란다." 팔라스는 그토록 큰 이름을 듣고 놀라서 그들에게 뭍으로 오르라고 청했다. 아이네이아스가 물가에 발을 대자 팔라스는 그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다정하게 쥐고 있었다. 그들은 숲을 지나 왕과 그 일행에게 다다랐고, 아주 호의적인 환대를 받았다. 식탁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잔치는 계속되었다.

갓 세운 로마

의식이 끝나자 모두 도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늙어 허리가 굽은 왕은 아들과 아이네이아스 사이에서 두 사람 가운데 한쪽의 팔을 잡고 걸었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로 길이 짧게 느껴지게 했다. 아이네이아스는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들으며 그곳 풍경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살피고, 옛 시절에 이름을 떨친 영웅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배웠다. 에반데르가 말했다. "이 넓은 숲에는 한때 파우누스와 님프들이, 그리고 나무에서 태어난 거친 종족이 살았소.

그들에게는 법도 없었고 사회적 교양도 없었지. 소에 멍에를 씌울 줄도, 곡식을 거둘 줄도 몰랐으며, 지금의 풍요에서 앞날의 궁핍을 대비할 줄도 몰랐소. 짐승처럼 나뭇잎이 달린 가지를 뜯어 먹거나, 사냥한 먹이를 게걸스럽게 먹을 뿐이었지. 그러던 때 크로노스가 아들들에게 쫓겨 올림포스에서 내려와 그들 사이에 나타났소. 그는 사나운 야만인들을 한데 모아 사회를 이루게 하고 법을 주었소. 그 뒤로 평화와 풍요가 이어져서 사람들은 그 시절을 황금시대라 불러 왔소. 하지만 차츰 전혀 다른 시대가 뒤를 이었고, 황금에 대한 갈증과 피에 대한 갈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소. 이 땅은 차례차례 나타난 폭군들의 먹잇감이 되었지. 그러다 운명과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소. 나는 고향 아르카디아에서 쫓겨난 망명자라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타르페이아 바위와, 훗날 장엄한 카피톨이 솟아오르게 될 그때는 덤불만 무성하던 거친 자리를 보여 주었다. 다음에는 허물어진 성벽 몇 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는 야누스가 세운 야니쿨룸이 서 있었고, 저쪽에는 크로노스의 도시 사투르니아가 있었다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일행은 가난한 에반데르의 오두막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지금 당당하고 위엄 있는 포룸이 서 있는 자리의 들판을 소 떼가 울며 누비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네이아스를 위해 잎을 두툼하게 채워 넣은 잠자리가 펼쳐졌고, 그 위에는 리비아 곰의 가죽이 덮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지막한 집의 처마 아래에서 새들이 우짖는 맑은 노랫소리와 새벽빛에 잠에서 깬 늙은 에반데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튜닉을 걸치고 어깨에는 표범 가죽을 둘렀으며, 발에는 샌들을 신고 옆구리에는 좋은 칼을 찼다. 손님을 찾아 나서는 그를 두 마리의 마스티프가 따라갔으니, 그 둘이 그의 시종이자 호위대의 전부였다. 그는 충직한 아카테스를 거느린 영웅을 만났고, 곧 팔라스도 와서 합류하자 늙은 왕은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트로이아인이여, 이토록 큰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소. 우리 나라는 약하오. 한쪽은 강에 막혀 있고, 다른 쪽은 루툴리인에게 둘러싸여 있소. 그러나 나는 그대를 수가 많고 부유한 한 민족과 맺어 주고자 하오. 운명이 바로 알맞은 때에 그대를 그 민족에게로 이끈 것이오.
에트루리아인이 강 건너편 땅을 차지하고 있소. 그들의 왕은 메젠티우스였는데, 그는 잔혹하기 짝이 없는 괴물이었소. 복수의 쾌감을 누리려고 전에 없던 끔찍한 고문을 고안해 냈소. 그는 죽은 자를 산 자에게 묶었는데, 손과 손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게 한 채 가련한 희생자들을 그 끔찍한 포옹

속에서 죽어 가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오. 마침내 백성들이 그를, 그리고 그의 가문을 쫓아냈소. 그들은 그의 궁전을 불태우고 그의 측근들을 죽였소. 메젠티우스는 도망쳐 투르누스에게 몸을 의탁했고, 투르누스는 무기로 그를 감싸 보호하고 있소. 에트루리아인은 그를 마땅한 벌을 받도록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벌써 그 요구를 관철하려 했을 것이오. 그러나 그들의 사제들이 그들을 말리고 있소. 이 땅에서 난 자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 수 없고, 그들의 운명이 정한 지도자는 바다 건너에서 와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이오. 그들은 왕관을 내게 내밀었소. 그러나 나는 너무 늙어서 그토록 큰일을 맡을 수 없고, 내 아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라서 선택에서 제외되오. 그대는 출신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무훈으로 보나 똑같이 신들이 지목한 사람이오. 그대가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들은 곧장 그대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맞이할 것이오. 나는 그대와 함께 내 아들 팔라스를 보내겠소. 팔라스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며 위안이오. 그대의 지휘 아래에서 그는 전쟁의 기술을 배우고, 그대의 위대한 업적을 본받으려 애쓸 것이오."

그러자 왕은 트로이아의 장수들을 위해 말을 내주도록 명했다. 아이네이아스는 선발된 부하들을 거느리고 팔라스와 함께 말에 올랐고, 나머지 일행은 배로 돌려보낸 뒤

에트루리아의 도시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아이네이아스와 그의 부하들은 무사히 에트루리아의 진영에 도착했고, 타르콘과 그의 동포들에게 활짝 팔 벌려 환영받았다.

니수스와 에우리알로스

그러는 사이 투르누스는 부하들을 모아 전쟁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헤라는 이리스를 보내 그에게 전갈을 전하였다. 아이네이아스가 없는 틈을 타 트로이아인의 진영을 기습하라는 내용이었다. 투르누스는 그 말대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트로이아인은 이미 경계하고 있었다. 아이네이아스가 자기가 없는 동안에는 싸우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 두었기에, 그들은 참호 안에 가만히 머물렀다. 루툴리인이 그들을 들판으로 끌어내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밤이 되자 투르누스의 군사들은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여기며 기세가 올라 있었다.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즐겼으며, 마침내 들판에 몸을 눕히고 아무 걱정 없이 잠이 들었다.

트로이아인의 진영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경계하며 아이네이아스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니수스는 진영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에우리알로스가 있었다. 에우리알로스는 용모와 훌륭한

기질로 군대 안에서 누구보다 돋보이는 청년이었다. 이 둘은 벗이자 함께 싸우는 전우였다. 니수스가 벗에게 말했다. "적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방심하고 있는지 보이나? 그들의 불빛은 드물고 희미하며, 병사들은 모두 술이나 잠에 짓눌린 듯하네. 우리 지휘관들이 아이네이아스에게 사람을 보내 그에게서 소식을 듣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자네도 알고 있지. 그러니 나는 적의 진영을 뚫고 나아가 우리 지휘관을 찾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네. 내가 성공한다면 그 행위의 영광만으로도 내겐 충분한 보상이 될 걸세. 만약 그들이 이 일이 무언가 더 많은 대가를 받을 만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몫은 자네에게 돌아가게 하게."

에우리알로스는 모험에 대한 열정으로 온몸이 달아올라 대답했다. "그렇다면 니수스, 자네는 이 일을 나와 나누기를 거절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내가 자네를 그토록 위험한 곳에 혼자 보내야 하나? 용감한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네. 아이네이아스의 깃발 아래 들어갈 때 나 스스로 세운 계획도 그렇지 않았고, 명예에 비하면 내 목숨을 하찮게 여기기로 결심했었네." 니수스가 대답했다. "벗이여, 자네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네. 하지만 이런 일의 결과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자네도 알고 있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자네가 무사하기를 바라네. 자네는 나보다 어리고 앞날의 삶이 더 많이 남아 있네. 또 나는 자네

어머니께 그런 슬픔의 원인이 될 수는 없네. 그분은
아케스테스의 도시에서 다른 부인들과 평화롭게 머무는
대신, 자네와 함께 이 진영에 남기를 택하셨으니 말일세."
에우리알로스가 대답했다. "더 말하지 말게. 나를 설득하려고
이유를 찾는 것은 헛수고일세. 나는 자네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네. 우리 지체하지 마세." 그들은 보초를 불러 경계를
맡긴 뒤 사령관의 막사를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아이네이아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다. 두 벗의 제안은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칭찬을 받았고, 성공할 경우
가장 후한 보상을 약속받았다. 특히 이울루스가
에우리알로스에게 말을 걸어,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했다.
에우리알로스가 대답했다. "제게는 단 하나의 청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제 어머니가 이 진영에 계십니다. 저를 위해
어머니는 트로이아의 땅을 떠나셨고, 아케스테스의 도시에서
다른 부인들과 함께 남아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께 작별 인사도 드리지 않고 떠나려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견딜 수도 없었고, 그분의 간청을 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슬픔에 잠기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제 앞에 어떤
위험이 닥치든 더욱 용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울루스와
다른 지휘관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의 청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자네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되실 걸세.” 이울루스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자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자네가 돌아와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머니께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네.”

두 벗은 진영을 떠나 곧바로 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보초도 없었고, 세워 둔 파수병도 없었다. 사방에는 잠든 병사들이 풀밭 위와 마차들 사이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 옛날의 전쟁 규칙은 용감한 사람이 잠든 적을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두 트로이아인은 지나가면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적을 베었다. 한 막사에서 에우리알로스는 금으로 빛나고 깃털 장식이 달린 투구를 전리품으로 챙겼다. 그들은 적의 대열을 들키지 않고 통과했지만, 이제 바로 앞에서 한 무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의 지휘관 볼스켄스가 이끄는 기병대였고, 그들은 진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에우리알로스의 번쩍이는 투구가 그들의 눈길을 끌었다. 볼스켄스가 두 사람을 불러 세우고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기병들은 도주로를 막으려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니수스는 추격을 따돌려 위험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에우리알로스가 보이지 않자, 그는 그를 찾으려고 되돌아섰다. 그는 다시 숲으로 들어갔고, 곧 목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다가갔다. 덤불 사이로 들여다보니,

무리 전체가 에우리알로스를 둘러싸고 시끄럽게 질문을 퍼붓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청년을 구해 낼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그와 함께 죽는 편이 나을 것인가.

그는 이제 맑게 빛나는 달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신이여, 나의 시도를 도우소서!" 그리고 창을 겨누어 던져 무리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의 등을 맞혔다. 창은 그를 평원에 쓰러뜨렸고 한 번의 치명상으로 그는 죽었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한 사이, 또 다른 무기가 날아와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죽어 쓰러졌다. 지휘관 볼스켄스는 창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 칼을 뽑아 들고 에우리알로스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죗값을 네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칼을 그의 가슴에 찔러 넣으려 했다. 그때 숨어서 벗의 위기를 지켜보던 니수스가 앞으로 뛰쳐나오며 외쳤다. "나였다, 나였다! 루툴리인들이여, 칼을 나에게 겨누어라. 그 일은 내가 했다. 그는 벗으로서 나를 따랐을 뿐이다." 그가 말하는 동안 칼이 내리꽂혀 아름다운 에우리알로스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의 머리는 쟁기에 잘려 나간 꽃처럼 어깨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니수스는 볼스켄스에게 달려들어 칼을 그의 몸에 찔러 넣었고, 자신은 그 즉시 무수한 칼질에 맞아 죽었다.

메젠티우스

아이네이아스는 에트루리아 동맹군과 함께 제때 도착하여 포위당하던 야영지를 구했다. 이제 두 군대의 전력이 거의 대등해지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모든 세부를 다 적을 여유는 없으니, 독자에게 소개한 주요 인물들의 운명만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 폭군 메젠티우스는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과 맞서 싸우게 되자 야수처럼 날뛰었다. 그에게 감히 맞서는 자는 모두 죽였고,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무리를 도망치게 했다. 마침내 그는 아이네이아스와 맞닥뜨렸고, 두 군대는 그 결과를 지켜보려고 멈춰 섰다. 메젠티우스가 창을 던졌다. 그 창은 아이네이아스의 방패에 맞고 미끄러져 안토르에게 꽂혔다. 안토르는 그리스 출신으로, 고향 도시 아르고스를 떠나 에반데르를 따라 이탈리아로 왔던 자였다. 시인은 그에 대해 단순하면서도 애처로운 말로 이렇게 노래한다. 이 구절은 그 뒤로 속담이 되었다. “그는 다른 이를 노린 상처에 불운하게 쓰러졌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어 가면서 달콤한 고향 아르고스를 떠올렸다.” 이번에는 아이네이아스가 창을 던졌다. 그 창은 메젠티우스의 방패를 꿰뚫고 그의 허벅지를 상하게 했다. 그의 아들 라우수스는 그 광경을 참을 수 없어 달려 나와 앞을 막아섰고, 그 사이 부하들이 메젠티우스를 에워싸고 그를 실어 갔다. 아이네이아스는 칼을 라우수스 위에 쳐들고 있었으나 차마

내려치지 못했다. 그러나 격분한 젊은이가 계속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라우수스가 쓰러지자 아이네이아스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 위로 몸을 숙였다. “가련한 젊은이여,” 그가 말했다. “그대의 명예에 걸맞게 내가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대가 자랑으로 여기던 그 무구는 간직하라. 그대의 몸은 벗들에게 돌려보내 마땅한 장례의 예우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겁에 질린 부하들을 불러 시신을 그들의 손에 맡겼다.

메젠티우스는 그사이 강가로 옮겨져 상처를 씻었다. 곧 라우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에게 닿았고, 분노와 절망이 힘을 대신했다. 그는 말에 올라 싸움이 가장 격렬한 곳으로 뛰어들어 아이네이아스를 찾았다. 아이네이아스를 찾아내자 그는 그의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면서 창을 차례로 던졌다. 아이네이아스는 방패로 몸을 가린 채 서서, 날아오는 창을 막으려고 사방으로 몸을 돌렸다. 마침내 메젠티우스가 세 바퀴를 돌았을 때, 아이네이아스가 말 머리를 겨냥해 곧장 창을 던졌다. 창은 말의 관자놀이를 꿰뚫었고 말은 쓰러졌으며, 양쪽 군대에서 터져 나온 함성이 하늘을 찢었다. 메젠티우스는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자신의 시신이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의 모욕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아들과 같은 무덤에 묻히도록 해 달라고 청했을 뿐이다. 그는 각오한 채 마지막 일격을 받았고, 목숨과 피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팔라스, 카밀라, 투르누스

전장의 한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투르누스가 젊은 팔라스와 맞닥뜨렸다. 이렇게 실력이 크게 차이 나는 두 용사의 대결은 결과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팔라스는 용감하게 싸웠으나 투르누스의 창에 쓰러졌다. 승자는 용감한 젊은이가 발치에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거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는 정복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죽은 자의 무구를 벗겨 가는 일을 삼갔다. 그는 금 장식과 금 조각이 박힌 허리띠만 가져다 자기 몸에 둘렀다. 나머지는 죽은 자의 친구들에게 돌려주었다.

전투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양군이 죽은 이들을 묻을 수 있도록 무기를 내려놓는 휴전이 있었다. 이 틈을 타 아이네이아스는 투르누스에게 일대일 결투로 승부를 가리자고 도전했지만, 투르누스는 그 도전을 피했다. 이어서 또 한 차례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싸움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는 처녀 전사 카밀라였다. 그녀의 용맹은 가장 용감한 전사들의 것을 넘어섰고, 많은 트로이아인과 에트루리아인이 그녀의 투창에

꿰이거나 전투용 도끼에 맞아 쓰러졌다. 마침내 에트루리아인 아룬스가 나섰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보며 유리한 틈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가 빛나는 갑옷을 입은 달아나는 적을 뒤쫓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갑옷은 그녀에게 탐나는 전리품이었다. 추격에 정신이 팔린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룬스의 창이 그녀를 맞혀 치명상을 입혔다. 그녀는 쓰러졌고, 곁을 지키던 시녀들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녀의 최후를 지켜본 아르테미스는 그녀의 죽음을 그냥 두지 않았다. 아룬스는 기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몰래 빠져나가다가,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요정들 가운데 한 명이 쏜 보이지 않는 화살에 맞았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채 허무하게 죽었다.

마침내 아이네이아스와 투르누스 사이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다. 투르누스는 할 수 있는 한 오래 이 대결을 피해 왔지만, 결국 자기 군대가 잇따라 패하고 부하들이 술렁이자 마음을 다잡고 싸움에 나섰다. 승패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이네이아스 편에는 운명이 분명히 내린 결정이 있었고, 어느 위기에서나 그를 도운 여신 어머니가 있었으며, 그 어머니의 청으로 헤파이스토스가 아들을 위해 만들어 준 뚫을 수 없는 갑옷이 있었다. 반면 투르누스는 천상의 동맹자들에게 버림받았다. 제우스가 헤라에게 더 이상 그를

돕지 말라고 분명히 명했기 때문이다. 투르누스가 창을 던졌지만, 그 창은 아이네이아스의 방패에 맞고 튕겨 나가 아무 해도 입히지 못했다. 이어서 트로이아의 영웅이 창을 던졌고, 그 창은 투르누스의 방패를 뚫고 그의 허벅지를 꿰었다. 그러자 투르누스의 용기는 그를 떠났고, 그는 목숨을 살려 달라고 빌었다. 아이네이아스는 그를 살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투르누스가 살해된 젊은이에게서 빼앗아 허리에 두른 팔라스의 허리띠에 가 닿았다. 즉시 그의 분노가 되살아났고, 그는 "팔라스가 이 일격으로 너를 제물로 바치노라!"라고 외치며 칼로 그를 찔렀다.

여기서 『아이네이스』는 끝나며, 아이네이아스가 적들을 물리치고 라비니아를 신부로 얻었으리라고 짐작하게 된다. 전승은 그가 도시를 세우고 그녀의 이름을 따 라비니움이라 불렀다고 덧붙인다. 그의 아들 이울루스는 알바 롱가를 세웠는데, 그곳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태어난 곳이자 로마 그 자체의 요람이었다.

그 유명한 포프의 시구 가운데 카밀라를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 그는 "소리는 뜻의 메아리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이아스가 거대한 바위를 던지려 애쓸 때, 시행도 힘겹게 애쓰고 낱말들도 느릿느릿 움직인다. 그러나 날랜 카밀라가 들판을 달릴 때는 그렇지 않다. 그녀는 휘지도 않는 곡식 이삭 위를 날듯 지나가고, 바다 위를 스치듯 미끄러져 간다.”

— 『비평론』

제34장

피타고라스 — 이집트 신들 — 신탁



존 콜리어, 「델포이의 여사제」(1891)

피타고라스

아이네이아스에게 한 앙키세스의 가르침, 곧 인간 영혼의 본성에 관한 가르침은 피타고라스학파의 교리와 일치하였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40년에 태어났으며 사모스 섬 출신이었으나, 생애의 대부분을 이탈리아의 크로토나에서 보냈다. 그래서 그는 때로 '사모스인'이라고, 때로 '크로토나의 철학자'라고 불린다. 젊어서 그는 널리 여행하였는데, 이집트를 방문하여 그곳 사제들에게 그들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고 전해진다. 그 뒤 그는 동방으로 나아가 페르시아와 칼데아의 마기를, 그리고 인도의 브라만을 만났다.

크로토나에 정착한 그는 그곳에서 뛰어난 자질로 수많은 제자를 모았다. 주민들은 사치와 방종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그의 영향이 준 좋은 결과는 곧 드러났다. 절제와 검소함이 자리를 잡았다. 주민 육백 명이 그의 제자가 되어, 지혜를 추구하는 일에서 서로 돕기 위한 모임에 이름을 올렸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하나의 공동 자산으로 합쳤다. 그들은 더없이 순수하고 소박한 생활 태도를 지켜야 했다. 그들이 처음 배운 것은 침묵이었다. 한동안 그들은 듣는 자일 뿐이었다. "그분께서 그리 말씀하셨다"(이프세 딕시트)는

말이면 증명 없이도 그들에게는 충분한 근거로 여겨졌다. 여러 해에 걸친 인내 어린 복종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고급 제자들만이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피타고라스는 수를 만물의 본질이자 원리로 여겼으며, 수에 실재하는 고유한 존재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수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였다. 그가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만족스럽게 설명된 적이 없다. 그는 세계의 여러 형태와 현상을 그 바탕이자 본질인 수로 거슬러 올라가 찾았다. 그는 '모나드', 곧 단위를 모든 수의 근원으로 보았다. 수 둘은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증가와 분할의 원인이었다. 셋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의 수라 불렸다. 넷은 제곱을 나타내며 더없이 완전하다. 그리고 열은 네 개의 소수(素數)의 합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음악적·산술적 비례를 포괄하며, 세계의 체계를 나타낸다.

수가 모나드에서 나아가듯, 그는 신성의 순수하고 단순한 본질을 자연의 모든 형상이 비롯되는 근원으로 여겼다. 신들과 정령들과 영웅들은 최고의 존재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네 번째로 흘러나온 것이 인간의 영혼이다. 이 영혼은 불멸하며, 육체의 족쇄에서 풀려나면 죽은 자들의 거처로 옮겨 간다. 거기에 머물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다른 인간이나 짐승의 몸에 깃들며, 마침내 충분히 정화되면

자신이 나왔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원래 이집트에서 비롯되었고 인간 행위에 대한 상벌의 교리와 이어져 있던 이 영혼 윤회(메템프시코시스)의 교리는, 피타고라스학파가 어떤 짐승도 죽이지 않았던 주된 까닭이었다. 오비디우스는 피타고라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그린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언제나 한 거처를 떠나 다른 거처로 옮겨 갈 뿐이다. 나는 트로이아 전쟁 때 판토스의 아들 에우포르보스였던 일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메넬라오스의 창에 쓰러졌다. 최근 아르고스의 헤라 신전에 있을 때, 나는 그곳 전리품들 사이에 걸려 있는 내 방패를 알아보았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때로는 이 몸에, 때로는 저 몸에 깃든다. 짐승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옮겨 가고, 거기서 다시 짐승의 몸으로 돌아간다. 밀랍에 어떤 모양이 새겨졌다가 녹고, 다시 다른 모양이 새겨져도 여전히 같은 밀랍인 것처럼, 영혼도 언제나 같지만 때때로 다른 형상을 입는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가슴속에 혈연의 사랑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대들의 친척일지도 모르는 이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삼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라시아노가 샤일록에게 말하는 대목에서 영혼 윤회를 암시한다.

"너는 거의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피타고라스와 같은 견해를 지니게 만든다. 동물들의 영혼이
스스로를 사람의 몸속으로 불어넣는다는 견해 말이다. 너의
개 같은 영혼은 한 마리 늑대를 다스렸다. 사람을 죽인 죄로
목 매달린 그 늑대가 자기 영혼을 너에게 불어넣었다. 네
욕망이 늑대처럼 피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게걸스럽기
때문이다."

음계의 음들과 수 사이의 관계에서, 같은 시간 간격의 진동이
조화를 낳고 그 반대가 불협화를 낳는다는 사실은
피타고라스로 하여금 '조화'라는 말을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에 적용하게 하였다. 그가 그 말로 뜻한 것은 부분들이
서로에게 알맞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드라이든이
「성 세실리아 축일을 위한 노래」의 서두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생각이다.

"조화로부터, 하늘의 조화로부터 이 영원한 틀이
시작되었으니, 조화에서 조화로 음의 온 범위를 거쳐
흘러갔고, 완전한 음계는 인간에서 완결되었다."

우주의 중심에는 (그가 가르친 바에 따르면) 생명의 원리인
중심 불이 있었다. 이 중심 불을 땅과 달, 해, 그리고 다섯
행성이 둘러쌌다. 여러 천체 사이의 거리는 음계의 비율에
맞는 것으로 여겨졌다. 천체들은 그 안에 깃든 신들과 함께

중심 불 둘레에서 “노래를 곁들여” 원무를 춘다고 여겨졌다. 셰익스피어가 로렌초로 하여금 제시카에게 이런 식으로 천문학을 가르치게 할 때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학설이다.

“보라, 제시카, 하늘의 바닥이 얼마나 밝은 황금 원반으로 촘촘히 박혀 있는지! 네가 보는 가장 작은 천체도 움직일 때 천사처럼 노래한다. 젊은 눈의 케루빔에게 끊임없이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불멸하는 영혼들 안에는 이런 화음이 있다! 그러나 썩어 가는 이 탁한 옷이 그것을 조잡하게 감싸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없다.”

— 『베니스의 상인』

천구(天球)는 수정이나 유리로 된 구조물로, 엎어 놓은 그릇들을 포개 놓은 것처럼 겹겹이 놓여 있다고 여겨졌다. 각 천구의 물질에는 하나 이상의 천체가 박혀 있어서, 그 천구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되었다. 천구는 투명하여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 안에 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돌고 있는 천체들을 본다. 그런데 천구들이 서로 스치며 돌면서 마찰이 없을 수 없고, 그 마찰에서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운 화음이어서, 필멸의 인간 귀로는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다고 했다. 밀턴은 「그리스도 탄생의 찬가」에서 이 천구의 음악을 이렇게 암시한다.

“울려라, 너희 수정 천구들이여! 한 번만이라도 우리 인간의 귀를 축복하라 (너희에게 우리 감각을 그렇게 사로잡을 힘이 있다면). 그리고 너희의 은빛 종소리가 선율의 박자에 맞추어 움직이게 하라. 하늘의 깊은 오르간 저음도 울리게 하라. 너희의 아홉 겹 화음으로 천사들의 교향곡과 어울려 온전한 합창을 이루게 하라.”

피타고라스가 리라를 발명했다고 전해진다. 우리의 시인 롱펠로는 「한 아이에게 주는 시」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다:

“위대한 피타고라스가 옛날 대장간 문 곁에 서서 망치들이 서로 다른 음으로 모루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쇠붙이 하나하나의 혀에서 울려 퍼지는 떨림의 음들로부터 울리는 철사의 비밀을 훔쳐내어 일곱 줄의 리라를 만들었다.”

같은 시인의 「오리온의 행위」도 보라.

“사모스인의 위대한 아이올리아 리라.”

시바리스와 크로토나

시바리스는 크로토나 이웃의 도시로, 사치와 나약함으로 이름이 높았으니 크로토나가 그 반대로 유명했던 것과 짝을 이룬다. 이 이름은 이제 속담처럼 쓰인다. 제이 알 로웰은 그의 아기자기한 짧은 시 「민들레에게」에서 이 뜻으로 이 이름을 쓴다:

"6월 중순에도 황금 갑옷을 입은 벌은 바람 부는 흰 백합의 천막 안에서(그가 정복한 시바리스) 여름다운 따뜻한 황홀감을 이보다 더 느끼지 못하리라. 짙은 초록에서 네 노란 둥근 꽃이 처음 피어났을 때의 나보다는."

두 도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시바리스는 정복되어 파괴되었다. 유명한 운동선수 밀론이 크로토나의 군대를 이끌었다. 밀론의 엄청난 힘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네 살 된 암소를 어깨에 메고 간 뒤 그것을 하루 만에 통째로 먹어 치웠다는 이야기도 그중 하나다. 그의 죽음은 이렇게 전해진다. 어느 숲을 지나가던 그는 나무꾼들이 반쯤 쪼개 놓은 나무 둥치를 보았고, 그것을 더 찢어 열어 보려 했다. 그러나 나무가 다시 닫히며 그의 두 손을 붙잡아 꼼짝 못 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 상태로 늑대들의 습격을 받아 먹히고 말았다.

바이런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치는 송시」에서 밀론의 이야기를 암시한다:

"옛날 참나무를 찢으려 했던 그는 튕겨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나무 둥치에 묶여 헛되이 부러뜨리려 했을 때, 홀로 그는 어떤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던가!"

이집트 신들

이집트인은 가장 높은 신으로 아몬을 섬겼으며, 아몬은 나중에 제우스 또는 제우스 아몬으로 불리게 되었다. 아몬은 자신의 말, 곧 의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고, 그 말이 성별이 다른 크네프와 하토르를 낳았다. 크네프와 하토르에게서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태어났다. 오시리스는 따뜻함과 생명과 풍요의 근원인 태양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나일강의 신으로도 여겨졌는데, 해마다 범람을 통해 자신의 아내인 이시스(대지)를 찾아갔다. 세라피스 또는 헤르메스는 때로 오시리스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때로는 타르타로스의 통치자이자 의술의 신인 별개의 신으로 묘사되었다. 아누비스는 수호신으로, 충실함과 경계심을 상징하는 개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호루스 또는

하르포크라테스는 오시리스의 아들이었다. 그는 연꽃 위에 앉아 손가락을 입술에 댄 모습으로 그려졌으니, 침묵의 신이었다.

무어의 「아일랜드 멜로디」 가운데 한 편에 하르포크라테스를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

"당신은 장밋빛 덩굴 아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말없이 앉아 있으리라. 나일강 물 위에 붉게 피어나는 꽃들 사이에 태어난 소년처럼, 그는 언제나 이렇게 앉아 있으니, 대지와 하늘을 향한 그의 노래는 오직 '쉿, 모두 조용히!' 한마디뿐이로다."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신화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한때 땅으로 내려와 그곳 주민들에게 선물과 축복을 베풀도록 설득되었다. 이시스는 먼저 밀과 보리를 쓰는 법을 보여 주었고, 오시리스는 농사에 쓰는 도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쓰는 법을 가르쳤으며, 소에게 멍에를 씌워 쟁기를 끄는 법도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에게 법을 주고, 혼인 제도를 세우고, 시민 공동체를 조직했으며, 신들을 숭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일 계곡을 행복한 나라로 만든 뒤, 그는 군대를 모아 나머지 세계에도 축복을 베풀러 떠났다. 그는 가는 곳마다 민족들을 정복했지만, 무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음악과

웅변으로 했다. 그의 동생 티폰은 이것을 보고 질투와 악의에 사로잡혀, 그가 없는 동안 왕좌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나라의 통치권을 쥐고 있던 이시스가 그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더욱 원한에 사무친 티폰은 이제 형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실행했다. 일흔두 명으로 이루어진 음모단을 조직한 뒤, 그들과 함께 왕의 귀환을 기리는 잔치에 갔다. 그리고 오시리스의 몸에 꼭 맞도록 만들어 둔 상자나 궤짝을 가져오게 하고, 그 값진 나무로 된 상자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다른 자들은 모두 헛되이 시도했다. 그러나 오시리스가 상자 안에 들어가자마자 티폰과 그의 일당은 뚜껑을 닫고 상자를 나일강에 던져 넣었다. 이시스는 그 잔인한 살해 소식을 듣고 울며 애도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검은 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남편의 시신을 부지런히 찾아 나섰다. 이 수색에서 그녀는 오시리스와 네프티스의 아들인 아누비스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헛되이 찾았다. 물결에 실려 비블로스의 해안에 닿은 상자가 물가에서 자라던 갈대 사이에 얽혀 버렸을 때, 오시리스의 몸에 깃든 신성한 힘이 그 관목에 힘을 불어넣어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했고, 그 나무는 줄기 속에 신의 관을 감싸 안았기 때문이다. 이 나무는 신성한 보물을 품은 채 얼마 뒤 베어져 페니키아 왕의 궁전에 기둥으로

세워졌다. 마침내 아누비스와 신성한 새들의 도움으로 이시스는 이 사실을 알아내고 왕의 도시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궁전에 시녀로 일하겠다고 나섰고, 받아들여지자 변장을 벗어 던지고 천둥과 번개에 둘러싸인 여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가 지팡이로 기둥을 치자 기둥은 갈라져 신성한 관을 내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돌아와 깊은 숲속에 숨겼다. 그러나 티폰이 그것을 찾아내 시신을 열네 조각으로 잘라 여기저기 흩뿌렸다. 고된 수색 끝에 이시스는 열세 조각을 찾아냈는데, 나머지 한 조각은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먹어 버린 뒤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뽕나무 목재로 만든 모조품을 대신 놓고 시신을 필라에 묻었다. 이후 이곳은 민족의 가장 큰 매장지가 되었고, 나라 곳곳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다. 또한 그곳에는 신을 기려 더없이 웅장한 신전이 세워졌고, 그의 사지가 발견된 곳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작은 신전과 무덤이 세워졌다. 그 뒤로 오시리스는 이집트인의 수호신이 되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황소 아피스의 몸에 깃든다고 여겨졌으며, 그 황소가 죽으면 영혼은 뒤를 잇는 황소에게 옮겨 간다고 믿어졌다.

멤피스의 황소 아피스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큰 경외 속에서 숭배받았다. 아피스로 여겨지는 개체는 특정한 징표로 알아볼 수 있었다. 몸은 온통 검어야 했고, 이마에는

흰 사각형 무늬가 있어야 했으며, 등에는 독수리 모양의 또 다른 무늬가 있어야 했고, 혀 밑에는 풍뎅이, 곧 스카라베와 비슷한 모양의 혹이 있어야 했다. 그를 찾으러 보낸 사람들이 이런 표시가 있는 황소를 발견하면, 그 황소를 동쪽을 향한 건물에 들여 넉 달 동안 우유를 먹였다. 이 기간이 끝나면 사제들이 초승달이 뜰 때 성대한 행렬을 이끌고 그의 거처로 가서 그에게 아피스라고 경배했다. 황소는 화려하게 장식된 배에 실려 나일강을 따라 멤피스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두 개의 예배당과 운동을 위한 뜰이 딸린 신전이 그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에게는 제물이 바쳐졌고, 나일강이 불어나기 시작할 무렵이면 해마다 황금 잔을 강에 던졌으며, 그의 생일을 기리는 큰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이 축제 동안 악어들이 타고난 사나움을 잊고 해를 끼치지 않게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운명에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그는 정해진 나이를 넘겨 살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스물다섯 살에 이르고도 아직 살아 있으면, 사제들이 그를 신성한 연못에 빠뜨려 죽인 뒤 세라피스 신전에 묻었다. 이 황소가 죽으면, 그것이 자연사였든 폭력에 의한 것이었든, 온 나라는 슬픔과 애도로 가득 찼고, 그 울음은 후계자가 발견될 때까지 이어졌다.

당시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아피스의 무덤.—멤피스에서 진행 중인 발굴은 이 땅에 묻힌
도시를 폼페이만큼이나 흥미롭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세기 동안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있던 거대한
아피스의 무덤이 이제 열렸다."

밀턴은 「그리스도 탄생의 찬가」에서 이집트의 신들을
언급하는데, 그것을 상상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쫓겨난 실재하는 악마로서 말한다.

> "나일의 짐승 같은 신도 서둘러 달아나고,
> 이시스와 호루스, 개 아누비스도 황급히 달아난다.
> 멤피스의 숲에서도
> 푸른 풀밭에서도
> 소리 높여 울며 비에 젖지 않은 풀을 짓밟는
> 오시리스는 보이지 않는다.
> 그는 자신의 성스러운 궤 안에서
> 쉴 수도 없으니,
> 가장 깊은 지옥만이 그의 수의가 될 뿐이다.
> 북소리 섞인 찬가를 부르며
> 검은 띠를 두른 마법사들이 그가 숭배받던 궤를 메고 나아가도
> 헛일이다."

이시스는 조각상에서 머리를 베일로 가린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신비를 상징한다. 테니슨이 「모드」
4장 8연에서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은 어둡나니, 베일에 가려진 이시스와 같도다.” 등등.

신탁 신탁은 신들 가운데 누구든 미래에 관해 묻는 이들에게 답을 내려 주는 것으로 여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말은 또한 그렇게 내려진 답 자체를 가리키는 데에도 쓰였다.

가장 오래된 그리스의 신탁은 도도나에 있던 제우스의 신탁이었다. 한 전승에 따르면 이 신탁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세워졌다. 이집트의 테바이에서 검은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올랐다. 한 마리는 에피로스의 도도나로 날아가 떡갈나무 숲에 내려앉았고, 그곳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로 이곳에 제우스의 신탁을 세우라고 선포했다. 다른 한 마리는 리비아 오아시스에 있는 제우스 암몬의 신전으로 날아가 그곳에서도 비슷한 명령을 전했다. 다른 전승에 따르면 그 존재들은 비둘기가 아니라 여사제들이었다. 이집트의 테바이에서 페니키아인들이 그들을 데려갔고, 그들이 오아시스와 도도나에 신탁을 세웠다고 한다. 신탁의 응답은 나무들에서 주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이 내는 소리를 사제들이 풀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신탁 가운데 가장 이름 높은 것은 포키스의 파르나소스 산비탈에 세워진 도시 델포이의 아폴론 신탁이었다.

일찍부터 파르나소스에서 풀을 뜯던 염소들이 산허리의 깊고 긴 갈라진 틈 가까이 가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동굴에서 올라오는 특이한 증기 때문이었는데, 한 염소지기가 그 효과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다. 취하게 하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자 그도 염소들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주변 지역 사람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고, 그가 증기의 힘 아래에서 내뱉은 발작적인 헛소리를 신의 영감 탓으로 돌렸다. 이 소문은 곧 널리 퍼졌고, 그 자리에 신전이 세워졌다. 예언의 힘은 처음에는 여신 가이아, 포세이돈, 테미스 등 여러 신에게 돌려졌지만, 마침내 아폴론에게만 돌아가게 되었다. 이 거룩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을 맡은 여사제가 임명되었는데, 그녀는 피티아라고 불렸다. 그녀는 카스탈리아 샘에서 미리 몸을 씻어 이 임무를 준비했고, 월계관을 쓰고 역시 월계수로 장식한 삼발이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는 신의 숨결이 올라오는 틈 위에 놓여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그녀가 내뱉는 영감 어린 말은 사제들이 풀이했다.

트로포니오스의 신탁

제우스와 아폴론의 신탁, 곧 도도나와 델포이의 신탁 말고도 보이오티아의 트로포니오스 신탁이 높이 평가받았다. 트로포니오스와 아가메데스는 형제였다. 둘은 뛰어난 건축가였으며,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을 지었고,

히리에우스 왕을 위한 금고도 지었다. 그들은 금고 벽에 돌 하나를 끼워 두었는데, 그 돌은 빼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 돌을 통해 그들은 이따금 금고의 보물을 훔쳐 냈다. 히리에우스는 놀랐다. 자물쇠와 봉인은 그대로인데도, 그의 재산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도둑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고, 아가메데스가 걸려들었다. 트로포니오스는 아가메데스를 빼낼 수 없었고,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 고문을 받아 공범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으리라 걱정해서 그의 머리를 잘랐다. 트로포니오스 자신도 얼마 뒤 땅속으로 삼켜졌다고 전해진다.

트로포니오스의 신탁은 보이오티아의 레바데이아에 있었다. 전해지기로는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델포이의 신이 보이오티아인들에게 레바데이아의 트로포니오스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일렀다. 그들은 그곳에 갔지만 신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벌 떼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갔고, 벌들은 땅속 깊은 틈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이 찾던 장소임이 드러났다.

신탁을 구하러 온 사람은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했다. 이 예비 절차가 끝나면 그는 좁은 통로를 따라 동굴로 내려갔다. 이 장소에는 밤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사람은 같은 좁은 통로를 따라 뒷걸음질로 동굴에서 돌아 나왔다. 그는

우울하고 낙담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침울한 사람에게 쓰이는 속담이 생겼다. “그는 트로포니오스의 신탁을 듣고 왔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신탁

아스클레피오스의 신탁은 여럿이었으나 가장 유명한 것은 에피다우로스에 있었다. 병든 이들은 이곳 신전에서 잠을 자며 신탁을 구하고 건강의 회복을 바랐다. 전해 내려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병자를 다루던 방식은 오늘날 동물 자기(磁氣)라고 불리는 것, 곧 메스머리즘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뱀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신성한 것이었는데, 아마도 이 짐승들이 허물을 벗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미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스클레피오스 숭배는 큰 역병이 돌던 시기에 로마에 들어왔다. 로마인들은 신의 도움을 구하려고 에피다우로스의 신전으로 사절단을 보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배가 돌아올 때 뱀의 모습으로 배에 동행했다. 배가 티베르강에 이르자 뱀은 배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강 가운데의 섬을 차지했다. 그 섬에는 신을 기리는 신전이 세워졌다.

아피스의 신탁

멤피스에서는 신성한 황소 아피스가 묻는 이들에게 답을 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바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물리치느냐로 답했다. 질문한 사람의 손에서 먹이를 받지 않으면 불길한 징조로 여겼고, 받아먹으면 그 반대로 여겼다.

신탁의 응답이 단순한 인간의 꾸밈에서 나온 것인지, 악령의 작용에서 나온 것인지는 오래 논란이 되어 왔다. 옛 시대에는 뒤쪽 견해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졌다. 메스머리즘의 현상들이 주목을 받은 뒤로는 세 번째 이론이 제기되었다. 피티아 무녀에게 메스머리즘의 몽환 상태와 비슷한 것이 유도되었고, 천리안이라는 능력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교 신탁들이 언제부터 응답을 멈추었느냐는 것이다. 고대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신탁들이 침묵에 들었고, 그 날짜 이후로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밀턴은 「그리스도 탄생의 찬가」에서 이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는 장엄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닌 시행으로, 구세주의 강림 앞에서 이교 우상들이 겪는 공포를 그려 보인다.

"신탁들은 말이 없도다.
속이는 말을 담은 목소리도
흉측한 웅성거림도 아치형 지붕을 울리지 않는다.
아폴론은 제 성소에서
더는 신탁을 내리지 못하고,
속 빈 비명을 지르며 델포이의 가파른 산을 떠난다.
밤마다의 황홀경도, 숨결 실은 주문도
창백한 눈의 사제에게 예언의 방에서 영감을 불어넣지 못한다."

쿠퍼의 시 「야들리 참나무」에는 아름다운 신화적 암시가 몇 군데 있다. 아래 두 구절 가운데 앞의 것은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신화를 가리키고, 뒤의 것은 지금 다루는 주제에 더 가깝다. 쿠퍼는 도토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익어서 떨어졌다. 흙덩이 속에서, 본능으로 자라나는 식물의 힘에 부풀어 너는 껍질을 깨뜨렸다. 지금은 별이 된 저 신화 속 쌍둥이가 제 알을 깨뜨렸듯이. 두 개의 떡잎이 돋아 짝을 이루어 정확히 마주 섰고, 한 잎이 나고 또 한 잎이 났다. 모든 원소가 너의 여린 성장을 자애롭게 돌보았고, 너는 어린 가지가 되었다. 네가 그런 어린 가지였을 때 살아 있던 이는 누구였던가? 네가 말할 수 있다면, 한때 도도나의 네 친척 나무들이 신탁을 전했듯이, 나는 미래를 캐묻지 않겠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네 입에서 나오는 과거를, 덜 모호한 과거를 나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묻고 싶다."

테니슨은 「말하는 떡갈나무」에서 이 시구들로 도도나의 떡갈나무들을 떠올린다.

> 나는 산문과 운율로 그대를 노래하리니,
> 둘 다에서 그대를 더 높이 기리리라,
> 어떤 시인이 너도밤나무나 보리수를 기렸던 것보다,
> 또는 저 테살리아의 수풀보다 더.
> 그 가지에 검은 비둘기가 앉아
> 신비로운 말씀을 전하던 수풀보다도; 등등.

바이런은 델포이의 신탁을 암시한다. 루소를 이야기하며, 그의 글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여긴 바이런은 이렇게 말한다.

> "그때 그는 영감을 받았고,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 옛적 피티아의 신비한 동굴에서 흘러나오던 것처럼,
> 세상에 불을 지른 그 신탁들이,
> 왕국들이 사라질 때까지 타오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제35장

신화의 기원 — 신들의 조각상 — 신화의 시인들



라파엘로, 「파르나소스」(1511)

신화의 기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온 이교 신화의 연작을 마치는 자리에서, 하나의 물음이 떠오른다. “이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들은 어떤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상상력이 꾸는 꿈일 뿐인가?"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이론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1. 성경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신화의 전설은 성경의 기록에서 나왔으며, 다만 실제 사실이 가려지고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데우칼리온은 노아의 다른 이름이고, 헤라클레스는 삼손이며, 아리온은 요나라는 식이다. 월터 롤리 경은 『세계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유발과 투발과 투발카인은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아폴론이었으니, 각각 목축과 대장일과 음악을 발명한 자들이다. 황금 사과를 지키던 용은 하와를 꾀어낸 뱀이었다. 님롯의 탑은 거인들이 하늘에 맞서려던 시도였다." 이런 기묘한 일치는 분명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지나치게 밀고 나가 신화 이야기의 큰 부분을 설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억지가 되고 만다.

2. 역사 이론은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한때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었으며, 그들에 관한 전설과 허구적 전승은 훗날 덧붙여지고 꾸며진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바람의 왕이자 신이었던 아이올로스의 이야기는, 아이올로스가 티레니아 바다의 몇몇 섬을 다스리던 실제 인물이었던 데서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정의롭고 경건한 왕으로 다스리며 원주민들에게 배에 돛을 다는 법과, 대기의 징후를 보고 날씨와 바람의 변화를 읽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용의 이빨을 땅에 뿌렸더니 무장한 사람들이

솟아났다는 카드모스는, 사실은 페니키아에서 건너온 이주민이었다. 그는 그리스에 알파벳 문자를 들여왔고, 이를 원주민들에게 가르쳤다. 이 배움의 초보에서 문명이 자라났다. 시인들은 늘 이 문명을, 인간이 처음 누리던 순수하고 소박했던 황금시대에서 타락한 것으로 묘사하려 했다.

3. 알레고리 이론은 고대인의 신화가 모두 알레고리와 상징이었다고 본다. 그 신화들은 어떤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진리나 역사적 사실을 우화의 형태로 담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글자 그대로 이해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기 자식들을 집어삼키는 크로노스는, 그리스인들이 크로노스(시간)라고 부른 바로 그 힘이다. 이 힘은 스스로 존재하게 한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오의 이야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오는 달이고, 아르고스는 별이 가득한 하늘로, 말하자면 잠들지 않고 그녀를 지켜보는 셈이다. 이오의 신화적 방랑은 달의 끊임없는 공전을 나타내며, 이는 밀턴에게도 같은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가장 높은 정오 가까이를 떠도는 달을 바라본다. 하늘의 넓고 길 없는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처럼."

— 「사색하는 사람」

4. 물리 이론으로, 공기와 불과 물이라는 원소가 본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고 주요 신들은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이론이다. 원소를 의인화하는 데서 자연의 여러 대상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초자연적 존재라는 생각으로 옮아가기는 쉬웠다. 상상력이 풍부했던 그리스인은 온 자연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채웠고, 태양과 바다에서부터 가장 작은 샘과 시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이 어떤 특정한 신의 보살핌 아래 있다고 여겼다. 워즈워스는 그의 「소요」에서 그리스 신화의 이러한 관점을 아름답게 펼쳐 보였다.

"그 아름다운 풍토에서 외로운 목동은 여름날 한나절을 부드러운 풀밭에 누워 음악으로 나른한 휴식을 달랬다. 그러다 피곤에 젖은 어느 순간, 자신의 숨결이 잦아들었을 때 먼 곳에서 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서툰 솜씨로 낼 수 있는 소리보다 훨씬 감미로운 가락이었다. 그의 상상은 태양의 불타는 전차에서 수염 없는 젊은이를 불러왔다. 그 젊은이는 금빛 류트를 튕기며 빛으로 가득 찬 숲을 황홀경으로 채우고 있었다. 위대한 사냥꾼은 눈을 들어 초승달을 바라보며, 제때 빛을 내려 준 사랑스러운 방랑자를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며 자신의 즐거운 사냥을 함께하자고 청했다. 그러자 빛나는 여신이 님프들과 함께, 바위나 동굴에서 되울려 퍼지는 가락 어린 메아리를 동반한 채,

풀밭을 가로지르고 어두운 숲을 헤치며 사냥의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왔다. 달과 별들이 바람이 세차게 불 때 구름 낀 하늘을 빠르게 스쳐 가듯이. 나그네는 시냇물이나 솟아오르는 샘에서 목을 축이며 나이아스에게 감사했다. 멀리 언덕 위의 햇살은 그림자를 거느리고 빠르게 미끄러져 갔는데, 상상력이 조금만 도우면 그것은 눈에 보이게 뛰노는 날랜 오레아데스로 변할 수 있었다. 지나가며 날개를 부채질하는 서풍들도 다정한 속삭임으로 구애할 아름다운 대상이 모자라지 않았다. 세월에 잎과 잔가지를 모두 빼앗긴 시든 나뭇가지들은 기괴한 모습으로, 덥수룩한 덤불 깊은 곳에서 낮은 골짜기나 가파른 산비탈에 고개를 내밀었다. 때로는 살아 있는 사슴의 꿈틀거리는 뿔이나 늘어진 염소의 수염과 뒤섞이기도 했다. 이들이 숨어 있는 사티로스들, 즐겁기를 좋아하는 신들의 거친 무리였다. 또는 저 단순한 목자가 경외하는 신 판 자신이었다."

앞서 말한 모든 이론은 어느 정도까지는 모두 옳다. 그러므로 어느 한 원천에서만 나왔다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원천이 한데 합쳐져 한 민족의 신화가 생겨났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또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신화도 많으며, 적지 않은 신화는 장소와 인물의 이름에 이유를 붙이려는 비슷한 욕구에서 생겨났다.

신들의 조각상

여러 신의 이름으로 마음에 전하고자 한 생각을 눈에 알맞게 나타내는 일은 천재와 예술의 가장 큰 힘을 불러내는 과제였다. 그 많은 시도 가운데 가장 널리 칭송받은 것은 네 가지이다. 앞의 두 작품은 고대인들의 묘사로만 알려져 있고, 나머지 둘은 지금도 남아 있으며 조각 예술의 걸작으로 공인받았다.

올림피아의 제우스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은 페이디아스가 만든 것으로, 그리스 미술 이 분야의 최고 업적으로 여겨졌다. 그 크기는 거대했으며, 옛사람들이 "크리셀레판틴"이라 부른 방식, 곧 상아와 금으로 만든 상이었다. 살을 나타내는 부분은 나무나 돌로 된 속 위에 상아를 입혔고, 옷자락과 다른 장식은 금으로 만들었다. 상의 높이는 마흔 피트였고, 열두 피트 높이의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신은 자신의 옥좌에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머리에는 올리브 화관이 씌워져 있었고, 오른손에는 홀(笏)을, 왼손에는 승리의 여신상을 들고 있었다. 옥좌는 삼나무로 만들어졌고,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조각가가 구현하려 했던 생각은 헬라스(그리스) 민족의 최고신이 정복자로서 완전한 위엄과 평온 속에 옥좌에 앉아, 고개 한 번 끄덕임으로 복종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이었다. 페이디아스는 이 착상을 호메로스가 『일리아스』 제1권에서 그린 장면에서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 대목은 포프의 번역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다.

"그가 말하고 검은 눈썹을 무섭게 숙이며, 암브로시아 같은 곱슬머리를 흔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운명의 도장이요 신의 승낙이었다. 드높은 하늘이 경외하며 그 무서운 신호를 받아들였고, 올림포스 전체가 그 중심까지 흔들렸다."

파르테논의 아테나

이것 또한 페이디아스의 작품이었다. 이 상은 아테나이에 있는 파르테논, 곧 아테나 신전에 서 있었다. 여신은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한 손에는 창을 들었고, 다른 손에는 승리의 여신상을 들었다. 화려하게 꾸민 투구 꼭대기에는 스핑크스가 얹혀 있었다. 이 상은 높이가 마흔 피트였으며, 제우스 상과 마찬가지로 상아와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눈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아마 홍채와 동공을 나타내기 위해 채색되었을 것이다. 이 상이 서 있던 파르테논도

페이디아스의 지휘와 감독 아래 지어졌다. 그 외관은 조각으로 장식되었는데, 그중 많은 것이 페이디아스의 손에서 나왔다. 지금 대영박물관에 있는 엘긴 마블스는 그 조각들의 일부다.

페이디아스의 제우스 상과 아테나 상은 둘 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러 현존하는 조각상과 흉상에서 이 예술가가 두 신의 얼굴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짐작할 만한 근거가 있다. 그 얼굴은 진중하고 위엄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며, 순간적인 표정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상태를 예술의 언어에서는 평온함이라고 부른다.

메디치의 아프로디테

메디치의 아프로디테라고 부르는 까닭은, 약 이백 년 전 처음 주목을 받았을 때 로마의 메디치 가문 군주들이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받침대에 새겨진 명문은 이 작품이 기원전 200년의 아테나이인 조각가 클레오메네스의 작품이라고 기록하지만, 그 명문의 진위는 의심스럽다. 이 조각가는 당국의 의뢰를 받아 여성 아름다움의 완성을 보여 주는 조상을 만들었고, 그 일을 돕기 위해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상들을 모델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톰슨이 그의 「여름」에서 암시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

“세상을 매혹하는 조상은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몸을 굽혀 짝할 데 없는 자랑, 환희에 찬 그리스의 뒤섞인 아름다움을 가리려 애쓴다.”

바이런 역시 이 조각상을 언급한다. 피렌체 박물관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서도 여신은 돌 속에서 사랑하며, 주위의 공기를 아름다움으로 채운다.” 이하 생략.

그리고 다음 연에서,

“피와 맥박과 가슴이 그 다르단 목자의 상을 확인해 준다.”

이 마지막 암시는 제27장에서 설명된다.

아폴론 벨베데레

고대 조각의 남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는 것은 아폴론 상이다. 이 상이 놓였던 로마 교황궁의 방 이름을 따서 벨베데레라고 부른다. 작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략 기원후 1세기의 로마 미술 작품으로 여겨진다. 대리석으로 만든 입상으로 높이가 7피트가 넘고, 목둘레에 걸쳐 왼팔 위로 늘어뜨린 망토 하나만 걸쳤을 뿐 나체이다. 괴물 피톤을 쓰러뜨리려고 화살을 쏜 순간의 신을 나타낸 것이라

여겨진다. (제3장 참조.) 승리한 신은 막 앞으로 발을 내딛는 중이다. 활을 쥐고 있었던 듯한 왼팔은 뻗어 있고, 머리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 있다. 자세와 비례에서 이 인물이 지닌 우아한 위엄은 견줄 데가 없다. 얼굴 표정이 그 효과를 완성한다. 젊고 신다운 아름다움의 완벽함 속에 승리한 힘에 대한 자각이 깃들어 있다.

아르테미스 아 라 비슈

루브르 궁에 있는 「암사슴과 함께한 아르테미스」는 벨베데레의 아폴론과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여길 수 있다. 자세도 아폴론과 많이 닮았고, 크기도 서로 맞으며, 조각 솜씨의 양식도 같다. 최상급 작품이기는 하나, 결코 아폴론과 같은 수준은 아니다. 자세는 급하고 열망에 찬 움직임이고, 얼굴은 사냥의 흥분에 들뜬 사냥꾼의 얼굴이다. 왼손은 옆에서 달리는 암사슴의 이마 위로 뻗어 있고, 오른팔은 어깨 너머로 뒤쪽을 향해 뻗어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고 있다.

신화의 시인들

우리가 트로이아 전쟁과 그리스인의 귀향을 다룬 장들은 대부분 호메로스의 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가져왔는데, 호메로스 자신도 그가 기리는 영웅들만큼이나 신화적인 인물이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눈이

멀고 늙은 떠돌이 악사였다. 그는 하프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이곳저곳을 떠돌았고, 왕궁에서든 농부의 오두막에서든 노래했으며, 생계는 듣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보수에 기대었다. 바이런은 그를 "바위투성이 키오스 섬의 눈먼 노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의 출생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빗댄 잘 알려진 경구는 이렇게 말한다.

"일곱 개의 부유한 도시가 죽은 호메로스를 두고 다투었으나, 살아생전 호메로스는 그 도시들을 돌며 구걸로 빵을 얻었다."

이 일곱 도시는 스미르나, 키오스, 로도스, 콜로폰, 살라미스, 아르고스, 아테나이였다.

현대 학자들은 호메로스의 시들이 단 한 사람의 작품인지 의심해 왔다. 이 의심은 그렇게 긴 시가 보통 이 시들에 부여되는 시기만큼 이른 시대에 문자로 기록되었을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는 데서 생긴다. 그 시기는 현존하는 어떤 비문이나 주화보다도 앞선 시기이며, 그런 긴 작품을 담을 수 있는 재료가 아직 쓰이지 않던 때이다. 반면 그렇게 긴 시가 기억만으로 세대를 거쳐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는지 묻는 이도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랍소도이라 불리는 직업적 집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시를 암송했고, 그 일은 나라와 겨레의 전설을 외워 두었다가 대가를 받고 되풀이하여 읊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학자들 사이에서 우세한 견해는, 이 시들의 골격과 구성의 많은 부분이 호메로스의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끼워 넣거나 덧붙인 부분도 많다는 것으로 보인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근거하여 호메로스의 연대는 기원전 850년으로 여겨진다.

베르길리우스

베르길리우스는 또 다른 이름인 마로로도 불렸다. 그의 시 『아이네이스』에서 우리는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치세를 빛나게 한 위대한 시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는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불린다. 베르길리우스는 기원전 70년 만투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대작은 서사시라는 시 창작의 최상급 자리에서 호메로스의 작품들 바로 다음에 놓인다. 베르길리우스는 독창성과 창의성에서는 호메로스에게 훨씬 못 미치지만, 정확함과 우아함에서는 그를 능가한다. 영국 혈통의 비평가들에게 현대 시인 가운데 이 빛나는 고대의 시인들과 나란히 놓을 만한 이는 밀턴뿐인 듯하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를 빌려 온 그의 시 『실낙원』은 여러 면에서 이 두 위대한 고대 작품 중 어느 것과도 견줄 만하며, 몇몇

면에서는 그보다 낫다. 다음은 드라이든의 경구로, 이 세 시인을 날카로운 비평이 흔히 그러하듯 꽤 정확하게 특징짓는다.

「밀턴에 대하여

「세 시인이 서로 다른 세 시대에 태어나,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잉글랜드를 꾸몄으니, 첫째는 영혼의 고매함에서 남을 넘어섰고, 둘째는 위엄에서, 마지막 시인은 둘 모두에서 그러했다. 자연의 힘은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셋째를 만들려고 자연은 앞의 둘을 하나로 합쳤다.」

쿠퍼의 「식탁 담화」에서 가져온 글:

"호메로스의 등불이 나타나기까지 여러 시대가 흘렀고, 만투아의 백조가 노래하기까지도 여러 시대가 더 흘렀다. 자연을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경지까지 끌어올리고 밀턴을 세상에 내놓기까지는 또 여러 시대가 걸렸다. 이렇게 천재는 정해진 때에 떠올랐다가 졌고, 먼 나라들에까지 새벽빛을 쏘아 보냈다. 그가 고른 지역마다 빛을 주어 드높였다. 그리스에서 가라앉았다가 이탈리아에서 떠올랐고, 고딕 시대의 어둠이 지루한 세월 동안 이어진 뒤에야 마침내

우리 섬에서 온통 찬란한 빛을 내며 솟아올랐다. 사랑스러운 할시온새가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멀리서 빛나는 깃털을 다시 드러내듯이 말이다."

오비디우스

기원전 43년에 태어난 오비디우스는 시에서 흔히 그의 다른 이름인 나소로 불린다. 그는 공직 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꽤 높은 관직을 역임했지만, 그의 즐거움은 시에 있었고 일찍부터 그것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는 동시대 시인들과 교류했으며, 호라티우스와 친분이 있었고 베르길리우스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오비디우스가 아직 너무 어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세상을 떠났기에, 두 사람이 친분을 맺을 수는 없었다.
오비디우스는 넉넉한 수입을 누리며 로마에서 안락한 생활을 했다. 그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가문과 가까이 지냈다.
그런데 그 가문의 한 구성원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원인이 되어, 시인의 행복한 처지를 뒤집고 그의 생애 후반을 어둡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여겨진다. 쉰 살이 되던 해 그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흑해 연안의 토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화려한 수도의 온갖 즐거움과 가장 뛰어난 동시대인들과의 교제에 익숙했던 이 시인은, 이곳 야만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혹독한 기후 속에서 슬픔과 근심에 지쳐

마지막 십 년을 보냈다. 유배지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위안은 아내와 멀리 떨어진 친구들에게 글을 보내는 일이었고, 그의 편지는 모두 시의 형식을 띠었다. 이 시들(『슬픔의 노래』와 『폰투스에서 온 편지』)은 시인의 슬픔 말고는 다른 주제가 없지만, 그의 섬세한 감각과 풍부한 상상력이 지루하다는 비판에서 그것들을 구해 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쁘게, 심지어 공감하며 읽는다.

오비디우스의 두 대표작은 『변신 이야기』와 『축제력』이다. 둘 다 신화를 다룬 시이며,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이야기 대부분을 우리는 앞의 것에서 얻는다. 근래의 한 작가는 이 시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리스의 풍부한 신화는 오비디우스에게 그의 예술을 위한 재료를 주었고, 지금도 시인과 화가와 조각가에게 그런 재료를 줄 수 있다. 오비디우스는 더없이 섬세한 취향과 소박함, 그리고 깊은 애틋함으로 고대의 허구적 전승들을 이야기하며, 오직 숙련된 솜씨만이 줄 수 있는 실재감을 그것들에 불어넣었다. 자연에 대한 그의 묘사는 인상적이고 참되다. 그는 적절한 것을 신중하게 고르고, 쓸데없는 것은 버린다. 그리하여 작업을 마쳤을 때, 그 작품에는 결함도 군더더기도 없다. 『변신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즐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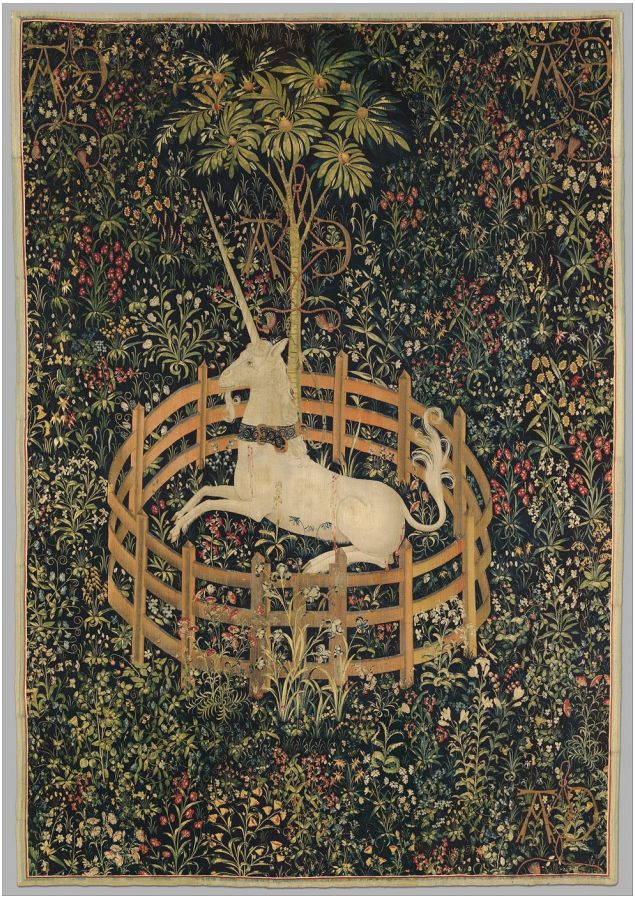
읽고, 더 나이가 든 뒤에 다시 읽으면 더욱 큰 기쁨을 준다. 이 시인은 자신의 시가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아, 로마의 이름이 알려진 곳이면 어디서나 읽히리라고 감히 예언하기도 했다."

그 앞에서 언급한 예언은 『변신 이야기』의 마지막 행들에 담겨 있다. 아래에 그 직역을 싣는다.

"그리하여 이제 나는 내 작업을 마친다. 제우스의 분노도, 세월의 이빨도, 칼도, 불도 이것을 무(無)로 돌리지 못하리라. 몸은 지배하되 정신은 지배하지 못하는 그날이 언제 오든, 그리하여 내 생의 남은 부분을 앗아 가든, 나의 더 나은 부분은 별들 위로 솟아오르리니, 내 명성은 영원토록 이어지리라. 로마인의 무기와 학예가 퍼져 나가는 곳이면 어디서든 사람들은 내 책을 읽으리라. 그리고 시인의 환상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다면, 내 이름과 명성은 불멸을 얻으리라."

제36장

현대의 괴물들: 불사조, 바실리스크, 유니콘, 샐러맨더



「사로잡힌 일각수」(일각수 태피스트리, 1495~1505년경)

현대의 괴물들

고대 미신에서 말하던 “고르고네스, 히드라, 무시무시한 키마이라”의 뒤를 이은 것으로 보이는 상상의 존재들이 있다. 이들은 이교의 거짓 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이교가 기독교에 밀려난 뒤에도 민간의 믿음 속에서 여전히 존재를 누렸던 것 같다. 고전 작가들이 이들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들이 가장 널리 퍼지고 통용된 때는 오히려 더 가까운 시대였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기록을 고대의 시에서보다 옛 박물지와 여행자들의 기록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옮기려는 이야기들은 주로 『페니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불사조

오비디우스는 불사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다른 개체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한 종류가 있다. 아시리아인들은 그것을 포이닉스라고 부른다. 이것은 과일이나 꽃을 먹고 살지 않고, 유향과 향기로운 수지를 먹고 산다. 오백 년을 살고 나면, 떡갈나무 가지 사이나 야자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짓는다. 그 안에 계피와 감송향과 몰약을 모아, 이 재료들로 더미를 쌓고 그 위에 몸을 눕힌다. 그리고 향기 속에서 죽으며 마지막 숨을 내쉰다. 부모 새의 몸에서 어린 포이닉스가 나와, 앞선 새만큼

긴 생을 살도록 정해진다. 이 새가 자라 충분한 힘을 얻으면, 둥지를 나무에서 들어 올려(그것은 자기 요람이자 부모의 무덤이다)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 시로 가져가, 태양의 신전에 내려놓는다."

이것이 시인이 전하는 이야기다. 이제 철학적 역사가의 이야기를 보자. 타키투스는 이렇게 말한다. "파울루스 파비우스의 집정관 재임 기간(기원후 34년)에, 세상에 불사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기적의 새가 오랜 세월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집트를 다시 찾았다. 날아가는 동안 그 새를 따라온 것은 여러 종류의 새들이었는데, 모두 그 새로움에 끌려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새에 대해 앞서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몇 가지 세부를 더한 설명을 한다. "어린 새는 깃털이 나고 날개를 믿을 수 있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 그러나 이 의무는 함부로 떠맡지 않는다. 그는 몰약을 많이 모으고, 자신의 힘을 시험하려고 등에 짐을 지고 자주 짧은 여행을 한다. 자신의 기운에 충분한 확신을 얻으면, 아버지의 몸을 들고 태양의 제단으로 날아가, 향기로운 불꽃 속에서 타도록 그곳에 내려놓는다." 다른 작가들은 몇 가지 사항을 더 덧붙인다. 몰약은 알의 모양으로 뭉쳐지고, 그 안에 죽은 불사조가 들어 있다고 한다. 썩어 가는 죽은 새의 살에서 벌레가 생겨나고, 이 벌레는 자라면서

새로 변한다. 헤로도토스도 이 새를 묘사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림으로 본 것 말고는 직접 본 적이 없다. 깃털의 일부는 금빛이고 일부는 진홍빛이며, 대체로 윤곽과 크기가 독수리와 아주 많이 닮았다.”

불사조가 실재한다는 믿음을 처음으로 부정한 사람은 토머스 브라운 경이었다. 그는 1646년에 펴낸 『통속적 오류』에서 그렇게 했다. 몇 년 뒤 알렉산더 로스가 그에게 반박했다. 불사조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반론에 답하며 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 새는 본능으로 창조물의 폭군인 인간을 피해 다닌다. 인간에게 잡히기만 하면, 세상에 그 새가 한 마리뿐이라 해도 분명 어느 부유한 대식가가 그것을 먹어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드라이든은 그의 초기 시 가운데 한 편에서 불사조를 이렇게 암시한다:

“이처럼 갓 태어난 불사조가 처음 나타나면, 그 깃털 달린 백성들이 모두 여왕을 우러른다. 그리고 여왕이 동방을 거쳐 행차하는 동안, 숲마다에서 그 수많은 무리가 불어난다. 공중의 시인마다 여왕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주위에서 흡족해진 청중이 날개를 쳐 박수를 보낸다.”

밀턴은 『실낙원』 제5권에서 천사 라파엘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불사조에 견준다:

"… 그는 곧장 아래쪽으로 내리닫듯 날아 광막한 하늘을 가로지르며,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를 고요한 날개로 미끄러져 나아간다. 때로는 북풍을 타고, 때로는 빠른 날갯짓으로 풍만한 공기를 가르면서. 마침내 드높이 솟은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는 높이에 이르자, 모든 새들의 눈에 그는 포이닉스처럼 보인다. 모든 이가 우러러보는 그 유일한 새처럼. 그 새가 자기 유해를 태양의 찬란한 신전에 모시려고 이집트의 테바이로 날아갈 때 그러하듯이."

코카트리스, 혹은 바실리스크

이 동물은 뱀들의 왕으로 불렸다. 그가 왕이라는 증거로, 머리 위에 왕관 노릇을 하는 볏, 곧 벼슬을 지녔다고 전해졌다. 그는 두꺼비나 뱀 아래에서 부화한 수탉의 알에서 태어난다고 여겨졌다. 이 동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한 종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마다 태워 버렸다. 둘째 종은 떠도는 메두사의 머리 같은 것이었는데, 그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를 자아냈고 그 공포 뒤에는 곧바로 죽음이 뒤따랐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에서 앤 부인은 리처드가 그녀의 눈을 칭찬하자 이렇게 답한다. "이 눈이 바실리스크의 눈이어서 당신을 쏘아 죽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바실리스크는 뱀들의 왕이라 불렸다. 다른 모든 뱀과 독사들은 좋은 신하처럼 행동했고, 불에 타 죽거나 맞아 죽기를 현명하게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들려오는 왕의 쉭쉭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아났다. 그들이 아무리 맛있는 먹이를 한창 먹고 있었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잔치는 오로지 왕인 괴물 혼자 즐기게 되었다.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다른 뱀들처럼 몸을 여러 번 굽혀 움직이지 않고, 높이 곧추선 채 나아간다. 그는 닿기만 해도 관목을 죽일 뿐 아니라 숨을 내뿜어서도 죽이며, 바위를 쪼갠다. 그에게는 그런 사악한 힘이 있다." 예전에는 말을 탄 채 창으로 바실리스크를 찔러 죽이면, 무기를 타고 흐른 독의 힘이 기수만이 아니라 말까지 죽인다고 믿었다. 루카누스는 다음 시행에서 이것을 빗대어 말한다.

"무어인이 바실리스크를 죽여 모래밭에 죽은 채로 박아 두었다 해도, 교묘한 독은 창을 타고 올라와 손에 스며들고, 승자는 죽고 만다."

그런 기이한 것은 성인들의 전설에서 빠질 리 없었다. 실제로 어떤 거룩한 사람이 사막의 샘으로 가다가 갑자기 바실리스크를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는 곧장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신에게 경건하게 호소하여 그 괴물을 죽여 자기 발밑에 쓰러뜨렸다.

바실리스크의 이런 놀라운 힘은 갈레노스, 아비켄나, 스칼리거 등 많은 박식한 사람들이 증언하였다. 이따금 어떤 이는 이야기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학식 있는 의사 요스턴은 현명하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이 눈빛으로 죽인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그걸 보고도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훌륭한 현자는 이런 바실리스크를 사냥하러 가는 사람들이 거울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거울은 치명적인 눈빛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보냈고, 일종의 시적 정의에 따라 바실리스크는 자기 무기에 맞아 죽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괴물을 무엇이 공격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에는 그 천적이 있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는데, 코카트리스조차 족제비 앞에서는 움츠러들었다. 바실리스크는 노려보며 비수처럼 쏘아볼 수 있었지만, 족제비는 개의치 않고 대담하게 싸움터로 나아갔다. 물린 족제비는 잠시 물러나 운향을 뜯어 먹었다.

운향은 바실리스크가 시들게 할 수 없는 유일한 식물이었다. 족제비는 새로운 힘과 건강을 되찾아 다시 공격에 나섰고, 적이 들판에 죽어 쓰러질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 괴물 또한, 자신이 이상한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듯, 수탉을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럴 만도 했다.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실리스크는 숨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바실리스크는 죽은 뒤에도 쓸모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시체는 거미를 막는 특효약으로 아폴론의 신전과 개인 집에 걸렸다. 또 아르테미스의 신전에도 걸렸는데, 그 때문에 제비는 그 신성한 곳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독자는 지금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꽤 질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코카트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은 우리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묘사는 16세기의 저명한 박물학자 알드로반디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의 자연사 저작은 전부 열세 권짜리 대작으로, 가치 있는 내용도 많지만 우화와 쓸모없는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그는 수탉과 황소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길게 늘어놓는데, 그의 이런 버릇 때문에 두서없고 수다스러우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수탉과 황소 이야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알드로반디는 식물원을 세운 사람이자, 오늘날 널리 퍼진 연구와 조사를 위해 과학 표본을 모으는 관행을 처음 개척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셸리는 1820년 나폴리에서 입헌 정부가 선포되었다는 소식에 고무되어 쓴 「나폴리에 바치는 노래」에서, 바실리스크를 암시하는 다음 구절을 이렇게 사용한다.

"킴메리아인처럼 어둠에 사는 폭군들이 자유와 그대를 모독한다 한들 무슨 상관이랴? 그들의 잘못은 새로운 악타이온의 잘못이 되리니, 제 사냥개들에게 잡아먹히고 말리라! 그대는 제왕 같은 바실리스크처럼 되어라. 보이지 않는 상처로 적을 죽이라! 압제를 응시하라, 그 무서운 위험에 질려 압제가 땅의 원반에서 떠나갈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응시하라. 자유인은 더 강해지고, 노예는 제 적을 응시하며 더 약해지기 때문이다."

일각수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일각수에 관한 기록을 남겼고, 현대의 일각수 대부분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묘사되고 그려졌다. 그는 이 짐승을 "매우 사나운 짐승이다. 그 몸의 나머지는 말과 비슷하며, 머리는 사슴의 것이고, 발은 코끼리의 것이며, 꼬리는 멧돼지의 것이다. 목소리는 깊고

으르렁거리며, 이마 한가운데에는 길이가 두 큐빗인 검은 뿔 하나가 돋아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산 채로 잡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 시절에는 원형 경기장의 무대에 살아 있는 짐승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런 핑계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일각수는 사냥꾼들에게 골치 아픈 수수께끼였던 것 같다. 그렇게 값진 사냥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뿔이 짐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자면 일종의 작은 검과 같다고 묘사했다. 그렇다면 검술에 극히 능숙하지 않은 사냥꾼은 조금도 이길 가망이 없을 것이었다. 다른 이들은 짐승의 힘이 모두 뿔에 있으며, 쫓기다 몰리면 가장 높은 바위의 꼭대기에서 뿔부터 먼저 떨어지듯 몸을 던져, 뿔로 땅을 찍고는 떨어진 일로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조용히 걸어 떠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결국 가엾은 일각수를 속일 방법을 찾아낸 듯하다. 그들은 일각수가 순결과 순수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어린 처녀 하나를 데리고 들판에 나섰다. 그들은 의심을 모르는 그 연모자의 길목에 처녀를 세워 두었다. 일각수가 그녀를 보자 극진한 경의를

품고 다가와 그녀 곁에 엎드리더니,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누이고 잠이 들었다. 그러자 그 배신한 처녀가 신호를 보냈고, 사냥꾼들이 달려들어 순진한 짐승을 사로잡았다.

현대 동물학자들은 이런 우화에 질릴 만도 하여, 일각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대체로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에 뿔과 비슷한 뼈 돌기를 단 동물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이야기의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른바 코뿔소의 뿔이 바로 그런 돌기다. 높이가 몇 인치를 넘지 않고, 일각수의 뿔에 대한 묘사와도 거의 맞지 않지만 말이다. 이마 한가운데에 있는 뿔과 가장 가까운 것은 기린 이마에 있는 뼈 돌기다. 그러나 이것도 짧고 뭉툭하며, 기린에게 뿔이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이 돌기는 다른 두 뿔 앞에 선 세 번째 뿔이다. 요컨대 코뿔소 말고 다른 외뿔 네발짐승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겠으나, 말이나 사슴을 닮은 살아 있는 동물의 이마에 길고 단단한 뿔이 박혀 있다는 것은 더없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살라만더

다음은 16세기 이탈리아 예술가 벤베누토 첼리니가 직접 쓴 『벤베누토 첼리니의 생애』에서 옮긴 대목이다. 내가 다섯 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마침 빨래를 하던 작은 방에

계셨다. 그 방에는 참나무가 활활 타고 있었다. 아버지는 불꽃을 들여다보다가, 도마뱀을 닮은 작은 동물 한 마리를 보셨다. 그 동물은 불 가운데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에서 살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아보셨다. 아버지는 누이와 나를 불러, 그 생물을 보여 주신 뒤 내 귀를 한 대 치셨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내가 너를 때린 것은 네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다. 불 속에 있는 이 작은 생물이 살라만더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때린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이런 것은 이제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버지는 나를 안아 주시고, 얼마간의 돈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첼리니 씨는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리니우스를 우두머리로 한 수많은 현명한 철학자들이 살라만더의 이런 힘을 확언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동물은 불을 견딜 뿐 아니라 불을 끄기도 하며, 불꽃을 보면 그것을 자신이 잘 이길 줄 아는 적으로 여기고 덤벼든다.

불을 견딜 수 있는 동물의 가죽이 불에 타지 않는다고 여겨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실제로 살라만더 가죽(살라만더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마뱀의 일종이다)으로 만든 천은 타지

않았고, 다른 어떤 덮개에도 맡기기에는 너무 귀한 물건을 싸는 데 매우 값진 것으로 쳐졌다. 이런 내화포는 실제로 만들어졌으며 살라만더의 털로 짰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아는 이들은 그 재료가 광물인 석면이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석면은 가는 섬유로 이루어져 유연한 천으로 짤 수 있다.

이상의 우화들은 살라만더가 몸의 땀구멍에서 실제로 젖빛 액을 분비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살라만더가 자극을 받으면 이 액이 꽤 많은 양으로 나오고, 그것은 틀림없이 잠깐 동안은 몸을 불로부터 지켜 준다. 또 살라만더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어서, 겨울에는 속이 빈 나무나 다른 구멍 속으로 들어가 몸을 둥글게 말고 봄이 다시 불러낼 때까지 혼수상태로 있다. 그러므로 살라만더는 이따금 땔감과 함께 불 속으로 실려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시간만 얻는다. 그 끈끈한 액은 쓸모 있게 작용할 것이다. 그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동물이 있는 힘껏 달려 불에서 빠져나갔다고 증언한다. 사실 그들이 한 마리라도 잡는 일은 한 번만 빼고는 결코 없었을 만큼 빨랐다. 그리고 그 한 번에도 그 동물의 발과 몸의 일부가 심하게 탔다.

영 박사는 『밤의 상념』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회의론자를 불 속에서도 따뜻해지지 않는 살라만더에 빗대는데, 그 비유는 좋은 취향이라기보다 기묘한 멋을 부린 것이다.

"천문학자가 신심이 없다면 미친 자다!"

"오, 하늘에 생명을 불어넣는 정신은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그렇다면 로렌초의 살라만더 같은 심장은 이 성스러운 불길 속에서도 차갑고 무감각하단 말인가?"

제37장

동양 신화 — 조로아스터 — 힌두 신화 — 카스트 — 부처 — 대라마



라자 라비 바르마, 「사라스바티」(1894)

조로아스터

고대 페르시아인의 종교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주로 그 민족의 성스러운 책인 젠다베스타에서 얻은 것이다. 조로아스터는 그들 종교의 창시자였다. 아니, 그보다는 그에 앞서 있던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라고 하는 편이 맞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체계가 키루스 시대(기원전 550년)부터 대왕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까지 서아시아의 지배적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마케도니아 왕조 아래에서 조로아스터의 교리는 외래 사상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교리는 나중에 다시 우위를 회복하였다.

조로아스터는 최고의 존재가 있다고 가르쳤다. 그 존재는 다른 두 강력한 존재를 창조했고, 자신의 본성 가운데 그가 보기에 좋다고 여겨진 만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둘 가운데 오르무즈드(그리스인은 오로마스데스라고 불렀다)는 창조자에게 충실하게 남아 모든 선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반면 아리만(아리마네스)은 반기를 들어 땅 위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었다. 오르무즈드는 인간을 창조하고 행복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갖추어 주었다. 그러나 아리만은 세상에 악을 들여오고 사나운 짐승과 독이 있는 파충류와 식물을 만들어 이 행복을 망쳐 놓았다. 그 결과 지금 세상의 모든

곳에서 선과 악이 뒤섞여 있으며, 선과 악의 추종자들, 곧 오르무즈드와 아리만의 편에 선 이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벌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르무즈드의 추종자들이 어디에서나 승리하고, 아리만과 그의 무리가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힐 때가 올 것이다.

고대 페르시아인의 종교 의식은 매우 단순하였다. 그들은 신전도, 제단도, 신상도 쓰지 않았고,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불과 빛과 태양은 모든 빛과 순결의 근원인 오르무즈드의 상징으로 숭배하였으나, 이것들을 독립된 신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종교 의식과 예식은 마기라고 불린 사제들이 주관하였다. 마기의 학문은 점성술과 주술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이 분야에서 명성이 높아서 그들의 이름이 온갖 종류의 마법사와 주술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워즈워스는 페르시아인의 숭배를 이렇게 언급한다.

"… 페르시아인은 제단과 신상을 거부하고, 사람 손으로 지은 신전의 벽과 지붕도 거부하였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 머리에는 도금양 화관을 두른 관을 쓴 채, 그 꼭대기에서 달과 별에게 제물을 바쳤고, 바람과 어머니인 원소들에게도, 하늘 전체의 둥근 테두리에게도 바쳤다. 그에게 그 하늘은 감각이 있는 존재이자 신이었다."

— 『방랑자』 제4권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에서 바이런은 페르시아인의 숭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옛 페르시아인이 높은 산봉우리와 땅을 굽어보는 산들의 정상을 제단으로 삼은 것은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걸맞은 신전, 벽 없는 성소를 얻었으니, 그곳에서 영을 찾았다. 인간의 손으로 세운 성소는 그 영을 기리기에 초라하다. 와서 비교해 보라. 기둥이 있는 신전이든 고트인이나 그리스인의 우상 집이든, 땅과 하늘이라는 자연의 예배 공간과 견주어 보라. 그대의 기도를 가두어 둘 부질없는 거처에 마음을 붙들어 매지 마라."

제3편 91연

조로아스터의 종교는 기독교가 들어온 뒤에도 계속 번성하여, 3세기에는 동방의 지배적인 신앙이었다. 그러다 7세기에 마호메트 교세가 일어나고 아랍인이 페르시아를 정복하자 대다수 페르시아인은 옛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당했다. 조상의 종교를 버리기를 거부한 이들은 케르만 사막과 힌두스탄으로 도망쳤고, 지금도 파르시인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남아 있다. 이 이름은 페르시아의 옛 이름 파르스에서 왔다. 아랍인은 그들을 '믿지 않는 자'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따와 게브르인이라고 부른다. 봄베이의 파르시인은 오늘날에도 매우 활동적이고 지적이며 부유한 계층이다. 순결한 생활, 정직함, 온화한 태도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그들에게는 불을 신성의 상징으로 숭배하는 사원이 많이 있다.

페르시아의 종교는 무어의 『랄라 루크』에 실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불을 섬기는 사람들」의 소재가 된다. 게브르인 족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 나는 그 불경한 종족의 사람이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늘의 살아 있는 빛들 가운데 있는 창조자의 거처에 경배하는 불의 노예들. 그렇다! 나는 이란과 복수에 충실한 그 추방된 무리의 사람이다. 그들은 너희 아랍인이 와서 우리의 불꽃 제단을 더럽힌 그 시각을 저주하며, 신의 불타는 눈 앞에서 맹세한다. 우리 나라의 쇠사슬을 끊거나 죽겠다고."

힌두 신화

힌두교는 표면적으로 베다에 기초한다. 그들은 이 성전의 책들에 가장 큰 신성함을 부여하며, 브라흐마 자신이 창조 때 그것들을 지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베다 체계는 약 오천 년 전 현자 비야사가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다는 한 최고신에 대한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신의 이름은 브라흐마이다. 그의 속성은 창조, 보존, 파괴의 세 가지 인격화된 힘으로 나타나며, 이것들은 각각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라는 이름으로 힌두교의 주요 신들로 이루어진 삼신(三神)인 트리무르티를 이룬다. 하위 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늘과 천둥, 번개, 폭풍, 비의 신 인드라. 둘째, 불의 신 아그니. 셋째, 지하 세계의 신 야마. 넷째, 태양의 신 수리야이다.

브라흐마는 우주의 창조자이며, 모든 개별 신이 그로부터 생겨났고 결국 모두가 그 안으로 흡수될 근원이다. “우유가 응유가 되고, 물이 얼음이 되듯, 브라흐마도 외부의 어떤 수단의 도움도 없이 여러 모습으로 변하고 다양해진다.” 베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불꽃이 불의 일부인 것과 같이 최고의 통치자의 일부이다.

비슈누

비슈누는 힌두교의 삼신(三神) 가운데 둘째 자리를 차지하며, 세상을 보존하는 원리를 의인화한 신이다. 위험에 처한 여러 시대마다 세상을 지키기 위해 비슈누는 다양한 화신, 곧 몸을 입은 형상으로 땅에 내려왔으며, 이러한 강림을 아바타라라고 부른다. 아바타라는 매우 많지만, 그중 열

가지가 특히 자세히 전해진다. 첫 번째 아바타라는 물고기인 마츠야였다. 이 모습으로 비슈누는 온 세상을 덮은 대홍수 동안 인류의 조상 마누를 보호하였다. 두 번째 아바타라는 거북의 모습이었다. 신들이 불사의 음료 암리타를 얻기 위해 바다를 휘저을 때, 비슈누는 이 모습을 취하여 땅을 떠받쳤다.

나머지 아바타라들은 대체로 같은 성격, 즉 옳은 것을 지키거나 악을 행한 자를 벌하기 위한 개입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비슈누의 아바타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홉 번째로 넘어가겠다. 이때 비슈누는 크리슈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무적의 전사였으며, 그의 업적으로 땅은 그것을 짓누르던 폭군들에게서 벗어났다.

부처는 브라만교를 따르는 이들에게 비슈누의 환영(幻影)적 화신으로 여겨진다. 비슈누는 신들의 적수인 아수라들을 꾀어 베다의 신성한 규범을 버리게 하려고 이 모습을 취하였고, 그리하여 아수라들은 힘과 우위를 잃었다.

칼키는 열 번째 아바타라의 이름이다. 이 아바타라에서 비슈누는 현재 세상의 시대가 끝날 때 나타나, 모든 악과 사악함을 멸하고 인류를 덕과 청정함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시바

시바는 힌두교 삼신(三神)의 세 번째 신이다. 그는 파괴의 원리를 의인화한 존재다. 이름의 순서는 셋째이지만, 숭배하는 신도의 수와 숭배가 퍼진 범위로 보면 나머지 두 신보다 앞선다. 현대 힌두교의 경전인 『푸라나』에는 이 신이 본래 파괴자로서 지닌 힘을 언급한 대목이 없다. 그 힘은 천이백만 년이 지나 우주가 끝날 때가 되어야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시바의 다른 이름인 마하데바는 파괴보다는 재생을 대표하는 신이라고 해야 옳다.

비슈누와 시바를 섬기는 신도들은 두 종파를 이루고, 각 종파는 저마다 받드는 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선언하며 다른 신의 주장을 부정한다. 창조신 브라흐마는 제 일을 마친 뒤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인도에 그를 모신 사원은 지금 한 곳뿐이지만, 마하데바와 비슈누의 사원은 많다. 비슈누의 신도들은 대개 생명을 더 아끼는 마음이 깊어서 육식을 삼가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숭배 방식도 시바의 신도들보다 덜 잔혹하다.

주가나우트

주가나우트 숭배자들을 비슈누의 추종자로 볼지 시바의 추종자로 볼지는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사원은 해안 가까이에 서 있는데, 캘커타에서 남서쪽으로 삼백 마일쯤 떨어져 있다. 우상은 깎아 만든 나무 덩어리로, 검게 칠한 흉측한 얼굴과 피처럼 붉은 벌어진 입을 가졌다. 축제날이면 이 우상의 옥좌를 바퀴 달린 육십 피트 높이의 탑 위에 올려놓고 끌고 다닌다. 탑에는 긴 밧줄 여섯 가닥이 매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당겨 탑을 끈다. 사제들과 시중드는 이들은 탑 위 옥좌 둘레에 서 있다가 이따금 노래와 몸짓으로 신도들을 향해 돌아선다. 탑이 움직이는 동안 적지 않은 신실한 신도들이 땅에 엎드려 바퀴에 깔리기를 바라고, 군중은 그 행위를 우상이 기뻐할 제물이라 여기며 환호한다. 해마다, 특히 3월과 7월의 두 큰 축제 때면 순례자들이 떼를 지어 사원으로 몰려든다. 이런 때에는 적어도 칠만에서 팔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며, 그때에는 모든 카스트가 함께 음식을 먹는다.

카스트

힌두교도를 계급 또는 카스트로 나누고 각 계급에 고정된 직업을 두는 제도는 가장 이른 시기부터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복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긴다. 처음 세 카스트는 이

땅의 원주민을 정복하여 그들을 낮은 계급으로 떨어뜨린 외국 인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특정한 직책이나 직업을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대물림하려는 성향에서 이 제도의 기원을 찾는다.

힌두 전승은 여러 카스트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창조 때 브라흐마는 자신의 몸에서 곧바로 나온 존재들을 대지의 거주자로 삼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의 입에서 맏이인 브라만(사제)이 나왔고, 그에게 네 베다를 맡겼다. 오른팔에서는 크샤트리야(무사)가 나왔고, 왼팔에서는 무사의 아내가 나왔다. 허벅지에서는 남자와 여자 바이샤(농민과 상인)가 태어났으며, 마지막으로 발에서는 수드라(기술자와 노동자)가 생겨났다.

브라흐마의 네 아들은 이처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나와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각자의 카스트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들은 네 베다가 자신들의 신앙의 모든 규칙과, 종교 의식을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여기도록 명령받았다. 또한 그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서열을 가지도록 명령받았는데, 브라만이 가장 위에 놓였다. 브라만은 브라흐마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세 계급과 수드라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그어져 있었다. 앞의 세 계급은 베다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드라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브라만은 베다를 가르칠 특권을 가졌으며, 옛날에는 모든 지식을 독점하였다. 나라의 군주는 크샤트리야 계급, 곧 라즈푸트 가운데서 뽑혔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브라만에게 있었다. 브라만은 왕의 고문이자 나라의 판사와 행정관이었다. 그들의 몸과 재산은 침해될 수 없었으며,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군주들은 그들을 가장 높이 존중해야 했으니, "브라만은 학식이 있든 없든 강력한 신이기 때문이다."

브라만이 성숙한 나이에 이르면 결혼하는 것이 그의 의무가 된다. 그는 부유한 이들의 시주로 생계를 이어야 하며, 힘든 노동이나 생산적인 직업으로 생활비를 벌 필요가 없어야 했다. 그러나 공동체의 노동 계급이 모든 브라만을 부양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들에게도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할 필요가 생겼다.

중간 두 계급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해도 될 것이다. 그들의 지위와 특권은 그들의 직업으로부터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네 번째 계급인 수드라는 상위 계급, 특히 브라만을 섬기는 종속적 시중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수공업이나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실용적 기술에 종사할 수 있고, 장사꾼이 되거나 농부가 될 수도 있다. 그 결과 그들 중에는 때때로 부유해지는 이들이 생긴다. 또한 브라만이 가난해지는 일도 생긴다. 이런 사실은 늘 그렇듯 그에 따른 결과를 낳아, 부유한 수드라가 가난한 브라만을 천한 일에 고용하기도 한다.

수드라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또 하나 있다. 이 계급은 본래의 순수한 계급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급 사람들이 허락 없이 맺어져 생겨난 계급이다. 이들이 바로 파리아다. 그들은 가장 낮은 일에 고용되며, 더없이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 다른 누구도 더러워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손이 닿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들은 모든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생활 방식과 집, 가재도구를 규제하는 특별법으로 낙인찍힌다. 다른 계급의 파고다나 사원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따로 파고다와 종교 의식이 있다. 다른 계급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주의하게 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면, 그 자리는 종교 의식으로 정화해야 한다. 그들은 공공 시장에 나타나서도 안 되며, 특정한 우물만 쓰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 우물 둘레에는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짐승 뼈를 둘러놓아야 한다. 그들은 도시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비참한 오두막에 살며,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불명예의 표시다. 마치 그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아무것도 그들을 더럽힐 수 없다는 듯이 말이다. 위의 세 계급은 고기를 먹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네 번째 계급은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계급만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부처

베다는 부처를 사람을 미혹하는 비슈누의 화신으로 나타내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고타마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 현자였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사캬의 사자라는 뜻의 사캬싱하, 그리고 현자라는 뜻의 부다라는 찬사 어린 칭호로도 불렸다.

다양하게 제시된 그의 탄생 연대를 서로 비교해 보면, 그는 그리스도보다 약 천 년 앞선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론된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다. 그 나라의 관습에 따라 그가 태어난 지 며칠 뒤 어느 신의 제단 앞에 바쳐졌을 때, 그 신상이 고개를 숙였다고 전해진다. 이는 이 새로 태어난 예언자가 장차 위대해질 것을 알리는 징조였다. 아이는 곧 탁월한 재능을 드러냈고,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용모로도 그만큼 눈에

띄었다. 성년에 이르자마자 그는 인류의 타락과 불행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사회에서 물러나 명상에 몸을 바치겠다는 뜻을 품었다. 아버지는 이 계획을 막으려 했으나 헛일이었다. 부처는 경비의 감시를 피해 빠져나갔고,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여섯 해 동안 방해받지 않고 경건한 명상 속에서 살았다. 그 기간이 끝나자 그는 베나레스에 나타나 종교 교사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들은 몇몇 사람이 그의 정신이 온전한지 의심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곧 믿음을 얻었고, 너무도 빠르게 퍼져 나가 부처는 살아생전에 그것이 인도 전역에 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든 살에 세상을 떠났다.

불교도들은 베다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베다에 규정되어 있고 힌두교도들이 지키는 종교 의례도 함께 거부한다. 그들은 카스트의 구분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피의 제사를 금하고 동물성 식품은 허용한다. 그들의 승려는 모든 계층에서 뽑는다. 승려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탁발하여 생계를 꾸려야 하며, 그 밖에도 다른 이들이 쓸모없다고 내던진 것들에 어떤 쓸모를 찾아내고, 식물의 약효를 알아내려 애쓰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실론에서는 승려의 등급이 세 가지로 인정된다. 가장 높은

등급의 승려는 대개 명문가 출신이며 학식이 높은 사람들로, 주요 사원에서 부양을 받는다. 이 사원들은 대부분 이 나라의 옛 군주들에게서 넉넉한 재산을 기부받았다.

부처가 나타난 뒤 몇 세기 동안 그의 종파는 브라만들에게 관용을 받은 듯하다. 불교는 힌두스탄 반도의 사방으로 퍼져 나갔고, 실론과 동쪽 반도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인도에서는 오랫동안 박해를 견뎌야 했다. 그 결과 불교는 발원지인 이 나라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인접한 나라들로 널리 흩어지게 되었다. 불교는 서기 65년경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중국에서 코리아, 일본, 자바로 퍼져 나갔다.

대라마

브라만교도인 힌두교도와 불교 종파가 함께 믿는 교리에 따르면, 신적 영혼의 발현인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몸에 갇혀 있는 상태는 비참한 상태이며, 이는 전생에서 저지른 약점과 죄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때때로 몇몇 개인이 나타났다고 믿는다. 그들은 지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땅에 내려왔다. 이 사람들은 점차 부처 자신이 다시 나타난 존재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 자격으로 이 계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티베트, 중국, 그리고 불교가 널리 퍼진 다른 나라들의 여러 라마들에게 계승되고 있다. 칭기즈 칸과 그 후계자들의 승리로 티베트에 거주하던 라마는 이 종파의 최고 교주의 지위에 올랐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영토로 한 개의 독립된 지방이 주어졌고, 그는 영적인 지위와 더불어 제한된 범위에서 세속의 군주가 되었다. 그는 달라이 라마라고 불린다.

티베트로 들어간 최초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아시아의 한복판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와 닮은 교황청과 여러 다른 교회 기관들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들은 사제와 수녀를 위한 수도원을 보았고, 또한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르는 행렬과 종교 예배의 형식도 보았다. 이런 유사점에 이끌려 많은 이들은 라마교를 일종의 타락한 그리스도교로 여기게 되었다. 불교가 티베트에 들어왔을 무렵 타르타리에 정착해 있던 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라마들이 이런 관습 가운데 일부를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프레스터 존

일찍이 아마도 떠돌이 상인들이 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타타르인 사이의 라마, 곧 영적 지도자에 관한 기록이 유럽에 프레스비터, 즉 프레스터 존이라는 전설을 낳은 듯하다. 그는

아시아 내륙에 머무는 그리스도교 대사제라고 했다. 교황은 그를 찾아 사절단을 보냈고, 몇 년 뒤에는 프랑스의 루이 9세도 사절단을 보냈다. 두 사절단 모두 성과는 없었지만, 그들이 찾아낸 작은 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덕분에 동방 어딘가에 그런 인물이 실제로 있다는 믿음이 유럽에 계속 남았다. 마침내 15세기에 포르투갈 여행가 페드루 코빌량이 홍해 근처 아비시니아 땅에 그리스도교 군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진짜 프레스터 존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곧장 그곳으로 가서 그가 네구스라고 부른 왕의 궁정까지 들어갔다. 밀턴은 『실낙원』 제11권에서 이 왕을 넌지시 언급한다. 그 대목에서 밀턴은 아담이 자손들이 여러 민족과 도시를 이루어 대지 곳곳에 흩어져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을 그리며 이렇게 말한다.—

> "… 그의 눈은 네구스의 제국도
> 그 가장 먼 항구 에르코코까지,
> 그리고 바닷가의 작은 왕들을,
> 몸바사와 킬로아와 멜린드까지 알아보았다."

제38장

북유럽 신화 — 발할라 — 발키리



페테르 니콜라이 아르보, 「발키리」(1869)

북유럽 신화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을 끌어온 이야기들은 남쪽 지역의 신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옛 미신의 또 다른 갈래가 있는데, 이는 완전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의 영국 조상들을 거쳐 우리가 기원을 이어받은 민족들의 신화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칸디나비아인이라 불리는 북방 민족의 것으로, 지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 알려진 나라들에 살던 사람들이다. 이 신화 기록은 두 모음집에 담겨 있는데, 에다라고 불린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운문으로 되어 있으며 105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더 근대의 산문 에다는 1640년의 것이다.

에다에 따르면 옛날에는 위에도 하늘이 없었고 아래에도 땅이 없었으며, 오직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과 안개의 세계만이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샘이 솟아나고 있었다. 이 샘에서 열두 줄기 강이 흘러나왔는데, 강들은 샘에서 멀리 흘러가다가 얼음으로 굳었다. 그렇게 얼음이 겹겹이 쌓여 마침내 그 거대한 심연이 가득 메워졌다.

안개 세계의 남쪽에는 빛의 세계가 있었다.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얼음을 녹였다. 김이 공중으로 올라가 구름을 이루었고, 그 구름에서 서리 거인 이미르와 그의 후손들이 태어났다. 또 암소 아우드훔라도 생겨났는데, 그 젖이

거인에게 양식과 먹을거리가 되어 주었다. 암소는 얼음에 낀 서리와 소금기를 핥아서 먹고 살았다. 어느 날 그녀가 소금 덩이를 핥고 있을 때, 처음에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타났고, 둘째 날에는 머리 전체가, 셋째 날에는 아름다움과 민첩함과 힘을 갖춘 온몸이 드러났다. 이 새로운 존재는 신이었다. 그와 거인족 출신인 그의 아내 사이에서 오딘, 빌리, 베 세 형제가 태어났다. 그들은 거인 이미르를 죽이고, 그의 몸으로 땅을 만들었다. 피로는 바다를, 뼈로는 산을, 머리카락으로는 나무를, 두개골로는 하늘을, 뇌로는 우박과 눈을 품은 구름을 만들었다. 신들은 이미르의 눈썹으로 인간이 살게 될 미드가르드, 곧 가운데 땅을 만들었다.

오딘은 이어서 하늘에 해와 달을 두고 각각 그 운행을 정하여, 낮과 밤과 계절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 해가 땅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자마자 식물의 세계가 싹을 틔우고 돋아났다. 신들이 세계를 창조한 직후, 그들은 바닷가를 거닐었다. 새로 한 일에 흡족해하면서도, 세계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직 인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물푸레나무를 가져다 남자를 만들었고, 딱총나무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의 이름은 아스케, 여자의 이름은 엠블라라고 했다. 오딘은 그들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었고, 빌리는 이성과

움직임을, 베는 감각과 표정이 풍부한 얼굴과 말하는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처로 미드가르드가 주어졌고, 그들은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

장엄한 물푸레나무 이그드라실은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 나무는 이미르의 몸에서 자라났으며, 세 개의 거대한 뿌리를 가졌다. 하나는 신들의 거처인 아스가르드로, 다른 하나는 거인들의 거처인 요툰헤임으로, 셋째는 어둠과 추위의 땅인 니플헤임으로 뻗어 있었다. 이 뿌리들 곁에는 각각 샘이 하나씩 있어 그곳에서 물을 받았다. 아스가르드로 뻗은 뿌리는 운명을 나누어 주는 여신들인 세 노른이 정성껏 돌보았다. 그들은 우르드(과거), 베르단디(현재), 스쿨드(미래)였다. 요툰헤임 쪽의 샘은 이미르의 샘으로, 그 안에는 지혜와 총명이 숨어 있었다. 반면 니플헤임의 샘은 뿌리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독사 니드회그(어둠)를 먹여 살렸다. 네 마리의 수사슴이 나무의 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며 새싹을 뜯어 먹었는데, 이들은 네 방위의 바람을 상징했다. 나무 아래에는 이미르가 누워 있었고, 그가 그 무게를 떨쳐내려 몸을 뒤척일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아스가르드는 신들이 사는 곳의 이름이다. 그곳에 이르려면 무지개다리 비프로스트를 건너야만 했다. 아스가르드에는 황금과 은으로 지은 궁전들이 있어 신들이 거기서 살았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곳은 오딘이 머무는 발할라였다. 오딘은 그곳의 옥좌에 앉아 하늘과 땅을 모두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 위에는 까마귀 후긴과 무닌이 앉아 있었다. 두 마리 까마귀는 날마다 온 세상을 날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오딘에게 알렸다. 그의 발치에는 두 마리 늑대 게리와 프레키가 누워 있었다. 오딘은 자기 앞에 차려진 고기를 모두 이 늑대들에게 주었다. 정작 그 자신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꿀술이 곧 음식이자 음료였다. 그는 룬 문자를 만들었고, 운명의 룬을 금속 방패에 새기는 일은 노른들의 몫이었다. 오딘의 이름은 때로 워든이라고도 적었는데, 여기서 한 주의 넷째 날인 수요일을 가리키는 영어 이름 '웬즈데이'가 생겨났다.

오딘은 흔히 알파두르(모든 아버지라는 뜻)라고 불리지만, 이 이름이 때로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오딘보다 높으며 창조된 적도 없고 영원한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발할라의 기쁨에 대하여

발할라는 오딘의 큰 홀이다. 그곳에서 오딘은 선택받은 용사들, 즉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쓰러진 모든 이들과 함께 잔치를 연다. 평화롭게 죽은 자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멧돼지

스림니르의 고기가 용사들에게 차려지는데,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만큼 넉넉하다. 이 멧돼지는 매일 아침 요리되지만, 밤이면 다시 온전한 몸이 된다. 마실 것으로는 암염소 헤이드룸에게서 나오는 꿀술이 용사들에게 넉넉히 공급된다. 잔치를 벌이지 않을 때 용사들은 싸움으로 시간을 보낸다. 매일 그들은 안뜰이나 들판으로 말을 달려 나가, 서로를 토막 낼 때까지 싸운다. 이것이 그들의 소일거리다. 그러나 식사 시간이 되면 상처에서 회복되어 발할라로 돌아와 잔치를 즐긴다.

발키리

발키리는 호전적인 처녀들로, 말을 타고 투구와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오딘은 최후의 싸움이 닥치는 날 거인족과 맞설 수 있도록 발할라에 많은 영웅을 모으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싸움터에 사자(使者)들을 내려보내 죽을 자들을 골라내게 했다. 발키리가 바로 그 사자들이었으며, 그 이름은 "죽은 자들을 고르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임무를 띠고 말을 달릴 때면 그 갑옷에서 기묘한 빛이 일렁여 북녘 하늘 위로 번져 나갔고, 사람들은 이것을 "북극광" 또는 "북녘의 빛"이라 부른다.

토르와 다른 신들에 관하여

천둥의 신 토르는 오딘의 맏아들로, 신과 인간을 통틀어 가장 힘이 세다. 그에게는 아주 귀중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망치다. 서리 거인과 산 거인들은 이 망치가 공중에서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면 그 위력을 뼈저리게 안다. 그 망치는 그들의 아버지와 친족의 머리를 수없이 쪼갰기 때문이다. 던져진 망치는 저절로 토르의 손으로 돌아온다. 둘째 희귀한 물건은 힘의 띠라고 불린다. 토르가 그 띠를 허리에 두르면 그의 신성한 힘은 두 배가 된다. 셋째 역시 매우 귀중한 것은 쇠장갑이다. 그는 망치를 제대로 휘두르고자 할 때마다 이 장갑을 낀다. 영어로 목요일을 뜻하는 '서즈데이'는 바로 토르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프레이는 신들 가운데 가장 이름난 신 가운데 하나다. 그는 비와 햇빛, 그리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다스린다. 그의 누이 프레이야는 여신들 가운데 가장 상서로운 여신이다. 그녀는 음악과 봄과 꽃을 사랑하며, 특히 요정(페어리)들을 아낀다. 그녀는 사랑 노래를 무척 좋아해서,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그녀에게 기원하면 좋다.

브라기는 시의 신으로, 그의 노래는 전사들의 업적을 기록한다. 그의 아내 이둔은 상자 속에 사과를 간직하고 있는데, 신들은 노년이 다가온다고 느낄 때 그 사과를 한 입 먹기만 하면 다시 젊어진다.

헤임달은 신들의 파수꾼으로, 거인들이 무지개다리 비프로스트를 건너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의 경계에 세워져 있다. 그는 새보다도 적게 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방 백 마일 안을 내다볼 수 있다. 귀는 어찌나 밝은지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는데, 풀이 자라는 소리와 양의 등에서 털이 자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로키와 그의 자손들에 관하여

또 다른 신이 있으니, 그는 신들을 중상하고 온갖 사기와 해악을 꾸며내는 자로 묘사된다. 이름은 로키다. 그는 잘생기고 몸매도 균형이 잡혀 있었으나, 기분이 아주 변덕스럽고 성품이 몹시 사악했다. 그는 거인족이었지만 억지로 신들의 무리에 끼어들었고, 신들을 곤경에 빠뜨렸다가 교묘한 꾀와 재치와 솜씨로 다시 위험에서 건져내는 일을 즐기는 듯했다. 로키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다. 첫째는 늑대 펜리르, 둘째는 미드가르드의 뱀, 셋째는 헬(죽음)이었다. 신들은 이 괴물들이 자라고 있음을 모르지

않았으며, 언젠가는 신과 인간에게 큰 해악을 가져다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딘은 그들을 자기에게 데려오도록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다. 그들이 오자 오딘은 뱀을 대지를 둘러싼 깊은 바다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그 괴물은 엄청나게 커져서, 꼬리를 입에 문 채 온 대지를 감싸고 있게 되었다. 헬은 니플헤임으로 내던져졌고, 오딘은 그녀에게 아홉 세계, 즉 아홉 지역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다. 그녀는 그곳으로 보내진 자들, 곧 병이나 늙음으로 죽은 모든 이들을 그 세계들에 나누어 머물게 했다. 그녀의 궁전은 엘비드네르라 불린다. 굶주림은 그녀의 식탁이고, 기아는 그녀의 칼이며, 지체는 그녀의 하인이고, 느림은 그녀의 시녀이며, 벼랑은 그녀의 문턱이고, 근심은 그녀의 침대이며, 타오르는 고통은 방들을 드리운 휘장이다. 그녀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몸의 절반은 살빛이고 나머지 절반은 푸르며, 얼굴은 무섭도록 엄하고 위압적이기 때문이다. 늑대 펜리르는 신들이 그를 묶기까지 그들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그는 가장 튼튼한 족쇄들도 거미줄처럼 끊어 버렸다. 마침내 신들은 산의 정령들에게 사자를 보냈고, 정령들은 신들을 위해 글레이프니르라 불리는 사슬을 만들었다. 그것은 여섯 가지로 만들어졌으니, 곧 고양이가 내딛는 발소리, 여자들의 수염, 돌의 뿌리, 물고기의 숨결, 곰의 힘줄(감각), 새의 침이었다.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비단실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신들이 늑대에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끈에 묶이기를 청했을 때, 그는 그것이 마법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그들의 속셈을 의심했다. 그래서 그는 신들 중 하나가 자기 입에 손을 넣어, 묶인 끈을 다시 풀어 주겠다는 담보로 삼게 한다는 조건으로만 승낙했다. 전쟁의 신 티르만이 이를 할 용기가 있었다. 그러나 늑대는 자신의 족쇄를 끊을 수 없고 신들이 그를 풀어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자, 티르의 손을 물어뜯었고, 그 뒤로 티르는 줄곧 한 손으로 살게 되었다.
토르가 산의 거인에게 품삯을 치른 이야기

옛날 신들이 거처를 짓고 있을 때였다. 미드가르드와 발할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때 한 장인이 찾아와, 서리 거인들과 산의 거인들이 침입해도 완전히 안전하도록 튼튼하게 요새를 지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여신 프레이야와 해와 달을 요구했다. 신들은 그가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 모든 공사를 마치고, 그것도 겨울 한 철 안에 끝낸다는 조건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여름 첫날에 조금이라도 미완성으로 남은 것이 있으면, 그는 약속한 보상을 잃게 된다고 했다. 이 조건을 듣자 장인은 자기 말 스바딜파리를 쓰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로키의 조언에 따라 신들은 이를 허락했다. 그리하여 그는 겨울이 시작된 첫날 일에 착수했고, 밤이면 말에게 공사용 돌을 실어 나르게

했다. 돌의 엄청난 크기에 신들은 놀랐으며, 말이 주인보다 절반이나 더 많은 고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은 이미 맺어졌고, 엄숙한 맹세로 확인된 상태였다. 이런 보증이 없었다면 거인이 신들 사이에서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토르가 그때 악한 악마들을 상대로 떠난 원정에서 돌아올 때는 더욱 그러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공사는 많이 진척되어 있었고, 성벽은 충분히 높고 튼튼해져 그곳은 난공불락이 되었다. 요컨대 여름까지 사흘만 남았을 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성문뿐이었다. 그때 신들은 정의의 자리에 앉아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신들 가운데 누가 프레이야를 내주라고 권했는가? 또 누가 거인이 해와 달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여 하늘을 어둠에 빠뜨리자고 했는가?

그들은 모두 이토록 많은 악행을 저지른 로키 말고는 누구도 그런 나쁜 조언을 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로키가 장인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약속된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그를 잔혹하게 죽여야 한다고 했다. 신들은 로키를 붙잡았고, 로키는 겁에 질려 맹세하기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내가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일을 꾸미겠다고 했다. 바로 그날 밤, 사내가 스바딜파리와 함께 건축용 돌을 나르러 갔을 때, 암말 한

마리가 숲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울어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말은 고삐를 끊고 암말을 쫓아 숲속으로 달아났고, 사내 역시 자기 말을 쫓아 달려야 했다. 이렇게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 밤새 시간이 흘러가 버렸고, 새벽이 되었을 때 공사는 평소만큼도 진척되지 않았다. 사내는 임무를 끝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거인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제 신들은 자기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 실은 산의 거인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신들은 더 이상 맹세에 묶여 있다고 느끼지 않았고, 토르를 불렀다. 토르는 곧바로 달려와 도움을 주었고, 망치를 치켜들어 일꾼에게 보수를 치렀다. 그것은 해와 달이 아니었고, 그를 요툰헤임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었다. 첫 일격에 토르는 거인의 두개골을 산산조각 내고, 그를 니플헤임으로 거꾸로 내던졌다.

망치를 되찾음

옛날에 토르의 망치가 거인 트림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트림은 망치를 요툰헤임의 바위 밑 여덟 길 깊이에 묻어 두었다. 토르는 로키를 보내 트림과 협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로키가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프레이야가 트림의 신부가 되는 데 동의한다면 망치를 돌려주겠다는 거인의 약속뿐이었다. 로키는 돌아와 임무의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사랑의 여신은 서리 거인의 왕에게 자신의 매력을 바친다는 생각에 몹시 질색하였다. 이 위기에서 로키는 토르를 설득하였다. 토르가 프레이야의 옷을 입고 로키와 함께 요툰헤임에 가자는 것이었다. 트림은 베일을 쓴 신부를 맞이하여 응당한 예의를 갖추었다. 그러나 신부가 저녁으로 연어 여덟 마리와 다 자란 소 한 마리를 먹고, 그 밖의 진미도 먹은 뒤 벌꿀술 세 통으로 그 모든 것을 씻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는 크게 놀랐다. 그러나 로키는 신부가 긴 여드레 밤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요툰헤임의 이름 높은 왕인 연인을 만날 열망이 그만큼 컸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마침내 트림은 신부의 베일 밑을 엿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프레이야의 눈동자가 왜 불빛처럼 번쩍이느냐고 물었다. 로키는 같은 핑계를 되풀이하였고, 거인은 그제야 만족하였다. 트림은 망치를 가져와 처녀의 무릎 위에 놓으라고 명하였다. 그 순간 토르는 변장을 벗어 던지고, 두려운 그 무기를 움켜쥐어 트림과 그의 모든 부하를 쳐 죽였다.

프레이도 놀라운 무기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이 원하기만 하면 저절로 들판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칼이었다. 프레이는 이 칼을 내주었으나, 토르와 달리 운이 따르지 않아 끝내 되찾지 못하였다. 사연은 이러하다. 프레이는 어느 날 오딘의 옥좌에 올라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온 우주가 내려다보였다. 그가 둘러보다가 멀리 거인의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갑작스러운 슬픔에 사로잡혀, 그때부터 잠을 이루지도, 술을 마시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였다. 마침내 그의 심부름꾼 스키르니르가 그의 비밀을 캐내었다. 스키르니르는 보상으로 칼을 준다면 처녀를 신부로 데려오겠다고 나섰다. 프레이는 동의하며 칼을 주었다. 스키르니르는 길을 떠나 처녀에게서 아홉 밤 안에 정해진 곳으로 와서 프레이와 혼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스키르니르가 임무의 성공을 보고하자, 프레이는 이렇게 외쳤다.

> “하룻밤도 길고,
> 이틀 밤도 길거늘,
> 사흘 밤을 어찌 견디랴?
> 한 달이
> 나에게는 종종 더 짧게 여겨졌다
> 이 그리움의 시간 절반보다도.”

그리하여 프레이는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르다를 아내로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칼을 잃었다.

「스키르니르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이 이야기와 바로 앞의 「트림의 노래」는 롱펠로의 『유럽의 시인과 시』에 시의 형식으로 옮겨져 실려 있다.

제39장

요툰헤임을 찾아간 토르



모르텐 에스킬 빙에, 「거인들과 싸우는 토르」(1872)

토르의 요툰헤임 방문, 거인들의 나라

어느 날 신 토르는 하인 티알피를 데리고 로키와 함께 거인들의 나라로 길을 떠났다. 티알피는 사람들 가운데 발이 가장 빨랐다. 그는 여행에 쓸 양식이 든 토르의 주머니를 날랐다. 밤이 되자 그들은 거대한 숲속에 있었고, 밤을 지낼 곳을 사방으로 찾다가 마침내 아주 큰 홀에 이르렀다. 그 입구는 건물 한쪽 끝의 너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한밤중이 가까워지자 건물 전체를 흔드는 지진에 놀라 잠이 깼다. 토르는 일어나 동료들에게 함께 안전한 곳을 찾자고 불렀다. 오른편에서 그들은 이웃한 방을 찾아냈고, 다른 둘은 그리로 들어갔다. 그러나 토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고 망치를 손에 쥔 채 문간에 남아 있었다. 밤새 끔찍한 신음 소리가 들렸고, 날이 밝자 토르는 밖으로 나가 가까이에 누워 있는 거대한 거인을 발견했다. 거인은 그들을 그토록 놀라게 한 바로 그 방식으로 잠을 자며 코를 골고 있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만큼은 토르도 망치를 쓰기가 두려웠고, 거인이 곧 잠에서 깨자 토르는 그저 그의 이름을 묻는 것으로 만족했다.

"내 이름은 스크리미르다." 거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대의 이름을 물을 필요는 없지, 그대가 신 토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내 장갑은 어디로 갔지?" 그제야 토르는 밤사이 홀이라고 여겼던 것이 거인의 장갑이었고, 두 동료가 피신했던 방은 그 엄지손가락이었음을 알아차렸다. 스크리미르는 함께 여행하자고 제안했고, 토르가 승낙하자 그들은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자 스크리미르는 양식을 모두 하나의 주머니에 넣어 어깨에 걸치고, 엄청난 보폭으로 성큼성큼 앞장서 걸었다. 그들은 그를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빨리 걸어야 했다. 그렇게 하루 내내 걸었고, 해질 무렵 스크리미르는 커다란 참나무 아래에 그들이 묵을 자리를 골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는 잠을 자러 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머니는 그대들이 가져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그가 덧붙였다.

스크리미르는 곧 잠이 들어 크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토르가 주머니를 열어 보려 했지만, 거인이 어찌나 단단히 묶어 놓았는지 매듭 하나도 풀 수 없었다. 마침내 토르는 화가 치밀어 망치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거인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스크리미르는 잠에서 깨어 나뭇잎이 머리에 떨어진 것 아니냐고, 저녁은 먹었고 이제 잘 참이냐고 물었을 뿐이었다. 토르는 이제 막 잠들려던 참이라고 대답하고는, 그렇게 말하며 다른 나무 아래로 가서 몸을 눕혔다. 그러나

그날 밤 토르에게는 잠이 오지 않았다. 스크리미르가 다시 코를 얼마나 크게 골았는지 숲 전체가 그 소리로 울렸다. 토르는 일어나 망치를 움켜쥐고 거인의 두개골을 향해 힘껏 던졌고, 망치는 깊은 자국을 냈다. 스크리미르는 잠에서 깨어 소리쳤다. “무슨 일이냐? 이 나무 위에 새라도 앉아 있느냐? 나뭇가지에서 이끼가 떨어져 내 머리에 닿은 것 같았는데. 토르, 너는 어떠하냐?” 그러나 토르는 방금 잠에서 깼는데 아직 한밤중이니 더 잘 시간이 있다고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이 일을 끝장내리라 결심했다. 동이 트기 조금 전, 토르는 스크리미르가 다시 깊이 잠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시 망치를 움켜쥐고 거인의 두개골을 향해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망치는 자루까지 두개골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스크리미르는 몸을 일으켜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도토리가 머리에 떨어졌구나. 아니, 토르, 깨어 있느냐? 이제 일어나 옷을 입을 때가 된 듯하구나. 하지만 우트가르드라고 부르는 도시까지는 이제 그리 멀지 않다. 내가 몸집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끼리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우트가르드에 가면 나보다 훨씬 키가 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충고하노니, 그곳에 가거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우트가르드-로키의 부하들은 너희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이 자랑하는 꼴을 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동쪽으로 난 길을 가야 하고, 나는 북쪽으로 가야 하니, 우리는 여기서 헤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그들에게서 돌아서 숲 속으로 들어갔다. 토르는 그를 붙잡으려 하지도, 더 함께 있자고 청하지도 않았다.

토르와 그 일행은 길을 계속 갔고, 정오 무렵에 평원 한가운데 서 있는 한 도시를 발견했다. 그 도시는 너무 높아서, 꼭대기를 보려면 고개를 어깨 뒤로 완전히 젖혀야 했다. 도시에 들어서자 활짝 열린 문이 달린 커다란 궁전이 눈앞에 보였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홀에는 엄청난 키의 남자들이 여럿 벤치에 앉아 있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왕 우트가르드-로키 앞에 이르렀고, 그에게 크게 경의를 표하며 인사했다. 왕은 비웃는 듯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저기 저 애송이가 신 토르일 것이다." 그러고는 토르에게 말을 건넸다. "너는 보이는 것보다 더 대단할지도 모르겠구나. 너와 네 동료들이 스스로 능하다고 여기는 재주는 무엇이냐? 여기에는 어떤 재주로든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지 못하는 자는 머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내가 아는 재주는,” 로키가 말했다. “누구보다 빨리 먹는 것이다. 이 재주에서는 여기 있는 누구든 나와 겨루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증명해 보이겠다.”

“그건 참으로 대단한 재주가 되겠군.” 우트가르드-로키가 말했다. “네가 약속한 것을 해낸다면 말이다. 그럼 당장 시험해 보도록 하지.”

그러고 나서 그는 벤치 맨 끝에 앉아 있던 부하 한 명에게 앞으로 나와 로키와 솜씨를 겨뤄 보라고 명령했다. 그의 이름은 로기였다. 고기를 가득 담은 구유가 홀 바닥에 놓이자, 로키는 한쪽 끝에, 로기는 다른 쪽 끝에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먹기 시작했고, 마침내 구유 한가운데에서 서로 마주쳤다. 그런데 살펴보니 로키는 살코기만 먹었을 뿐이었다. 반면 상대는 살코기와 뼈는 물론 구유까지 먹어 치웠다. 그래서 자리에 있던 모두가 로키가 졌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우트가르드-로키는 토르와 함께 온 젊은이가 무슨 재주를 부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티알피는 자신과 겨루고자 하는 누구와도 달리기 시합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왕은 달리기 재주는 자랑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젊은이가 시합에서 이기려면 대단히 날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달리기에 좋은 평평한 들판으로 갔다. 왕은 후기라는 젊은이를 불러, 티알피와 시합을 하라고 명령했다. 첫 번째 경주에서 후기는 상대를 크게 앞질러, 출발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되돌아와 그를 맞이했다. 그 뒤 두 사람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달렸지만, 티알피는 그보다 나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우트가르드-로키는 이어서 토르에게, 그토록 이름난 그의 힘을 어떤 재주로 보여 주겠느냐고 물었다. 토르는 누구와든 술 마시기 시합을 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우트가르드-로키는 잔 시중드는 자에게 큰 뿔잔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부하들이 잔치의 법을 어떤 식으로든 어겼을 때 비워야 하는 잔이었다. 잔 시중드는 자가 그것을 토르에게 건네자, 우트가르드-로키가 말했다. “술을 잘 마시는 자라면 이 뿔잔을 한 번에 비울 것이오. 대부분의 사람은 두 번에 나누어 마시지만, 술이 가장 약한 자라도 세 번이면 비울 수 있소.”

토르는 뿔잔을 바라보았다. 길기는 했지만 그리 대단히 큰 잔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몹시 목이 말랐으므로 잔을 입에 대고, 숨도 쉬지 않은 채, 할 수 있는 한 길고 깊게 들이켰다. 두 번에 나누어 마셔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잔을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니, 술이 줄어든 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숨을 고른 토르는 있는 힘을 다해 다시 뿔잔에 입을 댔다. 그러나 입에서 뗐을 때, 아까보다 오히려 덜 마신 것 같았다. 이제는 잔을 엎지르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은 되었지만 말이다.

"어떤가, 토르?" 우트가르드-로키가 말했다. "자네 자신을 아끼면 안 되네. 세 번째 모금에 뿔잔을 비우려거든 힘껏 들이켜야 하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일에서 보인 것보다 다른 시험에서 더 큰 힘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자네가 고향에서처럼 대단한 사내라고 불리지 못할 걸세."

분노에 찬 토르는 다시 뿔잔을 입술에 대고 그것을 비워 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 술이 조금 줄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시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뿔잔을 잔 시중드는 자에게 돌려주었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알겠다," 우트가르드-로키가 말했다. "너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강하지는 않구나. 그래도 다른 재주를 한번 보여 주겠느냐? 내 생각에 너는 여기서 어떤 상도 가져갈 것 같지 않다만."

"새로 제안할 시험이 무엇이냐?" 토르가 말했다.

"여기에는 아주 사소한 놀이가 있지요," 우트가르드-로키가 대답했다. "아이들에게나 시키는 놀이입니다. 내 고양이를 땅에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 재주를 위대한 토르에게 말하기가 민망하오. 다만 그대가 우리가 여겼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아챘기에 말하는 것이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커다란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홀 바닥으로 뛰어들었다. 토르는 고양이의 배 밑에 손을 넣고 있는 힘을 다해 고양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려 했다. 그러나 고양이는 등을 구부린 채 버티었고, 토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들린 것은 발 하나뿐이었다. 그것을 본 토르는 더 시도하지 않았다.

"이 시험은 내가 짐작한 대로 되었구나." 우트가르드-로키가 말했다. "고양이는 크지만, 토르는 우리 부하들에 비하면 보잘것없구나."

"나를 보잘것없다고 부르지만," 토르가 대답했다. "지금 내가 분노했으니, 너희 가운데 누가 이리로 나와 나와 씨름을 하려는지 어디 보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와 씨름하는 것을 제 체면 깎이는 일로 여기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군."
우트가르드-로키는 긴 의자에 앉은 사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도 누군가 저 늙은 할멈, 내 유모 엘리를 이리로 불러오게 하라. 토르가 원한다면 그 할멈과 씨름해 보라지. 이 토르만큼 힘센 사내도 적지 않게 엘리가 땅바닥에 메다꽂았으니까.”

이에 이가 빠진 늙은 할멈이 홀로 들어와, 우트가르드-로키의 지시에 따라 토르를 붙잡았다. 이야기는 짧게 끝난다. 토르가 할멈을 세게 붙잡을수록 할멈은 더욱 단단히 버텼다. 마침내 매우 격렬한 힘겨루기 끝에 토르는 발을 헛디디기 시작했고, 결국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러자 우트가르드-로키는 그만두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토르가 이제 이 홀에 있는 누구에게도 자기와 씨름해 달라고 청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간도 이미 늦었다고 했다. 그는 토르와 그 일행을 자리로 안내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즐겁게 밤을 보냈다.

다음 날 동틀 무렵, 토르와 그 일행은 옷을 갈아입고 떠날 채비를 했다. 우트가르드-로키는 그들을 위해 상을 차리라고 명했는데, 그 위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넉넉했다. 식사를 마치자 우트가르드-로키는 그들을 성문까지 데려갔다. 헤어질 때 그는 토르에게 이번 여행이 어떻게 끝난 것 같으냐고, 그리고 자기보다 힘센 사내를 만나 보았느냐고 물었다. 토르는 자신이 큰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가 덧붙였다. “너희가 나를 하찮은 자라고 부르리라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 우트가르드-로키가 말했다. “이제 너는 도시 밖으로 나섰으니,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이 내 도리다. 내가 살아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동안에는 너는 다시는 이 도시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내 맹세하거니와, 네가 그토록 큰 힘을 지니고 있고 나를 그처럼 큰 낭패 직전까지 몰아넣을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번에는 너를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알아 두어라, 나는 줄곧 환술로 너를 속여 왔다. 먼저 숲에서, 나는 자루를 쇠줄로 묶어 네가 풀지 못하게 했다. 그 뒤 너는 망치로 나를 세 번 내리쳤다. 첫 번째 것은 가장 약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맞았더라면 내 목숨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몸을 비켜 피했고, 네 망치질은 산에 떨어졌다. 그곳에 가면 골짜기가 셋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유난히 깊을 것이다. 그것이 네 망치가 남긴 자국이다. 나는 네가 내 부하들과 벌인 겨룸에서도 비슷한 환술을 썼다. 첫 번째 겨룸에서 로키는 굶주림 그 자체처럼 앞에 놓인 것을 모두 먹어 치웠지만, 로기는 실은 불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고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담은 구유까지 태워 버렸다. 티알피가 달리기에서 겨룬 후기는 생각이었으니, 티알피가 그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했다. 네 차례가 되어 뿔잔을 비우려 했을 때에는, 내 맹세하거니와, 너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해냈다. 나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결코 믿지 못했을 일이다. 그 뿔잔의 한쪽 끝이 바다에 닿아 있었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해안에 가면 네가 마신 만큼 바다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고양이를 들어 올린 일도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솜씨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 고양이의 발 하나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겁에 질렸다. 네가 고양이라고 여긴 것은 실은 대지를 감싸고 있는 미드가르드의 뱀이었고, 네가 그를 얼마나 잡아 늘였는지 그는 머리와 꼬리 사이에 대지를 겨우 감쌀 만큼만 길었다. 엘리와의 씨름 또한 가장 놀라운 솜씨였다. 엘리는 실은 노년이었으니, 노년이 언젠가는 쓰러뜨리지 못할 사람은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헤어지려 하니, 내가 한마디 하겠다. 네가 다시는 내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더 나을 것이다. 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또 다른 환술로 나를 지킬 것이고, 너는 헛수고만 하고 나와의 겨룸에서 아무 명예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토르는 분노하여 망치를 움켜쥐고 그에게 던지려 했다. 그러나 우트가르드-로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토르가 도시로 돌아가 그것을 부수려 했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푸른 들판뿐이었다.

제40장

발두르의 죽음 — 요정들 — 룬 문자 — 아이슬란드 — 게르만 신화 — 니벨룽의 노래



크리스토페르 빌헬름 에케르스베르, 「발두르의 죽음」(1817)

발두르의 죽음

선한 발두르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알리는 끔찍한 꿈에 시달렸고, 그 꿈을 모여 있던 신들에게 이야기했다. 신들은 닥쳐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만물에게 엄숙히 다짐을 받기로 했다. 그러자 오딘의 아내 프리그는 불과 물, 쇠와 그 밖의 모든 금속, 돌, 나무, 질병, 짐승, 새, 독, 기어 다니는 것들에게서 발두르를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 냈다. 오딘은 이것으로도 안심하지 못했고, 아들의 운명이 걱정되어 예언녀 안게르보데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녀는 펜리르와 헬, 미드가르드의 뱀을 낳은 거인족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기에, 오딘은 헬의 영토로 내려가 그녀를 찾아야 했다. 이 저승 여행, 곧 '오딘의 하강'은 그레이의 아름다운 송시의 주제가 되었으니,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 "사람들의 왕이 서둘러 몸을 일으켜
> 곧장 칠흑같이 검은 말에 안장을 얹었다"

다른 신들은 프리그가 한 일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고는, 발두르를 과녁 삼아 즐기기 시작했다. 어떤 신은 그에게 창을 던지고, 어떤 신은 돌을 던지고, 또 어떤 신은 칼과 전투용 도끼로 그를 내리쳤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든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었다. 이 놀이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가 되었고, 발두르에게 바치는 영예로 여겨졌다. 하지만 로키는 그 광경을 보고 발두르가 다치지 않은 것에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프리그의 저택인 펜살리르로 갔다. 여신은 그 가짜 여인을 보자 신들이 회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여인은 신들이 발두르에게 창과 돌을 던지고 있지만 그를 해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요," 프리그가 말했다. "돌도, 막대기도, 그 밖의 어떤 것도 발두르를 해칠 수 없어요. 내가 모두에게 맹세를 받아 냈거든요." "뭐라고요?" 여인이 외쳤다. "모든 것이 발두르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맹세했지요." 프리그가 대답했다. "다만 발할라의 동쪽에서 자라는 작은 관목 하나만 빼고요. 그 나무는 겨우살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어리고 약해서 맹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로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떠났고, 본디 모습으로 돌아가 겨우살이를 꺾은 뒤 신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놀이에 끼지 못한 채 따로 서 있는 회드를 발견했다. 그는 회드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는 왜 발두르에게 아무것도 던지지 않느냐?"

"나는 눈이 멀었고 발두르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으며, 게다가 던질 것도 없다." 회드가 대답했다.

"자, 그러면," 로키가 말했다. "다른 이들처럼 해라. 이 가지를 그에게 던져서 발두르를 존경하는 뜻을 보여라. 내가 네 팔을 그가 서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해 주겠다."

그러자 회드는 겨우살이를 집어 들었고, 로키의 인도를 받아 그것을 발두르에게 던졌다. 발두르는 몸을 꿰뚫린 채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신들 사이에서든 인간들 사이에서든, 이보다 더 끔찍한 행위가 목격된 적은 결코 없었다. 발두르가 쓰러지자 신들은 공포에 질려 말을 잃었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모두는 이 일을 저지른 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이 모인 신성한 장소를 존중하여 복수를 미뤄야 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픔을 쏟아냈다. 신들이 정신을 차리자 프리그는 자기 사랑과 호의를 얻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를 얻는 자는," 그녀가 말했다. "헬에게 가서, 헬이 발두르를 아스가르드로 돌려보내 준다면 몸값을 치르겠다고 말할 자일 것이오." 그러자 날랜 자라는 별명을 가진 오딘의 아들 헤르모드가 그 여정을 맡겠다고 나섰다. 그때 여덟 개의 다리를 가지고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오딘의 말 슬레이프니르가 끌려 나왔고, 헤르모드는 그 말에 올라 임무를 향해 달려 나갔다. 아홉 낮과 아홉 밤 동안 그는 깊은 골짜기들을 지나 달렸는데, 어찌나 어두운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다 마침내 기욜 강에 이르렀고, 그는 반짝이는 황금으로 덮인 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지키던 처녀가 그에게 이름과 혈통을 물었다. 그녀는 그 전날에도 다섯 무리의 죽은 자들이 이 다리를 건넜지만, 그가 홀로 건널 때만큼 다리를 흔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녀가 덧붙였다. "너에게는 죽은 자의 빛깔이 없구나. 그런데 왜 헬로 가는 길을 달리고 있느냐?"

"헬에 가는 길이오," 헤르모드가 대답했다. "발두르를 찾고 있소. 혹시 그가 이 길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소?"

그녀가 대답했다. "발두르는 기욜 다리를 건너갔소. 저쪽이 그가 죽은 자들의 거처로 간 길이오."

헤르모드는 헬의 빗장 친 문에 이를 때까지 길을 갔다. 그는 여기서 말에서 내려 안장 띠를 더 조이고, 다시 올라타 말의 양 옆구리에 박차를 가했다. 말은 엄청난 도약으로 문에 닿지도 않고 문을 뛰어넘었다. 헤르모드는 그런 다음 궁전까지 말을 몰았고, 거기서 형 발두르가 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발두르와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헬에게 발두르가 자기와 함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신들 사이에는 오직 애도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그녀에게 장담하면서였다. 헬은 발두르가 정말 소문만큼 사랑받는지 이제 시험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니," 그녀가 덧붙였다. "살아 있는

것이든 생명 없는 것이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운다면,
그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어떤 한 가지라도 그에게
반대하거나 울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헬에 머물러야 하리라."

헤르모드는 그런 다음 아스가르드로 말을 달려 돌아갔고,
자신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낱낱이 전했다.

신들은 이에 사자들을 세상 곳곳으로 보내어, 발두르가
헬에게서 풀려날 수 있도록 만물이 울어 달라고 청하게 했다.
사람과 살아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땅과 돌과 나무와
쇠붙이까지, 모두가 이 청을 아주 기꺼이 들어주었다.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가져가면 이런 것들이 우는 것을
우리는 모두 보아 왔으니, 그와 꼭 같았다. 사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동굴 속에 앉아 있는 타우트라는 이름의 늙은
마녀를 만났고, 그녀에게 발두르가 헬에게서 풀려나도록
울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했다.

"타우트는 울리라
마른 눈물로
발두르의 장작불을.
헬이 제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노파는 다름 아닌 로키 자신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는데,
그는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발두르는 아스가르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신들은 죽은 몸을 들어 바닷가로 옮겼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로 여겨지던 발두르의 배 '흐링함'이 서 있었다. 발두르의 시신은 장작더미에 실려 배 위에 놓였다. 그의 아내 난나는 그 광경을 보고 슬픔에 잠겨 가슴이 찢어져 죽었고, 그녀의 몸도 남편과 같은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졌다. 발두르의 장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크게 모였다. 먼저 오딘이 프리그와 발키리들, 그리고 까마귀들을 데리고 왔다. 이어서 프레이가 멧돼지 굴린부르스티가 끄는 수레를 타고 왔다. 헤임달은 말 굴톱을 타고 왔고, 프레이야는 고양이들이 끄는 전차를 몰고 왔다. 또한 서리 거인들과 산의 거인들도 많이 와 있었다. 발두르의 말도 온갖 마구를 갖추어 장작더미로 끌려 나와, 주인과 함께 같은 불길 속에서 타 버렸다.

그러나 로키는 받아 마땅한 벌을 피하지 못했다. 신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본 로키는 산으로 달아나 그곳에 문이 네 개 달린 오두막을 지었다. 그러면 다가오는 어떤 위험이든 볼 수 있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을 그물을 발명했는데, 어부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그물을 쓰고 있다. 그러나 오딘이 그의 숨은 곳을 알아내었고, 신들이 그를 잡으러 모였다. 로키는 이것을 보고 연어로 변해 시냇물 속 돌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신들은 그물을 가져와 시내를 훑었고, 로키는 자신이 잡힐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물 위로 뛰어넘으려

했다. 하지만 토르가 그의 꼬리를 붙잡아 꽉 움켜쥐었다. 그 뒤로 연어의 꼬리 부분이 유난히 가늘고 얇아졌다고 한다. 신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고, 그의 머리 위에 독사 한 마리를 매달았다. 그 독은 한 방울씩 그의 얼굴에 떨어진다. 그의 아내 시군은 그의 곁에 앉아 떨어지는 방울을 잔으로 받아 낸다. 그러나 그 잔을 비우러 들고 갈 때면 독이 로키의 얼굴 위로 떨어지고, 그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몸을 너무 세차게 뒤틀어 온 대지가 흔들린다.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요정들

『에다』에는 신들보다 한 급 낮지만 여전히 큰 힘을 지닌 또 다른 부류의 존재들이 나온다. 이들은 요정이라 불렸다. 하얀 영혼, 곧 빛의 요정들은 몹시 아름다웠고, 태양보다 더 찬란했으며, 섬세하고 비치는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빛을 사랑했고 인간에게 호의를 품었으며, 대개 곱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나라는 알프헤임이라 불렸고, 태양의 신 프레이르의 영역이었다. 요정들은 언제나 그 빛 속에서 뛰놀았다.

검은 요정, 곧 밤의 요정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존재였다. 이들은 추하고 코가 긴 난쟁이들로, 더러운 갈색 빛을 띠었으며 오직 밤에만 나타났다. 태양을 가장 치명적인 적으로 여겨 피했는데, 햇빛이 이들 중 누구에게든 닿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돌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말은 외딴 곳의 메아리 같았고, 거처는 땅속 동굴과 바위 틈이었다. 이들은 이미르의 썩어 가는 살에서 생겨난 구더기였다고 여겨졌으며, 나중에 신들이 이들에게 인간의 모습과 뛰어난 지혜를 주었다. 이들은 자연의 신비한 힘에 밝았고, 룬 문자를 새기고 그 뜻을 풀이하는 능력으로 특히 이름이 높았다. 이들은 창조된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솜씨 좋은 장인이었으며, 금속과 나무를 다루는 일을 했다. 이들이 만든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토르의 망치와 배 「스키드블라드니르」가 있었다. 이들은 이 배를 프레이르에게 주었는데, 배는 모든 신과 그들의 무기와 살림살이를 다 실을 만큼 컸지만, 솜씨가 워낙 정교해서 접으면 옆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였다.

라그나로크, 신들의 황혼

북방 민족들은 굳게 믿었다. 언젠가 발할라와 니플헤임의 신들, 요툰헤임과 알프헤임과 미드가르드의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거처를 포함해 눈에 보이는 창조물 전체가 멸망할

때가 온다고. 그러나 그 끔찍한 멸망의 날에는 앞선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먼저 삼중의 겨울이 찾아온다. 그 동안 하늘의 네 귀퉁이에서 눈이 내리고, 서리는 몹시 혹독해지며, 바람은 살을 에고, 날씨는 사납고, 태양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겨울이 셋 지나가도록 단 한 번의 여름도 이 추위를 누그러뜨리지 못한다. 그다음에는 똑같은 겨울이 또 셋 이어지고, 그 동안 전쟁과 불화가 온 우주에 퍼져 나간다. 대지 자체가 겁에 질려 떨기 시작하고, 바다는 제 바닥을 벗어나며, 하늘은 갈라져 찢어지고, 사람들은 떼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하늘의 독수리들은 아직 떨리고 있는 그들의 몸을 뜯어 먹는다. 이제 늑대 펜리르가 속박을 끊고, 미드가르드의 뱀은 바다 속 제 잠자리에서 솟아오르며, 결박에서 풀려난 로키는 신들의 적들에 가담한다. 온 세상이 황폐해지는 가운데 무스펠스헤임의 자식들이 우두머리 수르트를 따라 달려 나온다. 그들의 앞뒤에서는 불길과 타오르는 불이 일렁인다. 그들은 무지개다리 비프로스트 위로 말을 달리는데, 다리는 말발굽 아래에서 부서진다. 그러나 그들은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비그리드라 불리는 싸움터를 향해 나아간다. 그곳으로는 늑대 펜리르, 미드가르드의 뱀, 헬의 모든 추종자를 거느린 로키, 그리고 서리 거인들도 몰려간다.

이제 헤임달이 일어나 기얄라르 뿔나팔을 불어, 신들과 영웅들을 싸움터로 불러 모은다. 신들은 오딘을 앞세우고 나아간다. 오딘은 늑대 펜리르와 맞서지만 그 괴물에게 쓰러지고, 괴물은 오딘의 아들 비다르에게 죽임을 당한다. 토르는 미드가르드의 뱀을 쳐 죽여 큰 명성을 얻지만, 뒤로 물러나다 쓰러져 죽는다. 죽어 가는 괴물이 그의 위로 토해 낸 독에 숨이 막힌 것이다. 로키와 헤임달은 서로 마주쳐 둘 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신들과 그들의 적들이 모두 싸움터에서 쓰러지자, 프레이르를 죽인 수르트가 세상 위로 불과 화염을 내던지고, 온 우주가 불타 사라진다. 태양은 어두워지고, 대지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뒤 알파두르(전능한 자)가 바다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풍요로운 양식으로 가득한 새 땅은 수고나 보살핌 없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악함과 고통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신들과 인간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룬 문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여러 모양의 큰 돌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 돌에는 룬 문자라고 불리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처음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아주 달라 보인다. 이 글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곧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은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막대기는 하나씩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개가 모여 쓰이기도 한다. 옛날 북유럽 민족들은 이런 막대기를 미래의 일을 알아내는 데 썼다. 막대기를 흔들어 뒤섞은 뒤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모양으로 일종의 점을 쳤던 것이다.

룬 문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주로 마술에 쓰였다. 해로운 룬, 즉 그들이 '쓴' 룬이라고 부른 것은 적에게 온갖 재앙을 가져오는 데 쓰였고, 이로운 룬은 불행을 막았다. 어떤 것은 병을 고치는 데, 어떤 것은 사랑을 얻는 데 쓰이기도 했다. 후대에 와서는 비문에 자주 쓰였으며,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도 천 개가 넘는다. 그 언어는 고트어의 한 방언으로, 노르스어라고 불리며 아이슬란드에서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비문은 확실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역사를 조금이라도 밝혀 주는 비문은 아주 드물다. 대부분은 묘비에 새긴 묘비명이다.

그레이의 시 「오딘의 강림」에는 주문을 외는 데 룬 문자를 쓴 일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

> “북녘 하늘을 마주하고
> 그는 세 번 룬 운율을 그렸다.
> 세 번 무서운 목소리로 외었다,
> 죽은 자를 깨우는 섬뜩한 노래를.
> 마침내 속이 빈 땅 아래서
> 무겁고 침울한 소리가 천천히 새어 나왔다.”

스칼드

스칼드는 나라의 음유시인이자 시인이었으며, 문명의 초기 단계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계층이었다. 그들은 전해 오는 역사 지식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임무는 전사들의 거친 잔치에 지적인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량이 허락하는 만큼 시와 음악을 곁들여, 살아 있는 자든 죽은 자든 영웅들의 업적을 읊었다. 스칼드의 작품은 사가라고 불렸는데, 그중 많은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역사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담고 있고, 그것이 다루는 시대의 사회 모습을 충실하게 보여 준다.

아이슬란드

에다와 사가는 아이슬란드에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다음 글은 칼라일의 강연 「영웅과 영웅 숭배」에서 가져온 것으로, 우리가 읽어 온 기이한 이야기들이 비롯된 땅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리스, 곧 고전 신화의 고향과 잠시 견주어 보기 바란다.

"저 기묘한 섬 아이슬란드는 지질학자들의 말로는 바닷속 불길에 밀려 솟아오른 땅이다. 황량하고 용암이 뒤덮인 거친 땅으로, 해마다 여러 달은 검은 폭풍에 삼켜진다. 그러나 여름이면 야성의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다. 북쪽 바다 위에 엄숙하고 음울하게 솟아 있으며, 눈 덮인 요쿨(산)들, 으르렁거리는 게이저(끓는 샘)들, 유황 웅덩이들, 끔찍한 화산 협곡들이 있다. 서리와 불이 벌이는 황폐하고 혼돈스러운 전장과도 같은 땅이다. 문학이나 글로 남은 기록이 있으리라고는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바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기록되었다. 이 거친 땅의 해안가에는 풀이 자라는 띠 같은 땅이 있어, 소를 기를 수 있고, 사람들은 소와 바다가 내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시적인 사람들이었던 듯하다.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 생각을 음악처럼 노래했다. 아이슬란드가 바다에서 솟아오르지 않았고 북방인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많은 것이 사라졌을 것이다!"

게르만 신화

독일 본토의 신화에서 오딘의 이름은 보탄으로 나타난다. 프레이야와 프리그는 같은 여신으로 여겨지며, 신들은 대체로 북유럽 신화의 신들보다 덜 호전적인 성격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게르만 신화는 북유럽 민족의 신화와 거의 같은 노선을 따라간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기후 조건의 차이로 전설이 변형된 데서 비롯한다. 게르만인의 더 발전된 사회적 상태 또한 그들의 신화에 드러난다.

니벨룽의 노래

게르만 민족의 가장 오래된 신화 가운데 하나는 위대한 민족 서사시 『니벨룽의 노래』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은 선사시대에 독일의 숲에서 보탄, 프리그, 토르, 로키와 그 밖의 신들과 여신들이 숭배받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사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네덜란드 왕들 가운데 막내인 지그프리트가 보름스로 가서 부르고뉴 왕 군터의 누이 크림힐트의 손을 청하는 이야기다.

지그프리트는 군터의 궁에 머무는 동안 부르고뉴 왕이
이슬란드의 여왕 브룬힐트를 아내로 맞도록 도왔다.
브룬힐트는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를, 창 던지기, 거대한 돌
던지기, 멀리뛰기에서 자기를 이기는 자만이 자기의 남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몸을 감추는 망토를 가지고 있던
지그프리트는 이 세 가지 시합에서 군터를 도왔고,
브룬힐트는 군터의 아내가 되었다. 이 도움에 대한 답례로
군터는 누이 크림힐트를 지그프리트에게 아내로 주었다.

얼마 시간이 흐른 뒤, 지그프리트와 크림힐트가 군터를
찾아갔다. 그때 두 여인은 각자의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크림힐트는 지그프리트를 드높이려고,
군터가 거둔 승리와 그가 얻은 아내가 모두 지그프리트
덕분이라고 자랑했다. 브룬힐트는 크게 노하여, 군터의
가신인 하겐을 시켜 지그프리트를 죽이게 했다. 서사시는
하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두려운 손님은 몸이 크고 골격이 단단했다. 다리는 길고
힘줄이 질겼으며, 가슴은 깊고 넓었다. 한때 검었던 그의
머리카락에는 근래 잿빛이 섞여 있었다. 얼굴은 몹시
무서웠고,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니벨룽의 노래, 제1789연.

독일 로망스의 이 아킬레우스는 불운한 네덜란드 왕 지그프리트가 사냥 도중 개울에서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고 있을 때, 그의 어깨 사이를 찔렀다.

서사시의 두 번째 부분은 열세 해가 지난 뒤 크림힐트가 훈족의 왕 에첼과 혼인한 일을 이야기한다. 얼마 뒤 그녀는 부르고뉴의 왕을 하겐과 그 밖의 많은 이들과 함께 자기 남편의 궁정으로 초대했다. 연회장에서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고, 그 싸움은 군터와 하겐을 빼고 모든 부르고뉴인이 도륙되는 것으로 끝났다. 이 두 사람은 사로잡혀 크림힐트에게 넘겨졌는데, 그녀는 자기 손으로 두 사람의 목을 베었다. 이처럼 피로 얼룩진 복수 행위에 대한 응보로, 크림힐트는 마법사이자 용사인 힐데브란트의 손에 죽었다. 독일 신화에서 힐데브란트는 그리스 신화의 네스토르가 차지하는 자리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니벨룽겐의 보물

이것은 지그프리트가 니벨룽겐족에게서 얻은 신화적인 금과 보석의 무더기였다. 니벨룽겐족은 북쪽 사람들로, 지그프리트가 정복하여 그 나라를 자신의 네덜란드 왕국에 조공을 바치는 땅으로 삼았던 이들이다. 혼인할 때 지그프리트는 이 보물을 혼수로 크림힐트에게 주었다.

지그프리트가 살해된 뒤 하겐이 이것을 빼앗아 로흠의 라인강 아래에 몰래 묻었는데, 훗날 다시 꺼낼 생각이었다. 하겐이 크림힐트에게 죽임을 당하자 이 보물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 보물의 놀라운 모습은 시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 "나흘 밤낮을 꼬박 열두 대의 거대한 수레가 나르더라도
> 산에서 소금 바다 만까지 실어 나르기 벅찼으리라.
> 그 수레들이 하루에 세 번씩 오가며 날랐다 해도 말이다."
>
> "그것은 오직 보석과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 세상 전부를 그것으로 사들이고 값을 다 치러도,
> 예전 그대로 한 점도 줄지 않으리라, 내 생각엔 그러하다."
>
> — 『니벨룽겐의 노래』 제19장

니벨룽겐 보물을 소유한 자는 니벨룽겐족이라고 불렸다. 이처럼 한때 노르웨이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다. 지그프리트가 그 보물을 손에 넣었을 때 그는 '니벨룽겐족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리처드 바그너의 악극 「니벨룽의 반지」는 고대 독일 서사시와 얼마간 닮은 데가 있지만, 전적으로 독립된 작품이다. 이것은 여러 옛 노래와 사가에서 가져온 것이며,

극작가는 이를 엮어 하나의 거대하고 조화로운 이야기로 만들었다. 주된 원천은 『볼숭가 사가』였고, 덜 중요한 부분은 『고에다』와 『신에다』에서, 또 다른 부분은 『니벨룽겐의 노래』, 『에켄리트』, 그리고 그 밖의 게르만 민간 전승에서 가져왔다.

극 속에는 처음에 네 개의 뚜렷한 종족만 있다. 신들, 거인들, 난쟁이들, 그리고 요정들이다. 나중에 특별한 창조로 발키리와 영웅들이 등장한다. 신들은 가장 고귀하고 높은 종족으로, 먼저 산의 목초지에서 살았고 나중에는 높은 곳에 있는 발할라 궁전에서 살았다. 거인들은 크고 강한 종족이지만 지혜가 부족하다. 그들은 고귀한 것을 미워하고 신들의 적이며, 땅 표면 가까이에 있는 동굴에서 산다. 난쟁이, 곧 니벨룽들은 검고 투박한 작은 족속으로, 선한 것을 미워하고 신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간교하고 교활하며, 땅속 깊은 곳에서 산다. 요정들은 물의 순결하고 순진한 존재들이다. 발키리는 신들의 딸이지만 필멸자의 피가 섞여 있다. 그들은 전장에서 죽은 영웅들을 모아 발할라로 데려간다. 영웅들은 신들의 자식이지만 역시 필멸자의 피가 섞여 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종족 가운데 가장 높은 종족이 되어, 신들의 뒤를 이어 세계를 다스리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주요 신은 보탄, 로키, 돈너, 프로이다. 주요 거인은 형제인 파프너와 파졸트이다. 주요 난쟁이는 형제인 알베리히와 미메이며, 나중에는 알베리히의 아들 하겐이 나온다. 주요 요정은 라인강의 딸들인 플로스힐데, 보글린데, 벨군데이다. 발키리는 아홉이 있으며, 그 가운데 으뜸은 브룬힐트이다.

바그너의 반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라인강 깊은 곳에는 순진한 라인의 처녀들이 지키는 황금 더미가 있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이 황금을 얻으려고 사랑을 버린다. 그는 황금을 마법의 반지로 만든다. 반지는 그에게 모든 힘을 주고, 그는 그 힘으로 엄청난 보물을 모은다.

한편 신들의 우두머리 보탄은 거인들에게 부탁해 세상을 다스릴 고귀한 성, 발할라를 짓게 하였다. 그 대가로 젊음과 사랑의 여신 프레이야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신들은 프레이야를 내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신들의 불멸의 젊음이 그녀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할 것을 찾아내라는 요청을 받은 로키는 알베리히의 마법 반지와 다른 보물들에 대해 말하였다. 보탄은 로키와 함께 가서 알베리히에게서 반지와 황금 더미를 훔쳤다. 알베리히는 반지에 저주를 걸고, 앞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모든 이에게 그 저주를 내렸다. 신들은 프레이야 대신 거인들에게 반지와 보물을 주었다. 저주는 곧바로 효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거인 파프너는

형을 죽이고 모든 것을 차지하였으며,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용으로 변신하였다. 신들은 무지개다리를 건너 발할라로 들어갔다. 이것으로 『라인의 황금』이라 불리는 극의 첫 부분이 끝난다.

둘째 부분인 『발키리』는 보탄이 여전히 그 반지를 탐낸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거인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직접 반지를 가질 수 없다. 그의 존립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반지를 얻을 계략을 꾸민다. 영웅들의 종족을 시켜 반지와 보물을 되찾게 하려는 것이다. 지그문트와 지글린데는 이 새로운 종족의 쌍둥이 자녀다. 지글린데는 어릴 때 납치되어 훈딩과 억지로 혼인하게 된다. 지그문트가 찾아오고, 그는 모르고 혼인의 법을 어기지만, 위대한 검 노퉁과 신부를 얻는다. 발키리의 우두머리 브룬힐트는 혼인의 여신 프릭카의 요청에 따라 보탄에게서, 지그문트에게 죄를 물어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녀는 명을 어기고 그를 구하려 하지만, 보탄의 도움을 받은 훈딩이 그를 죽인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웅이 될 지그프리트를 막 낳으려던 지글린데는 브룬힐트에게 구출되어 숲속에 숨겨진다. 브룬힐트 자신은 벌을 받아 필멸의 여인이 된다. 그녀는 산 위에서 잠든 채 남겨지고, 주위에는 오직 영웅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불의 벽이 둘러쳐진다.

극은 지그프리트 이야기로 이어진다. 막은 미메라는 난쟁이와 지그프리트가 대장간에서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미메는 칼을 벼리고 있고, 지그프리트는 그를 업신여긴다. 미메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 지글린데에 관해 이야기해 주고, 아버지의 칼이 부러진 조각들을 보여 준다. 보탄이 찾아와 미메에게, 두려움을 모르는 자만이 그 칼을 다시 벼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그프리트는 두려움을 몰랐으므로, 곧 검 노퉁을 다시 벼린다. 보탄과 알베리히는 용 파프너가 반지를 지키고 있는 곳으로 간다. 둘 다 그 반지를 몹시 탐내지만, 어느 쪽도 그것을 가질 수 없다. 머지않아 미메가 막강한 검을 든 지그프리트를 데리고 온다. 파프너가 나오지만, 지그프리트는 그를 죽인다. 우연히 용의 피가 그의 입술에 닿자, 그는 새들의 말을 알아듣게 된다. 새들은 그에게 반지에 관해 말해 준다. 그는 가서 반지를 얻는다. 이제 지그프리트는 반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 행복도 가져다주지 않고 오직 악만 가져다줄 것이다. 반지는 사랑을 저주하고 끝내 죽음을 불러온다. 새들은 또한 그에게 미메의 배신을 알려 준다. 그는 미메를 죽인다. 그는 사랑할 누군가를 간절히 바란다. 새들은 잠들어 있는 브룬힐트에 관해 알려 주고, 그는 그녀를 찾아가 아내로 맞는다.

『신들의 황혼』은 막이 오르면 운명의 실을 짜고 재는 세 노른, 곧 운명의 세 여신을 보여 준다.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완벽한 한 쌍인 지그프리트와 브룬힐트가 삶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등장한다. 두 사람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눈부신 이상이다. 그러나 지그프리트는 용맹한 업적을 이루려고 세상으로 나간다. 그는 돌아올 때까지 사랑의 맹세로 간직하라며 니벨룽겐의 반지를 브룬힐트에게 맡긴다. 한편 알베리히도 아들 하겐을 낳아, 반지를 손에 넣게 하려 한다. 하겐은 기비훙 가문의 피를 반쯤 이어받았고, 자신의 이복 형제자매인 군터와 구트루네를 앞세워 일을 꾸민다. 그들은 지그프리트를 꾀어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에게 마법의 음료를 먹여 브룬힐트를 잊고 구트루네를 사랑하게 만든다. 같은 마법에 걸린 그는 군터에게 아내로 삼도록 브룬힐트를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제 발할라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다. 신들은 종말을 두려워한다. 보탄은 중얼거린다. “그녀가 라인강에 반지를 돌려주었으면!” 그러나 브룬힐트는 반지를 내놓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사랑의 맹세이기 때문이다. 지그프리트가 와서 반지를 빼앗고, 브룬힐트는 기비훙 가문의 라인강 성으로 끌려간다. 그러나 마법에 걸린 지그프리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군터와 혼인하게 되어 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일어나 지그프리트를

규탄한다. 그러나 사냥 연회에서 지그프리트는 또 다른 마법의 음료를 마시고 모든 것을 기억해 낸다. 그가 사랑으로 브룬힐트의 이름을 부를 때, 하겐이 등 뒤에서 일격을 가해 그를 죽인다. 그리고 종말이 온다. 지그프리트의 시신은 장례 화장용 장작 위에서 불태워지고, 웅장한 장송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브룬힐트는 불길 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 사랑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 반지는 라인강의 딸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열정과 죄악의 옛 세계, 곧 발할라의 신들의 세계는 불꽃에 휩싸여 타 버린다. 신들이 도덕률을 어기고, 사랑보다 권력을, 진실보다 황금을 탐했기에 반드시 멸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라지고, 사랑과 진실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니벨룽겐의 노래와 니벨룽겐의 반지에 담긴 전설의 차이, 그리고 바그너가 고대 소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더블유 시 소여 교수의 『니벨룽겐의 노래와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타난 튜턴 전설』을 참고하면 된다. 그 책은 이 문제를 충분히 자세하게 다룬다. 바그너가 그려 낸 『반지』를 음악적 동기에 대한 연구와 함께 매우 철저하고 명료하게 분석한 책으로는, 일반 독자에게는 프레다 윈워스의 『소리의 서사시』만 한 것이 없을 듯하다. 바그너의 악극을 공부하는 학도에게는 라비냐크 교수의 더

학술적인 저작이 빠질 수 없다. 원천과 소재에 관해서는 제이엘 웨스턴의 『바그너 악극의 전설』에 깨우침을 주는 논평이 많이 담겨 있다.

제41장

드루이드 — 이오나



앙리폴 모트, 「달의 여섯째 날 겨우살이를 베는 드루이드」(1900)

드루이드

드루이드는 갈리아, 브리타니아, 게르마니아에 살던 고대 켈트 민족들 사이에서 종교를 맡은 사제였다. 그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의 기록을, 아직 남아 있는 웨일스 시와 게일 시의 흔적과 견주어 얻은 것이다.

드루이드는 사제, 재판관, 학자, 의사의 역할을 한 몸에 겸했다. 그들이 켈트 부족 사람들과 맺은 관계는, 인도의 브라만과 페르시아의 마기, 이집트의 사제들이 저마다 자신들을 우러르던 백성과 맺은 관계와 아주 흡사했다.

드루이드는 한 분의 신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그 신에게 '베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켈트족 연구자들의 말로는 이 이름은 '만물의 생명' 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뜻하며, 페니키아의 바알과 닮은 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닮음이 더 두드러지는 까닭은, 드루이드가 페니키아인과 마찬가지로 이 최고신을 태양과 동일시했다는 점이다. 불은 신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라틴 작가들은 드루이드가 그보다 낮은 여러 신들도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숭배의 대상을 나타내는 형상을 쓰지 않았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려고 어떤 신전이나 건물에 모이지도 않았다. 그들의 성소는 돌로 둘러싸인 원이었다. 돌은 보통 엄청나게

컸고, 그 원의 지름은 20피트에서 30야드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가장 유명한 것은 잉글랜드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이다.

이 신성한 원들은 대개 어떤 시내 가까이나 숲 또는 넓게 퍼진
참나무의 그늘 아래 자리하고 있었다. 원의 가운데에는
크롬레크, 곧 제단이 서 있었다. 그것은 똑바로 세운 다른
돌들 위에 탁자처럼 얹어 놓은 큰 돌이었다.
드루이드들에게는 또한 높은 곳에 마련한 성소도 있었다.
그것은 언덕 꼭대기에 놓인 큰 돌이나 돌무더기였다.
이것들은 케언이라 불렸고, 태양을 상징으로 삼은 신을
숭배하는 데 쓰였다.

틀림없이 드루이드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무엇을 바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그들의
종교 의식과 관련된 일은 우리가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고전기
로마 작가들은 중대한 때에 인간 제물을 바쳤다고 단언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험한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카이사르는 이것이 행해진 방식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들은
거대한 크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지는 꼬인
나뭇가지로 엮어져 있었고 그 안은 살아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에 불이 붙으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길에 둘러싸였다.” 켈트 작가들은 이 사실에 대한 로마 역사가들의 증언을 흔들어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드루이드들은 한 해에 두 번의 축제를 지켰다. 앞의 축제는 5월 초에 열렸고, 벨테인 또는 “신의 불”이라고 불렸다. 이때 사람들은 태양을 기리기 위해 높은 곳에 커다란 불을 피웠다. 겨울의 어둠과 황폐함 끝에 돌아오는 태양의 은혜를 이렇게 맞이한 것이다. 이 풍습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 성령강림절에 붙여진 이름에 남아 있다. 월터 스콧 경은 『호수의 여인』의 「뱃노래」에서 이 말을 쓴다.

“우리의 것은 샘가에 우연히 심긴 어린 나무가 아니니, 벨테인에 꽃피었다가 겨울이면 시들어 버릴 나무가 아니다;” 등등.

드루이드의 또 다른 큰 축제는 ‘삼힌’ 또는 ‘평화의 불’이라 불렸으며, 할로윈(11월 1일)에 열렸다. 이 명칭은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 아직도 쓰인다. 이때 드루이드들은 그 지역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엄숙하게 모여 자신들의 사법 기능을 수행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문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모든 범죄가 이 무렵 그들 앞에 와서 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 행위에는 특정한 미신적 관습이 함께 따랐는데, 특히 신성한 불을 피우는 일이 그러했다. 그 지역의 모든 불은 미리

꼼꼼하게 꺼 두었다가, 이 신성한 불에서 다시 불을 붙였다. 할로윈에 불을 피우는 이 관습은 기독교가 자리 잡은 뒤에도 오랫동안 브리튼 제도에 남아 있었다.

드루이드는 두 큰 연례 축제 말고도 보름달과 특히 달의 여섯째 날을 지키는 관습이 있었다. 그들은 여섯째 날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참나무에 자라는 겨우살이를 찾았다. 그들은 겨우살이와 참나무 자체에 특별한 힘과 신성함이 있다고 여겼다. 겨우살이를 찾아내는 일은 기뻐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자리였다. 플리니우스는 말한다.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말로 '만병통치'라는 뜻의 낱말로 부른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잔치와 제사를 엄숙하게 준비한 뒤, 뿔을 처음으로 묶은 두 마리의 젖빛 흰 황소를 그곳으로 몬다. 그러면 사제가 흰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 금낫으로 겨우살이를 자른다. 겨우살이는 흰 망토에 받아 내고, 그 뒤에 제물을 잡는다. 동시에 그들은 신이 자신이 준 선물을 그것을 받은 이들에게 복되게 해 주기를 빈다." 그들은 겨우살이를 우린 물을 마시며, 그것이 모든 병에 듣는 약이라고 생각한다. 겨우살이는 기생식물이라서 참나무에서 늘 또는 자주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참나무에서 겨우살이를 발견하면 그만큼 더 귀하게 여겼다.

드루이드는 종교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도덕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들의 윤리 가르침 가운데 귀한 한 대목이 웨일스 음유시인들의 셋씩 짝지은 격언집에 전해지고 있으니, 이를 보면 그들이 올바른 행실에 대해 대체로 옳은 생각을 가졌고, 아주 고결하고 값진 행동 원칙을 많이 품어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시대와 민족에서 학문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글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교리나 역사, 시를 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의 가르침은 말로 전해졌고, 그들의 문학(그런 경우에 이 말을 쓸 수 있다면)은 오로지 구전으로만 보존되었다. 그러나 로마의 저술가들도 "그들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며, 별과 그 운행, 세계와 땅의 크기, 그리고 불멸의 신들의 힘과 권능에 관한 많은 것을 탐구하여 자기들이 맡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인정한다.

그들의 역사는 조상들의 영웅적 행적을 기리는 전승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운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드루이드의 시이자 역사의 일부를 이루었다. 오시안의 시들에서는, 드루이드 시대의 실제 작품은 아닐지라도, 음유시인들의 노래를 충실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을 볼 수 있다.

음유시인은 드루이드 위계의 필수적인 일부였다. 펜넌트라는 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음유시인들은 영감에 맞먹는 힘을 부여받았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과거의 모든 일을 입으로 전하는 역사가였다. 그들은 또한 뛰어난 계보학자이기도 했다,” 등등.

펜넌트는 드루이드 사제직의 다른 부분들이 오래전에 사라진 뒤에도 웨일스에서 여러 세기 동안 열린 아이스테드보드, 곧 음유시인과 떠돌이 악사의 모임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 모임에서는 실력이 인정받은 음유시인만이 자신의 작품을 낭송할 수 있었고, 재주가 뛰어난 악사만이 연주할 수 있었다. 각자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심사관이 임명되었고, 그에 맞는 등급이 수여되었다. 초기에는 심사관을 웨일스 군주들이 임명했으나, 웨일스가 정복된 뒤에는 잉글랜드 왕들의 위임장에 따라 임명되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에드워드 1세는 음유시인들이 백성을 부추겨 왕의 통치에 맞서게 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그들을 몹시 잔혹하게 박해했다고 한다. 이 전승은 시인 그레이에게 그의 유명한 송시 「음유시인」의 소재를 제공했다.

지금도 웨일스 시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옛 이름을 그대로 지닌 모임을 간간이 연다. 헤만스 부인의 시 가운데에는 1822년 5월 22일 런던에서 열린, 웨일스

음유시인들의 모임인 아이스테드보드를 위해 쓴 작품이 있다. 이 시는 옛 모임을 묘사하며 시작하고, 다음 시행들은 그 묘사의 일부이다:

> "...영원한 절벽들 사이, 그 굳건한 힘이
> 볏 장식 투구의 로마인이 위세를 떨칠 때에도 그에게 굴하지 않던 곳,
> 드루이드의 오랜 크롬레크가 찌푸리듯 서 있고,
> 참나무들이 그 둘레에 신비로운 속삭임을 내쉬던 곳에서,
> 옛적의 영감받은 이들이 떼 지어 모였도다! 평원에서나 언덕 위에서,
> 햇빛이 얼굴을 비추는 아래, 빛의 눈길 아래에서,
> 고결한 머리마다 하늘을 향해 드러내고,
> 다른 누구도 밟을 수 없는 그 둥근 자리에 섰도다."

드루이드 체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끈 로마의 침공 무렵 그 전성기에 있었다. 세계를 정복한 이 정복자들은 가장 큰 적인 드루이드들을 향해 가차 없는 분노를 쏟아부었다. 본토 곳곳에서 쫓긴 드루이드들은 앵글시와 이오나로 물러났고, 그곳에서 잠시 몸을 숨긴 채 이제는 명예를 잃은 의식을 이어 갔다.

드루이드들은 이오나와 그 인근의 섬들, 그리고 본토에서 여전히 권세를 누렸다. 그러다 하이랜드의 사도 성 컬럼바가 찾아와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의 미신을 뒤엎었다. 그의 전도로 그 지방 사람들은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오나

영국 제도에서 가장 작은 섬 가운데 하나인 이오나는 거칠고 메마른 해안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위험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섬 안에 부의 원천이 될 만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 섬은 북유럽 거의 전역을 이교의 어둠이 뒤덮고 있던 시기에 문명과 종교의 중심지로서 역사에 사라지지 않을 자리를 얻었다. 이오나, 곧 아이콜름킬은 뮬 섬의 끝자락에 있으며, 두 섬은 폭이 반 마일인 해협으로 나뉜다. 이오나에서 스코틀랜드 본토까지의 거리는 삼십육 마일이다.

콜룸바는 아일랜드 태생으로, 혈통으로는 그 땅의 왕족과 이어져 있었다. 당시 아일랜드는 복음의 빛이 비추는 땅이었으나, 스코틀랜드의 서부와 북부는 여전히 이교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콜룸바는 열두 명의 벗과 함께, 짐승 가죽을 씌운 버드나무 가지 배를 타고 서기 563년에 이오나 섬에 상륙하였다. 그 섬을 차지하고 있던 드루이드들은 그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애썼고, 인접한 해안의 사나운

부족들은 적대감으로 그를 괴롭혔으며, 여러 차례 공격으로 그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끈기와 열정으로 모든 반대를 이겨 내었고, 왕에게서 섬을 하사받아 그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스스로 수도원장이 되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고지대와 여러 섬 곳곳에 성경의 지식을 퍼뜨리는 일에 지칠 줄 모르고 힘썼다. 그에 대한 존경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주교가 아니라 단지 장로이자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전체와 그곳의 주교들이 그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복종하였다. 픽트인의 왕은 그의 지혜와 가치에 깊이 감명받아 그를 가장 높이 대우하였고, 이웃 족장들과 군주들도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의 판단을 따랐다.

콜룸바가 이오나 섬에 상륙했을 때 그를 따르는 열두 제자가 있었고, 그는 그들을 하나의 종교 공동체로 조직하여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필요에 따라 그 뒤로도 다른 이들이 때때로 더해져서 처음의 인원은 언제나 유지되었다. 그들의 제도는 수도원이라 불렸고 그 지도자는 수도원장이라 불렸지만, 이 제도는 후대의 수도원 제도와는 거의 공통점이 없었다. 규율에 따르기로 한 이들은 쿨디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라틴어 ‘쿨토레스 데이’(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에서 왔을 것이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를 가르치는 공동의 일에서 서로를 돕고, 함께 드리는 예배로

자신들의 신앙의 열기를 유지하기 위해 모인 종교인들의 집단이었다.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들은 어떤 서원을 세웠지만, 그것은 수도회들이 보통 부과하던 서원과는 달랐다. 그런 서원은 독신, 청빈, 순명의 셋이었는데, 쿨디들은 그 가운데 셋째인 순명 말고는 아무것도 지키도록 요구받지 않았다. 청빈에는 스스로를 묶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과 그들에게 기대어 사는 이들을 위해 생활의 편의를 얻으려고 부지런히 애쓴 듯하다. 결혼도 허락되었고, 대부분이 그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내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인근 지역에 거처가 마련되었다. 이오나 근처에는 지금도 '여인들의 섬'이라는 뜻의 '일렌 남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있는데, 학교나 성소에서 맡은 임무가 요구하지 않는 한 남편들은 그곳에서 아내들과 함께 지낸 듯하다.

캠벨은 자신의 시 「릴루라」에서 이오나의 결혼한 수도사들을 암시한다:

"… 순수한 쿨디들이
앨빈의 가장 이른 하느님의 사제였으니,
색슨 수도사의 발이
그 바다의 섬을 밟기 전이었다.
그 땅의 성직자들이 편협함 탓에
거룩한 혼인의 끈을 금지당하기 훨씬 전이었다.
그때 멀리까지 이름 높은 아오드가
이오나에서 힘차게 말씀을 전했고,
아름다움의 별 릴루라가
그의 거처의 동반자였다."

무어는 자신의 「아일랜드 멜로디」 가운데 한 편에서 성 세나누스와, 섬에 피난처를 구하러 왔다가 거절당한 한 여인의 전설을 노래한다.

"오, 어서 이 성스러운 섬을 떠나라,
불경한 배여, 아침 햇살이 비치기 전에.
네 갑판 위, 어둠 속이지만
여인의 형상이 보이니.
나는 맹세했노라, 이 성스러운 흙을
결코 여인의 발이 밟지 못하리라고."

이러한 점들에서,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점에서 쿨디들은 로마 교회의 확립된 규칙에서 벗어났고, 그 결과 이단으로 여겨졌다. 로마 교회의 권세가 커질수록 쿨디들의 세력은 약해졌다. 그러나 쿨디 공동체들이 억압되어 그 구성원들이

흩어진 것은 13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 뒤에도 그들은 개인으로서 계속 일하며, 종교개혁의 빛이 세상에 밝아 올 때까지 교황권의 침탈에 할 수 있는 만큼 맞섰다.

이오나는 서쪽 바다에 자리한 탓에, 그 바다에 들끓던 노르웨이와 덴마크 해적들의 습격에 노출되었다. 이들에게 이오나는 여러 차례 약탈당했고, 집들은 불탔으며,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은 칼에 쓰러졌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으로 이오나는 서서히 쇠퇴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쿨디들이 몰락하면서 그 쇠퇴는 더욱 빨라졌다. 가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에서 이 섬은 수녀원의 자리가 되었으며, 그 폐허는 지금도 볼 수 있다. 종교개혁 때 수도원은 해체되었지만, 수녀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그대로 살도록 허락되었다.

이오나는 이제 주로 그 위에 남은 수많은 교회 유적과 무덤 유적 때문에 여행자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성당, 곧 수도원 교회와 수녀원의 예배당이다. 이러한 옛 교회 유적 말고도 더 오래된 유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 섬에 기독교와는 다른 예배와 신앙의 형태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원형의 돌무더기가 바로 그것이며, 그 기원은 드루이드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고대 종교의 이러한 유적들을 두고 이렇게 외쳤다.

“마라톤 평원에서도 애국심이 더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
이오나의 폐허 속에서도 신심이 더 깊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부러워할 가치가 거의 없다.”

「섬들의 영주」에서 스콧은 이오나의 교회와 맞은편 스타파 동굴을 아름답게 대비한다.

> 자연 그 자체가 제 창조주를 찬미할 대성당을 세우려 한 듯하다!
> 기둥들은 더 천한 쓰임으로 솟지 않고, 아치들도 더 천한 쓰임으로 휘지 않는다.
> 밀려왔다 물러나는 저 거대한 파도도 덜 엄숙한 주제를 노래하지 않으며,
> 두려운 침묵의 틈마다 높은 천장에서 대답을 끌어낸다.
> 그 소리는 여러 음색으로 길게 높이 울려, 오르간의 선율을 흉내 내는 듯하다.
> 그 입구가 오래된 이오나의 성스러운 사당을 마주한 것도 헛되지 않으니,
> 그리하여 자연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잘했구나, 연약한 흙의 자식이여!
> 네 보잘것없는 힘으로 저 장엄한 사당을 세우느라 한껏 애썼구나.
> 그러나 내 사당을 보라!”

번역과 검수 안내

번역 대상은 토머스 불핀치의 『신화의 시대(The Age of Fable)』(1855) 영어 원문입니다. 불핀치는 그리스 신들을 로마 이름(유피테르·유노·미네르바 등)으로 불렀지만, 이 번역은 그리스 이름(제우스·헤라·아테나 등)으로 바꿔 옮겼습니다. 원문이 두 이름을 나란히 적은 곳은 로마 이름을 괄호로 남겼고, 로마 고유의 신을 설명하는 부분은 로마 이름 그대로 두었습니다.

초벌 번역은 Claude Haiku 5.5가 문단마다 만들고, Claude Opus 5.5가 전41장 1,352문단을 영어 원문과 모두 대조해 오역·누락·고유명사 표기·문체를 고쳤습니다(고친 곳 1,280곳). 시 인용은 뜻을 살려 옮겼으며 운율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각주와 1장 끝의 영어 발음 안내는 싣지 않았습니다. AI 검수는 전문가 교열이나 의미 정확성의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용 조건

Thomas Bulfinch, The Age of Fable; or, Stories of Gods and Heroes, 1855. 전자 텍스트: Project Gutenberg #4928 (퍼블릭 도메인).

장마다 실은 그림은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퍼블릭 도메인' 또는 CC0로 표시된 회화·태피스트리입니다.

그림 출처

1. 제1장 · 라파엘로와 제자들, 「신들의 회의」(빌라 파르네시나 프시케의 로지아 천장화, 1517~1518)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 제2장 ·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판도라」(1896)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 제3장 · 피에로 델 폴라이올로, 「아폴론과 다프네」(1470~1480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4. 제4장 · 페테르 파울 루벤스, 「헤라와 아르고스」(1610년대)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5. 제5장 · 페테르 파울 루벤스, 「파에톤의 추락」(1604~1605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6. 제6장 · 렘브란트 판 레인, 「필레몬과 바우키스」(1658)
   위키미디어 공용 · CC0
7. 제7장 · 단테 게이브리얼 로세티, 「페르세포네」(1874)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8. 제8장 · 에드워드 번존스, 「피그말리온과 조각상 — 마음이 바라다」(1878)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9. 제9장 · 리처드 윌슨, 「케익스와 할키오네」(1768)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10. 제10장 · 프란체스코 멜치, 「베르툼누스와 포모나」(1518~1522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11. 제11장 ·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황금 상자를 여는 프시케」(1903)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12. 제12장 · 페테르 파울 루벤스 공방, 「용의 이빨을 뿌리는 카드모스」(17세기)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13. 제13장 ·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에코와 나르키소스」(1903)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14. 제14장 · 디에고 벨라스케스, 「실 잣는 여인들(아라크네 이야기)」(1657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15. 제15장 · 에드워드 번존스, 「불길한 머리」(1885)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16. 제16장 · 귀스타브 모로,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1864)
위키미디어 공용 · CC0
17. 제17장 ·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이아손과 메데이아」(1907)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18. 제18장 · 페테르 파울 루벤스, 「아탈란테와 멜레아그로스」(1616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CC0
19. 제19장 · 안니발레 카라치, 「헤라클레스의 선택」(1596)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0. 제20장 · 피터르 브뤼헐(전칭),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1555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1. 제21장 · 티치아노,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1520~1523)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2. 제22장 · 아르놀트 뵈클린, 「갈대밭의 판」(1858)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3. 제23장 · 프레더릭 레이턴, 「알케스티스의 몸을 두고 죽음과 씨름하는 헤라클레스」(1869~1871)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4. 제24장 · 카미유 코로, 「에우리디케를 이끌고 저승을 나서는 오르페우스」(1861)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5. 제25장 · 로런스 알마타데마, 「사포와 알카이오스」(1881)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6. 제26장 · 클로드 로랭, 「아키스와 갈라테이아가 있는 풍경」(1657)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7. 제27장 · 자크루이 다비드, 「아킬레우스의 분노」(1819)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8. 제28장 · 조반니 도메니코 티에폴로, 「트로이아로 들어가는 목마 행렬」(1760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9. 제29장 ·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오디세우스와 세이렌」(1891)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0. 제30장 · 핀투리키오, 「구혼자들과 페넬로페」(1509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1. 제31장 · 피에르나르시스 게랭, 「디도에게 트로이아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아이네이아스」(1815)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2. 제32장 · 요아힘 파티니르, 「스틱스강을 건너는 카론」(1520~1524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3. 제33장 · 루카 조르다노, 「아이네이아스와 투르누스」(1688)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4. 제34장 · 존 콜리어, 「델포이의 여사제」(1891)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5. 제35장 · 라파엘로, 「파르나소스」(1511)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6. 제36장 · 「사로잡힌 일각수」(일각수 태피스트리, 1495~1505년경)
위키미디어 공용 · CC0
37. 제37장 · 라자 라비 바르마, 「사라스바티」(1894)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8. 제38장 · 페테르 니콜라이 아르보, 「발키리」(1869)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39. 제39장 · 모르텐 에스킬 빙에, 「거인들과 싸우는 토르」(1872)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40. 제40장 · 크리스토페르 빌헬름 에케르스베르, 「발두르의 죽음」(1817)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41. 제41장 · 앙리폴 모트, 「달의 여섯째 날 겨우살이를 베는 드루이드」(1900)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